

송파문학

2025
제31호

사진 : 한서정 작가



[특집] 정기세미나 : 소설과 수필의 차이점 비교 고찰(考察) 김호운

[제2회 송파문학상 심사평] 김호운·유성호

[제2회 송파문학상 수상소감] 이원우·최균희

[시]

가철노 강영희 강태국 길기장 김다호 김도이 김민정 김사라 김양수
 김은남 김진돈 김철홍 김현신 김형식 문경재 민숙영 민 향 박선정
 박호은 방정숙 배종선 백재현 서명남 서영순 서주문 서철수 송수복
 신경삼 신종식 신호현 안서경 안정선 양순복 엄옥순 이명림 이상진
 이신경 이영숙 이원우 이은수 이을기 이한재 이효성 임영화 전세중
 전 정 전한태 정명숙 정문수 정옥화 조기업 조은재 지소하 차효범
 최돈애 최병룡 최성준 하갑문 한창옥



[수필]

강신영 김중화 김충환 남준길 민은례 박종섭 서주린

[소설]

김 경 김성달 민금애 서기향 손경형 양창국 엄현주 이예원 조경진 최균희

[제17회 한성백제백일장 수상작]

일반부 대상 전진희, 금상 박서윤, 은상 권수민, 동상 김선영

학생부 대상 안유찬, 금상 전유선, 은상 정예은·박세건, 동상 장하은·박준우



제2회 시산연농문학상 저서 공모



▲ 좌로부터 고응남, 전세중, 노은희

「시산문학작가회」는 출판물상인 제2회 시산연농문학상 저서를 공모합니다.

- * 응모기간: 2025년 9월 8일~2026년 1월 6일
- * 응모부문: 시, 시조, 수필, 소설 등
(2023년 이후 출간 저서, 타문학상 수상작은 제외)
- * 응모방법: 개인 저서 2권
- * 보낼 곳: 서울시 송파구 문정로83 문정래미안아파트
102동 102호 운영위원장
- * 발표: 2026년 4월 5일(개별통보)
- * 문의: 전세중(호 연농) 010-2003-6021
- * 시상: 상패 및 상금, 2명 선정, 2026년 7월 중 시상

제1회 수상자 : 노은희(장편소설), 고응남(수필집)



정옥화 시집 | 심상시선 펴냄

별이 내려와 앉은 자리

정옥화의 시에는 하나의 마음이 있다. 이 마음은 그가 살아오면서 마음에 품었던 따뜻하고 아름답고 정든 고향과 같은 삶의 온전한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물론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품고 있는 전망의 사물이겠지만 그는 이 마을을 시로 담아 그려냄으로써 온전한 그의 지표와 전망이 아름다운 생명 존재의 탐색에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의 시는 단순하고 명확하면서도 밝고 맑은 소재적 특징을 통해 서정의 교감을 마치 하나하나 조각보를 만들듯이 엮어내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제 정 시인의 첫 시집이 완성되었기에 또 다른 발전의 시를 기대하면서 순수한 서정의 진실된 감동을 보다 더 심화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시단에 이런 시편도 꼭 존재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가져본다.

— 박동규 서울대 명예교수



정옥화

- 심상문학지 신인상
- 전 중등교사
- 시집: 별이 내려와 앉은 자리, 님 이오시는날에

2025 제31회

송파문학

<https://cafe.daum.net/songpaper/>

송파문인협회 정기총회(2025년 2월 27일)



▲ 제18대 송파문인협회 전세중 회장 당선 소감



▲ 전세중 회장, 김진돈 위원장, 이원우 전 회장



▲ 김진돈 선관위원장 전세중 회장



▲ (좌) 정명숙 감사, (우) 서영숙 감사, 김진돈 위원장



▲ 송파문인협회 정기총회(2025년)



▲ 송파문인협회 회장 및 선거관리위원

송파문인협회 회장 이·취임식(2025년 4월 22일)



▲ 취임회장 전세중, 이임회장 이원우



▲ 이원우 회장 이임사



▲ 전세중 회장 취임사



▲ 남인순 국회의원 축사



▲ 김현신 송파문화원장 축사



▲ 송파문인협회 회장 이·취임식(취임회장 전세중 · 이임회장 이원우, 2025년 4월 22일)



▲ 김현신 고문, 전 정 구의원 감사패



▲ 송파구청장 표창(김사라)



▲ 송파구청장 표창(이명림)



▲ 명예회장 이원우



▲ 사무국장 박호은



▲ 사무처장 신호현



▲ 재무차장 서영순



▲ 부회장 정문수



▲ 전 사무국장 전 정



▲ 송파문인협회 공로패(박호은)



▲ 송파문인협회 공로패(서영순)




▲ 송파문인협회 공로패(신호현)

송파문인협회 선춘호수 서호 시화전(2025년 3월 25일~4월 14일)



▲ 송파문인협회 선춘호수 서호 시화전(서강석 송파구청장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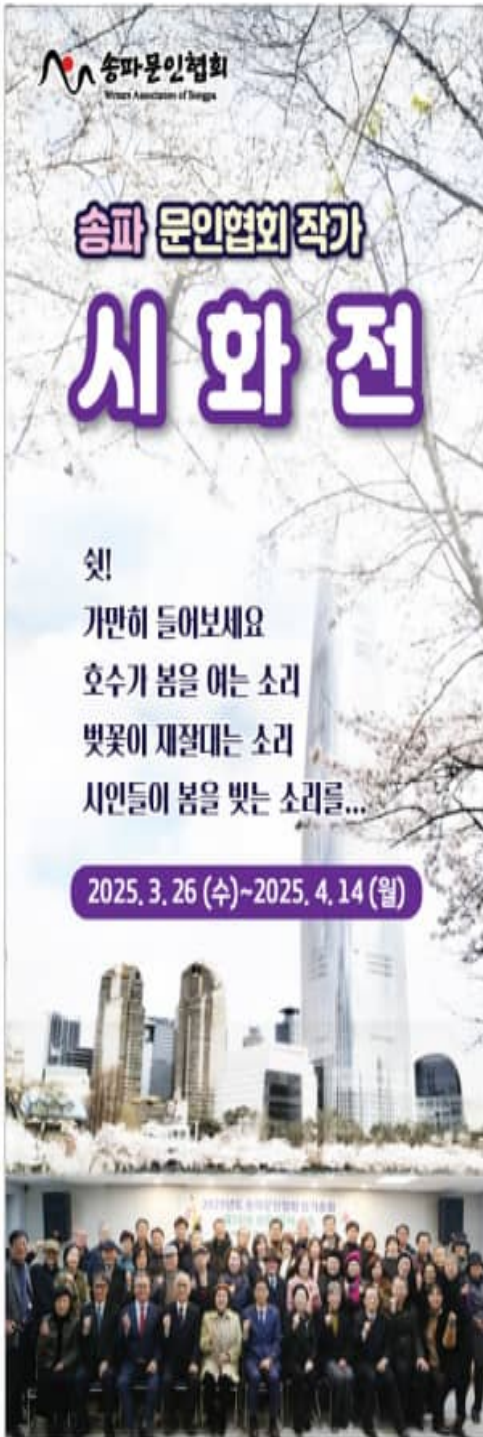



송파문인협회
 Writers Association of Songpa

송파 문인협회작가
시화전

췌!
 가만히 들어보세요
 호수가 봄을 여는 소리
 벚꽃이 재질대는 소리
 시인들이 봄을 빛는 소리를...

2025. 3. 26 (수)~2025. 4. 14 (월)




송파문인협회 동구릉 문학탐방(2025년 6월 14일)



송파문인협회 영월 문학기행(2025년 9월 12일)



▲ 영월 난고 김삿갓 묘소 참배



▲ 영월 도착 기념 촬영



▲ 영월 난고 김삿갓 박물관



▲ 영월 관풍헌(2025년 9월 12일)



▲ 영월 단종역사관(2025년 9월 12일)



▲ 영월 청령포(2025년 9월 12일)

제25회 한성백제문화제(2025년 9월 26~28일)



▲ 제25회 한성백제문화제 서강석 송파구청장 방문



▲ 제25회 한성백제문화제 남인순 국회의원 방문



▲ 제25회 한성백제문화제 송파문인협회 부스활동



▲ 제25회 한성백제문화제(송파문인협회 저자사인회)



▲ 제25회 한성백제문화제(송파문인협회 저자사인회)



▲ 제25회 한성백제문화제(송파문인협회 부스활동)



▲ 제25회 한성백제문화제
(송파문인협회 부스활동)



▲ 제25회 한성백제문화제(송파문인협회 부스활동)



▲ 제25회 한성백제문화제
(송파문인협회 부스활동)

『송파문인협회』

“맛과 예술과 낭만의
송파문인협회”

우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의강석 송파구청장. 2021. 9.27.

▲ 제25회 한성백제문화제(서강석 구청장 님 방명록 서명)

2024년 제1회 송파문학상 시상식(2024년 11월 9일)



▲ 제1회 송파문학상 수상자 (왼쪽부터 안서경(시), 이원우(회장), 민금애(소설))



▲ 제1회 송파문학상(2024년 11월 9일) 송파구민회관

신간 소개



최균희 소설집 | 신아출판사 펴냄

라인강의 푸른 날개

최균희의 소설은 형식과 내용이 매우 다양하다. 또한 소설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섬세하면서도 박진감 넘치는 서사이다. 이번 소설집은 역사소설, 서간체소설, 심리소설, 사물화소설, 추리소설, 옴니버스소설 등 각기 다른 표현 기법을 동원하였다.

표제작인 「라인강의 푸른 날개」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담긴 파독 여성의 고달픈 삶과 사랑 이야기를 사실적이면서도 환상적인 세계로 이끌어간다. 「K병원 8동」은 간결한 문체와 조직적인 서사가 뛰어나며, 「폭염 특보」는 절묘한 심리묘사로 매우 높은 가독성을 지니고 있다. 어느 작품 하나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수작이다. 동화의 씨줄과 소설의 날줄로 새긴 최균희 소설은 심도 있는 작가의 품격과 고양된 문학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작가 소개



최균희

(등단)

- 1971년 한국기독교아동문학 동화(빨간털구두) 당선
- 197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화(아기 참새) 당선
- 1992년 현대문학 3월호 수필(목화삼 이불) 등단

(저서)

- 창작동화집 『아기 참새』, 『팽과리 소년』, 『나비를 달아 줄게』, 『내 이름은 비비』 등 30권
- 글쓰기지도서 『재미난 이야기글쓰기』, 동시집 『아이와 달맞이꽃』
- 한영동화집 『Baby Sparrow』, 가사동화집 『도미노와 칭찬바이러스』, 장편 소설 『평양기생학교 스캔들』, 단편소설집 『라인강의 푸른 날개』 외

(수상)

- 한국문학예술상, 독서문화상, PEN문학상, 한국아동문학창작상, 개나리동요 대상, 홍조근정훈장 등

(현재)

- (사)한국여성문학인회 이사장, (사)국제PEN한국본부 부이사장,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자문위원, 계간 문예작가회 자문위원, 한국문인협회 문인극기획위원 외

(역임)

- (사)어린이문화진흥회 이사장, 송파문인협회 회장, 동요사랑나눔회 봉사단장
- 서울 언남중학교 교장, 추계예술학교 문예창작과 외래교수, 물오름극단 연극 배우 외



남춘길 에세이 | 그린아이 펴냄

행복

남춘길 수필가의 수필집 『숨겨진 행복』은 삶의 깊이와 의미를 탐구하는 수필집으로, 독자에게 감동과 성찰을 안겨주는데 곧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작은 행복을 발견하고, 가족과의 소중한 관계를 되새기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남춘길의 글들은 따뜻하고 희망적이며, 독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힘이 강하다. 이러한 점에서 『숨겨진 행복』은 단순한 수필집을 넘어, 삶의 소중한 작은 행복들을 찾아서 삶의 지혜와 감동을 전하는 소중한 작품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 최원현의 『작품 평설』 중에서



남춘길

- 문학나무 수필등단, 한국크리스천, 문학가 협회 시등단 크리스천문학가협회 부회장 및 운영이사장, 문인협회, 수필가협회, 송파문인협회 회원, 크리스천문학 숲 운영이사, 범허문학상, 별가람문학상 수상
- 수필집 『어머니 그림자』
- 시집 『그리움너머에는』, 『노을빛으로기우는』, 『그림자』



이영숙 지음 | 푸른사상 펴냄

야만의 시대

이영숙 평론집 『야만의 시대』는 고도로 문명화되었기 때문에 야만에 빠져 버린 이 시대에 문학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평론들로 이루어져 있다. 저자는 텍스트의 내밀한 언어를 파악하는 동시에 그것을 바깥의 대상들과 연결시켜 주는 게 평론의 본분 중 하나라고 말한다.

제1부에서는 공간의 구조화된 방위를 사용하는 방식이 시적으로 달리 구현되는 지점 등을 통해 '시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2부에는 이 책의 중심 주제로서 '야만'에 근접한 글들이 실렸다. 제3부에는 문학이 미추를 길어 올릴 때 현실은 도덕을 외재화하며, 문학이 세속에서 신화의 시간대를 지향할 때 현실은 신화를 세속의 시간대로 끌어내리는 현상 등을 다룬다. 평론가는 자신이 느끼는 시의 에너지를 독자들에게 공명시킨다. 태생적으로 야만이 되기 쉬운 구조를 가진 문명이 야만과 동의어라면, 역설적으로 야만의 시대는 다시 조화로운 문명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문학이 그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영숙

- 강원도 철원에서 출생
- 서울예술대를 거쳐 중앙대 대학원 문예창작학과에서 박사학위
- 1991년 『문학예술』로 시, 2017년 『시와 세계』로 평론을 발표하며 등단
- 시집 : 『시와 호박씨』 『히스테리 미스터리』



문화의 꽃 미래로 피다

송파문화원

송파문화원은 1994년 개원 이래 송파문화의 산실이자
 구심점으로서 송파의 많은 향토문화자원을 발굴하여 보급하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각종 문화사업 및
 송파문화학교(교양강좌)를 운영하는 등 전통문화의 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 향토사료집 발간
- 송파문화 발간
- 한성백제문화제
- 송파문화예술축제
- 서울시 문화원엑스포
- 평생학습협력 특성화사업
- 인문학 특강
- 비디오자료 디지털변환
- 송파문화학교
- 송파문화봉사단
- 어르신 국어문화 프로그램
- 궁궐의 중심, 서울
- 한양도성 한 바퀴 문화답사
- 전문해설사와 함께하는 역사문화탐방
- 찾아가는 지역문화유산교육

차례

권두언

- 문학은 인생을 닮고, 인생은 문학으로 남는다 | 전세중(송파문인협회 회장) _ 24

축사

- 『송파문학』 제31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 서강석(송파구청장) _ 26
- 문학의 울림이 인간 존중으로 향하는 『송파문학』 | 김호운(한국문인협회 이사장) _ 28
- 『송파문학』 제31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 남인순(송파병 국회의원) _ 30
- 『송파문학』 제31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 배현진(송파을 국회의원) _ 32
- 『송파문학』 제31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 박정훈(송파갑 국회의원) _ 34
- 『송파문학』 제31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 이해숙(송파구의회의장) _ 36
- 문화예술의 도시 송파를 꽃피우는 '문학의 꽃' | 김현신(송파문화원장) _ 38
- 제2회 송파문학상 심사평 | 김호운·유성호 _ 42
- 제2회 송파문학상 수상소감 | 이원우·최균희 _ 44

특집 : 정기 세미나

- 소설과 수필의 차이점 비교 고찰(考察)
김호운(소설가, 수필가,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_ 47

제1부 시

- | | |
|----------------------------|-------------------------------|
| 가철노 꽃 아름다워 _ 62 | 김도이 슬픔이 간(間)을 보았다 외 1편 _ 74 |
| 강영희 끝나지 않는 기다림 외 1편 _ 63 | 김민정 기도의 방 외 1편 _ 77 |
| 강태국 회상 외 1편 _ 66 | 김사라 사계(四季) 외 1편 _ 79 |
| 길기장 오늘도 ing 외 1편 _ 68 | 김양수 진리 외 1편 _ 81 |
| 김다호 둥글다는 것 외 1편 _ 70 | 김은남 토함산 외 1편 _ 85 |

- 김진돈 | 한 송이 꽃 외 1편 _ 87
- 김철홍 | 정오의 음악회 외 1편 _ 90
- 김현신 | 카타르시스의 구름다리
외 1편 _ 93
- 김형식 | 무아(無我)의 강 외 1편 _ 96
- 문경재 | 결혼기념일 외 1편 _ 98
- 민숙영 | 선명상 축제 외 1편 _ 100
- 민 향 | 지상의 사흘 외 1편 _ 104
- 박선정 | 오월이 가네 외 1편 _ 106
- 박호은 | 기대지 마시오 외 1편 _ 109
- 방정숙 | 사랑이란 외 1편 _ 112
- 배종선 | 사막 여행 외 1편 _ 116
- 백재현 | 일주일가방 외 1편 _ 118
- 서명남 | 인생은 곡차다 외 1편 _ 120
- 서영순 | 날마다 봄 외 1편 _ 122
- 서주문 | 빨간등대 외 1편 _ 125
- 서철수 | 저녁 바다 외 1편 _ 126
- 송수복 | 이웃은 그렇게 외 1편 _ 130
- 신경삼 | 애수의 꽃섬 외 1편 _ 132
- 신종식 | 빈틈 외 1편 _ 134
- 신호현 | 꿈속에 두고 온 여인 외 1편
_ 136
- 안서경 | 풍등風燈 외 1편 _ 138
- 안정선 | 먹이사슬 외 1편 _ 140
- 양순복 | 비 내리는 바다 외 1편 _ 142
- 엄옥순 | 가을의 환 외 1편 _ 144
- 이명림 | 젊은이여 외 1편 _ 146
- 이상진 | 목련 외 1편 _ 148
- 이신경 | 잡초 외 1편 _ 150
- 이영숙 | 어느 자주독립 외 1편 _ 152
- 이원우 | 6월, 숲이 말을 건네고 _ 155
- 이은수 | 연두(年頭)의 축복 외 1편 _ 157
- 이을기 | 말문 외 1편 _ 159
- 이한재 | 소나무 외 1편 _ 161
- 이효성 | 세방낙조 외 1편 _ 164
- 임영화 | 한여름 밤의 산책 외 1편 _ 167
- 전세중 | 양파 외 1편 _ 169
- 전정 | 흐린 우산 외 1편 _ 171
- 전한태 | 가을나무 외 1편 _ 173
- 정명숙 | 몽돌밭에서 외 1편 _ 175
- 정문수 | 해남은 대륙의 시발점 외 1편
_ 177
- 정옥화 | 기일(忌日) 외 1편 _ 179
- 조기엽 | 붉은강 외 1편 _ 181
- 조은재 | 회의 중 외 1편 _ 183
- 지소하 | 마음을 들다 외 1편 _ 185
- 차효범 | 한글 외 1편 _ 188
- 최돈애 | 가을 낙엽을 밟으며 부서지는
소리 외 1편 _ 191
- 최병룡 | 그런 고향을 보라 외 1편 _ 194
- 최성준 | 아내의 벽 외 1편 _ 198
- 하갑문 | 옥잠화 외 1편 _ 201
- 한창옥 | 서치라이트 외 1편 _ 204

제2부 수필

- 강신영 | 이제야 나를 찾았다 _ 210
김종화 | 아름다운 약속 _ 214
김충환 | 선물 _ 217
남춘길 | 말 잘 하는 사람, 말 잘 들어 주는 사람 _ 220
민은례 | 오뚝이 가족 _ 222
박종섭 | 어떤 구뚝방 주인의 일생 _ 225
서주린 | 내 마음속의 금지곡 _ 229

제3부 소설

- 김 경 | 벽 너머에 _ 234
김성달 | 겨울 신발을 산다 _ 252
민금애 | 언제나 을乙이었다 _ 264
서기향 | 직박구리 _ 282
손경형 | 이름 없는 풀 _ 298
양창국 | 기막힌 조우 _ 305
엄현주 | 썬로이 _ 316
이예원 | 하늘이 열리다 _ 333
조경진 | 언니야 기억나? _ 348
최균희 | 목마른 나무 _ 353

제4부 제17회 한성백제백일장

- 2025 제17회 한성백제백일장 당선자 명단 _ 372
- 2025 제17회 한성백제백일장 심사평(운문) _ 373
- 2025 제17회 한성백제백일장 심사평(산문) _ 376

일반부	대상 전진희 _ 배넛저고리의 언어 _ 378
	금상 박서윤 _ 관계의 언어 _ 380
	은상 권수민 _ 숨, 1961 _ 384
	동상 김선영 _ 세상을 바라보는 자리 _ 386
학생부	대상 안유찬 _ 곰팡이꽃 _ 390
	금상 전유선 _ 식탁 위 방부제 _ 393
	은상 정예은 _ 방부제 여름 _ 395
	은상 박세건 _ 꼬리 _ 397
	동상 장하은 _ 멀미 _ 400
	동상 박준우 _ 징검돌 작전 _ 404

제5부 문학기행 및 회원동정

- 영월문학기행 참여기 _ 송경형 _ 406
- 영월문학기행 삼행시 짓기 _ 409
- 석촌호수 시화전 참여기 _ 이명림 _ 416
- 동구릉 문학탐방 참여기 _ 한창옥 _ 418
- 제25회 한성백제문화제 참여기 _ 최돈애 _ 420
- 2025년 송파문인협회 조직도 _ 422
- 송파문인협회 연혁 _ 423
- 2025년 송파문인협회 회원동정 _ 425
- 새로 나온 작품집 _ 426
- 편집 후기 _ 427
- 송파문학의 빛 악보 _ 429

권두언

문학은 인생을 닮고, 인생은 문학으로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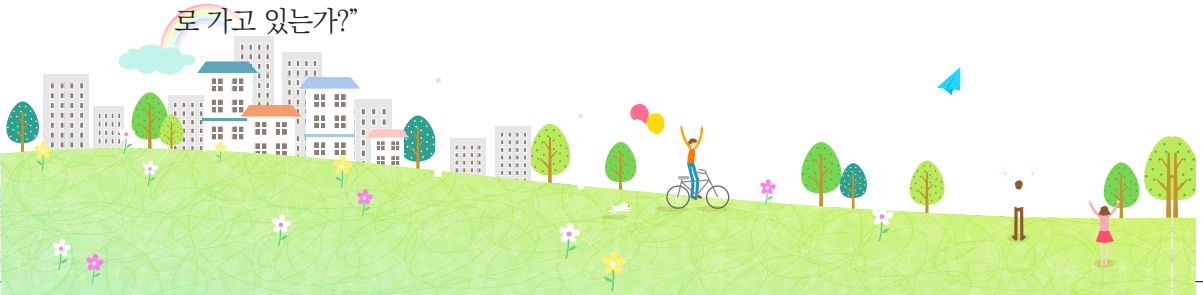
-『송파문학』 제31호를 펴내며

인생은 누구에게나 한 편의 이야기입니다.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희망과 회한, 그 모든 순간이 하나씩 쌓여 하나의 삶이 되고, 시간이 흘러 그것은 문장이 됩니다. 그리하여 문학은 결국, 인생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피어나는 예술입니다.

문학은 가치 있는 인생체험의 기록입니다. 문학은 인류의 꿈이요, 이상이며 영원한 삶의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학은 내용뿐만 아니라 표현을 위한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이라 하겠습니다. 문학은 누가 뭐래도 인간이 가진 예술 형태중에서 가장 중심에 서는 '예술의 꽃'입니다

『송파문학』 제31호는 그런 인생의 편린들을 담아 다시 한 권의 책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속에는 지나온 삶을 되짚는 회고가 있고, 지금 이 순간을 포착하는 감각이 있으며,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향한 작지만 단단한 희망이 있습니다. 삶이 아무리 고되고 복잡하더라도, 한 줄의 시, 한 편의 수필, 한 장의 소설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곤 합니다.

문학은 질문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무엇을 사랑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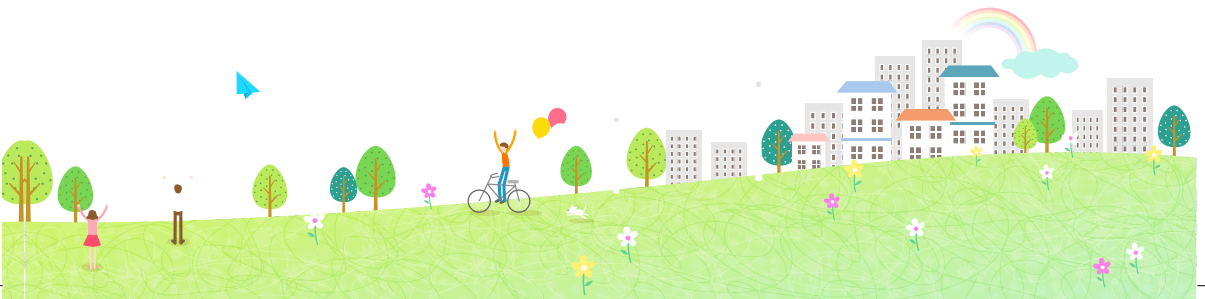
전 세 중
송파문인협회 회장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자신을 마주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하고 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학은 단지 글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이며, 혼자서는 건널 수 없는 시간을 함께 건너는 따뜻한 손입니다.

좋은 문학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느끼게 하고, 떠올리게 하며, 그 감각과 의미의 여백을 독자 안에 남깁니다. 이는 언어의 효율성을 넘어선 예술로서의 문학이 지닌 고유한 힘이며, 그 힘은 때로 철학보다 깊고, 종교보다 넓고, 과학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이번 『송파문학』 제31호에는 인생의 깊이를 성찰한 작품들이 다수 실렸습니다. 삶을 꿰뚫는 통찰과 아름다운 언어로 세상을 바라보는 문우들의 진심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글을 쓰는 이든, 읽는 이든, 모두 인생의 여정을 함께 걷는 문학의 동반자들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고운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인생을 기록해왔는지를 다시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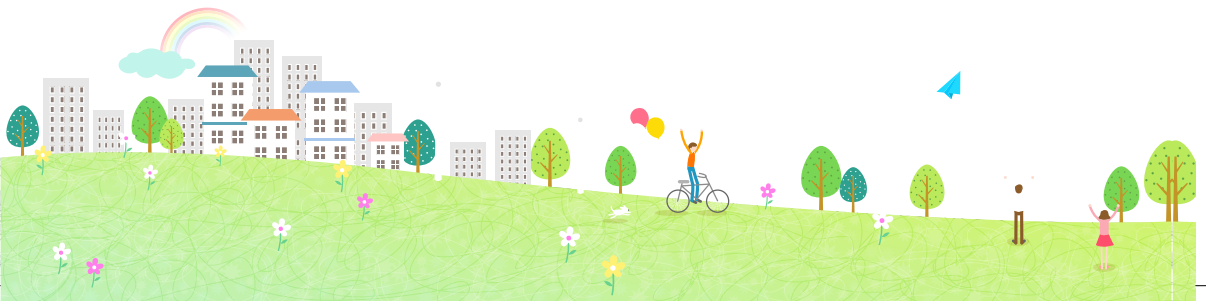
『송파문학』 제31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석 송파구청장입니다.

송파 문인협회 회원들의 1년간 활동과 창작 성과를 엮은 『송파문학』 제31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송파문학 발간 과정에서 애써주신 전세중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정을 담아 작품을 출품하신 회원님들께도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1992년 창립된 송파문인협회는 지역 문학인들의 꿈과 열정을 키우는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주민들이 문학을 보다 가까이에서 접하고 함께 향유 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주신 노력은 송파의 문학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큰 기여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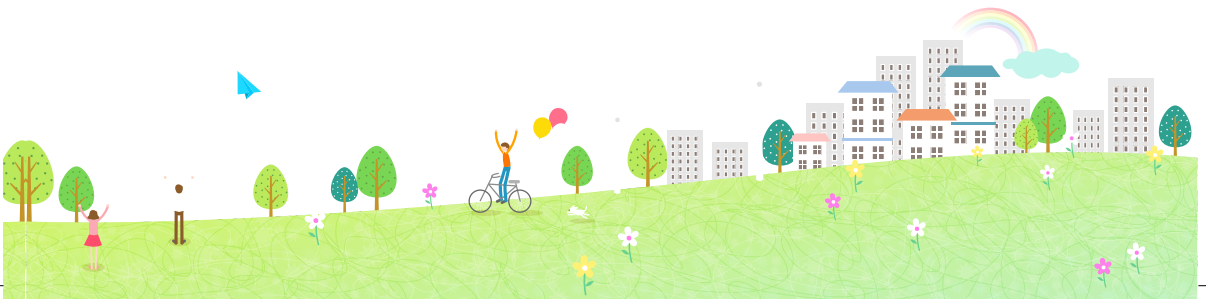
서강석
송파구청장

송파문학은 송파의 정체성과 정신을 담아내는 문예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문화의 뿌리를 지키는 문학의 장으로 더욱 성장하길 바랍니다.

송파구는 앞으로도 주민 누구나 예술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송파문학』 제31호 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참여하신 회원님 모두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문학의 울림이 인간 존중으로 향하는 『송파문학』

2025년 을사년은 상서로운 ‘푸른 뱀의 해’라고 합니다. 올 한 해 송파문인 협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문운이 크게 빛나길 기원합니다.

『송파문학』 제31호 출간을 축하합니다. 『송파문학』이 제31호까지 이룩하기까지는 전세중 회장님을 비롯하여 임원들과 회원 여러분의 열정에 빛나는 성과라고 봅니다.

마침내 우리나라에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가 탄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강 소설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일은 작가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격이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큰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나 국민 모두 문학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한 중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작가 한 사람의 창작 활동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한국문학을 빛내주신 문인들의 훌륭한 활동 또한 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협회 회원이신 한 분, 한 분 문인들의 헌신이 모여서 우리 협회에서도 문학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고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문학은 사람과 자연을 탐구하는 인문학이자 예술입니다. 문인들이 창작한





김 호 운
(사)한국문인협회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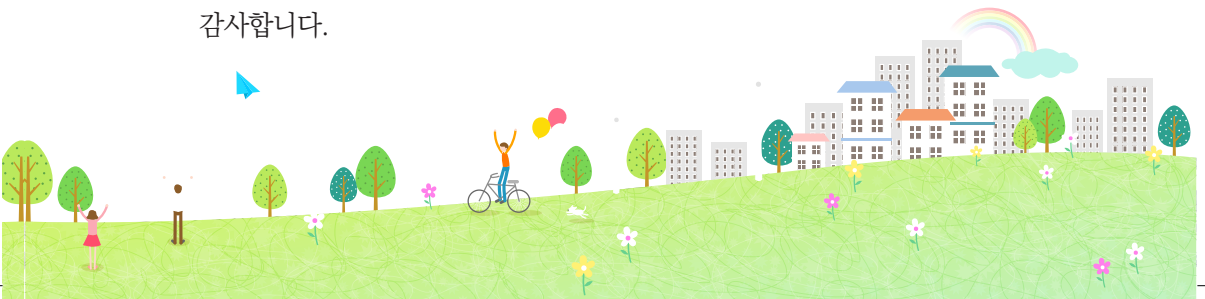
훌륭한 작품은 독자에게 전달되어 생활 속에 녹여져야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현시대에 AI 기술이 인간의 창작물에 기대어 무단 도용한 것들을 새로운 창작물로 인식하게 합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고 하나 여기에 창작자들의 권리와 상생의 협력 체계를 하루빨리 체계화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기본법에 저작권법 준수 의무를 다하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래에 인간과 인공지능이 함께 문학의 숲을 일구어갈 때 문화예술의 가치는 한층 더 빛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중심에 『송파문학』이 우뚝 서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문학을 존중하고 문인을 존경하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인식 변화 운동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고자 하는 『송파문학』에 기대가 큼니다. 우리 문인들끼리 먼저 문학을 존중하고 문인을 존경한다면 우리 사회의 인식도 바뀌게 될 겁니다. 그 구심점에 『송파문학』이 훌륭한 역할을 해주시리라 보고 있습니다.

『송파문학』 제31호 출간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송파문학』 제31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가을의 결이 더욱 깊어지는 이 계절, 마음의 창을 열면 문득 한 줄의 시처럼 스며드는 바람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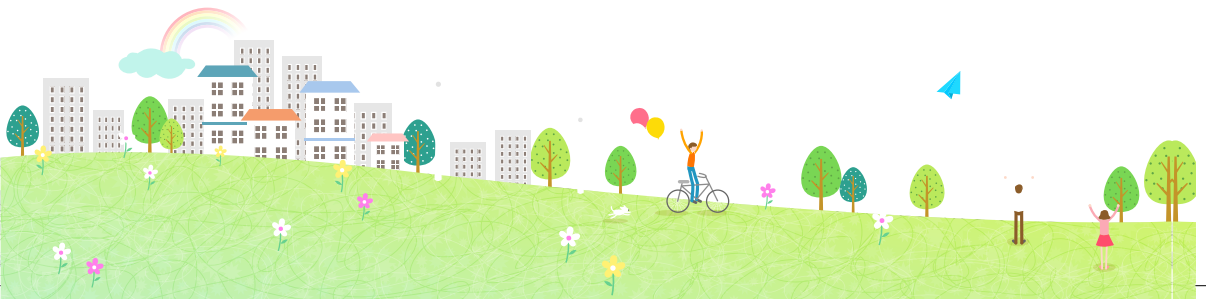
그 바람 속에서 오늘도 펜을 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기록하는 송파문인협회 여러분을 떠올립니다.

『송파문학』 제31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송파문인협회의 전세중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서 문학을 통해 우리 지역의 정서와 삶의 결을 따뜻하게 담아내며, 문화예술의 향기를 오롯이 피워 오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학은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깊은 예술이며, 시대의 거울이자 희망의 언어입니다.

특히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일수록, 문학의 언어가 지닌 인간적인 온기와 사유의 깊이는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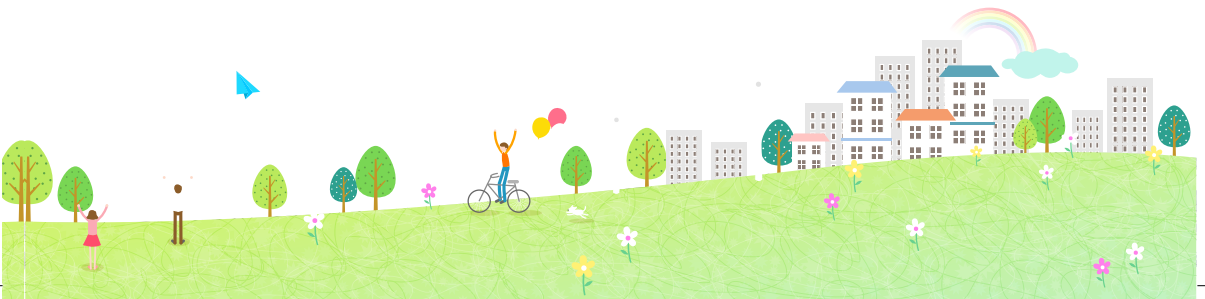


남인순
송파병 국회의원

30년의 전통 위에 새롭게 써 내려가는 31번째 『송파문학』이 지역의 문화적 자긍심을 더욱 높이고, 문학이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가을 햇살처럼 따스한 영감과 풍요로운 창작의 결실이
회원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송파문학』 제31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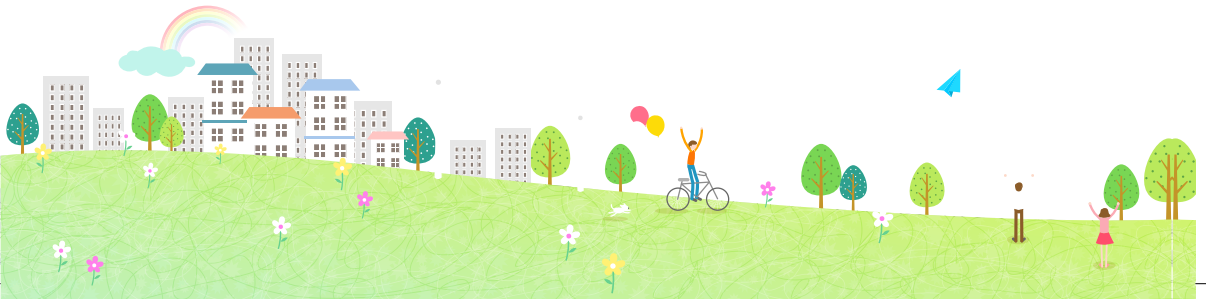
사랑하는 송파문인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의 일꾼, 국회의원 배현진입니다.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도시 송파의 아름다움을 담은 문학의 결정체, 『송파문학』 제31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학은 삶의 다양한 순간을 포착하고, 그 안에서 진실과 감동을 전하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송파문학』은 창작의 귀한 장이자, 지역 주민들과의 정서적 소통을 이끄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극적이고 소모적인 소재가 주목받는 현대 사회 속에서, 송파의 정체성과 따뜻한 감성을 담아낸 『송파문학』은 회색빛 도시를 다채롭게 물들이며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지역에서 문학의 불씨를 지켜주고 계신 송파문인협회 전세중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송파는 더욱 풍요롭고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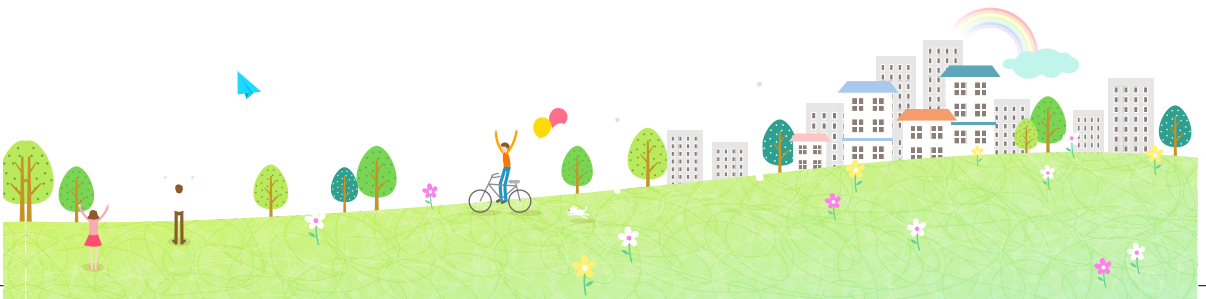


배현진
송파을 국회의원

앞으로도 송파문인협회가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에서 더욱 빛나기를 기원하며, 저 배현진 또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송파 문학의 발전을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파문학』 제31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모든 회원님의 건강과 건필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축사

『송파문학』 제31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송파문인협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파갑 국회의원 박정훈입니다.

먼저, 『송파문학』 제31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지역의 이야기를 글로 기록하고, 삶의 숨결과 정서를 담아
오신 송파문인협회 모든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문학은 단순히 글을 쓰고 읽는 일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시대의
빛과 그늘을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창(窓)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파문학』에 실린 한 편 한 편의 시와 수필, 소설과 평론이 우리 송파
구민의 일상에 따뜻한 위로가 되고, 또 새로운 시선과 감동을 전해 주리라 믿
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문학의 가치를 지켜내고자
애써주시는 송파문인협회 전세중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문인분의 땀과 열정
이야말로 송파의 소중한 문화 자산이자 큰 자랑입니다.





박정훈
송파갑 국회의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회장님과 문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송파문학』이 송파의 정신을 담아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지역과 세대를 잇는 따뜻한 다리가 되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저 또한 송파가 문화와 예술로 더욱 빛나는 도시가 되도록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파문학』 제31호의 발간을 축하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문학을 사랑하는 모든 분께 뜻깊은 시간이 되고, 그 열정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오래 남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송파문학』 제31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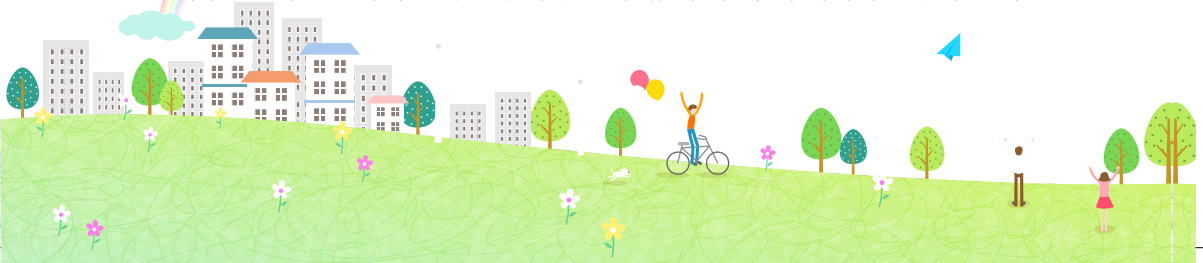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회 의장 이해숙입니다.

송파문인협회 회원들의 심혈을 담은 『송파문학』 제31호 발간을 65만 송파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송파문인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전세중 회장님과 『송파문학』 제31호를 알차게 채워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파문인협회는 1992년 창립된 이래 매년 시화전, 시낭송회, 저자사인회, 전국공모 한성백제백일장, 송파문학 발간, 정기세미나, 문학기행, 문학나눔콘서트 등의 행사를 진행하여 송파구 문학 발전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러한 송파문인협회 활동의 정수는 매년 발간되는 ‘송파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 발전하는 회원들의 문학적 성과가 ‘송파문학’ 속에 박제되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송파문인협회의 다양한 창작활동은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송파구민들이 친근하게 문학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전통과 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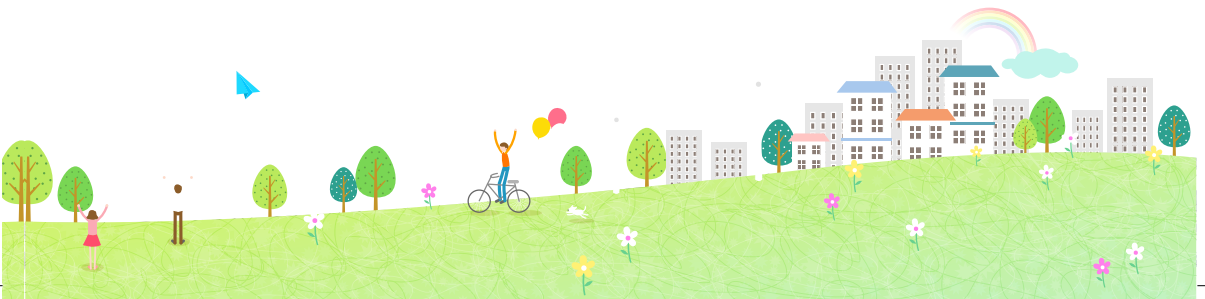




이혜숙
송파구의회의장

가 어우러진 문화예술도시 송파에 문학적 감흥을 더하여 송파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묵묵히 회원들을 위하여 좋은 행사를 마련하고 작품을 기록으로 남겨주시는 송파문인협회 덕분에 송파구민의 인문학적 소양이 날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파구의회는 송파문인협회 회원 여러분의 활동을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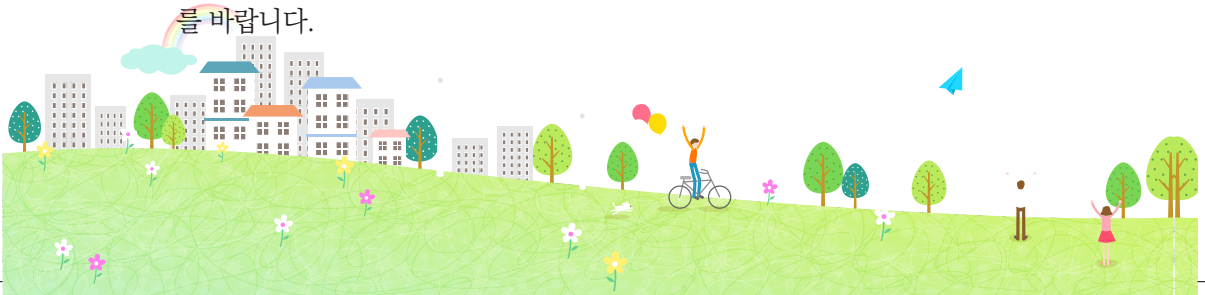
문화예술의 도시 송파를 꽃피우는 '문학의 꽃'

- 『송파문학』 제31호 출간을 축하하며

푸른 소나무 언덕 송파에서 문학의 꽃을 피우며 『송파문학』 31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조적 정신으로 문학인의 길을 걷고 계신 전세중 회장님을 비롯한 송파문인협회 회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회원님들의 1년간의 활동과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모아 발간되는 『송파문학』 31호는 송파구민의 문학 저변 확대는 물론, 문화예술의 도시 송파를 꽃피우는 소중한 결실입니다. 석촌호수를 아름다운 시로 물들이던 시화전을 비롯한 각종 행사를 통해 문학의 대중화에 힘쓰신 문인협회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결실이 실린 이번 문학지가 송파 문학 발전의 지속성을 유지하며 영원히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푸른 소나무 언덕처럼 늘 곧고 푸른 자세로 문학을 논하며 작품을 집필하시는 회원님들의 시, 소설, 수필, 시조, 동시, 동화, 평론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실린 『송파문학』 제31호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울림과 공감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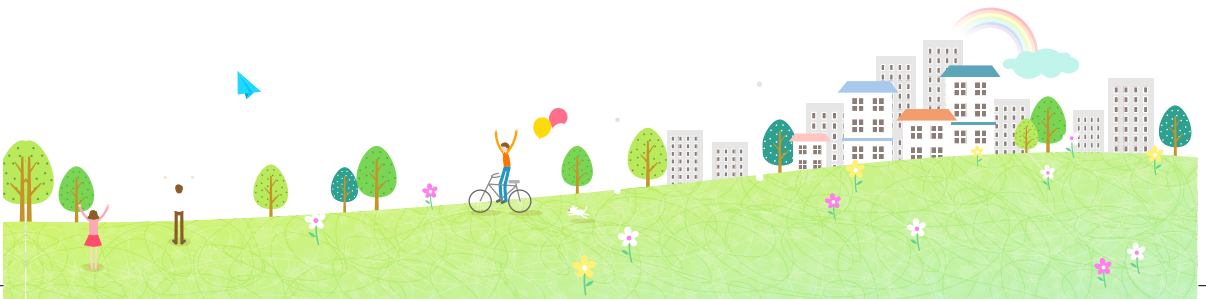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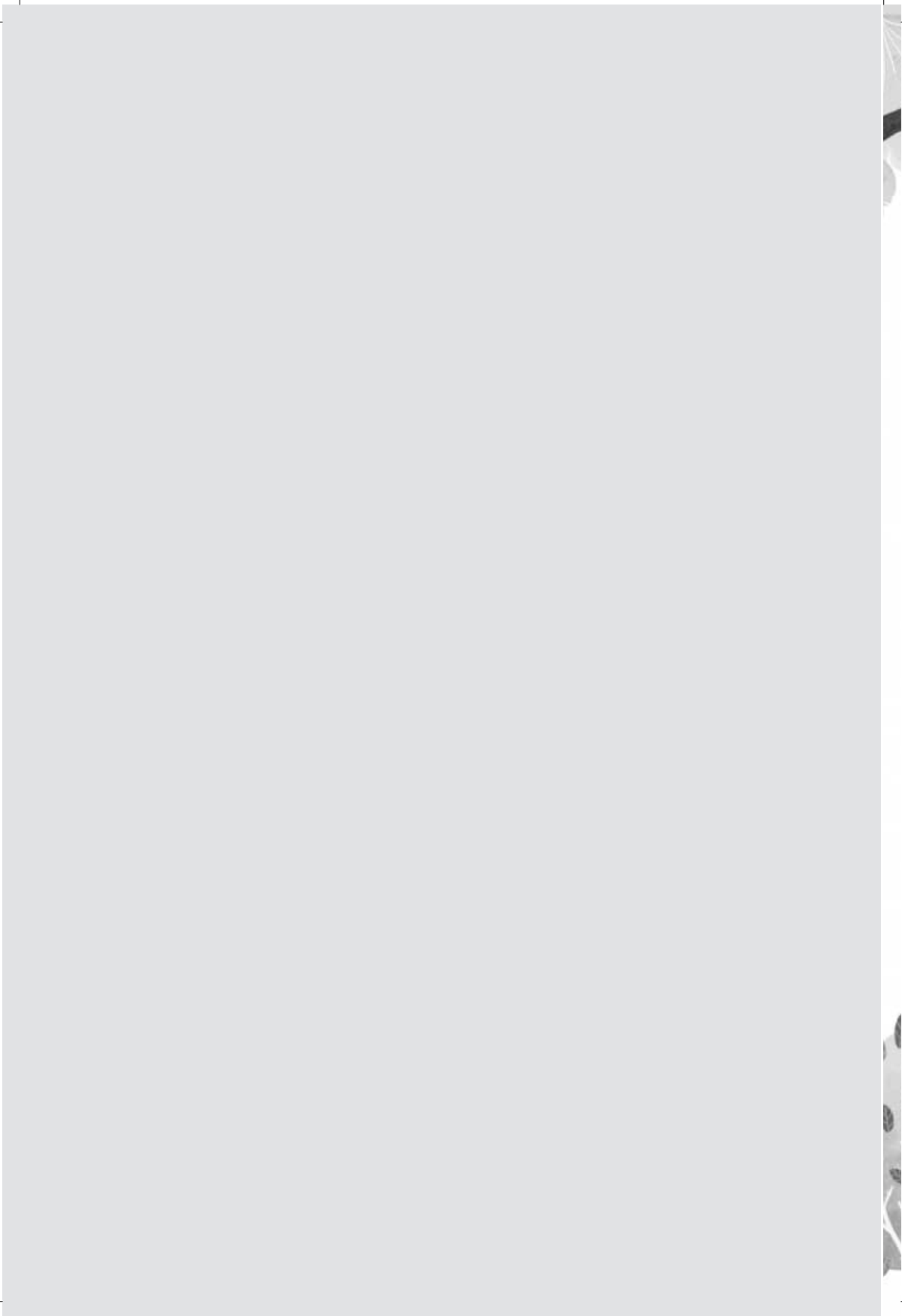
김 현 신
송파문화원장

문학의 길은 아름다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폐허의 길도, 사막의 길도 있지만 그 어려운 고뇌의 길을 깨끗하게 이겨내며 문학에 대한 정열 하나로 고뇌를 참고 이겨내며 왕성한 작품 활동을 지속하시는 송파문인협회 회원님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문학정신을 봅니다.

아름다운 송파에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빛나는 문학의 향기가 송파문인협회 회원님들과 함께 영원히 지속되길 기원하며, 송파문인협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응원합니다. 다시 한 번 『송파문학』 31호의 발간을 축하드리며, 발간을 위해 애쓰신 전세중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 송파문학상


심 사 평 | 김호운·유성호
수상소감 | 이원우
최균희



제2회 송파문학상 심사평

한 시대의 경향을 규율하던 주류 미학은 이제 자취를 감춘 듯하다. 다만 우리 시대의 문학은 자연으로의 침잠, 기억의 현상학, 일상적 문양의 재현 등으로 부단히 채워져가고 있다. 자연스럽게 주제나 방법에서 개별적 발화의 다양성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개별 작품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기가 어렵다. 심사위원은 작품들의 완결성이랄까 정신의 치열성이랄까 하는 것들에 관심을 두게 되었는데, 물론 이러한 포괄적 기준이 작품 읽기를 더 강렬하게 해주었다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심사위원은 난해성의 회로에 가둬으로써 미학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작품이나 개별성보다는 담론적 선재성이 두드러지는 작품보다는, 경험적 실감과 구체성을 심화하는 작품에 호의를 가지게 되었다. 이번 2025년 송파문학상 본심에 올라온 작품들 가운데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가편들이 있었다. 견고한 문장과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계승해온 그분들 작품을 읽어가는 것은 심사위원으로서도 행복한 경험이었다. 우리말의 조탁이 뛰어난 작품들이 송파문학상의 위상을 새삼 확인시켜주었다고 할 수 있다.

운문 부문 후보작 가운데 심사위원은 이원우 시집 「내 안에 피는 꽃」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이 시집은 섬세한 관찰을 통해 한 존재자의 삶의 의지와 그 잔광(殘光)을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시인은 일상의 흐름을 통해 낱날 순간과 장면을 재현하면서 스스로의 존재증명을 수행하고 있다. 스스로 길이 되어 돌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그의 또 다른 생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삶의 무게를 견뎌온 만만치 않은 이력을 통해 삶을 성찰한 무게 있는 시집이었다. 존재의 사라져감과 그 깊고 아득한 느낌을 잘 전달하고 있었다. 그리움을 토로한 시편들이 특별히 살갑게 다가왔는데, 모두 기억과 풍경이 아스라하게 결속한 작품들이었다.




산문 부문 가운데서는 최균희의 소설집 「라인강의 푸른 날개」를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이 작품집은 구체적인 경험과 기억을 통해 서사적 사건과 인물과 그 의미를 재현하고 있었다. 수록작들의 내용과 형식이 매우 다채롭고, 표제작이 담고 있는 한국 근대사의 장면이 감동적으로 다가왔다. 더욱이 문장이 안정되어 있고 주제가 확연하게 다가와서, 외적 현실과 내적 사랑이 만나는 점점의 실감이 작품들을 하나의 '입을 만한 서사'로 만들기에 족했다고 할 수 있다. 작가의 치밀한 관찰력과 우리말 역량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깔끔한 문장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수상작으로 뽑기에 별 주저함을 주지 않았다.

구체성 있는 언어와 개성적 표현을 통해 자신만의 문학적 성채를 구축한 작품들이 이번 송파문학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장의 안정성과 사유의 가능성에서 큰 점수를 받았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모두의 빛나는 정진을 당부 드린다.

심사위원 : 김호운(소설가,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유성호(문학평론가, 한양대 교수)



제2회 송파문학상 수상 소감

이원우

- (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송파지회장
- 전) (사)한국문인협회 송파지부회장



처음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누군가의 공감을 얻기보다는 제 안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문학은 개인의 기록을 넘어 타인과 연결되고, 세상과 소통하며, 또 다른 삶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상은 저 혼자만의 성취가 아니라, 제 글을 읽어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준 많은 분들과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 생각합니다.

특히 제 곁에서 늘 묵묵히 응원해 준 가족과 친구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믿음과 기다림이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고 글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문학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선배 작가님들, 그리고 문학을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이 있기에 저는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계속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이번 수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배우고 있는 사람이며, 제 언어와 문장이 아직은 미숙합니다. 하지만 이 상을 계기로 더욱 성실히 글을 쓰고, 시대와 인간의 본질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며, 문학이 줄 수 있는 위로와 울림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글을 통해 누군가의 하루가 잠시 멈추어 서고, 그 속에서 작은 위로나 사유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독자와 함께 호흡하는 문학, 진실을 향한 문학을 써 내려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귀한 상을 제게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글을 쓰는 길을 계속 걸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 송파문학상 수상 소감

최균희

- 197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화 당선
- 창작동화집 『아기 참새』 외 30권



청명한 날씨가 기분을 상쾌하게 합니다. 가을이 오나 봅니다.
아침 일찍 송파 들레길을 산책하고 돌아오다가 수상 소식을 들었습니다.
반갑기보다는 오히려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한편 서독 간호사로 파견되어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외화벌이로 애국심을 발휘한 이야기를 나에게 글감으로 제공해 준 여고 동창생, 현재도 나와 같이 올림픽웰리아파트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 거듭 고맙다는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70년도에 교단에 발을 들여놓은 저는 다음 해에 바로 중앙문단에 등단했기에 평생을 '교육과 문학. 두 수레바퀴를 굴리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송파문인협회 창립 멤버로 시작하여 송파에 대한 애착과 사랑을 누구보다도 과시하며, 금지와 자부심으로 지낸 지도 벌써 30년 세월이 흘렀군요.

송파에서도 오금중, 세륜중, 방산중학교 등 국어교사로 근무하며 제자를 길러냈고, 종로의 청운중학교 교감과 강남의 언남중학교 교장직을 마치고 정년 퇴임을 하자마자, 고 유금호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권유로 송파문협 회장직을 맡아 4년간 봉사했습니다.

한성백제 백일장 및 문학기행, 구민 시낭송대회 등을 시행했고, 그 당시 송파구청에서 사단법인이 아닌 단체에는 구청 지원금이 없어진다는 소식에 서둘러서 한국문인협회 송파지회로 등재한 것이 잘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거르지 않고 퍼내는 우리 협회 기관지『송파문학』을 받아보며 흐뭇해하는 주민들, 석촌호숫가에서 사라져가는 동요를 부르고, 시화전을 펼치며 함께 했던 그리운 얼굴들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다가옵니다.

그동안 '송파문학상' 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이 많았지만, 지난해서야

이원우 회장님의 노력으로 만들어졌기에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상을 받기보다는 후배 문인들이 받아야 마땅함을 전세중 회장님에게 몇 차례 언급했는데, 명맥을 이어간다는 이유로 굳이 주신다니 황송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혹시 상금이 있다면 전액 후원금으로 내놓겠습니다. 심사를 맡아주신 김호은 이사장님과 유성호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앞으로 송파문협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들의 주옥같은 작품들이 큰 빛을 발휘하길 바라며,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 최균희 약력

< 출생 및 학력 >

- * 1949년 3월 전북 부안에서 태어남
- * 군산교육대학, 국민대학교, 한성대학교 국문과 졸업
- *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석사(상담심리 전공)
- *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박사과정 수료(소설 전공)

< 등단 >

- * 1971년 한국기독교아동문학 동화(빨간 털구두) 당선
- * 1974년 한국아동문학가협회 제1회 신인상 동화(안개) 수상
- * 197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화(아기 참새) 당선
- * 1992년 현대문학 3월호 수필(목화솜 이불) 등단

< 저서 >

- * 창작동화집 『아기 참새』, 『나비를 달아 줄게』, 『내 이름은 비비』 외 30권
- * 동시집 『아이와 달맞이꽃』, 글쓰기 지도서 『재미난 이야기글 쓰기』
- * 한영동화집 『Baby Sparrow』, 가사동화집 『도미노와 칭찬바이러스』
- * 장편소설 『평양기생학교 스캔들』, 단편소설집 『라인강의 푸른 날개』 외
- * 최균희 노랫말 동요곡집 『어린이의 눈으로』
- * 청소년 장편소설 시리즈 『꿈이 영그는 교정』 전3권
- * 교육생애서 『교육과 문학, 두 수레바퀴를 굴리며』
- * 가곡 ‘허수아비와 소년’, ‘들꽃 향기’, ‘황혼’, ‘사랑의 이름으로’ 등 발표

< 수상 >

- * 한국문화예술상, 한국아동문학창작상, 개나리동요대상, 국제펜 한국본부 PEN 문학상, 상상담구작가상, 김영일아동문학상, 어린이날 본상, 홍조근정훈장 등

< 역임 >

- * (사)어린이문화진흥회 이사장, 송파문인협회 회장, 서울 언남중학교 교장, 추계예술대학교 외래교수, 한국독서교육연구회 회장, 물오름극단 배우, 서울시교육청 동요사랑나눔 봉사단 단장, 송파새마을문고 회장, 송파인문학포럼원우회 1기 회장

< 현재 >

- * (사)한국여성문학인회 이사장, (사)국제PEN한국본부 부이사장, 계간문예작가회 자문위원,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자문위원, 한국소설가협회 회원, 한국예술가곡연합회 회원 외



[특집] 정기 세미나

소설과 수필의 차이점 비교 고찰(考察)

김호운

(소설가, 수필가,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소설과 수필의 차이점 비교 고찰(考察)

김호운(소설가, 수필가,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1.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文學, Literature)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문학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다’라고 설명합니다(한국 민족문화대백과 참조). 이 문장 하나로 문학을 모두 이해하긴 어렵지만, 개략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을 겁니다. (사)한국문인협회에는 이 문학을 시·시조·민조시·소설·희곡·평론·수필·청소년문학·아동문학·외국문학 등 10개 장르로 나누어 분과를 두고 있습니다. 이 10개 장르를 모두 합쳐 문학이라고 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문학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그 기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즉 삶을 이끄는 가장 큰 에너지는 ‘관계(關係)’입니다. 이 관계가 풍성하면 삶의 질 또한 웅숭 깊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일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난 관계 때문입니다. 형제자매와 동무들과의 관계, 사회에 진출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그뿐만 아니라 사건과 사물과의 관계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관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대상과의 만남이 힘이 되어 우리의 삶은 넓고 깊게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관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평생 돌아다녀도 지구 전체를 볼 수 없으며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만나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각기 삶의 질량(質量)이 다릅니다.

우리는 부족한 이 '관계'를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권의 책 속에는 새로운 세상과 낯선 사건과 인물들이 있으며, 이를 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을 간접 체험하게 됩니다. 책 한 권을 읽으면 낯선 세상에 한 번 여행가고, 친구 한 명을 사귀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습니다. 현실에서 채우지 못하는 체험을 이렇게 책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따라서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은 그만큼 삶의 질량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책 읽는 일을 공부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책을 읽으면 지식은 물론이고 지혜를 터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책읽기의 목적은 공부가 아닙니다. 즐기는 오락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여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여행을 하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화와 음악과 여행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즐긴 뒤 얻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책 읽기는 미리 공부라 여깁니다. 그래서 책 읽기를 지켜워합니다. 올바른 독서를 즐기기 위해서는 책 읽기에 재미를 느껴야 합니다. 한 권의 책을 통해 낯선 세상을 여행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즐거움을 먼저 찾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책 읽는 일이 즐거울 겁니다.

'문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사실 이렇게 물으면 문학인들도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양을 높인다, 삶의 질을 높인다는 등의 말은 막연한 개념 정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구든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교양을 높이며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이는지 구체적인 현상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학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개념 정리 이상의 그 무엇을 눈앞에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효용 가치를 쉬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때문에 문학은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예술 장르이면서 음악이나 미술처럼 쉽게 대중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숙명을 안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머니에게 동화책을 사달라고 한 적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그 책 속에서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면서 사주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원망하며 돌아서서 한참 울었습니다. 책 한 권보다 쌀 한 되보다 더 귀하던 시절을 당시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뒷날 내가 소설가가 되고 난 뒤 『한국문학의 위상』(김현, 문학과지성사, 1976)이라는 책을 읽고 어머니의 그 말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작고하신 문학평론가 김현 선생은 이 책에서 “역설적이게도 문학은 그 써먹지 못한다는 것을 써먹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문장 들머리에 ‘역설적이게도’라고 미리 적은 건 ‘써먹지 못하는’ 그걸 써먹는 게 문학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말입니다. 문학은 당장 무엇을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되거나 힘이 될 수는 없지만, 쓸모없는 것이기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억압하거나 노예로 만드는 건 쓸모 있는 것들입니다. 인간을 억압하고 노예로 만드는 그 ‘쓸모있는 것들’ 뒤에 감추어진 허상을 쓸모 없는 문학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억압의 사슬을 풀고 자유 공간으로 나오게 합니다. 이게 문학의 힘이며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학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에 대해 해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줄 압니다. 문학은 바로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비타민과 같은 존재입니다. 삶을 통해 없게 되는 정신적 영양소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비타민입니다. 우리가 하루 세 끼 식사를 하면서 일일이 영양소를 찾고 재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필요한 영양소를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학 작품을 읽는 행위는 이처럼 우리가 하루에 세 끼 식사하는 일과도 같습니다.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당장 무엇이 내게 도움을 주는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행위가 쌓이면서 우리의 정신은 건강해집니다. 그렇게 건강해진 정신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문학의 힘이자 문학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문학은 이렇듯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비타민과 같은 영양소를 줍니다. 문학 작품을 읽고 사랑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희망합니다.

문학은 바로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비타민과 같은 존재입니다. 삶을 통해 없게 되는 정신적 영양소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비타민입니다. 우리가 하루 세 끼 식사를 하면서 일일이 영양소를 찾고 재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필요한 영양소를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학 작품을 읽는 행위는 이처럼 우리가 하루에 세 끼 식사하는 일과도 같습니다.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당장 무엇이 내게 도움을 주는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행위가 쌓이면서 우리의 정신은 건강해집니다. 그렇게 건강해진 정신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문학의 힘이자 문학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문학은 ‘맞다’ ‘틀리다’로 균형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옳다’ ‘그르다’로 조화를 이룹니다. 인류가 달에 발을 딛는 순간 우리는 어릴 때 얻은 계수나무 한 그루와 토끼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꿈과 희망은 과학으로 증명되거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설명할 수 없는 꿈이 오늘 우리의 문화와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문학의 근원은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인문학에서는 서양문학, 동양문학, 우리의 고전문학 현대문학 등 다양한 시각에서 그 발전 근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문학의 근원’은 이런 인문학적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문학 작품을 쓰는 데 있어서 사유(思惟)의 근원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를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먼저 소크라테스-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철학과 미학에서 그 근원을 찾아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익숙함과 낯섦’에서 인간의 사유 영역을 설명합니다. 플라톤은 이를 ‘이데아(idea)’로 표현하였으며, 보이는 사물 너머 감각의 사유 세계를 객관화하는 본질을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타우마제인(thaumazein), 즉 경이(驚異)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 사람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러한 사유 현상은 바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변화의 변곡점입니다. 쥘 들뢰즈가 말하는 ‘차이와 반복’ 또는 주체적 존재로서의 실존을 증

심으로 인간의 삶을 살펴보는 실존철학에서 말하는 삶의 근원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의 타우마제인을 중심으로 문학의 근원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의 ‘비극’을 보고 타우마제인을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감정 가운데 가장 진실된 것은 ‘슬픔’입니다. ‘기쁨’은 꾸밀 수 있지만, ‘슬픔’은 꾸밀 수가 없습니다. 내적 감정이 그대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스 비극을 관람하는 관객들의 모습에서 이 타우마제인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를 소요학파(逍遙學派)라고 합니다. 동시대에 살았던 동양의 장자(莊子)는 소요유(逍遙遊)를 이야기합니다.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없는 놀라운 연결고리입니다. 자연 속에서 눈에 보이는 사물과 대화할 수 있는 사유(思惟)야 말로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라고 보았던 겁니다. 이 사유를 통해 ‘상대의 언어’로 대화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낯섬의 타우마제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타우마제인을 쉽게 설명하자면 7살 어린이가 낯선 세상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미운 일곱 살’ ‘남녀 칠세 부동산’이란 말들은 이 타우마제인의 또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낯섬을 경험하며 삶을 이어갑니다.

* 우화등선(羽化登仙)과 장자의 〈호접몽〉

* 나무와 나무기둥, 그리고 집

문학은 이 낯섬의 타우마제인을 우리가 말하는 여러 장르의 문학 작품으로 빚어 독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문학은 이 경이에서 출발합니다.

문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에피소드 두 개를 소개합니다. 떠도는 이야기라 정확한 출전은 찾지 못했으나 문학을 설명하기에 매우 적합한 이야기라 소개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어린이들에게 “눈이 녹으면 무엇이

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한꺼번에 “물이 되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이가 대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어린이에게 “너는 왜 대답하지 않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 어린이는 그제야 “봄이 와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눈이 녹으면 물이 된다고 한 어린이들은 과학으로 맞는 대답을 했습니다. 눈이 녹으면 봄이 온다고 한 아이는 과학의 잣대로 보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눈이 녹는다고 곧바로 봄이 오지는 않습니다. 이 어린이는 과학으로 눈을 본 게 아니라 겨울과 봄이라는 계절을 이해하며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계절을 표현하는 데 있어 이 어린이는 ‘눈’을 체험으로 이용한 겁니다.

또 한 이야기는 몇 년 전 부산에 인문학 특강을 갔다가 타고 가던 택시 기사에게서 들은 것입니다.

두 노인이 낮술에 취해 거리로 나왔는데, 한 노인이 중천에 떠 있는 해를 보고 “아, 달이 참 밝구나.”라고 하자 친구가 대뜸 “이 사람 술 많이 취했구먼. 저게 해지 어째서 달이냐.”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 해니 달이니 하고 길가에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마침 길을 지나는 젊은이가 있어 해라고 한 노인이 그를 불러세우고 물었습니다. “젊은이, 하늘에 뜬 저것이 달이오 해요?” 젊은이는 난처했습니다. 해라고 바른말 하면 달이라고 한 노인이 난처해지고 그렇다고 거짓말로 달이라고 하면 해라고 한 노인이 난처해집니다. 잠시 망설이던 젊은이는 “어르신, 여긴 우리 동네가 아니어서 달인지 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두 노인은 “젊은이 말이 맞소.” 하며 크게 웃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에서 우리는 과학과 산술이 배제된, 인간의 감정에서 만들어진 옳고 그름이 잣대가 된 걸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문학이 가진 기능과 역할

입니다. 문학은 이렇듯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비타민과 같은 영양소를 줍니다.

2. 수필과 소설의 같은 점과 다른 점

소설은 허구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쓴 산문이며, 수필은 실제 체험, 자연 현상 등 직접 보고 느낀 사실을 문학 장치로 표현한 산문입니다. 소설은 소설의 3요소, 주제, 문체, 구성 및 구성의 3요소 사건, 배경 인물 등 소설미학의 구조를 완성하는 문학 작품이며, 수필은 자유로운 형식, 무형식의 문학으로 기행문, 일기체, 서간문 등 '수필'이라는 이름처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서술하는 문학입니다.

이상은 수필과 소설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필이든 소설이든 문학이라는 예술로서의 의미를 완성해야 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문학의 역할과 기능이 작품에 녹아 있어야 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김우중 수필가는 『설성문학』 2011. 8·9월호에 발표한 '현대수필 기법의 사실성과 허구문제'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의도된 기법이 구사되지 않은 글은 예술 장르로서 문학이 될 수 없다.

현대수필은 이런 점에서 문학의 4대 장르(시, 소설, 수필, 평론)의 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런데 의도된 기법이 구사된다는 것은 소설적 기법과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차이가 설명될 필요가 있다.

소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허구로 구성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처럼 독

자가 받아들입니다. 이는 소설적 기법 속에 창치된 사실성과 인과관계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문학적 구조를 문학예술로 다듬어지는 건 바로 문체와 구성의 조화로운 서사 연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필이 문학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김우중 수필가가 언급한 것처럼 ‘의도된 기법’이 장치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작가가 겪은 체험을 서술하고 있다면 그냥 ‘이야기’에 불과하며 서양의 ‘에세이’ 정도의 작품에 그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술’이 무엇인가를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술이란 무엇일까요. 예술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말과 글로 표현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난합니다. 그러나 예술이 무엇이라는 걸 알아야 올바른 문학, 즉 문학을 예술로 창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술은 한마디로 말하면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학을 비롯한 모든 예술은 살아 숨 쉬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재생산’되어 독자들의 사유 속에 스며듭니다. 이런 기능과 역할이 존재해야 예술이 됩니다. 문학 작품이 독자에게 전해지면 작가의 의도에 상관없이 새로운 작품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같은 독자가 여러 차례 다시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사유 공간이 형성됩니다. 이렇듯 문학 작품은 스스로의 생명으로 재생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문학이 예술로 사랑받습니다.

최근에 수필의 이런 형식이 조금씩 변화 발전하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수필이 직접 작가가 겪거나 체험한 내용을 무형식으로 쓰는 것이라는 이 정의가 무너지는 작품을 몇 편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수필인가?’라는 의문이 생겼으나 곧 이런 의문이 사라졌습니다. 수필의 새로운 변화를 보았던 겁니다. 우리 문학, 즉 인문학은 하나의 틀에 구속되지 않고 끊임없이 바뀌고 변화합니다. 이는 우리가 사는 사회가 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변화하는 사회에 사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진보는 멈추게 됩니다. 이처럼 인문학은 새로운 학설이 등장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발전합니다.

다음은 이 수필가의 작품을 읽고 필자가 쓴 해설 일부입니다.

첫걸음은 통증이였다. 세상 밖으로 떨어질 때의 새까만 통증, 누워만 지내다 처음 몸을 뒤집고 나서 여직 보았던 다락문의 당초문양이 거꾸로 보이는 황당함, 발만 보았던 삼층장의 꼭대기 모습. 그것은 새로운 세상이었다. 열달쯤이었을까 할머니가 걸음마를 시킨다고 일으켜 세우고 손을 놓아 버렸다. 60센티미터쯤의 방바닥이 천야만야한 낭떠러지로 보였다. 온몸으로 뒹치는 시키면 공포 덩어리! ‘와~양’ 울음을 터트리며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 수필 「첫걸음」 중 일부

인간의 지식은 크게 암묵지(暗默知, tacit knowledge)와 명시지(explicit knowledge)로 구분한다. 명시지를 형식지라고도 한다. 암묵지는 언어 등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과 학습으로 몸에 쌓인 지식이다. 표현할 수 없이 쌓인 지식이라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른다. 이와 반대로 명시지는 언어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 쌓인 지식이다. 물에 떠 있는 빙산처럼,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것 가운데 10%정도가 명시지이며 나머지 90%는 대부분 암묵지라고 한다. 보이지 않는 암묵지, 이 숨어 있는 ‘앎’을 꺼내 알아가는 게 성장이며 지혜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익숙함’과 ‘낯섦’이다. 빛과 어둠, 유위(有爲)와 무위(無爲) 등 다양한 말로 설명하기도 한다. 실제 생활에서 이를 활용하거나 생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만큼 명시지가 더 화려하고 달콤하여 암묵지를 꺼내볼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경우 수필가의 수필 「첫걸음」은 암묵지에 숨어 있던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 본 세상을 꺼냈다. 놀라운 발상이며 빛나는 지혜다. 이를 두고 직접 본 거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 부질없는 것이다. 수필이 작가가 직접 겪은 체험을 기술하는 것인데, 마치 소설의 허구 서사처럼 상상으로 쓴 게 수필이 맞느냐며 따지는 일은 부질없다. 빙산을 보면서 물 위에 떠 오른 모습만 얼음이고, 물속에 잠겨 안 보이는 건 얼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 보지는 못하나 암묵지로 우리는 빙산이 물속에 잠겨 있다는 걸 안다. 이경우 수필가는 자기 삶에 잠겨 있던

암묵지를 보았다.

말이나 글로 나타낼 수 없는 상황에서 사유와 느낌으로 알아채는 걸 암묵지라고 한다. 아날로그식 지식이다. 일본의 경영학자 히로타카 타케우치 (Takeuchi, Hirotaka)가 정립한 이론이다. 히토쓰바시대학교 국제기업전략 (ICS)대학원의 학장 겸 교수인 히로타카 타케우치는 경영개발을 위한 지식 창출의 근본은 지식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의 암묵지라고 말했다. 어떻게 개인의 신체와 정신 속에 녹아 있는,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암묵지를 언어나 문자로 표현되는 명시지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한 것이다. 단순한 지식 '전수'가 아닌 지식 '창출'로 이어지기 위한 지식 창출의 중심에는 시스템이 아닌 인간이 있다는 걸 강조한다. 『지식경영의 메카, 히토쓰바시에서 배운다』(히로타카 타케우치 외 저술, 박희종 외 번역, 시그마프레스, 2006), 이 책에서 저자가 한 말이다. 아마도 이경우 수필가는 이 책을 읽고 암묵지를 발견한 듯하다. 대단한 독서 체험이다.

어떻게 그때의 감정을 기억하느냐고? 암묵지(暗黙知) 덕분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만의 지식이다, 문하생이 스승의 표정으로 원하는 바를 눈치채고, 숙련된 기능공이 영감으로 익히는 기술이다. 말이나 글로 나타낼 수 없는 상황에서 느낌으로 알아채는 아날로그식 지식이다. 일본의 경영학자 히로타카가 정립해 놓은 이론이다. 말을 미처 배우기 전에 느낌으로의 지식도 존재함을 증명했다. 우리는 말이나 글로 표시하는 형식지(型式知)만을 중요시하지만, 실은 암묵지의 역할이 더 크다. 해서 암묵지가 풍성한 사람이 발명품을 내놓는다.

- 수필 「첫걸음」 중 일부

작가는 '암묵지' 덕분에 그때의 기억을 기억해 냈다고 고백한다. 본인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경험이라 여겼지만, 그때의 일들은 암묵지로 그에게 침잠해

있었다. 용재 홍매는 노년에 이르러 독서를 게을리하다가 수필을 썼다고 고백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독서를 게을리한 게 아니라 많은 독서량에서 사유의 폭이 넓어졌고, 이로 인하여 글을 쓰는 일이 잦아진다. 이경우 수필가 역시 독서를 통해 사유의 폭을 넓히고 있음을 작품을 통해 유추해 볼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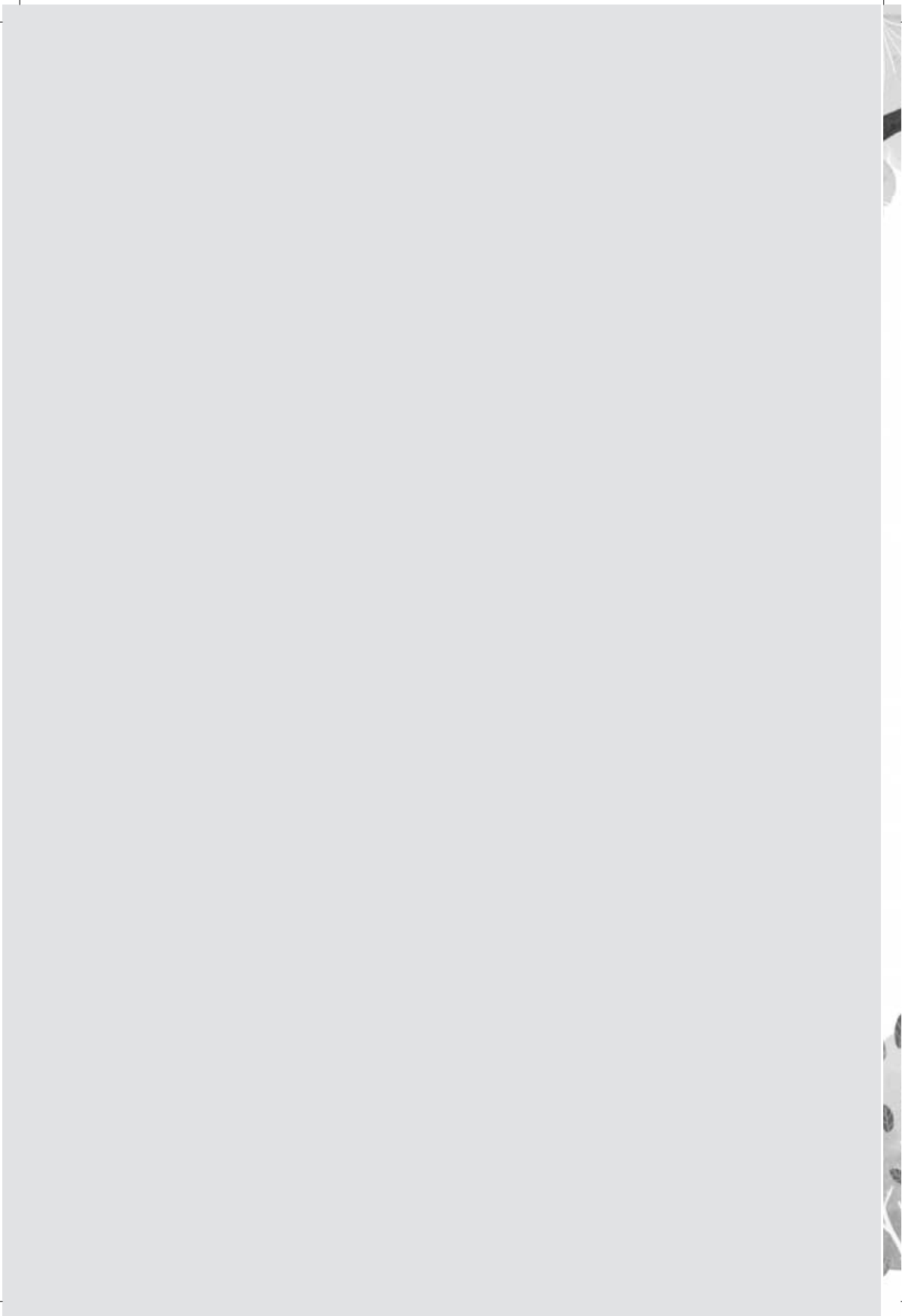
이처럼 수필이 작가가 직접 체험하였지만, 기억에 잠재되어 있거나 언어로 형상화할 수 없는 내용일지라도 이 암묵지에 의해 현상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많은 심리학자가 인간의 기억에 잠재된 암흑 속의 기억을 복원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마치 빙산처럼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수 많은 체험이 우리의 기억 속에 잠겨 있으며, 작가는 이 보이지 않는 체험까지도 수필로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설은 허구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쓴 산문체 문학이라고 설명 드렸습니다. 이 말 속에 소설이 무엇인가라는 답이 들어 있습니다. 소설은 실제 발생한 사건이 아닌 작가의 상상력으로 쓴 픽션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허구’입니다. 이 허구는 ‘거짓말’과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거짓말은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걸 말합니다. 허구는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그런 사실을 미리 알리고 마치 실제로 있었던 사건처럼 인지하게 하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거짓말은 상대방에게 가짜를 진짜로 믿게 하는 것이고, 소설에서 말하는 허구는 지어낸 이야기라는 사실을 독자에게 미리 알게 한 뒤, 그 작품을 읽는 독자에게 이 세상 어딘가에서 실제 일어난 이야기처럼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독자가 그렇게 이야기에 빠져드는 것은 독자 자신이 겪은 체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3. 마무리

수필과 소설은 문학 장르에서 ‘산문’의 형식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같으며 실제 겪은 내용이나 허구로 창작된 것이냐는 점에서는 다릅니다. 수필과 문학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 작품도 마찬가지로이겠습니까만, 모든 문학은 ‘문학’이라는 하나의 그릇에 담깁니다. 서로 다른 문학이 아니라 같은 문학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필자는 통섭(統攝)이라는 말로 정의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현상은 모두 그 뿌리가 있습니다. 진화 발전하면서 분절, 또는 분화하여 전문성을 지니며 발전해 왔습니다만, 결국 그것들은 ‘사람의 사유’를 통해 실제 생활과 삶에 이용됩니다. 결국은 하나로 통섭하여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문학이라는 뿌리와 줄기에서 갈라진 장르 하나로만 문학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장르가 합쳐져서 문학을 완성한다는 점을 우리 문인들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각 장르의 문학을 보다 더 훌륭하게 창작하는 원동력이기에 그렇습니다.





제1부

시

가철노	강영희	강태국	길기장	김다호	김도이
김민정	김사라	김양수	김은남	김진돈	김철홍
김현신	김형식	문경재	민숙영	민 향	박선정
박호은	방정숙	배종선	백재현	서명남	서영순
서주문	서철수	송수복	신경삼	신종식	신호현
안서경	안정선	양순복	엄옥순	이명림	이상진
이신경	이영숙	이원우	이은수	이을기	이한재
이효성	임영화	전세중	전 정	전한태	정명숙
정문수	정옥화	조기엽	조은재	지소하	차효범
최돈애	최병룡	최성준	하갑문	한창옥	

꽃 아름다워

가철노

사랑이 묻어나니 아름다워
화려한 꽃동산 행복 넘쳐
모든 사람 보이려 예쁘게 피어

고진감래라는 글귀 떠올라
송이송이 우러나는 사랑
꽃들에 웃음 향연이 아니던가.

붉은색 오색 꽃 가지가지 빛
우리 모두에 희망 가득
사랑 정성 최고가 아니던가.



가철노

- 삼천초 명예교사, 삼전동새마을회장역임, 내무부장관표창수상
- 문학생활신인상수상, 문학생활작품상수상, 송파문인협회 이사

끝나지 않는 기다림

- 변시지展*에서 돌아오는 길

강영희

제주 한림항 쪽 올레길
고개 숙여 운동화 끈을 매고 일어서는 사이
우르르 몰려나온 6월 정오의 햇살이
그 둔탁한 손바닥으로 내 시야를 후려친다
Welcome to 변시지 나라,
표지판을 따라 나는 나의 국경을 넘는다
황톳빛 세상 속으로 자박자박 걸어 들어간다
마을 입구 돌담 위 까마귀 떼
동쪽을 향해 올면 재물수가
서쪽을 향해 올면 질병이 온다는데
웬일인지 나를 보자 곤장
서쪽으로 까악 거리는 예감의 새
바람이 몰려온다
소금기와 벼랑과 절규가 뒤섞인 바람에
대책 없이 내몰리는 술 없는 내 머리칼
온몸이 으스스해진다
갈증 같은 것 그리움 같은 것
어쩌면 이곳은 돌림병처럼

* 제주 현대미술관에서 <변시지전: 폭풍의 바다, 황금빛 고독> (2023. 10. 26 ~ 2024. 4. 21)이 열려
2024년 1월에 다녀왔다. 변시지는 제주의 아열대 흰 태양빛을 황토색으로 승화시키며 인간 실존에 대해
깊이 탐구한 제주 출신 화가이다

기다림이 창궐하는 곳일지도 몰라
누구인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깊어가는 병
헛것처럼
희미하게 다가오는 물체의 모습
먼바다 수평선 위에서
대답 없는 기다림을 투망하느라
그만 허리가 구부정해져 버린
한 사나이가 보인다

내 오래된 아직도 싱싱한 어리석음

강영희

마천 시장 골목길에 들어서면
나는 될수록 고개를 숙여요
간판 앞에 선 시선들이
여기서 저기서 나를 찌르니까요
안 돼요 지난 번엔 너무 시든 배추를 샀어요
어떤 물건이라도 팔아야 하는 이들과
어떤 물건이나 사 버리면 안 되는 이들
쨍그렁 쨍그렁 골목길에 창과 방패
부딪히는 소리 요란해요
짐 옮기다 찢겨 나간 벽지
방패를 거두고
한샘 지물포에 들어섰어요
창 대신 기타 줄을 통기며
눈앞의 허공을
꽃밭으로 만들던 젊은 사내
그 시절 나의 테마는 베토벤 교향곡
돌배기 아들이 내 곁에서
화장대를 타고 오르다
쿵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창과 방패, 생존의 한 판 결투
세상의 창은 늘 날카로움이었는데
언제라도 내가 높이 치켜든 방패는
단단함보다는 기껏
아름다운 색상, 디자인일 뿐이었어요



강영희

· 2004년 <심상>으로 등단
· 시집 : <우리에게겐 마술이 필요하다>

회상

청안 강태국

그대는 보았는가,
비 갠 아침
바람에 일렁이는 갈대숲을.

희끄무레 밝아오는 하늘 아래
습한 바람이
살며시 몸을 싸고 도는데,

푸른 갈대의 물결은
호수 위 너울 같고,
달리는 말의 갈기 같기도 하여

문득 떠오르네
막시무스가 돌아가던 그 길.
글래디에이터 마지막 장면처럼

밀밭 사이로 펼쳐진
그리운 고향의 풍경.
가슴 저미던 그리움,
재회의 설렘,

그리고 알 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지.

넓은 고원에 끝없이 펼쳐진
물결치는 보리밭은
지금도
아릿한 여운으로 남아
마음 한켠을 스치고 지나가네.

나는 오늘도
꿈을 꾸네.
어제를 회상하네.
낯선 익숙함에 젖어드네.

그래,
언젠가
그랬었지……



청안 강태국

- 2011년 문학저널에 수필로 등단
- 한국문협 인문학컨텐츠 개발위원
- 문학저널 문인회 회장역임
- 송파수필작가 회장 역임

오늘도 ing

길기장

내 안에 내가 없다
내 안에는
높은 자식 하나 키운다

쫘

길기장

허니
여봉
여태껏 한번도 듣지 못했다
아들에겐 고마위를 하고

손자에게는
사랑해요를 남발한다

나에게
사랑해요는
먹구름 낀 날, 낮별 보기다

고맙다
미안하다
그런 말도 들려주지 않는다

그래도 그렇지
사십 년을 넘도록 살았는데

그래서
입이 무거운 척

나도
절대로 하지 않는다.



길기장
· 2016 심상 등단
· 시나무 동인

등글다는 것

김다호

스마트폰으로 동그라미 그리기 게임을 하면 보너스 횟수를
다 털어도 완성 못 하는 것은 천성이 등글지 못한 탓이라고
이윽고 사라지기까지의 등근 존재의 시간, 그 속에 돌아나는
아버지의 말씀

실수 없이 단숨에 그리듯 모질게 사는 법은 따로 없었다.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주위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리가
단 한 번의 다툼이나 떡살잡이도 없이 일생을 살다 가신 내
아버지 삶의 이유가 된다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등근 물이 질게 배어 있어야 한다.

간단없이 등글다는 것
요즘 시대에 틀린 순리라고 외면하거나 단정하기도 하겠지만
여기저기에 걸쳐서 아픈 마음이나 상처들이 자꾸 말을 걸어서
대답하다 차츰 몰입되어 가는

어쩌면 간절하게 기대하는 유토피아의 모습이기도 하겠다.

그 속의 세상은

모난 것이 앞서고 각진 것이 우선하겠지만 지나고 지나서 논쟁의
모서리를 다시 만나게 되면 다툼이 잠들고 뜻이 모여져 공평해
진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일 것 같기도 하다

오늘도 동그라미 그리기가 쉽지 않겠지

끝까지 모질게

실행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둥글게 시작하자.

목정밭 저쪽

김다호

육지에서 두 시간 뱃길로 닿는 기러기섬
마을 선착장 오가는 비렁길 옆 목정밭
막자란 검불들 바닷바람이 비집고 지나는 사이로
얼굴 내밀고 기다린 듯 다가온다

지난 봄날
칠순 잔치에 분홍 매니큐어로
콧등에 꽃 그림 그려서 선물한
흰색 장화

떠밀려온 그 장화 한 짝을 부둥켜안고
주검도 찾지 못한 달포 동안
비바람 치는 바다를 향해
앞드려 통곡하던

안개비 오거나 해무에 묻히면
한풀이하듯
주저앉아서 목 놓아 울다가 돌아가는

대처로 나가서 소식도 없는 사람
풍랑에 고깃배 뒤집혀 죽은 남편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기다리다
불현듯 솟아나는 그리움을
견디지 못해 사무치는 날

오래전에 귀먹은 할매 그믐밤 눈썹달
애달픈 가슴 흐느낌으로 깊어지면
못다 한 울음이 파도에 밀려와 들릴 것 같은
묵정밭 저쪽



김다호

- 1982년 도가니문학을 통해 작품활동 시작
- 국제펜한국본부 이사, 한국문인협회 회원, 통일백일장 심사위원, 前흥사단 부이사장
- 시집 : 『경계에 서성이다』, 『말들이 고여 있다』, 동인시집 『오래된 습관』 외 다수

슬픔이 간(間)을 보았다

김도이

흘러나가지 못해 구멍이 파인 몇 해 겨울, 빠질까 간이 콩닥거려 두드리며
건너야했다 바짓단 아래에 후드가 달린 롱코트에 접힌 소매 주름에 여기저기
돌돌 만 통증을 쭈셔 넣고 다녔는데

지난해

어디로도 가지 못하고

농담처럼 ct안에 자리 잡은 거대 간 낭종

당신은 꽤 단단한 웃음이었는데

울컥,

밤중에 아파서 잠이 깨면

통통 불은 이번 생을 쏘아내지 못한 주머니 하나가

문을 열어달라고 명치끝을 졸라댄다

야경이 아름다운 병동에 누워

잠 못 드는 링거방울처럼 뒤척이다가

버무리다 만 슬픔의 재료들을 떠올렸다

어떤 것이 더 아플까

참는 거와 견디는 거

간이 간을 보고 있다

글라스 룸

김도이

엄마 이제 사과 대신 노래보*를 주세요
거짓말쟁이 마녀의 사과보다 자궁에서 흐르는 신선한 피가 필요해요

언제나 뒤를 봐주는 엄마가 있어 밤길도 든든했는데 새 아빠가 내 아랫도리를
들여다볼 때 엄마의 거울은 어디에 있었나요 너는 그냥 눈을 꼬옥 감고 있으면
돼 소리를 지르면 가슴 속에 유리를 품고 사는 엄마가 깨질까봐 닫힌 문 앞에
서서 괜찮아 괜찮아했지만 깨진 감정들이 나를 찢러대는데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나쁜 엄마니
그거 알아요?
백설공주에게 독이든 사과를 먹인 건 계모가 아니라 친모였대요

꽃이 수면위로 몸을 숙여 제 얼굴을 들여다보듯이 엄마는 거울 앞에 서서 꼭
뒷거울을 보여 달라고 했어요 뒷모습이 중요하다고 했지요 나는 오래전에 박
살나 따돌리지 못해 새 아빠를 손에 쥐고

뽀족한 것들이 너무 많아 어딘가는 찢러야 했어요

아! 생각들은 파편처럼 위험하지만 링거액 속으로 감쪽같이 사라져요 프로파

* 노래보: 사후 피임약

일러가 오고 있네요 엄마의 거짓말을 날마다 닦아내는 방은 이제 필요 없어요
깨진 자궁을 감춰야겠네요 감출수록 궁금해 할 테니까 왜? 바짝 관심이 생기니까
뭔데? 가까이 다가와야 제대로 볼 수 있으니까 말은 걸지 마세요. 입을
여는 순간 금 간 허상들이 튀어 나올 테니까. 그런데 그도 집을 나설 때 거울을
보았을까요.



김도이

- 등단: 2014 《열린시학》 신인상
- 시집 : 『얼룩의 시차』(고요아침), 『장미를 수선해 주세요』(천년의 시작)

기도의 방

- 이집트 피라미드 속

김민정

이집트 피라미드
돌 속에 들어간다

허리를 기억자로
굽혀야만 길을 열고

또 다시 고개를 들어
올라가는 수백 계단

드디어 서늘하게
다다른 작은 공간

두 손을 벽에 짚고
아뢰는 말씀 있다

마침내 완성된 문장
가득한 탑이 된다

질서가 혼돈을 이긴다

- 이집트 에드푸 신전

김민정

검은색 화강암의 기운이 서려 있다
에드푸 신전 입구 위엄있는 매 동상
하늘과 왕권의 상징 수천 년 의식 흔적

날개를 힘껏 펼친 벽면의 부조 보라
파라오 상징으로 지금껏 형형하다
신화란 이야기가 아닌 살아있는 세계관이지



김민정(金珉廷, Kim Min-Jeong)

· 시조 시인, 문학박사, 한국문협 부이사장 겸 상임이사, 국제펜 이사
· 시조집 〈펼펼펼, 꽃잎〉 외 13권, 대한민국예술문화대상 수상 외 다수

사계(四季)

김사라

처음엔

푸른 꿈과 환희로 가득 한
봄으로 나에게 다가와
씩 티우고 꽃을 피웠지

한때는

여름으로 나에게 스며
온 몸을
핏빛으로 뜨겁게 달구었는데...

오늘은

가을빛으로 내려와
쓸쓸함만 더해주는 그대

내일은

겨울로 다가와
시리도록
아픔만 더해주고 떠나

너의 등 뒤에서

봄을 기다리는
가슴앓이 시작되었지

바위섬

김사라

쉽없이 차오르는
물살 입에 물고
눈 감고 귀 막고
아무 말 없이
고개 떨구고 앉아
제자리 묵묵히
지키고 있는 섬

바람과 새와 파도에게
제 몸을 내어주며
모든 허물을 감싸는 섬

모든 것을 포용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김사라

- 문학박사(명예)
- 예술세계23대(회장역임) 청시회10대(회장역임)
- 국민행복여울문학(성남지회장)

진리

김양수

1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대를 찾아 산 넘고 강 건너
아주 오랫동안 방황하며 헤매었네

꽃잎과 물방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크고 넓은 것만 찾아다녔네
내 안에서보다 밖에서 구하려했고
매화의 속보다 겉모습만 바라보았네

먼 길을 돌고 돌아 지쳐 집에 돌아오니
그대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변함없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네

숨을 들이마시고 내침 속에
해가 뜨고 지는 풍경 속에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는 순환 속에
나뭇잎 한 장에도 진리는 숨어있었네

그대는 세상 곳곳에서 쉽 없이
우리를 순간순간 일깨우고 있으나
욕심에 눈이 멀어 볼 수 없었네

어렵고 어려운 글보다는
시냇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이
바람이 쉼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아 꽃이 피고 지는 것이
삶의 영원한 진리가 아닌가

2

진리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

거짓말하지 않고
착하게 살면서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 진리다

모든 종교는 사랑을 가르치는데
종교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은
말과 글로만 사랑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기에
세상은 갈수록 메말라가고 있지 않는가

“서로 사랑하라”

어려운 것은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쉽고 단순하다
얇은 실천으로 완성된다

지리산 9

김양수

꿈속에서 지리산을 오르네
이제는 백발이 되어 산행도 힘겨워졌지만
세상사 힘겨울 때마다 추억을 떠올리며
한번 오를 때마다 지혜로워진다는
지리산을 홀로 걷네

화엄사에서 노고단을 지나
벽소령을 넘고 세석평전을 건너
수많은 별들이 쏟아지는 장터목산장에서
맑은 별빛에 취해 하룻밤을 묵고
삼대가 덕을 쌓아야 만날 수 있다는
일출을 보러 천왕봉을 오르네

산을 전혀 못타던 들꽃 같던 내가
세상의 고통을 감싸 안은 마흔의 중턱에서
삶의 이유를 찾고자 목숨을 걸고 찾아갔던
지리산 첫 종주길이어
그 길을 홀로 한걸음씩 내딛으며
다시 찾은 젊은 날 시인의 꿈이어

서울에서 지리산을 홀로 오르네

마음이 시려울 때마다
첫 종주의 기억을 더듬으며
야생화 향기를 맡으며 오르다가
계곡 물소리를 들으며 내려오네

언제 다시 흙을 만져보라
그리운 어머니의 품처럼
언제나 내 가슴속에 살아있는
마음의 고향 지리산이여
아~아
언제쯤 다시 산길을 걸어
넓고 포근한 품에 안길 수 있으랴



김양수

· 2000년 문예연구로 등단
· 시집 : 『꽃은 필 자리에 피더라』, 『내가 바람에 흔들리는 까닭은』, 『마음의 밥』,
『사랑의 말』

토함산

김은남

산죽숲 지나 올라 역새꽃밭 산정에 서면
아스라이 떠 오르는 동해바다 수증왕릉
턱 피고 눈을 감으면 서라벌이 보입니다

빼어난 선인의 기예 거룩한 불심을 만나
찬란한 불국사를
드높은 석굴암을
조상의 위대한 숨결 가슴 뜨거워 옵니다

하 지순한 사모이길래 핏빛 보다 붉은 단풍
토함산 굽이굽이 아사녀 애닦은 사연
그 사랑 목이 메어서 냇을 잃고 걷습니다

천년 세월 찰나였던가
하루 또한 천년인 것을
역사 자연에 묻히고 자연은 역사 이었거니
석양에 한 낭도 되어 산을 내려 갑니다

단풍산

김은남

들머리 바위에 걸터 단풍산을 우러른다
황금빛 핏빛으로
더러 갈색 회색으로
살아온 삶에 따라서 전혀 다른 단풍빛갈

이른 봄 새잎 돌아 꽃 피우고 맺은 열매
나이테 넓혀가며 공기 걸러 맑혔다 해도
이제는 떠나야 하리
거역할 수 없는 섭리

나 어떻게 살았던가
어떤 길 걸었던가
겨레 위한 소망의 탑 혼불 밝혀 쌓았던가
불현 듯 뜨거운 눈물 뺨을 적셔 흐릅니다

해거름 오솔길을 쉬엄쉬엄 내립니다
온갖 상념 털어내며 뇌어보는 말 한마디
“내 삶의 단풍빛갈은 얼마만큼 붉을까”



김은남

· 1992년 《시세계》 등단
· 저서 : 『일천산의 시탑』, 『삼천산 시탑을 위하여』 외 6권

한 송이 꽃

김진돈

거기에 바람이 오래 머물렀다
가는 햇살에도 흔들리는
새파란 물음에

어둠이라는 수백 겹 불면의
관문을 뚫은
연초록 잎사귀의 긴 호흡

비탈진 옆구리에 천 개의 눈빛이 반짝거리며

과거로부터 생을 이어받은 여린 기억인가
딱딱한 가지에 내리면서 실처럼 홀로 뽑아낸
한 송이 꽃

주변의 무관심 속에서도
허기진 곳에서도 절정인 것이다

때로는 가파른 절벽같은 콘크리트벽으로, 때로는 낮은 바람으로, 때로는 빗방
울을 온몸으로 맞으며 한 세상을 노니는 것이
본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무심의 자리인가

허기를 즐기던 언저리
조금 비켜서서
잠시 빛났던, 그 정점을 떨어뜨리고

변두리에 피어난 꽃도
시공간의 긴 호흡의 리듬 따라
결국 천지와 하양계 하나이다

어디에 피든 내가 피어낸 그곳이 우주의 중심인 것이다

밀물처럼, 일상

김진돈

하루 종일 달려오다 폭,
퍼진 채
둥글어진 다리들

칸칸의 줄, 벽에 기대 채
깊어진 새우잠

저 멀리서 달려오는 텅 빈
새벽에
길게 뒤척이는 중이다

일어나요, 일어날 시간이에요



김진돈

- 2011년 『열린시학』 『시와세계』 시 등단
- 송파문인협회 고문, 경희대학교 한의대 외래교수, 송파구한인사회회장, 윤제당한의원장
- 저서: 『그 섬을 만나다』, 『아홉 개의 계단』 외 다수

정오의 음악회

김철홍

너의 열 손가락, 나의 열 손가락이
하얀건반, 검은 건반을 두드린다
저음에 고음이 타오르고
고음에 저음이 곱치고 간지럽힌다
새싹 하나 둘, 꽃잎 하나 둘 셋, 봄 하늘을 밝힌다
아리 아리 병아리, 나리 나리 개나리가 달려온다
풀잎이 흔들린다 봄빛 스치는 리듬이 산책을 한다
햇살은 안달나서 안절부절하다 리듬으로 박힌다

똑딱 또오딱 똑따악 봄 방울 떨어지는 소리
구슬처럼 굴러가는 소리, 자연의 합주
꽃망울 맺히는 소리, 햇빛 터지는 소리는 봄별의 목탁
콩콩 발구르는 봄의 빛깔, 소소리 바람 따라
찾아드는 고요, 적막의 한참이 찾아 온다
시간의 호수가 너무 빨리 더 셋노랑해져 간다
봄의 향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킁킁거리는 소리
봄의 정오를 낚아채야 한다

바다와 갈매기의 만남,
꽃샘바람과 진달래의 만남, 국악, 트럼펫의 만남,
추억 농익은 연주에 뭉게구름이 흘러간다

구름 사이로 햇빛을 쏜는다
봄의 생살이 돋고 트럼펫의 소리처럼 뚫고 퍼진다
연초록 구름 봄빛 물든 소리, 봄비의 추억,
봄 햇살 품은 벚꽃 열매가, 봄 향기가 터진다
정오의 여백이 든든한 배경, 나를 끌고 간다

현상수배

김철홍

몸이 빠져 나갔다
공개수배
몸은 나를 몽타주 한다
현상금이 없다 몽타주가 없다
여기가 없다

출렁이는 하루
시간은 나를,
현상수배
여기가 나를 옮긴다
내가 몸을 끌고 나온다



김철홍

- 2013년 『시와세계』 신인상 등단
- 시집 『선과 색 그리고 각』(시와세계, 2015)
- (현) 시산맥시학회 부회장

카타르시스의 구름다리

김현신

4일간의 사랑은
단 한 번의 사랑, 평생의 그리움
그 엔딩 후의 이야기
- The Bridges of Madison County

매일 천 만 번씩 흔들리고 있는, 흔들리면서 견뎌야 하는
다리를 매달고

그녀의 별판을 흔드는 초인종으로부터, 모래사막을 흔드는 바람으로부터, 두
개의 그림자가 영키던 그날,

시작 되었지, 길 안내로 떠도는 카메라
고도를 훑고 가는 바람이, 발끝을 끌어당기는, 다리의 시간 속으로

찢어지는 빗방울 소리는, 파편이 되고 나프탈렌처럼 서서히 닳아져 갔던가요,
“이렇게 확실한 감정은 일생에 단 한 번 오는 거요” 메디슨카운티의 다리 대사

말들은
예정된 오늘에 부딪치고 끝나지 않은 꿈속의 꿈은 솟아오르고 연주하는 검은
울음과 무너지는 환멸 사이에서

엔딩, 연기는 배경이 없어진 정물인가요, 저녁에서 저녁으로, 심장으로, 다시
벽 속으로 날아가는, 또 다른 나무를 심으며

영화의 장면이 흘러가네요 구름다리를 건너볼까요, 이젠
구름은 흐르지 않아요, 다리를 지나 내 수첩에서 펼쳐이는, 지루했던 서랍 속
문장은 별판이 되어 날아가요

4일 간의 기억 속으로, 잿빛 그림자 속으로,

이별, 한 방울

김현신

#1

한 방울씩, 떨어졌다, 사라졌다, 달 속에 사라졌다, 맴돌았다, 거품 속을 맴돌았다, 흩어졌다, 거울 속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멀리, 길게, 흔들리고 있었다

한 방울씩, 눈물자국이, 달의 모습이, 떨어진 모습이, 흩어진 모습이, 거품이 되어버린 모습이, 맴돌던 모습이, 흔들리던 모습이, 내 눈동자에 찍히고 있었다

한 방울씩, 떨어진 자국이, 달이, 흩어짐이, 거울이, 흔들리던 모습이, 거품이 되어버린 모습이, 돌맹이를 적시던 눈물이, 가장 멀리, 가장 길게 사라지고 있었다

#2

한 사람씩, 손을 넣었다, 뺐다, 손을 폈다, 구부렸다, 흩어졌다, 만들었다, 형상을 만들었다, 손을 뺐다, 모래성은 보이지 않았다

한 사람씩, 손이, 구부림이, 흩어짐이, 형상이, 굳어진 벽이, 기체가 되었다, 헛것이 되었다, 거품이 잃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멀리 사라졌다



김현신

· (사)송파문인협회 고문, 송파문화원장
· 시집 : 『나비의 심장은 불다』 『전송』 『타이레늘 성전』 『애수역에서 트렁크를 열다』 『빈 페이지에 얼굴을 묻고』 외 다수, 『이상 시 문학상』 『영랑문학상 시 부문 대상』 등 수상

무아(無我)의 강

인묵(印默) 김형식

집착에

삼 씨(三時) 삼 씨(三時) : 과거. 현재. 미래

같아

허공에 난을 친다

시향(時香)도

내 것이 아닌데

난향은 니것이란 말인가

나그네

천강을 걸어

바다로 가고 있다

배타적인

배타적인

배타적인 강물의 숨소리

존재는

피었다 지는 꽃

제행무상(諸行無常)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변하는 것' 뿐

뗏장에

새싹이 돋고

다시 죽어 오고 간다

나그네

파도 속에

여장(旅裝)을 푼다

가노라

가노라

이 사바세계를 떠나

저 피안의 언덕으로 가노라

말 그 너머에

인묵(印默) 김형식

운무(雲霧)속

123층 555m

롯데월드타워가 우뚝 서있다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서울의 자존심이라 이구동성으로 말, 말을 하지만

진리는 말 밖에 있는 것

롯데월드타워 부처님이

법을 설하고 계신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허망[凡所有相 皆是虛妄]하다고



인묵(印默) 김형식

- 시인 평론가
- 시성(詩聖) 한하운 발제인, 민족악기 인두금(人頭琴) 창시자, 고흥문화회 초대 회장, 송파문협 시분과 위원장역임. 시집 「그림자 하늘을 품다」, 「오계의 대화」 「광화문 숲대」, 「글, 그 씨앗의 노래」, 「인두금의 소리」, 「성탄절에 108배」, 「질문」, 「無我의 강」 등

결혼기념일

문경재

여러 날 만에 비둘기 한 마리
베란다 창틀에 앉아 있다
늘 한 쌍이었는데
짙은 청회색이 아침 햇살을 받아 초록빛을 내뿜는
그녀석이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아름다웠다

혼자 온 이유를
상상에 맡긴다는 듯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는다

오늘이 결혼기념일인 줄도 모른 채
아내는 비둘기를 바라보고 있다

어쩌면 비둘기 너머의 그 무엇인지도 모른다
내가 가 닿을 수 없는 소실점 너머

따라가다 매번 길을 잃고 되돌아와
나는 빈 화분에 물을 준다

시인과 백수

문경재

시인은 백수가 아니다
하루 종일 하늘 쳐다보고
구름 쳐다보고
해가 지는 걸 보는 게
본업이다

청탁 받은 작품의 원고료를 연간 구독료로 대체했을 뿐
그는 무보수로 일한 게 아니다
시집이 출판사 창고에 쌓여 있어도
찾아내 주지 못하는 독자의 수준이 문제이지
그는 백수가 아니다

좋은 시를 쓴다고 밤을 새워도
알아주는 이 없고
그의 작품은 꼭 만족스러운 곳까지 가지 못한 채
끝나고 만다

그러나 그는 두 개의 경계선에서
갈지자걸음을 걷고 있는
위태로운 자임은 분명해 보인다



문경재

· 2018년 《예술가》 시 등단
· 시집 : 『느티나무의 문법』

선명상 축제

민속영

오랜만에
용해사에서 떠난
선명상 축제

너무도 달라진
인천 송도의 모습

계획도시 답게
초고층 건물이 주위를 둘러싼
샌트럴 파크 잔디장

구름인듯 안개가
고층 아파트에 뿌옇게 내려온
흐린 날씨

폭풍우 불던 어제 날씨와 달리
햇빛도 비도 모습 감춘
야외의자에 앉아 있기 딱 좋은 날씨

사람 들이 붐비는 공간엔
될수 있으면 가지 않는 성격 이지민

평소 관심 있던 선명상 이기에
참석한 자리

법고가 울리고
축사가 이어지고
드디어 진우 스님의
선명상 강의

자기의 환경에 맞게
고요히 집중하며 마음
모으는 행위가 선명상

현대에 살면서
화와 스트레스 스스로
다스릴수 있는 매력있는 수행법

선 명상의 핵심은
산란한 마음 멈추고
한 대상에 집중하는 마음

나는 늘 관세음보살 염불로
마음 다스리고 있지만
가끔은 묵언도 도움 되는듯

축제는 끝났지만
일상에서 선명상 실천하면
남은 인생 평화로운 삶
살다 갈수 있겠지

매순간 감사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지낼수 있다면 살이있는 날들이
축제의날 될수 있겠지
그런 날들이 될수 있길 바라며
모아보는 두손 관세음보살

아욱 된장국

민속영

스님 염불 소리 듣고 자란
용해사 텃밭의 연한 아욱

국 건더기를 좋아 한다는
보살의 말 귀담아 들으시고
국솥 가득 정성들여 끓여 주신
아욱국 한 대접

뚜껑연 돌솥 밥엔 완두콩과 통감자
골고루 썬 김나는 밥 한그릇
여수 갯 물김치에 곁들여 먹는
소박한 저녁 밥상

공양주도 없는 절에
스님이 손수 지어주신 저녁공양
식탁에 마주앉아 감사하며 합장하네

보약이 따로 없네
부드럽게 넘어가는 맛난 아욱 된장국
약이 되네 힘이솨네

아육들의 낮은 노래가 내속에서 들리네
사람의 음식이 됐다고 그 힘 좋은데 쓰라고
온전한 자기를 다——줬다고 힘주어 말하네



민숙영

- 시집 : 『소리가 듣고 싶을 때』, 『솔바람 한 줌 가져가렴』, 『찾고 찾은길』
- 시 선집 :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쉬지 않고』, 『시의 힘』

지상의 사흘

민 향

가까이 있는 것은 별이 아니다
인공위성 너머에
물고기자리와 전갈자리
랑말자리와 염소자리
더 아득한 곳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겨우 며칠 날다 별이 된 하루살이자리

이번 생은 하루살이 생이었어 하루 별어 하루 먹고 사느라 별 볼 시간조차 없었어
자조하는 이도
구십 넘어 살았어도 돌이켜보면 하루 산 거나 매한가지야 하루살이 생이야
자탄하는 이도
하루살이자리는 모르고 살지

접 붙은 채
도처에 하루살이 떼가 출몰하고 있다
새까맣게 태어나고
새까맣게 죽어 쌓인다

하루살이의 시간을 배접한
인간의 술한 생도
하루살이자리 곁에 누워 저문 빛을 낸다

비는 예감을 동반한다.

민 향

산들바람에 너울거리는 잎새들 위로
실비 내린다
모란과 작약이 축축이 젖는다

어딘지 가슴을 쥐어뜯는 데가 있는
밤비 내린다

어떠면 내일
도심의 거리나 마을 어귀에서
그대를 우연히 만날지도 모른다
이국에서 출발한 엽서 한 장이 우편함에 꽂힐 수도 있다

수첩 한 귀퉁이
왜 적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습지, 포르투갈, 마들렌 같은 먼 거리의 단어들
다정하게 말 걸어오는
깊은 밤



민향

- 2000년 『시인정신』으로 시 등단, 2009년 『지구문학』으로 수필 등단
- 황희문학상, 한성백제백일장 시부문 대상, 송파 시문학상 수상
- 시집 : 『길에서 길 찾기』, 『아름다운 계절』 외

오월이 가네

박선정

붉게 물드는 오월
맑고 건조한 바람이 분다
미묘한 갈등 같은 오월의 청량한 바람은
붉은 피 같다
계절의 풍미를 느낄 사이 없이
피 끓어 성장통 앓는 청년의 마음으로
너만을 바라보는 오월
어느 하늘 아래서
오월을 보내고 있을
너를 그리며
여문 보리이삭처럼
오월의 오월을 탐닉하며
오롯이 성스럽게 오월을 보낸다
까칠하게 때론 귀중하게 너는 알까
존재를 야끼며 오늘도
너를 귀히 여기며 맑고 청량한 바람이 분다
오월을 보내는 마음 피 인 듯
 가슴앓이 인 듯
 그렇게
 오월이 가고 있다
 너를 그리는 오월이 가고 있다

석촌호수 연인들

박선정

나를 위해
걷는 것도
행복이다

영하의 날씨 무색하게,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겨울을 즐기는 연인들

석촌호수에 피는
크리스마스트리, 화려한 야경은
사랑을 행복하게 맺으라는 듯,
불꽃을 어두운 밤 예쁘게 수 놓는다

수은주가 영하를 가리켜도
끊어지지 않는 밀어는
팔짱 낀 채
소곤소곤 밤하늘 별들처럼 다정하고

함께 걷는 발걸음 사랑스운데
긴 속삭임은 수면 위의 오색 야경처럼
밤새도록 끝나지 않을 듯하지만

젊은 연인들 손 잡고,
다정하게 걷는
청춘
정겨워!
그들 뒷모습 바라보며,

홀로
걷는
나 자신도 행복하다



박선정

- 2018년 시와수상문학 등단, 작가회원, 문학밴드 다솔문학 고문
- 시집 : 청춘의 초상, 잊을 것이 있다면 내일, 글뜨락 동인지 회원
- 한국문인협회 회원, 송파문인협회 회원

기대지 마시오

박호은

습관 같은 기다림도 즐기고 있다

남루가 쌓인 창신동 뒷길
기울어지는 벽 틈새 풀들이 자라고
골목을 서성이는 키 작은 외등

웅크린 지붕 아래
희끗한 그림자 속 멍한 눈빛이 있다

휘어진 골목 끝은 열려있는 문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는 희망 고문일 뿐

허기진 고양이 등에 찬비가 내린다
처마 끝 새벽은 그림자처럼 어둡고

내일은 4시간의 햇볕을 들일 수 있을까
별이 잠시 머물다 가는 벽 한편에는
“기대지 마시오”가 붉은 페인트로 써있다

침묵이 지문을 찍는 좁다란 골목길
冬至가 가깝다

늦은 도착

박호은

가족의 죽음에
슬프지 않았다면 참 슬픈 일이겠지

아이를 다섯이나 낳았는데
아무도 그리워하지 않는 껍데기 같은 사람이
너무 그립다는 생각은
수십 년을 돌아 왜 이제야 도착한 걸까

도착한 연민을 풀어보니
따갑게 찌르던 모서리가 다 닳아서
방울방울 사리되어 눈가로 쏟아진다

유일하게 부뚜막에 앉아 흐느끼던 아내는
그렇게 긴 전쟁을 치르고도
그의 난장까지 모조리 담아 따라가 버렸지

휘어진 못을 펴서 집을 짓던 그의 집념은
혼돈의 어디쯤이었을까
마음은 버리고
집만 챙긴 자식들의 휘어진 마음은
피지 못한 숙제로 남기고

사는 것이 버거워 술병을 잡았는데
술병으로 세상을 놓아버렸다지

조각창에 성애꽃이 만발하던 그때
그는 왜 겨울이라는 독방에서
얼음처럼 살았을까

내 이마 위 까끌까끌하던 아버지 냄새
이 깊은 고독은 왜 이제야 도착했나
수취인 이름도 휘발된 이 슬픔을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박호은

- 서울 출생. 2016 미네르바 신인상 등단
- 현, 한국시인협회 총무간사, 송파문인협회 자문위원
- 25 시예술아카데미상 수상
- 시집 : 『모래는 지나온 시간을 덮어버린다』 외 공저

사랑이란

해성 방정숙

비가 그친 아침
물기 머금은 공기를 가르며
석촌 호수 길을 걷는다

이른 시간의 호수는
풀잎도 나뭇가지도
안개를 이불처럼 덮은 채
조용히 숨을 고른다

흘날리듯 피어오르는 안개 속
하늘과 땅의 경계는 흐려지고
내 마음도 어느새
경계 없는 고요 속에 잠긴다

햇살은 아직 멀리서 기다리고
공원 벤치 위에 앉은 고요는
나를 부드럽게 품는다

풀잎 사이 맺힌 이슬
젖은 나무껍질에 남은 온기가
모든 것이 괜찮다고

지금 이 순간을 그냥 느끼면 된다고
속삭여주는 듯하다

사랑이란
안개처럼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따스한 존재로
아무 말 없이
옆에 머물러 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수어로 전하는 마음

해성 방정숙

소리는 없지만
너의 마음은 들려온다
바람을 가르는 손끝
하늘을 향해 피어나는 수어 손짓
하나하나가 시보다 깊고
노래 보다 따뜻하다

입술 대신 눈빛이 먼저 말을 걸고
귀 대신 가슴이 먼저 듣는다

당신의 두 손이
공기 위에 그려낸 문장은
그 어떤 언어보다 정직하고 아름다웠다

사랑한다는 말
당신의 손이 알려준 그 모양을
나는 잊지 못한다

조금 다른 리듬으로
조금 다른 빛깔로
서로의 마음을 바라볼 뿐

어쩌면 진짜 말은
소리로 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진심은 손끝에서 시작되어
마음으로 번역되니
우리는 서로 수어를 대화하며
조용한 세상에
가장 따뜻한 목소리를 함께 불러낸다



해성 방정숙

- 2017년 시와 수상 문학 등단
- 시와 수상 문학 시. 수필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송파문인협회 회원
- 저서 :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 『어머니의 풍경소리』 등

사막 여행

배종선

나는 사막 여행이 좋다

높은 곳만 바라보고 올라가는
빌딩 숲이 없어도 좋고
많이 쌓기만 좋아하는
큰 창고가 없어도 좋고
아웅다웅 치열하게 살아가는
인파에 갇힐 염려가 없어서 좋다.

가시밭길 자갈길 없는 모래 벌판
천 길 낭떠러지 없는 사막
넘어져도 부드럽게 감싸주고
지루함 느낄 낚새 보이면
바람 찾아와 더블베이스 음향으로
위로의 노래를 불러 주고
모래 스케치북 위에 풍향계 그려
방향타 되어 인도해 준다

오로지 나침판만 믿고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물쇠

배종선

우리 집에 시집은 자물쇠

새벽잠 설치며 주변을 돌보고
자신의 일 포기하고 자리 지키며
집안을 안락하게 살뜰히 돌봐준
빛 바랜 자물쇠가 새삼 고맙다

화장대 거울 앞에 서서
“내가 아줌마 같애?”하던 것이
옛그제 같은데
세월의 흐름 붙잡지 못하고
쳐진 눈매 휘어진 몸매
여기저기 아프다는 곳이 늘었다

형제자매의 안위를 위해
나라와 민족의 화평을 위해
날마다 새벽 제단을 쌓는
가녀린 어깨의 쇠잔한 자물쇠

고장이라도 난다면 어떻게 하지



배종선

- 2015년 《참여문학》 등단
- 계간문예 상상탐구작가상, 한국아동청소년문학협회 신인문학상 외
- 시집 : 『어서 오세요』, 『사랑의 노래』, 동시집 『제발 말 좀 해라』

일주일가방

백재현

월요일은 건강을 위한 운동복가방
화요일은 시집을 챙기는 시인책가방
수요일은 주민센터 봉사하는 이웃사랑가방

목요일은 친구 선후배 사랑하는가족 부모님
그리움이 들고 날고 가는 추억가방

금요일은 재미같이 지내온 삶을 그리워하고
베짱이 같은 지인들과 하모니 악보가방

토요일은 산을 찾아 꽃나무 향기와
피톤치드를 가득 담아오는 가슴가방

일요일은 지나온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고해성사 교중미사 하느님 사랑가방

일주일 가방이 변함없이 살아 지내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봄바람

백재현

벚꽃축제에 목련은 벌써 오셨다 가셨네
많이 바쁘셨나봐요
매화꽃도 온다간다 말없이 가시고
개나리님은 먼저와서 자리를 지키고
진달래님은 온다는 소식 없이 오셨네요

봄바람이 모두 보고 싶어 자주오신다
봄바람에 반기는건 벚꽃 이군요
봄바람과 벚꽃이 어우러
봄바람 손 꼭잡고 춤추면서 가네
봄바람에 너도 가고 나도 갑니다



백재현

- 2016년 서울시 지하철 시 공모전 당선
- 2016년 문학에스프리 신인상 등단
- 송파문인협회 이사

인생은 곡차다

서명남

젊음을 끌고 가는
추억이 묻힌 한강 둔치

강줄기 따라
이어지는 자전거 행렬
지나간 시절 보는 것 같아
소리 없이 지나는 솔개그늘 아래

친구들
곡차나 마시자
때로는 구수하고
때로는 달달 하고
때로는 툭 쏘는 맛
인생은 곡차다

답답한 마음이
새가 되어 날으니
풍진세상 별거 없네

야생화 꽃잎
나비로 날아와
즐기자고 펄럭인다.

봄날 여인의 눈물

서명남

공허한 마음 흔들어대는
종달새
고샅길에 맴돌던
여인의 봄날이여

바람난 여인의 치맛자락
흔들 듯
휘날리는 봄이여
흔들거리는 여인이 봄이여

갈 곳이 없네

상수리나무에 걸어둔
외로움
그림자만 길게 늘어지고
뒷동산에 누운
이 몸은 갈 곳이 없네

해질녘 그림자인 양
봄날
공허에 취하여 흐르는
여인의 눈물이여!



서명남<필명 사강(沙江)>

- 한국문인협회 회원, 송파문인협회 회원
- 시집 『기억 저편의 기억』, 공저 시와수상문학작가회 동인지 『세모시』 1, 2, 공저 글뜨락 동인지 『햇글』 1, 2

날마다 봄

서영순(임금수 작곡)

어둠이 깊어도 새벽은 찾아오고
긴 겨울 지나 눈부시게 꽃은 피어나지요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여린 새싹은 조용히 꿈을 꾸어요

어제의 눈물이 별 되어 반짝이면
내 가슴에도 따스한 봄
설렘처럼 환하게 다가오지요

날마다 봄, 날마다 희망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네

바람결에 실려오는 작은 새의 노래처럼
오늘도 설레이는 아름다운 인생길

날마다 봄, 날마다 꿈
그대와 함께 피어나리라

희망 아리랑

서영순(장동인 작곡)

저 먼 하늘 끝까지 올려 퍼지는
희망의 노래를 불러보자
넘어져도 괜찮아 웃으며 일어나
가슴에 새 아침을 품어보세

거센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어둔 길에도 별을 찾아보자
넘어진 자리마다 꽃이 피어나
우리 다시 꿈을 심어보세

아리랑 아리랑 희망 아리랑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 보자
아리랑 아리랑 푸른 아리랑
끝없는 내일을 향해 노래하세

작은 소망하나가 꽃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네
서로의 가슴에 심은 희망이
오늘을 넘어 내일을 부른다

아리랑 아리랑 희망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빛나는 아리랑
영원히 꺼지지 않을 대한의 꿈을 위하여
아리랑~~~



서영순

· 송파문인협회 감사, 송파문화재단 이사, 돌체클래식 대표, (사)한국예술가곡
총연합회 이사, 송파예총 사무국장, 한글문인협회 서울시 회장

빨간등대

서주문

서해안 오이도 빨간등대
바다를 향하여 홀로 서있네
갈매기의 사랑 노래 들으며
갯벌에 조개로 글을 쓰고 있다

먼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여름의 더위를 띄워 보낸다
시커먼 갯벌에서 조개 줍는 아낙
빨간등대가 땀을 닦아준다

석양에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태양
은빛 금빛 찬란하게 춤을 추네
갈매기도 등지로 돌아갈 때
빨간등대는 황홀함을 혼자 보고 있네

꽃비

서주문

비는
예쁜 꽃잎에 진주알을 주니
다소곳이 꽃잎이 인사하며
쫄르륵 내려놓는 진주알

꽃비와 잠깐 만나는 인연
짧은 사랑은 이별이 되네
하늘을 우러러 감사드린다

꽃잎의 향기가 빗방울로 변하여
나의 가슴에 사랑 노래 부르고
축복의 꽃비를 맞이한다

떨어져간 너를 그리워하며
눈물에 젖은 꽃잎
어여쁜 미소로 기다린다



서주문

- 한글문학자문위원, 한국문학작가회 자문위원, 시꽃예술회 고문, 시가흐르는 서울 고문, 송파문협 시분과 위원장
- 2023 문학대상 수상, 2024 시문학대상 수상

저녁 바다

서철수

제주의 비릿한 바람이
바다를 데리고 와서
깊고 푸른 바닷속을 유영한다

하늘 한켠에
낮달이 버려져 있고,
슬퍼서 몸이 뜨거워진 바다는
몸살이 났다

숨비소리에 놀라 갈매기가 날고
노을이 깔린 섬. 다려도는
매일 푸념을 하고 손을 흔든다

북촌 14길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면
어디에 마음을 걸어둘까

홀로 의젓한 섬에 안겨
섬 없이 파도 소리를 들으면
파도는 짜디짠 눈물을 만들어
그리운 사람들의 얼굴을 지우고 간다

저물녘, 바다와 헤어지는 석양도,
파도치는 인생길이 허망한 거라고
자꾸자꾸 지껄이고 놀다가는 하늘에

바다는
슬퍼서 몸이 뜨거워진다

누나의 꽃잔치

서철수

하늘이 보내온 꽃 선물이
별이 되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별이 떨어진 자리에서
얼었던 몸을 흔들며
꽃이 피었습니다

누나가 만든 꽃밭에는
벚꽃이 피고, 흰 구름이 떠가고,
산새가 조잘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나무가 춤추었습니다

누나는
외로울 때마다
화폭 가득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 누나
그 고운 눈썹이 초승달로 떠 있는
겨울 잔칫날
알록달록 꽃송이 일곱 개
피웠나 봅니다



서철수

· 1999년 <시와 비평> 신인상, 한국시인협회회원 한국문인협회회원,
강원문인협회이사, 영월문협지부장, 영월동강문학회, 제3회 전영택문학상,
제61회 강원도문화상(문학부문), 시집 「바람이 건네준 말」 외

이웃은 그렇게

송수복

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그 사람의 얼굴은 낯설지 않다
어떤 날은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어떤 날은 그저 눈빛으로 묻는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길을 따라 스며드는 따스한 빛
그 모든 것이 이웃의
손길처럼 느껴진다
차가운 바람에 맞서
골목길을 걷는 발자국 소리
잠시 멈춰 서면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린다
서로 마주할 때는 조용히
하지만 마음속에
어느새 따스한 온기가 흐른다
아무 말 없이 나누는 눈빛
작은 도움이 되어주는 손길
이웃은 그렇게
우리 삶의 숨겨진 선물.

늘 미안했는데

송수복

너 하나만 남아
세상을 품은 듯 살았다

네가 웃으면 봄이었고
네가 아프면 내 가슴은 겨울이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건
너의 기쁨이 나의 전부라는 것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나는 언제나 네 편이었다

지금은
네 손이 내 등을 받쳐준다

너 어릴 적
내 품은 세상의 전부였다

많이 주지 못해
늘 미안했는데

나는 빈손이어도
언제나 너는 내게 큰 손이다.



송수복

- 시와수상문학(2015년 봄호) 시, 등단
- 시와수상문학 회장(전) 꽃들시낭송원 부회장
- 한국문인협회, 계간문예, 송파문협회원
- 서울시 청소년지도자 문화예술 부문 대상, 시와수상문학 작가회 문학상, 공로상

애수의 꽃섬

신경삼

검푸른 파도가 붉은
꽃송이를
낙아챤 정체의 섬엔
죽음 같은 악몽이
붉게 물들고

갑자기 몰려온 먹구름은
천형의 괴로움으로 가득하네
회색빛 하늘은
우리들 마음인데
희망의 조각을 모아 모아
종이배를 띄어 보지만
메아리만 허공을 맴도네

한센의 파도를 타고
전전하는 소록도의 한센인들이여
천형으로 괴로워하는
붉은 꽃들이여
악몽 벗어나려 발버둥 치지만
처절하게 자유 외쳐보지만

소록도 등대는
포말을 일으킬 뿐
치유의 반대편으로
흘러가는 한센인의 붉은 눈물을
아픔이 서린 소록도를 회억하네
애수의 꽃섬이여,

오솔길

신경삼

수목들은 나를 감싸 안고
숲속 오솔길은 평화를
속삭이고
영킨 수목 헤치며 한 줄기 빛을 향해
걷는 길

싱그러운 풀 향기와
나란히 걷는 길

도시의 공해를 털어내고
한 아름 들이키는 여유
계곡의 흐르는 물길 따라
꽃들과 손잡고 노래하는
오솔길

인기척에 놀란 청솔모
비명 지르며 달아나고
비명 소리에 놀란
숲속의 고요
고요와 손잡고 걷는
숲속 오솔길
정감어린 이 길을 걸으며
자연과 교감하고
새들과 노래하고
새 희망을 싹틔우며

깊은 사색의 강을 건넌다



신경삼

- 송파 문인협회 회원
- 시와수상문학 시부문 등단
- 『오솔길』과 『애수의 꽃섬』 2수

빈틈

신종식

나는 몰랐다

꼭 닫힌 내 마음 어디에
당신이 스며들 틈이 있었는지

완벽하여 답답하기보다는
빈틈 있는 여유로움이
사람 사는 것 같다는 말과 함께

틈틈이
빈틈 사이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
훈훈한 바람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눈길
지키고 싶은 울타리
우리 곁에 머무는 모든 것들을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는
빈틈의 아름다움

나는 알았다

빈틈을 사랑한 당신의
빈틈에서 비롯되었음을

바지랑대

신종식

마당 한구석에 서있는
오래된 바지랑대 하나

비에 젖고
햇살에 마르기를 반복하는
빨래의 고단함을 덜어주는 것이
그의 천직이다

빠져나간 색깔들
구겨진 시간들이
두 다리 뻗고 만세 부르며
잠시 쉬어가는 사이
그는 바람을 불어넣어 주며
아직은 살만하다고 토닥인다

빨래줄에 매달려 가는 삶처럼
살기 싫다고 도리질하면서도
말없이 버티고 있는 영혼들이
자칫 제자리를 잃지않도록

바지랑대는 묵묵히
제 어깨가 떠받치고 있는
한없는 무게에 기뻐하면서



신종식

· 송파문인협회 회원
· 노래·미술·팬플릿 연주 봉사

꿈속에 두고 온 여인

신호현

꿈 속에 사랑했던
여인을 꿈에 두고 왔다
작별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아침 까치소리에 벌떡 깬다

키도 작고 못 생겼다고
사랑 한 번 나누지 못했다는 여인
손길 없는 외로움에 지쳤는지
짧은 꿈속에서 행복해 했다

잠시 깨어 다시 자니
그녘 다시 만날 수가 없다
길 잃은 소년처럼 찾아 헤매다
기어이 못 만나고 아침 맞았다

꿈속 어느 외딴집에서
날 기다리며 오도둑 떨고 있을
그 여인을 내일은 만날 수 있을까
빨리 저녁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는 가족이다

신호현

1.

우리는 가족이다 뜨거운 피가 흐른다
드넓은 운동장에서 넘어져 울지마라
남들 앞에서 넘어지면 달려가 일으켜
업어주고 함께 달리는 것이 가족이다

세상에서 잠시 만나 함께한 우리 가족
서운하게 하지 말자 싸우며 살지 말자
넘어지지 마라 너의 세상 일어나 달려라
포기하지 마라 바턴은 네 손안에 있단다

2.

우리는 민족이다 뜨거운 피가 흐른다
오가는 길거리에서 쓰러져 눕지마라
남들 앞에서 쓰러지면 얼마나 힘드니
안아주고 함께 나누는 것이 민족이다

세상에서 잠시 만나 함께한 우리 민족
외면하며 살지 말자 도우며 함께 살자
넘어지지 마라 너의 세상 일어나 달려라
포기하지 마라 바턴은 네 손안에 있단다



신호현

- 시인, 문학평론가, 한국문인협회, 종로문협 감사, 송파문협 자문위원
- 현재, 배화여중 교사
- 강남문학상, 성천문학상, 타고르문학상
- 『통일이 답이다』 외 7권

풍등風燈

- 여주 고달사지에서

안서경

마음 하나 달로 떠
공중에 걸려 있네
와도 좋고 아니 와도 그만인 것을
그래도 바람 속 등불 하나는
누가 밤낮없이 매달아 두었다

빈 꽃가지에 낮달처럼 떠 있는
저 낡고 빛바랜 풍등
아픈 역사 비우고 담기를 반복하며
이 땅의 천년바람 불어 그네를 탄다

발아래는 반만 발굴된 채 눈을 비비는
까맣게 숯이 된 절터의 비석들
다 해쳐 무엇 하리, 그냥 두어라
타버린 비문, 그을린 문장을
내밀히 들여다보는 일은 쓸쓸하다

아직도 몽글몽글 물이 차 고이는
우물터와

아궁이 불 지핀 흔적들
비로소 산사의 밥 짓는 연기 매캐하다

돌아보면 지나온 시절들 모두
황량한 빈터로 돌아가고
바람에 흔들리듯 기억마저도 가벼워져
다행이라 여길까

마음속 오래된 흥등 하나도 꺼내어
서둘러 그곳에 달아두고 왔다

수련을 읽다

안서경

여태 본적 없던 찹통 무더위 속
연못도 별수 없이 부글부글 끓었을 텐데,
그 속도 말이 아닐 텐데,
어느 날 여리고 고운 수련 한 송이
말강게 밀어 올렸다
애끓는 열탕 한가운데서 어찌 견디었나
존귀한 널 똑바로 보지 못하고
부글거렸을 그 연못 속
들여다볼 엄두도 못 내고 그냥
살포시 지나려는데
안녕! 먼저 인사를 건네 오는 것이다
처음엔 스치는 바람소리인가 하였다



안서경

- 1986년 <시문학> 등단, 제1회 송파문학상 수상
- 시집 : 『그리운 저녁』, 『유독 그곳만 환한 별마루』 등
- 한국문인협회, 송파문협, 경기시인협회 회원

[디카시]

떡이사슬

안정선



종점에 앞기도 전에
새로운 시점
육골 아직 엄연한데
시간차 공격 드세다
파리도 줄 서 기웃기웃

[디카시]

선생님

안정선



어느 순간인들 가벼울 수 있나
닥쳐오는 힘, 당기는 중력
순간마다 알고나 살았을까
눈귀 열고, 날게 해주셔 고맙습니다



안정선

- 2025년 5월의 동카시인으로 선정된 안정선 디카시인은 계간 『아동문학사조』 동시조 부문 신인문학상으로 문단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제3회 동심디카시 신인문학상, 제4회 신정문학상 동시부문 최우수상, 제2회 산해정 치유문학상 (디카시 부문)을 받았다.
- 저서에는 공저 시조집 『도란도란』 및 민조시집 『눈꽃여행』 등이 있다.

비 내리는 바다

양순복

푸르는 치마폭에
아롱지는 무늬

간밤
설핏한 내 잠결을 스쳐
오늘 저 청록의 바다에서 너울진다

고깃배는 저 멀리
안개 속에서 서성이는데

켜켜이 쌓인 저 모래톱
빈 조가비 껍질 속에
아무도 몰래
그리움 하나 숨겨놓고

나는
우산 밖에서
가슴 조이며 떨고 있네

초승달

양순복

너는 밤마다
내 안에서 자라
내 안에서 피다 지는
그리움인가 보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리 제 몸을
스스로 키워 내는
사랑인가 싶다

때론 제 몸을
스스로 베어 내는
칼날인가 보구나

오늘 밤도 너는
나를 잠들게 하고는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인가 보다



양순복

- 송파문인협회 재무담당
- 한국문인협회 복지위원 역임
- 제1시집 『움집 위에 핀 이슬꽃』
- 제2시집 『B형 도시』

가을의 환

엄옥순

강바람에 몸 씻고
한 묶음 꽃이 되어
푸른 안개 무게로
도강하는 은나비 떼

물거품 터뜨리는
그대의 목 젖는 그림

소란한 달 데리고
침병대는 갈댓잎 두고
마음의 강 모퉁 돌아
돌아오는 아이가

문신한 시심 한 줄은
하늘도 우는 기도소리

맨발의 그대는
저 만치서 흰 돛배

비인 나룻터마다
빛 걸려드는 소리

코스모스

엄옥순

초가을비로 몸 불린 물 맑은 산길에
가지런히 흔들리는 하이얀 풍금소리

해살 짓는 바람결에 해맑게 번지는
하양 분홍 자주 소녀들 웃음소리

어스름이 드는 마을 도란도란
홍시 빛깔 불빛 창호지에 번지듯

목이 가는 아이들 집으로 내달리는
가쁜 숨소리로 높아지는 음계
꽃잎 하나마다 영이 숙이 란이

멀고 먼 기억의 창 너머
해진 건반위로 통통거리는 분홍 하양 자주
그 다른 빛깔마다 숙이 영이 란이



엄옥순

- 계간 『문학시대』 시 신인상, 시집 『봄날에는 문득』, 『그늘미 마을』,
월간 『수필문학』, 수필집 『삼화로 그린 추억』
- 송문협 원고 해화 이명림 2025

젊은이여

海華 이명림

두 눈을 꼭 감고
두려움이 오더라도
폭포 아래로 아래로
세차게 떨어져라
폭포 밑에서는
푸르고 잔잔한 작은 호수가
그대를
포근하게 안아 줄 것이다

작은 우주

海華 이명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면
만인과 연결되어 소통으로 간다
작은 우주
유튜브로
AI로 들어가서
홀로 산책길 나서면
지구촌 구석구석
쪽 뻗은 길을 통하여
활기가 넘친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소통문의 열쇠
스마트 폰



해화(海華) 이명림

- 건국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한국시인협회, 국제PEN한국본부, 카톨릭문인협회 회원,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자문위원, 제32회 순수문학상 작가대상 수상
- 저서 : 『친구가 되는 산』, 『남미로 가는 길』, 『사랑가』, 『금강산을 두 번 가다』, 공저(동화) 『우리 땅 지키기 대작전』

목련

빛새 이상진

그 긴 겨울
어찌 참고 살았나
이토록 하이얀 사랑을
마른 가지 속에 어떻게
겨우내 숨기고 살 수 있었나

하얀 숨결로 피어난 너,
겨울 끝자락에서
봄을 가장 먼저 부르는 소리
바람은 아직 차고,
햇살은 조심스럽지만,
너는 두려움 없이 가지 끝에 서서
조용히 세상을 밝히는구나

눈꽃인가 했더니
그리움이 피었다
마른 가지 위에 돋은
희망의 첫 잎
너를 보면
지나간 날들이 부드럽게 떠오른다
말없이 피고
말없이 지는 너처럼
나도 조용히 누군가의 봄이 되고 싶다

무심한 봄날에

빛새 이상진

비는 조용히 지붕을 적시고
벚꽃은 말없이 훑날린다
참 짧다, 피어 있던 시간도
이별도 예고 없이 지나간다

세월은 소리도 없이 걸어가고
발걸음 멈추고, 그 뒤를 바라본다
잃어버린 것들이 자꾸만 떠올라
하늘빛 아래, 마음만 허전하다

봄은 여전히 고요히 아름답고
나는 여전히 그 속에 머물지 못한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도
내 마음은 아직 길을 헤맨다

무심한 계절이 또 한 번 지나가도
그대 기억만은, 꽃잎처럼 훑날린다



빛새 이상진

- 1980 대학생 문예 입선, 2002 시사문단 신인상, 2003 한맥문학신인상
- 한국문인협회 송파지회 사무국장, 세계문학, 시산, 한국동일문인협회 이사
- 시집 : 『회색빛도시위로 날아간 빛새의 受胎, 6일 이전』, 『황새여울』 등

잡초

이신경

흄냄새라도 맡으면
악착같이 움켜잡고
뿌리를 내리고 기둥을 세운다

기다리던 소나기
한 줄금 쏟아져 내리면
영덩이를 땅에 깔고 앉는다

뺏히고 잘리어도
끈질기게 살아남는 것은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다

지구가 나를 사랑하는 까닭이다

조그만 하늘 속에

이신경

우두커니 놓인 달밤 향아리
마음 한 구석 비워 놓았다

큰 입을 벌린 채
침묵을 먹고 배가 부르다

눈물이 찾아올 때
내 몸은 텅 빈 향아리

장마 지면 가득 채워지겠지
둥그렁고 조그만 하늘에

나의 고은 구름과 달과 별이
찾아들겠지



이신경

- 시인, 한국문인협회 회원, 창작문학및 시성한하운 부회장, 평론가협회 이사, 송파문인협회 이사
- 창작문학대상, 대지문학대상
- 시집 : 『물빛깨매기』, 『짚베옷에 흘린 눈물』 외

어느 자주독립

이영숙

연명치료를 거부한다고 법적 문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에 서명한 후
어머니가 전화하셨다, 이제 됐다

사나운 꼴 안 보이고
고요히 저물어가게

살아서 죽지 않고
죽어서 살게

내 숨을
내가 거두어 가게

동네 복지관까지 출장 나온 담당자에게 고개 숙여 몇 차례나 사례한 후 노인보
행기를 밀고 나오다 핸드폰 단축키를 꼭 눌렀을 구순 노모

맷돌도 앓힐 수 있는 함지를 그네뛰기 대회서 상으로 받았던 젊은 날의 활기

달이 참 높지막하니 떴구나 할 때의 말투

일제히 떠올랐던 우전차가 향기를 다 내주고 가라앉을 때의 무게

미지근한 물

이영숙

햇살과 바람을 체에 치고 그늘을 용량대로 섞어 치댄 낫을 발효시킵니다 조금 부풀어 오른 낫을 밀대로 밀어 진정시킨 후 도톰하고 네모나게 썬 소음을 중앙에 얹고 양 끝을 접어 중간에서 세심하게 봉합해 줍니다 다시 밀대로 밀어 평평해진 낫을 바닥에 두 손 포개듯 가로로 세 겹 접고 세로로도 세 겹 접고 잠시 쉬어가며 이 과정을 수차례 반복합니다 소음의 겹이 켜켜로 증식합니다 낫의 강력과 박력이 또 한 번의 발효를 거쳐 구워져 질감과 맛이 부드러운 수십 겹 수백 겹의 밤이 되는 건 페이스트리 빵을 만드는 과정과 흡사합니다 하룻밤은 대략 이틀의 발효를 거쳐 완성됩니다

결은 파삭해도 속은 촉촉한 밤을 결대로 찢어먹거나 부랑자와 멧비둘기, 나팔꽃들은 밤의 휘장을 한 장씩 받아 두른 채 저마다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상처를 핏거나 밤을 지키느라 나뭇잎 밟는 소릴 내는 족속도 있습니다 밤은 수요일 다 채우고도 남아돌지만 상하는 일은 없습니다 뜨거운 물 반 차가운 물 반 이런 조합에선 섯내가 납니다 비등점을 지나온 물에 무수한 겹이 생깁니다 몽근한 속도로 끓어오른 뜨거운 차를 훌훌 불며 마시는 동안 시시각각 물은 밤과 몸을 적시며 머그컵에서 몽근하니 식어갑니다

몸은 캄브리아시대부터 현생누대에 이르는 지층을 모두 간직하고 있어서 어느 날 불쑥 석탄기나 백악기 부위가 융기하기도 합니다 고사리 화석이라도 출토되는 날이면 몸은 여러 날 앓아요 병이 오는 방식입니다 어스름에 이끌려 몸은

집 밖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각기 다른 온도의 생경한 지점들을 통과하며 흘러드는 물을 겹겹이 쌓아 올려 화석연료처럼 검은 석촌호수에서 오늘도 초승달 배가 오락가락하네요 배에 탄 이들과 걷는 이들 중 누가 더 영양가 높은 밤을 먹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배를 타거나 걷거나 한 몸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이행할 수 없어서 우리는 호수의 안팎에서 불빛 어린 미지근한 물을 내려다봅니다.



이영숙

- 1991년 『문학예술』로 시 등단, 2017년 『시와세계』로 평론 등단
- 시집 : 『시와 호박씨』, 『히스테리 미스터리』
- 평론집 : 『야만의 시대기』

6월, 숲이 말을 건네고

이원우

새벽은 초록으로 젖어 있고
하루치 햇살은 나뭇잎 끝에 걸린다.
이슬은 풀잎마다 달려 있고 새들은 밝게 지저귄다.
숲은 말이 없다.
흙의 기억, 바람의 체온,
수천 겹의 잎맥으로 쌓여온 시간과 혼(魂)
6월, 자연은 가장 깊은 숨을 들이쉬며
햇빛은 내리쬐되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
나는 그 앞에서 작아지고
작은 나를 통해 커지는 세계를 본다.
삶이란 6월의 나무처럼 묵묵히 자라는 일
말보다 빛으로 쌓이는 침묵

세상만사

이원우

달빛이 비틀거리며
담장 끝을 더듬는다.

쓸쓸한 길 모퉁이에서
곤드레만드레
길을 걷다가
내 안에 피는 꽃

잊자며 마신 한 잔
기억을 깨우니

세상이 흐릿해질수록
꽃물이 든다
너의 모습만



이원우

· (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송파지회장
· 전) (사)한국문인협회 송파지부회장

연두(年頭)의 축복

-이도의 출생을 축하하며

이은수

우리 곁으로 온 별 하나
아직, 우주에 교신하는
너의 오물거림은 신의 언어

항성의 담을 넘어 2만 광년쯤 날아와
안테나를 길게 뽑는다

꿈결인 듯 버둥거림은
모호하고도 신비로운 기원

불을 쥐고 있는 주먹 쥔 두손
꼬무락거리는 발가락의 시위

궁륭(穹隆)을 깨뜨려 본성을 찾으러 온
작은 경전에
명치 끝에서 뚫고 나오는 숭배

낮선 행성으로 이주한 나무가
푸른 전언으로
뿌리 깊은 숲을 당기는 시간들이 걸어온다

기억을 걷는 시간

이은수

언제 청춘을 다 내다 팔았을까?
얼음 속에 투명한 과거는 갇혔어

오일과 안료를 섞어 눈을 만들어 넣고
낱아버린 내 안의 공간을 채우려 들었지

두꺼운 껍질에 퐁퐁 싸인 빙점의 시선은
빈틈들의 소리를 들었어

어쩌면 애매한 시간이,
물 흐르는 첫발의 소리일지도 몰라

홀연, 깨어난 그 얼굴까지
서사에 한 문장으로 흘러갈 수 있겠지

어떤 시각과 시각 사이의 그늘이
다시 낯선 길에 스며들기도 하지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곤 한다



이은수

· 2011년 아동문예 신인상, 2021년 미네르바 등단
· 시집 : 『링크를 걷다』, 『코끼리를 타고 바다를 달리면』

말문

이을기

포구는 늘
포구의 말로 각을 세웠던 것을
물결 사이를 오가던 물결은 알았을까?

가을이 뒷걸음질 치는 삼길포 끝자락에서
온통 예각인 나를 보듬어준 바다가 있었다

송곳니로 가슴을 할퀴던 것도
꽃 자란 향기의 징조였다고
시린 꽃의 이름으로 돌아선
등줄기를 먼저 보듬어주던 가슴이 있었다

마음이 마음에게 건너가는 시간
바다는 말이 없는데
온 천지가 바다의 말로 가득 찬 것을
넘친 사랑이 복받쳐 담벼락을 넘을 때에야 알았다

고맙다고 주억거리지도 못하던 사내에게
몸서리치도록 가두어두었던
속울음에 확 불을 댕겼던 말문이
자꾸만 역새 속으로 울고 있었다

어느 독백

이을기

S 대학병원 암 병동 4층에서 창경궁을 바라본다
새벽 비에 단풍 손가락 잘리고
서릿바람 맞은 가을이 절룩거리며 뒤돌아본다

미련 두지 말고 쿨하게 가라

내 삶의 가을 내일도 모르는데
네 내년을 어찌 기다리겠나
다시 만나자는 약속 너무 믿지 말고
올해가 마지막 되더라도 아쉬워하지 마라

그래도 기대 끈을 놓지 않고 보내니
눈에 찬바람 들어
물 보이기 전에 가라
내젓는 손등에 매달린 링거줄에 핏빛이 올라온다
종심을 지나 혈액암 말기와 같이하는 환자복이 혈령하다

“암세포나 가지고 가지! 무겁지도 않은데”



이을기

- 2018년 7월 시부문 등단
- 송파문인협회 회원
-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소나무

이한재

언제나 푸른 친구

늘 그 자리에서

곳곳이 지키는 믿음직한 모습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의지

사나운 눈보라 휘몰아쳐도

이글거리는 염천에도

사시사철 변함없이 서 있는 자태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신비

숨겨진 푸른 향기

삶의 비바람 속에서도

푸른 얼을 지키는 솔잎들

세월이 다른 옷을 입히면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변함없는 너의 숨결이

우리 영혼을 어루만진다

재생의 길목에서

이한재

긴 여정 끝 작은 쉼터

낯은 몸을 서로 의지하며
용기종기 모여
떠날 날을 기다린다

각기 다른 이야기를 품은
여행의 길고 짧은 흔적들

겉모습에 남겨진 낯설은 이름
화려한 추억의 발자취
휘청이며 겹쳐진 시간들

바람에도 흔들리고
구름에도 그림자 드리운 곳

녹슨 자국도 찌그러진 얼굴도
모두 함께 만드는 화음
소박하지만 빛나는 그들의 합창

비움 속에서도 피어나는

녹슬지 않은 소망의 하모니

쇠잔한 울림 속에
정겨운 화음으로
서로의 공허를 위로한다

재생열차를 기다리는
멈춘 시간 속 삶을 노래한다



이한재

- 2007년 <문예사조> 시 등단, 한국발간 시집과 수필집 5권
- 미국 발간 영어시집과 영어수필집 5권, 미국 문예지 13곳에 영어시와 영어 수필 17편 게재
- 국회·전국문화원공동 개최 <2005 전국창작시 공모> 은상 수상

세방낙조

이효성

나무 계단 기다란 널빤지들이 울렁대다 끝자락이 들어 올려지더니 위에서부터
하르르 불꽃이 쏟아져 내렸다

아니다, 한땀 한땀 누이가 십자수를 놓는다 한순간 치마 위로 쏟아져 내려 데
이기라도 한 듯 누이는 달아나고

아니, 아니다, 소반에 담아 올린 이 섬 저 섬이 흥시 하나 덩석덩석 배어 물자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을 달게 삼키는 가장 어린 섬

한 아이가 손을 높이 들어 하늘 셔터를 내릴 때 미처 피하지 못한 새들이랑 갓
바람이 서로 휘어져 스크린에 마지막 덧칠을 서두른다

영화관을 빠져나가는 이들이 서둘러 자동차 시동을 거는데 자막이 다 올라가
도록 객석에 앉아 있던 한 관객이 몸을 일으키며 느린 손뼉을 친다

헐렁한 여행길에

이효성

두꺼운 겨울이 길을 떠났다
라오스 지도 한 장 찹찹 접어서 지갑 속에 챙기고

나무와 산이 끝없이 리플레이 되었다
옛 식민지 휴양 도시는 늘 여름이었고
대로에서도 사원의 향내가 났다
트릭을 개조한 툭툭이 여행길에
흙먼지 뒤집어서 쓰며 다시 타고 싶은

순박한 채구들
야시장의 여인네는 아직 흥정이 서투르다

라오족과 야오통, 라오승, 베트남계로 이루어진
종족의 95%가 소승불교를 믿는 나라

아침 탁발 공양 체험 시간
여행자들은 음식이 든 공양 바구니를 사서
신발을 벗고 줄지어 앉는다

문화는 젓어야 문화

일행 중 누군가는 우리도 맨발이 되어야 한다느니
허물을 양말로 덮어야 한다느니
라오스식으로 사유하기 시작하는데

줄지어 맨발로 다가서는 주황색 승복들
늪수그레한 날 공홀히 내려다보는 옛된 스님과
우월감도 부끄러움도 없는 공양 의식이 이루어진다
혈령한 여행길의 외판섬에



이효성
· 2024년 <시와문화> 신인상

한여름 밤의 산책

임영화

성내천변에 가로등 켜질 때
아파트단지를 빠져 나온다

바람 불어 탁 트인 들판
모심기 막 끝낸 무논배미는
개구리 떼의 한바탕 공연장

악보에 그릴 수 없는
굽어대는 소리
가글하는 소리
떼굴떼굴 구르는 소리

소음기준치를 훨씬 넘어도
귀에 거슬리지 않은
먼먼 고향의 가락

논두렁 길, 소년은 갑자기
돌멩이를 집어 던져
그 시끌벅적한 개구리 세상을
일시에 제압하곤 했었지

사라진 소년을 쫓아 단숨에
고향까지 다녀오는
한여름 밤의
달음박질

은행나무 아래에서

임영화

잎새를 밀어내던 손
차마 마른 잎 떨구지 못하는 손
바람이 지레 알고
아랫마을 가는비까지 데리고 왔다
행여 나무의 잠 깨울까
밭밑에 소복이 쌓아 놓았다

새벽잠 든 바람 깨우지 않으려
나무가 지레 알고
가지 벌려 길을 넓혔다
하늘이 소복이 내려앉은 사이로
바람이 활활 지나
쉬이 겨울로 향할 것이다



임영화

· 2018년 <시와 문화>로 등단
· 시와문화작가회 회원

양파

전세중

겹겹이 옷을 껴입은 양파
몸속으로 천둥과 번개도 지나갔으리라
푸른 잎을 내세우고 조금씩 커가는 알뿌리
둥근 양파 속에는 어머니가 들어 있었다
층층시하에 둘러싸인 몸
말과 울음을 삼켜야 했다
찾아오는 손님과 건사해야할 식솔들이 많아
손은 늘 젖어있었다
어쩌면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
안과 밖을 겹겹이 둘러쌀 것이다
언젠가는 거들 날을 믿으며
자식 같은 뿌리에 기댄 채 숨죽여 때를 기다려야 했다
양파를 한 겹 한 겹 들쳐낼 때마다
매콤한 어머니 눈물이 흐른다

텃밭

전세중

어머니 땀방울로 채소가 자랐다
고추며, 가지며, 상추며, 배추랑
가뭇물에 물주며 무던히도 가꾸었다

푸름이 물결치던 자투리땅
어머니는 떠나고
돌이 텅굴고 풀이 무성했다

그곳에 가면 그리움을 만날 수 있을까
넉넉한 미소가 있을까

빈 가슴은 지나간 계절을 껴안고
아득한 그리움의 끝에 서 있다

아직껏 버리지 못하고
잊지 못한 기억들은
아픔으로 싹이 트고 있었다



전세중

- 송파문인협회 회장
- 월간문학 공무원문예대전 시조 최우수상 등단(2002)
- 농민신문신춘문예 시조 당선(2004), 2019 KBS 창작동요대회 노랫말 우수상
- 시조집 「봄이 오는 소리」, 수필집 「아름다운 도전」 외 저서 30권
- 가요 350곡(한국음악저작권협회)

흐린 우산

전 정

가시를 삼켰다 꿈이 심장을 찌른다 뭉툭한 입은 검게 타들어
가고 '꽝' 감정 안테나는 두근거림을 전송하기 시작했다 문장
은 오늘의 기억이 된다

울음을 감춘 표정이 뼈와 뼈 사이에서 걷고 있다 기억의 얼굴을
을 본 사람은 없다 쿵쿵 발기되지 못한 날씨가 잦아든다

그녀는 흥분으로 젖은 입을 흔든다 펴보지 못한 그녀의 울긋불
긋한 갈증이 수신되지 못한 채 비를 기다린다 번개가 치고 창문
이 닫히고

첫 대면

전 정

눈들이 태어나고 있다 태어난 눈들이 바다와 마주칠 때 마주친 눈은 바다의 일부분이다 눈은 나를 붙들고, 붙들은 발과 무관해지면 다른 발거음, 다른 소리가 끼어든다

어둠 속에서 태어난 눈들이 목덜미까지 파고든다 네온처럼 명멸하며 문장이 될 수 있을까 문장이 될 가정을 하고 있다 문장이 될 준비를 했다

그러나 준비 없이 찾아온 눈들 때문에 나는 빠른 느낌으로 말려든다 바다가 눈꺼풀에 경련을 일으키며 고개를 든다

눈은 보고 있는 것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나 발생한 것을 찾지 못 한다 어둠은 내게 전진하고, 희끄무레한 배경이 새어 들어와 줄무늬를 만든다

나를 강타한 눈들이 나를 바라보는 동안 아침은 다시 태어난다



전 정

· 2013년 시와세계 등단

가을나무

전한태

바람결에 옷을 벗고 있었다.
부끄럼없이 찬란했던
그 모습을..

때가 되니 버릴 줄 알고
물리설 줄 아는구나

양상한 뼈만 남긴 채
속내와 속 모습까지 모두 내어주고
수치와 조소를 부끄러워하지 않구나

닥쳐 올 눈보라와 겨울바람을
어찌 견디어 낼지.
자연의 순리에 네 몸을 맡긴
너의 대범한 행동
나 너를 닮고 싶다

지난 세월 집착하지 않고
한때 영화 속절없이
가 버렸지만

너의 추억 곱게 곱게 간직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가을나무여.

수종사

전한태

삶에 여유를 찾고 싶을 때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바람처럼 다녀가고 싶은 곳
소박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

그 길 위에 서면
수반처럼 맑은 물빛
동양화처럼 펼쳐진 호수
산사의 고요함이
지친 신심을 달래준다

잠깐 비가 그친 사이로
강넘어 구름이 걸렸고
짙은 녹음 골짜기에 안개가 피어오른다

그림 같은 물줄기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서서
지나온 70여년의 인생을
되돌아 보며
지나온 세월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언제나 기뻐하고
모든일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야지.



전한태

- 신홍대학교 교수,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장, 한국작가 시부문 신인상, 경기문인협회 특별공로상, 한국문인협회, 가톨릭문인협회
- 시·수필집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외 1편

몽돌밭에서

정명숙

어제, 오늘도

나의 언어는 몽돌에

부서지는 파도가 된다.

몽돌 속으론 푸른 바다가 출렁이어

언제부턴가 바닷바람으로 휘둘다가

해가 되고 달이 된다.

탱자

정명숙

가을 햇살 가득히
눈부시게 향기를 머금은
하늘의 꿈을 봐

곁이야 가시 면류관을 씻을지라도
씨앗을 품은
속내는 행복한 향기

밤낮으로
해와 달을 닮은
진한 모성의 진실

눈이 시리도록
침이 고이도록
알 수 없는
모나리자의 미소.



정명숙

- 문화정보학 박사, 한글문인협회 이사장, 한글문학 발행인
- 1998. 푸른미래내 동인 제1호 - 2009. 겨울호 『민음의 문학』 등단
- 저서 : 『바람의 말씨』, 25.3.27 『몽돌밭에서』,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
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 수상 : 국회의장상, 문화체육부장관상 등 수상

해남은 대륙의 시발점

정문수

땅 끝 마을 해남은 억울하다
대륙의 끝자락에 외로운 지점
남들은 다들 땅 끝 마을이라 부른다
이것은 분명코 땅 끝이 아니라
대륙을 처음 내딛는 땅 시발점이다

사대주의 대륙의 인간들이 붙인
땅 끝이란 명칭일지 모른다
크나큰 대양에서 맨 처음 내딛는
대륙의 첫 땅 첫 발자국으로서
여기는 대륙의 시발점인 해남이다

대륙의 한반도를 처음 내딛는 곳
크나큰 땅을 가려면 이곳을 밟아야 한다
외로운 풍랑을 맞아가며 지켜온 이곳
누가 뭐래도 대륙을 맨 처음 밟는 해남 땅
이곳은 땅 끝이 아니라 대륙의 시발점이다

내 조국의 내 땅

정문수

한반도란 내 조국
그 마저도 일백오십오 마일의
휴전선이란 철조망의 허리띠를 두르고
숨 가파하는 내 땅 내 조국

이념이 서로 다르다고
민족상잔의 비극을 겪으며
지금도 이산가족들은 피가 끓는다
통일이란 두 글자를 머리에 이고 산다

백두산 천지 물을 먹물 삼아
내 조국 내 겨레의 통한을 써내려 갈까
두만강 도문대교 다리 넘어
손에 잡힐 듯한 내 강산 내 조국 나의 땅

삼면이 바다로 막히고
북쪽 마저도 이념이 다른 동족으로 막혔으니
우리 민족은 외로운 섬 속의 외로운 민족
강인한 내 민족 영원 하리라



정문수

- 송파구 문인협회 부회장
- 한국시 [어머니의 江]으로 등단
- 한국시 大賞 수상, 대한민국 근정훈장(제46642호) 수상, (사)한국문인협회 표창 수상, 『수선화의 눈물』, 『들국화』, 『人生』 등 7집 발표

기일(忌日)

정옥화

앞마당 장미꽃 한창 어울려져 있을 즈음
어머니는 천국 길 가시길 바쁘셨다
“엄마 꽃 좋아하지”
마당에 핀 장미꽃 한 송이 꺾어
엄마 손 꼭 지어 주던 남동생
말없이 고개 끄덕이시더니
잠시 동안
장미 꽃처럼 화사한 미소 보이시더니
아무런 말 없이 웅켜진 장미꽃 마저 놓으시고

빈손으로

새색시 신부 되어
천국 문 들어 가신 어머니
고개 떨군 장미꽃 / 슬픔 안으로 묻어 주었다
가족들 울음 썩인 찬송가로 배웅해 드렸다
“달 빛 보다 더 밝은 천국
몇 칠 후 몇 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수많은 밤 하늘 별들도 슬피 울었다
오월이 끝나는 그 날 밤

버려진 화분(2)

정옥화

누군가에 버려진 수국화
잎은 누렇게 매달려
어설피게 꽃은 시들어 버렸다
보듬어
앞 마당에 심어보았다
매일 아침 마다 정성 담은 물을 주었다
몇 날 보낸 어느 날
청 푸른 잎으로
손뼉 치듯 반가운 잎 파리 웃고 있었다

겨울을 이겨 내고 봄을 보낸
여름날
이슬 담은 보랏빛 꽃송이
한아름 꽃 수레로
앞뜰
온 종일
싱그러운 꽃 내음
버려진 것에 너는 나의 기쁨이 되었다
나비가 날아든다



정옥화

· 2011년 『심상』 등단
· 중등교사 역임

붉은강

조기엽

6월이 흐르는
강가에는

유난히 빨간꽃이
많이도 피어있네

바람에날린 꽃잎
강 물들이고

6월강
빨강계 흐르네

70여년전 어느날 새벽
초대받지않은 무리
딱총놀이가
6월강을 빨강계
물들였었네

오월

- 푸른공간

조기엽

푸른오월
신록초원은
점 직선 삼각형 사각형
원 구형과
이들 뒤틀린 공간으로
가득하다

온갖중생
점되어
휘젓고
만나고 소리내고
춤추니
오월 공간
축제로다



조기엽

· 고려대학교, ROTC 장교 전역, 자율형사립고교 근무
· 녹조근정훈장 수상, 송파문인협회 부회장, 한국문인협회원

회의 중

조은재

산책로엔
짱짱하게 핀
야무진 꽃들이 있다

하얗게 지새운 흔적에도
흐트러짐이 없다
평온과 완벽한 조화가 있다

씀바귀와 민들레,
제각각 하얀 보석을 품고
조용히 회의를 연다

나는
'진심으로 생을 대했다'
너희도
나처럼 살다가라

제대로 살다 간 흔적은
마무리까지
아름답다

회의 중에 오가는
단 하나의 안건

'진심으로 생을 다하려면?'

역주행

조은재

출근길,
가던 길을 멈추고
나는 역주행한다

횡단보도 건너편
산책로에
한 여인과 개 한 마리,
조급했던 마음을 평화롭게 다독인다

도시의 하늘은
오늘따라 더 청아하다
구름 몇 점 떠 있고
비행기 지나간 자리에
하얀 스크래치 하나
가슴이 설렌다

멈췄던 마음이
이제 출근길을 재촉한다
내 발걸음,
가볍다



조은재

· 『심상』 2013년 상반기 신인상 등단
· 시집 : 〈민들레 기개〉

마음을 들다

지소하

곰곰이 들여다보는 일이 생겼다
제대로 보려 한 순간부터 꺾어보니
서너 달은 되어가나 보다
해묵은 이야기로 치부해 오던 시간이
시간이 약이라는 방편에 기댄 채
건성으로 대한 시간이 미안해진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은
자신을 갉아먹고 나서야 발현하는 일
땃하고 미워하고
말을 짓고 망상으로 덮인 일을
만인에 진실로 매도하기까지
자신을 버리는 시간이 얼마였을까

자신에게 돌아올 말이 두려워
모진 말로 덮으려는 안간힘을 본다
생떼거리가 이해의 틀을 벗어나
고스란히 돌려져
하늘마저 노랑게 외면하는 모습을 본다

어떤 말도 닿지 않는

듣지 않겠다는 몸짓에
그미에게 내줄 수 있는 나의 손은
없음을 안다
나의 손은
누군가의 편으로만 오해받을 손이기에

그럼에도 손을 뺐고 싶은 것은
그 아픔이 눈에 들어왔기에
의지처 없고 버팀목 없는 헛헛한 모습이
그렇게라도 살아내려
일말의 끈을 잡고 요동치게 하는 애달픈 몸짓이
발치에서 선연히 밟히고 있기에

동백 숲 붉은 편지

지소하

그곳에 묻지 말고, 미루지 말고
직접 보내시라 하고 싶은데
그대 하는 양을 익히 아는 터라
그건 힘든 일이지 싶어요

그래도 그니 생각을 좀 해 줘요
요즘은 계절의 변덕이 죽보다 심해
비위 맞추며 따라가기도 버거워
가끔 이른 추백이 되었다가
때를 놓치곤
늦은 춘백이 되기도 하는 삶인데
무거운 편지를 지라니
속달로도 모자라
일일 특급이라니요

동산지기 무심코
동백나무 아래 들추다
숨 막혀버리면 어쩔답니까

겨울에 발맞춘 뿌듯함에
목숨 줄 하나 피워냈더니
이 무슨 편지런가
이 무슨 애간장이런가
놀라고 놀라
마냥 툭
툭
털어내 버린다니까요



지소하

- 2017년 5월, 시에 뜻을 두고 시를 쓰기 시작
- 푸른문학 평생회원, 삽화가, 캘리그래퍼(소하 숲_캘리)
- 교정·교열·윤문·편집, 표지 디자이너, 글뜨락 동인회 회장

한글

차효범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 카타파하

ㄴ은 경건해요
무릎 접고 두 손 하늘로

ㄷ은 반가워요
입 벌려 대화를 향해 갈 때

ㄹ은 부듯해요
너의 마음속을 알아 갈 때

ㄺ은 다정해요
서로 기대어 사랑할 수 있어서

ㅇ이 서글퍼요
떠나보낸 표정으로 석양이 붉어질 때

ㅅ은 계절이 그리워요
흰모자 차림새로 세상을 하얗게 덮었을 때

흐은 거울 속에 풍경
혼자 있어도 웃으며 그리워 할 때

○은 다시 보고파요
돌고 돌아 이응의 말이 모여드는 해바라기꽃

물결로 자음과
모음이 포개지면서
세상 모든 전등에 스위치를 켜다

인생 벗님

차효범

우정은 어깨에 나란히 팔을 걸고
애정은 마음으로 뜨겁게 느끼고

같은 쪽 바라보며
서로를 마주보며

돌 같은 우정은 깨지지 않는 금강석
솜 같은 애정은 헤지지 않는 솜이불

말없이 있어도 기분을 아는 사이
쳐다만 보아도 눈빛이 통하는 마음

정감은 시나브로 무르익어
모과처럼 향기 뿜고
우리는
계절이 오늘 걸 지켜보는 사이



차효범

· 중국정치학 박사, 서경대학교 명예교수, 조각가, 한국미술협회 정회원, 시인
· 시집 : 『토요 쉼터 석촌호수』(시산책사) 출간, 송파문인협회 정회원

가을 낙엽을 밟으며 부서지는 소리

고은 최돈애

잎파리 움푹우는 시련을 견디고
울창한 숲의 그늘 드리우며
울긁불긁 화려한 단풍으로 빛깔내고서
계절에 순응하여 떨어지는 낙엽 되어도
말없이 길가는 서럽고 사연 많은 이들의
발 핏이 되고 혹은 두메산골 외진 곳
서로 영키어 발효되어도
자기 사명 다하는 자연을 보라

위대한 환경을 존경하는 믿음의 길을가는
성직자도 있거늘

인생사 그리 탓하지 말자
서러움은 그대로 지나가거라
환희의 환호도 요란하게 높이지 말거라
배신과 괴로움도 작별의 뒤안길이니
자연을 닮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보자
가을 낙엽을 밟으며 부서지는 소리는
이런저런 사연이 있겠지

양구 도솔산전투 무적해병대

고은 최돈애

그대들의 작전으로 빛내온 도솔산 전투
지금은 반짝이는 별빛 되어
그늘아래 쉼이 됨은
전적비에 나열된 유명비를 바라보며
국화꽃 한 송이로
무적 해병대 용감함을 기리렵니다

도솔산 요새 같은 암벽지역에
민족의 뜨거운 가슴을 묻어둔
호국 영령 들이여
바람 곁으로 심장소리 들릴 듯
당신들의 용맹함을 기억하며
조국에 바친 피흘리심이 헛되지 않도록
저 북녘땅에 평화를 기도하리
통일을 노래하리
지구촌의 대국이 되어
무궁화 꽃을 피우리다

애국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설 땅이 없다

그리하여 그대들의 숭고함이
하늘에 수많은 별처럼 영원히 빛나며
이 땅에 보석처럼 우리러 바라봄은
전장엔 진격과 죽어야 얻을 수 있었던
절박함의 땅 여기 도솔산 암벽의
피내림으로 산화한
못다 핀 꽃송이들을 기억하노라



고은 최돈애

- 한국문인협회 문인복지위원 송파지회 부회장
- 하나국제문화예술연합회 총장
- 대한애국문인협회 회장
- 저서 : 『그대 그리움 삶이 되어』, 『긍정의 삶』

그런 고향을 보라

최병룡

먼 산기슭에 마지막 잔설 녹으면
고만고만한 꼬마들
양지바른 돌담 밑에 쪼그려
쑥이랑 냉이 대바구니에 가득 담아
도시로 떠난 친구에게
맨 먼저 봄소식 전할
그런 고향을 보라.

옥수수 수염 훈풍에 훔날릴 때
고추잠자리 싸리비 위에 깜박 조을고
울타리 밑 씨암탉 잠들면
샛터 논배미에 참 이고 가는
할머니의 싸리문 소리에
단잠 깨는 그런 고향을 보라.

논두렁 밭두렁 찾아
나들이 갔다 돌아오는
저녁노을 속의 참새 떼
울타리 덩그렇게 매달린 조롱박 사이로
계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추석 밝은 달이 창을 덮는

그런 고향을 보라.

질은 어둠 산마루를 덮고
생솔가지 태우는 고향 내음
먼발치 들려오는 어머니님 다듬질 소리
깜박이는 등잔불 밑에
예쁜 꽃수 놓아 주던 우리 누나
이제 포근한 등심(燈心)도 말라
잠이 들려는
그런 고향을 보라.

나의 어머니

최병룡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숨 소리가 나지 않고 울지 않아
이게 웬일인가 한숨을 지고 있는데
갑자기 껍 하고 울더라는 거다
우리 어머니 속이 얼마나 탔을까

안산으로 쑥 캐러간 엄마 찾아 방죽 논길을
걸다가 미끄러져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으니
물속으로 몇 번을 들락거릴때
마침 툇을 지나던 동네 형이 건졌으니 망정이지
우리 어머니 속이 얼마나 탔을까

대보름날 깡통에 불씨를 담아 휘휘 돌리고 놀다
멀리 숲으로 날아가 불이 붙어 산으로 번져
동네방네 사람들이 달려와 불을 꺾으니 망정이지
어머니 속이 얼마나 탔을까

어느 날 배탈이 나 방바닥에 대굴대굴 구르고 소리 지르다가
옆집 할아버지 사관을 맡고 겨우 잠잠해지는 나를 본
어머니 속이 얼마나 탔을까
나는 6남매 중 맏내로 태어나 사랑 듬뿍 받으며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은 도시로 유학을 가
처음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다가
토요일 열차 타고 십리 길을 걸어
짜릿문 열면 처마 끝 호롱불이 밝혀주고
어머니 부르면 반갑게 뛰어 나오시던
그런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최병룡

· 1995년도 <문학지> 신인상 등단

아내의 벽

최성준

아내가 벽을 닫고
딸꾹질하듯이 잠을 잔다

아내의 이마에
벽의 혈흔이 묻어 있다

다듬이질에 길든 근심
세월의 각을 세웠다

그 사이
비는
이 땅에 수많은 벽을 파종했다

하염없이
밀가루를 밀고 또 밀며
아내는 빗줄기를 하나 떼어 썰었다

면발을 밀치고 들어서는 낯선 손님들
전기, 학원비, 세금 납부 독촉장
빗물을 툭툭 털며 식탁을 에워쌌다

칼날 지나간 손칼국수 가락 하나
아내의 목덜미를 물었다
순식간에 얼어붙는 식탁
바람이 거실 창을 거세게 흔들었다

그날
바람에 가지 찢긴 괴목처럼
아내의 작은 물에 젖어
허물어졌다

낮선 손님 돌아가고
어깨 주무르는 아내
한때 햇볕이 추위를 녹이던
비가 쓸고 간 장독대 앞에서
무릎 꿇인 봉선화
눈시울에 꽃물을 썼었다

장독대를 두드리던 빛의 웅성거림을 듣고 있다

눈꺼풀이 천 근이다
목의 큰칼 무겁다

아내의 벽을 베고
두고두고
뼈 소리를 울고 있다

존재와 부존재

최성준

말씀이 있기 전
오규원은 없었다

하늘과 돌멩이*로
다시 솟아올라

엷히고, 비우고,
내려오고, 들어 올리고,
납작하게 눕고 다시 오른

그

법계의
사이 사이
공허의 시간

구름에
달이 비우며 간다

* 오규원의 시 〈하늘과 돌멩이〉



최성준

· 계간 『시창작』 2024년 신인상 등단

옥잠화

하갑문

멋대로 키워놓은 무성한 잡초 회원 전면에
반 평 남짓 자리한 옥잠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며칠 사이에
푸른 솟대 끝에
날개를 모은 꽃이 하얗게 내려앉았다

잡초를 배경으로 삼은
기획이다

풀의 세계에까지
조연 주연으로 배역을 나누는 연출이
시대물이네 하면서도
표안 꽃잎에 눈길이 먼저 가 있다

피리와 비녀에 얽힌 꽃 이야기 때문일까
자리를 뜨면서도
온갖 생각들이 옥잠화에서 떠나지 못한다

똑 똑 똑

하갑문

손가락으로 한 번 툇 터치하면
불이 켜지고
두 번 터치하면
불이 더 밝아지고

다시 터치하면
불이 꺼진다

언제부터인가 머리맡에서
소통해 온 무언의 스탠드등

간병하는 부인이 손가락으로 병상의 남편 손바닥을
똑 똑 똑 세 번 두드리면
남편도 응답으로 아내 손바닥을 똑 똑 똑 두드린다

사, 랑, 해 라는
둘만의 암호 똑. 똑. 똑

화사한 사랑의 말들이 다 지나간 뒤에도
오직 남아있는 몸의 말, 사랑의 신호

손가락으로 특 한 번 스탠드등을 터치하니
무겁던 주위가 다시 환하게 밝아진다



하갑문

- 2014년 문학나무 시 등단
- 2022, 시집 『텅 비었니 가득 찼니』
- 제4회 문학나무숲상 시 부문 수상

서치라이트

한창옥

바리깡과 비누통이 든 헐렁한 가방은 그의 재산이다

촌길을 질주하는 낡은 트럭에 흙먼지 뒤집어쓰고 마을에 들어선다
그를 깔보지 않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
무거운 레퀴엠 같은 시절을 반겨주는 사람들,

마을 사람들을 근사하게 이발해주고 포마드를 발라주며 받은 쌀은 가방에 담고 다닌다 장날엔 운수 좋아 장꾼들과 어울려 국밥에 막걸리로 맘껏 취해보는 날, 장이 파하고 어둑해지면 석촌새내를 건너 굴뚝연기 따라 마당 넓은 우리 집에 쌀을 쏟아놓는다

군대에서 배운 머리 깎는 재주로 떠돌다가 삼청교육대에서 복종하는 법은 알았어도 반항하는 법은 모른다고 뺨속에서 불멘소리가 들린다

이발사가 쏘고 간 쌀은 슬픔 같아서 차마 밥을 짓지 못하던 어머니는 어느 날 저녁밥을 지었다 가방 속에서 비누냄새가 쌀알에 파고들어 깊이 배인 밥을 먹지 못했다

처서가 한참 지나서 찾아온 이발사는
결빙된 언어를 겨울비에 녹이며
'낙화유수'를 목구멍에 흘러내리도록 불렀다

사는 게 힘들다고 떠돌이의 눈물을 바리칸으로 밀어내던 날
분신 같은 가방은 비누거품으로 부풀어 올랐다

그 후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집이 어딘지 처자식은 있는지 사람들은 궁금했다

수십 년을 돌아 서치라이트가 비춰지는 기억들이 도착하고 있었다

서치라이트 2

- 지리산의 비밀

한창옥

청솔가지 불을 지핀다
매운 눈물을 무쇠밥솥에 짓는다

하동 종갓집 외양간에서 해산을 기다리는 새끼 뺨 황소의 붉어진 눈은 무겁게
끌려나온다 험상궂은 채찍질로 겁을 주는 인민군들은 도살과 약탈로 마을 이
리저리 총구를 휘두른다 막아서는 어린 장남의 혈기마저 지리산으로 끌려갔다

1953년 여름 휴전협정이 되어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동장터에서 증매로 맺은 열일곱 구레처녀는 자식 잃은 죄인이 되어 조상 앞
에 속울음도 숨겼다 총구의 연기가 덮어버린 종가의 기둥을 움켜잡고 대만으
로 떠난 남편,

살아있어도 무게 없는 그곳에서 모질게 저물어갔다

천지간을 포용하며 청솔가지를 태워 돌아오지 않는 장남의 밥을 지어놓던 어
머니는 달빛 없는 선달 그믐밤 대못 박힌 일흔 살 몸을 굳게 닫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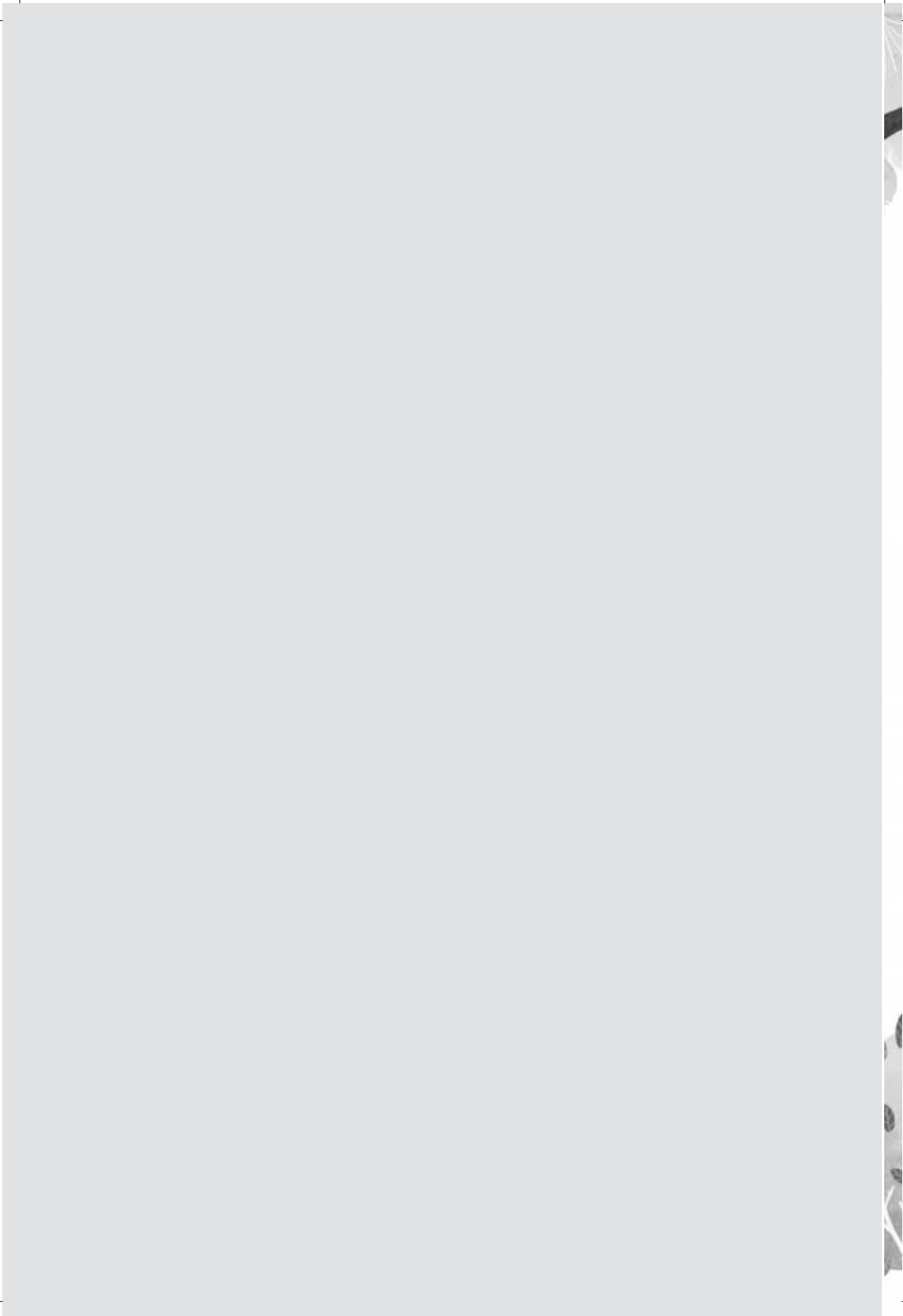
함박눈은 지리산의 아픈 비밀을 한없이 덮어주고 있었다

의식을 버리는 순간 핏속에 엉겨드는 눈물의 의미를
상여를 따르는 자손들은 알 수 없지만
대문에 걸린 조등은 아직도 그 밤을 비추고 있다



한창옥

- 2000년 시집 「다시 신발 속으로」 데뷔 '현대시'로 작품 활동
- 시집 : 「빗금이 풀어지고 있다」, 「내 안의 표범」, 「해피엔딩」(2017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
- 인간문화재 49호 부친을 기린 〈한유성문학상〉 제정, 「포엠포엠」 대표 발행인





제2부

수필

강신영 | 이제야 나를 찾았다

김종화 | 아름다운 약속

김충환 | 선물

남춘길 | 말 잘 하는 사람, 말 잘 들어 주는 사람

민은례 | 오뎅이 가족

박종섭 | 어떤 구뎅방 주인의 일생

서주린 | 내 마음속의 금지곡

이제야 나를 찾았다

강신영

MBTI 성격유형 테스트를 해 봤다. 결과는 '통솔자 (ENTJ-A)'로 나왔다. '항상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성격으로, 대담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의지가 강력한 지도자'라는 설명이 붙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평소 궁금하던 것이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다.

가만히 내가 지나온 지난 세월을 반추해 보니 참으로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았다. 나는 통솔자로서 감투를 많이 써 봤다. 초등학교 시절 전교어린이회장부터, 중고등학교 때 문예부장, 대학 때는 과 대표, 사진동아리 회장을 거쳐 군대 시절에는 대대 선임자까지 소소하지만, 여러 가지 완장을 차 봤다. 전국대학생 사진연맹을 결성하고 초대 회장을 했다. 대학 3학년 때 총학생회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징집 연기까지 했으나 시대가 급변하며 무산되었다. 각 대학에서 한 명씩 추천되어 만든 '대통령 만들기 모임'에 우리 학교 대표로 활동했다.

직장에서도 처음에는 '미국은행(Bank of America)'에 입사했지만, 연봉은 많이 주는데 루틴대로 돌아가는 직무에 뭔가 너무 단조롭다는 것을 느꼈다. 여자들은 좋은 직장인데 남자에게는 안 맞는 직장으로 보였다. 내가 맡은 일을 하다 보니 은행 양식에 모순점이 보여 지점장에게 모순점을 건의했더니 일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전 세계 지점의 양식을 다 바꿔야 하니 그냥 규정대로 하라고 해서 한계를 느꼈다.

다음 직장이 '럭키개발(현 GS 건설)'이라는 대기업 건설회사였는데 곧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지원해서 파견 근무했다. 직급은 말단사원이었지만, 과장은 공급처 한국회사 사장 자리를 꿰차고 나가 퇴사하고, 대리는 근무 중 사망하는

바람에 나 혼자 구매과를 4년 내내 지켰다. 남들은 1년 의무연한만 채우고 귀국하기에 바쁘는데 나는 최초 파견 이래 준공까지 꼬박 4년을 버텼다. 일 잘한다고 소문나서 현장소장부터 애지중지해 주다 보니 내 세상이었다. 무능한 부하 직원 폭행, 내게 자동차로 장난치던 다른 부서 직원의 차를 지붕에 올라가 발로 밟아 폐차까지 시킨 큰 사고를 쳤는데도 상대방만 문책하고 내게는 문책이 돌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일 잘했다고 서독 주재원 발령까지 받았다.

귀국 후 여의도 쌍둥이 빌딩 건축공사 때도 자재구매를 전담한 과장 직급이었지만, 호랑이 현장소장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내가 빠지면 현장이 마비되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소장과 다투고 일주일 잠적해 버렸더니 싹싹 빌며 항복했다.

‘금성사(현 IG전자)’로 옮겼을 때도 과장급이었다. 위에 부장과 이사가 있는데 부장은 이사와 사이가 안 좋았다. 이사가 원하는 기안을 올리면 부장이 거부하는 바람에 나는 내 위에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내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증권 봉제회사에 임원으로 스카우트 되어 갔을 때, 사장에게 요구한 것이 직접 결재였다. 중간에 상무, 전무, 부사장 거치지 않고 직접 사장과 일 처리를 하기로 한 조건이었다. 30대 중반 나이에 임원으로 갔으니 또래 부하직원들 다루기가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10여 년간 그렇게 승승장구했다. 자회사 사장까지 하고 나왔다.

퇴직하고 나서 인생2막으로 2009년 시니어파트너즈의 ‘유어스테이지’라는 포털의 시니어 블로거로 뽑혔다. 우리나라 최초 최대의 시니어 블로그 포털이었다.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의 쟁쟁한 이력을 가진 선대 회장이 그만두는 바람에 회장 자리를 이어받았다. 이것이 인생 2막의 감투 행진 시작이었다.

산업은행이 출자한 사회연대은행 교육과정인 KDB 시니어브리지아카데미 과정을 졸업하고 곧 이어 1,000명이 넘는 동문회원이 만든 총동문회장을 맡았다. 임기 만료 후 곧바로 한국시니어브리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자리도

말게 되었다.

‘브라보마이라이프’ 잡지사 시니어 기자단이 80명 정도로 출발했을 때 담당 주간이 이력서를 다 훑어봤다며 무조건 내가 초대 회장을 맡아달라고 했다. 첫 모임 때 기자단의 추인을 받아 2대 회장까지 활동했다.

취미로 시작한 댄스스포츠 쪽에서도 감투 행렬이 이어졌다. 댄스엔조이와 올림픽공원 스포츠교실 2개의 큼직한 단체 동호회장을 맡아서 활동했고 댄스 전문잡지 편집도 혼자 맡아서 다 했다. 서울시 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 일도 최연장자로 코치 겸 선수로 활동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동창회장도 맡아서 했다. 특히 초등학교는 회원이 많아 경조사 쫓아 다니기 바빴다. 번거롭게 항상 정장을 따로 갖고 다녀야 했다. 아내가 가정이나, 동창회나 택일하라는 바람에 결국 손을 떼었다.

내 주변을 둘러보니, 나는 나보다 직급이 윗사람 내지 연상의 선배는 별로 없다. 내게 명령하는 것, 잔소리하는 것을 싫어하는 모양이다. 반면에, 친구와 후배는 너무나 많은 편이다. 내 성격이 그래서 그런 모양이다.

MBTI로 본 내 성격은 통솔자로서 리더십을 인정받은 것으로 안다. 그 밑바탕에는 아버지의 지침이 있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하면 무조건 1년 이상 격투기 3종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내 경우는 유도, 태권도, 권투를 각각 1~2년씩 했다. 그것은 남자로서 배짱을 가지고 통솔자로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풍기는 내 재산이 되었다.

이제 인생 3막이다. 감투는 내게 발목만 잡을 뿐 나를 찾고 나를 즐기는 데 방해가 될 뿐이다. 일을 하다 보면 적도 생긴다. 사람에 치이는 일은 사람을 늙게 만든다. 65세 때 회장 감투만 12개였다. 이젠 내 인생이 아니다 싶어 여러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다 내려놓고 히말라야, 아프리카 남미 여행을 다녀오니 더 이상 찾지 않았다. 이젠 뒤로 물러나야 할 때이고 혼자 알아서 잘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MBTI 검사로 이제 나를 찾고 보니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나와 다른 성

격의 사람들도 원래 타고난 성격이 그래서 그랬다는 것이 이해된다.

내 성격유형은 전체 MBTI 성격유형에서도 극소수인 모양이다. 당연히 무난한 성격은 아니다. 단점도 많다. 타고난 유전자도 있고, 그간 살아온 경험이 관성이 되어 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다. 감투는 버리고 조용히 나를 알고 주변과 잘 어울리며 여생을 편안하게 살면 된다.



강신영

- 2010년 수필춘추로 등단
- 강강의 댄스이야기 외 11편 출간
- 대통령 표창

아름다운 약속

김종화

‘기쁠 때는 약속하지 마라. 화가 날 때는 답변하지 마라. 그리고 슬플 때는 결정하지 마라.’라는 말을 나는 좋아한다. 특히, 약속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만이 활용하는 삶의 수단이다. 약속은 잘 활용하면 삶이 윤택해지지만, 이를 악용하면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삶의 행복지수가 낮아진다. 그래서 약속은 지켜질 때 의미가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약속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크게는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에서부터 작게는 개인과 개인 간의 약속은 물론, 자신에게 하는 약속까지 다양하다. 예컨대 신호등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약속이다. 이러한 약속이 무너질 때, 인간의 삶은 아비규환의 늪에 빠져 흑독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 약속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횡단보도에서 가끔 신호 규정을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규정을 위반하고 건너봐야 고작 1, 2분 차이일 뿐인데, 그걸 참지 못하고 위반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것은 약속의 중요성을 상실한 사람들이 범하는 아주 잘못된 근시안적인 행동이다.

어떻게 민주시민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어린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버젓이 질서 위반을 하는 걸까? 지켜야 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약속강식의 원리가 적용되는 밀림의 세계를 경험해 봐야 한다. 밀림의 세계는 강자가 판을 치는 세상이다. 밀림에서 약자는 철저하게 유린당하면서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밀림의 세계에서는 약속이 필요 없다. 그 이유는 무슨 일이나 힘의 논리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그런 삶을 살아보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에서 ‘나 혼자 어찌라?’ 하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 혼자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될 일은 없을 거라는 안이한 생각이 사고를 부른다. 다른 사람은 약속을 지켜야 하고 나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오만한 생각은 건강한 사회관계망을 훼손하는 일이다. 사회적 약속은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고, 또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 사회를 살찌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이기주의자들이 발붙이고 사는 사회엔 약속이 무더진다. 모든 삶이 자기에게 맞춰지다 보니 공동체적인 삶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다 보니 모든 행동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배려와 존중이 없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엔 이기주의자가 판을 치게 된다.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 자신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크고 작은 약속을 한다. 그런데 친하다는 핑계로 약속을 소홀히 하면 그 관계도 틀이 생긴다. 그것이 약속을 지키기 싫어도 지켜야 하는 이유다. 삶에서 약속은 그만큼 중요하다.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동체적인 삶 속에서 예절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규정을 지키는 것도 약속이다. 필요에 따라 돈을 빌리고 갚는 일도 마찬가지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회는 폭력과 무질서가 난무하지만, 약속을 준수하는 사회는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믿음의 사회다. 그런 삶을 위해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다.

내게도 쉽게 잊히지 않은 아름다운 약속 하나가 있다. 아내와 결혼하던 날 “이십 년이 되면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진 촬영을 하자”고 했던 약속이다. 그래서 이십 년이 되는 해에 아내와 손을 잡고 웨딩 촬영을 했던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다.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기뻐다. 이때 쓴 수

필이 「이십 년의 약속」이다. 그 사진은 지금도 우리 집 거실 한편을 차지하고 있다.

약속했다고 해서 다 지킬 수는 없다. 나, 역시 약속을 지키지 못해 가슴을 졸여야 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문제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지킬 수 없었던 이유를 밝히고,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 그런 태도가 뒷받침될 때, 인간관계망을 두껍게 할 수 있다.

약속이란 사소한 약속에서부터 중요한 약속까지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결국 약속은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지키기 어려운 일이라면 처음부터 약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당신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말한 루스벨트의 말을 생각해 본다.



김종화

- 『국방일보』 수필 등단, 『서울문학』 시 등단, 『문학시대』 소설 등단, 『한국전쟁문학』 평론 등단, 『국보문학』 시나리오 등단
- 3사문학 발행인, 한국전쟁문학 주간, 한국문인협회 이사, 국보수필문학대학원 지도교수, 군포 수필창작반 지도교수
- 시집 『당신을 닮고 싶습니다』, 수필집 『아버지 그 이름의 무게』 외 10권, 소설집 『울 엄마』 외 2권, 칼럼집 『끌리는 사람에겐 뭔가 있다』

선물

김충환

오늘은 손이 없는 날인지 세 개의 중요한 일정이 오전에 몰렸다. 열 시에는 서초동에서 <한국식품 세계화>에 대한 토론회가 있고, 열한 시에는 여의도에서 통일단체 총회가 개최된다. 그리고 점심때는 마포에서 국제봉사단 이사회가 열린다. 이처럼 중요한 일정이 한나절에 다 몰리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시간을 맞추기는 매우 어렵다.

회원이 자기 단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별히 순서를 맡은 사람은 반드시 시간을 지켜야 한다. 나도 꼭 참석해야 하는데 행사장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 시간을 맞추는 것이 문제였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보기로 하였다.

집에서 서초동 AT센터까지 한 시간, 그리고 서초동에서 여의도역까지도 한 시간이 소요되고 여의도역에서 마포역까지는 약 30분이 걸린다. 세 행사에 늦지 않게 참석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최대한 아껴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나는 서초동과 여의도 행사는 정시에 출석하는 것에 만족하기로 하고 가능한 빨리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로 했다.

우리 집 가까이 5호선 지하철 명일역이 있지만 이동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오토바이로 보훈병원역까지 가서 9호선 급행열차를 탔다. 서초동 AT센터에 도착하니 헌정회 회원 30여 명과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정대철 회장이 개회사를 한 다음 김춘진 사장이 환영사를 했다.

나는 환영사를 듣고 조용히 일어나 행사장 밖으로 나왔다. 직원들이 약간 의아한 표정으로 “벌써 가시려고요?” 한다. 나는 미안한 표정으로 “그래요. 공교롭게도 오늘 중요한 행사가 겹쳤어요.” 하니 “그러세요. 그럼 선물이라도 받아주세요.” 하며 마른 김을 한 상자 준다.

김은 무겁지 않았으나 상자에 손잡이가 없어서 안고 가야 했다. 문득 아내가 김을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이 났다. 신논현역에서 9호선 급행열차를 탔다. 오전부터 김 상자를 가지고 다니는 것에 대해 궁금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다. 여의도역에 내려 전경련 회관 강당으로 서둘러 갔다.

통일단체 총회는 금방 시작됐고 내가 들어서자 사회자가 “지금 공동의장님 오셨습니다.”하고 소개한다. 국민의례와 우수 회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이 있는 후 내가 환영사를 했다. “전국에서 오신 대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5년 평화통일 1,000만 서명운동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반드시 남북 통일의 계기가 올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일 운동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인 홍보 영상이 상영되기 시작할 때 나는 조용히 행사장 밖으로 나왔다. 문 앞에 있던 직원이 “벌써 가세요?”하고 묻는다. “예. 중요한 이사회가 있어서요.” “선물은 받아 가세요.” 하며 수건, 화장품, 우산이 들어 있는 커다란 쇼핑백을 준다. 나는 일찍 나가는 것이 미안했고 서초동에서 받은 김도 있고 해서 잠시 주저하였으나 받았다. 선물을 들고 안고 걷자니 대낮에 무슨 선물 박스를 저렇게 들고 가나? 하는 생각에 민망했다.

행사장 밖에는 후둑 후둑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지하철역까지는 한참 걸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 걱정하던 중 다행히 택시가 왔다. 얼른 잡아 타고 마포에 도착하니 경영팀장이 기다리고 있다. “뭘 이렇게 많이 들고 오셨어요?” “이전 행사에서 받은 선물입니다.” “제가 들어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나는 양손에 선물 박스를 들고 식당으로 들어갔다.

마지막 행사였으므로 흥가분한 마음으로 참석한 이사들과 즐겁게 대화하며 식사했다. 점심을 먹은 후 선물 박스와 가방을 다시 챙겨서 이사회 장소로 가는데 나만 양손에 선물 가방을 들고 걸으니 마음이 불편했다. 함께 걷던 경영팀장이 들어주겠다고 한다. 나는 선물 백을 건내 주며 말했다. “이 속에 김하고 수건하고 우산, 수건, 화장품이 들어 있는데... 이따 직원들과 나눠 가지세요.”

나는 처음에는 물건을 직원들에게 주려고 생각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처음에 경영팀장의 들어주겠다는 제의를 했을 때 완곡히 거절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단 경영팀장의 손에 선물 박스와 가방이 넘어가는 순간 물건을 다시 돌려받을 생각이 사라졌다. “감사합니다.” 팀장은 기쁜 얼굴로 선물 박스를 들고 갔다.

이사회를 무사히 마치고 긴장이 풀리자 피로감이 몰려왔다. 오전 내 행사 일정에 맞추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일들이 꿈결처럼 느껴졌다. 오토바이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달려간 것, 지하철을 4차례나 갈아타고, 택시까지 타고 이사회장으로 달려온 것 등. 무슨 큰일이라도 치른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세 개의 행사 일정을 무리 없이 마친 것이 큰일이라도 한 것처럼 뿌듯하게 느껴졌다.

지하철 5호선은 마천행과 하남행이 교대로 오기 때문에 한 번 놓치면 12분을 기다려야 한다. 택시도 요즘 20분은 기본이다. 그런데 오늘은 다행하게도 차를 기다리는 데 시간을 전혀 허비하지 않고 바로 이동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큰 행운인가? 행사장에서 받은 선물을 받아들이고 뒤뚱거리며 걷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 우스꽝스럽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 마지막 행사장 직원들에게 좋은 격려의 선물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다.

오늘 일정을 잘 마무리한 것을 통해 앞으로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정이라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인생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데 아옹다옹 욕심을 부리고 다투며 살기보다 작은 선물이라도 서로 주고받으며 기쁨을 나누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생각했다.



김충환

- 현) 평화통일연구원 이사장,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사장
- 전) 국민의힘 송파갑위원장, 국회의원 강동구청장

말 잘 하는 사람, 말 잘 들어 주는 사람

남춘길

말을 많이 한날은 후회가 많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필요한 말 외에 쓸 때 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된다

용건을 벗어나 옆길로 새서 이말 저 말 하다보면 악의 없이도 남의 말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뒷 담화 남의 단점을 들추어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은 실속이 없다 아는 척 잘난 척 하는 사람이 쏟아낸 말은 아무리 달변이라 해도 지식이 많은 사람은 필자연정 별로 호감은 가지 않는다. 겸손을 잃어버린 하수의 태도라고나 할까, 대화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상대방을 존중하는 위치에 서려면 절대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되고 조용히 들어 주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덕을 겸비한 인격체라는 사실이다.

오래전에 상담심리 공부를 한 적이 있다. 2년 정도 열심을 내어 공부를 했는데 먼저는 이론을 나중엔 현장 실습. 미술치료에 이르기까지 그때 가르침을 준 교수님들이 강조한 내용도 듣기의 중요성 이었다. 내담자와 상담을 할 때 상담자가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금해야 할 태도였다. 고민과 아픔을 안고 찾아오는 이들이지만 대부분은 그들도 정답은 알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답답한 속마음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내담자의 편이 돼서 억울함에 함께 분노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주면 일단 내담자의 아픔은 치유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다. 그 후에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그 문제를 풀어 나가는 수순을 따라가려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한 영혼의 진정한 위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우쳤다. 처음 실습에 들어갔을 때 자꾸만 내담자의 말을 끊고 옳다고 생각되는 내 의견이 불쑥 불쑥 튀어 나왔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무수히 범한 실수가 떠올라 아주 많은 반성과 후회를 불러 왔었다

상담 공부를 하면서 처음 뼈저리게 느낀 것은 젊은 날 이 공부를 했더라면

아이들을 훨씬 잘 키웠을 것이라는 뒤늦은 후회가 몰려왔다. 잘 키운다는 것은 아이들을 사회적으로 성공시킨다는 뜻보다는 아이들도 엄마인 나도 따스하게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을 줄 아는 행복한날들을 의미한다. 처음 해보는 엄마노릇은 서투름 뿐 이어서 아이들의 의견보다는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 한 적이 너무 많았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도 사회생활이니 친구, 선생님과 의 인간 관계 커갈수록 힘들어지는 경쟁사회에서 아이가 받을 스트레스를 이해하려면 어떤 걱정거리 앞에서도 아이가 엄마에게 이야기만 하면 다 들어주면서 위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엄마가 되어주었어야 했다. 나는 들어주는 엄마가 되기보다는 ‘호강에 겨워서, 뭐가 문제람’ 이런 마음 이었다.

갈등이 심한 부부가 있었는데 말이 많은 남편의 심한 잔소리가

부부 갈등의 원인 이었다. 나이가 들면서 잔소리는 점점 심해지고 까칠해져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다, 그 잔 소리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긋지긋 했다. 아내는 이혼만은 피해 보려고 정신과 상담을 다녔으나 효과가 없었다 아내는 나이 지긋하고 지혜가 많다는 의사를 수소문해 상담을 받았다. ‘도저히 이 남편 하고는 결혼 생활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는 정신을 안정시킨다는 샘물을 추천해 주면서 ‘열심히 드십시오, 특별히 남편의 잔소리가 시작되면 물을 입안에 가득히 머금고 계십시오 빨리 삼키거나 뱉으면 안 됩니다 몇 달 후 그 부인은 밝은 얼굴로 의사에게 와서 말했다

“선생님 그 샘물이 기막히게 약효가 좋습니다. 남편도 변하고 저도 이제는 그 사람이 밍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치유된 원인은 무엇이였을까.



남춘길

- 『문학나무』 수필 등단, 『한국크리스찬문학』 시 등단
- 한국크리스찬문학가협회 부회장 및 운영이사장
- 수필집 : 『어머니 그림자』, 『감사의 향기로 나를 채우다』(여류 수필 5인선)
- 시집 : 『그리움 너머에는』, 『노을빛으로 기우는 그림자』

오뚝이 가족

민은례

어느덧 세월이 흘러 내가 칠순에 나이가 되었다.
어느날 딸이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우리 제주도 가요. 이번 생신은 내가 여행 준비할게요.”
그렇게 우리는 떠났다.
우리는 가족 생일은 꼭 챙기며 살아왔다.
그러나 이번엔 나를 위한 생일여행 남편과 딸 그리고 나.
오랫만에 셋이 함께 비행기에 올랐다.
제주공항에 내려 하늘을 보았다. 제주의 하늘은 유난히 푸르고 바람은
따뜻했다. 제주의 푸른 하늘과 바다 바람결 따라 웃음소리가 흩어졌다.
딸은 다리 아픈 나를 위하여 제주공항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차를 렌트 해 놓았고 맛있는 식당, 사진 잘 나오는 풍경과 장소
딸의 따뜻한 마음이 여행 구석구석에 배어 있었다.
그런데 문득문득 생각나는 한 사람 오랜 세월 병마와 싸우다
하늘나라로 먼저 떠난 아들이 생각난다.
그 빈자리는 어디를 가도 여전하다.
해안도로를 달릴 때도.
돌하르방 앞에서 사진을 찍을 때도 아들의 환한 웃음이 바람 속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그 아이는 차 타고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하던 아이였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안다.
그 아이도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늘 우리 곁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비취색 제주 바닷가에 섰다.

햇살은 파도 위에 내려앉아 은빛으로 반짝이고 물결은 조용히 밀려왔다
밀려가기를 반복한다.

나는 수평선을 바라본다.

저 수평선 너머엔 무엇이 있을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있는
세계 지금은 닿을 수 없지만 마음만은 닿아 있는 그곳

수평선은 나에게 경계가 아니라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창문 같다.

가끔은 바람이 그 곳에서 불어오고 가끔은 물새 한 마리가 소식을 전하듯
날아든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을 이 바다에 띄운다.

말없이 받아주는 바다는 엄마 품처럼 포근하다.

말없이 바라보는 비취색 물결 사이로 아들의 미소가 비치는 듯하다.

“잘 지내고 있니? 엄마는 너의 그리움과 동생의 고마움을 글로 쓰고 있어”
여행 마지막 날은 일요일이었다.

우리는 주일 미사 봉헌을 하기 위해서

제주 서쪽 끝 용수 성지를 찾았다. 이 곳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상하
이 금가항 성당에서 사제서품을 받으시고 우리나라에 입국하시어 선교하시려
고 상하이에서 “라파엘호”목선을 타고 항해 하는 중 거센 풍랑에 이곳 용수 성
지에 포착하신 곳이다.

그 성당에서 올린 미사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그날 미사에서 나는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기도를 했다. 아들을 위한 기도, 살아 있는 가족을 위한

감사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붙잡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에 대한 고백

우리는 오뚝이처럼 살아간다. 한 명이 휘청이면, 다른 둘이 붙잡는다. 눈물
이 날 때도 웃을 때도 늘 셋이서 지구 위에 남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넘어져
도 다시 일어난다. 그런 가족이기에 오늘도 웃는다.

눈물 한 방울 바람에 실어 보내며
제주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또다시 오뚝이처럼 서 있는 우리 셋을 떠올렸다.
흔들려도 쓰러질 듯 말 듯하면서도 결국엔 다시 일어서는 우리 믿음과 사랑
으로 지구 위에 남은 우리는 여전히 넷처럼 살아가고 있다.



민은례

- (사)송파문인협회 회원
- (사)한국문인협회 회원
- 계간 문예춘추 이사

어떤 구둣방 주인의 일생

박종섭

요즘은 구두 닦는 구둣방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많을 때는 대로변이나 건물 입구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큰 건물에서 근무할 때는 사무실로 찾아오며 구두를 수거해가 닦아 오는 사람도 있었다. 큰 사무실을 이방 저방 돌며 구두를 가져가 윤기가 반질반질하게 닦아 왔다. 참 신기한 것은 그 여러 켈레를 가져가 닦아오면서도 한 번도 착오 없이 주인을 찾아 전달해 준 것이다. 그렇게 흔하던 구둣방이 문을 닫고 이제 허가받은 지역의 컨테이너에서만 구두를 닦거나 수선하고 있다. 꼭 양복에 구두를 고집하지 않는 세태를 반영하는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직장에서도 자율복장을 권하는 곳이 많아 양복에 구두를 신는 직장인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현업에서 은퇴한 뒤로 나도 운동화나 랜드로바 등 가볍고 편한 신발을 많이 신고 다녀 여간 구둣방을 찾게 되지 않았다.

집에서 걸어서 전철역을 가는 동네 어귀에 구두 닦는 가게가 하나 있다. 대로변 모퉁이에 조그만 컨테이너가 있는 곳이다. 두 사람 겨우 활동할 수 있는 좁은 공간이다. 비좁은 공간에는 구두에 필요한 깔창이며 구둣솔, 왁스, 크림, 광택제, 광택을 내는 부드러운 형짚 등 도구들이 선반이나 벽에 걸려 있다. 난방이라야 석유난로 하나 피워 놓은 게 전부였다. 한 번 구두를 닦고 나면 얼마 동안은 구둣솔로 먼지만 털면 되기에 그리 자주 들리게 되지는 않았다. 구둣방에는 대부분 나이 든 부부가 함께하는 곳이 많았는데 이 집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집을 들어가면 따끈한 커피 한 잔을 타 주곤 했다. 아저씨가 성격이 쾌활하고 시원시원한 타입이라 말도 잘하고 사교성도 좋았다.

“커피 드릴까요? 우리 집에 오시면 무조건 커피 한잔하셔야 해요! 제가 이 지역 터줏대감이에요”

“아 그래요? 주시면 감사하죠!”

아저씨는 달콤한 커피믹스 한 잔을 내어주곤 했다. 기다리는 시간도 무료하니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괜찮았다. 고객서비스가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들렸다. 그런데 아저씨가 안 보이고 아주머니만 보였다.

“아저씨는 어디 가셨나 봐요?” 하니 아주머니가 구두 광을 내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저씨는 하늘나라에 가서서 이제 못 나와요” 한다.

“아니 건강하시고 활발하셨는데 왜 갑자기 그러셨어요?”

놀라서 물어보니 그 이야기를 하셨다.

“일요일에 그 양반은 산에 가고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갔다 오니 그 양반이 집에 일찍 와 있는 거예요. 웬일인가 싶어 물어보니 산에 갔다가 나뭇잎에 덮인 얼은 바닥을 잘 못 짚어 넘어졌다는 거예요. 넘어질 때 나무에 부딪혀 머리에 충격을 받고 상처가 있어 피가 조금 났다 하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원래 천식이 있었는데 그 영향이 조금 있었는데 몸이 좀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분당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는데 간에 물이 찼다고 물을 빼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수술 날짜를 받아 놓고 수술도 못해 보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 그랬군요. 그러면 머리 다친 게 영향이 있었나 보지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저씨가 안 보이셨던 거군요.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너무 황당했다. 올 때마다 쾌활한 웃음으로 커피 한 잔을 해야 한다고 하시더니 이제 그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다.

“그러면 지금은 혼자 하시는 거예요? 집은 이 근처인가 보죠.”

“아니요. 집은 오포예요. 올 때는 버스를 타고 오고 갈 때는 아들이 모시러

와요!”

“문정등에서 오포면 아주 먼 거리인데요. 아들이 서울에서 근무하나 보죠. 가는 길에 어머니를 모시러 오고”

“아니요. 분당에서 근무하는데 어머니 고생하신다고 일부러 왔다가는 거예요. 회사에서 끝나고 나한테 왔다가 오포에 내려주고, 다시 집에 가려면 두 시간이나 걸리죠.”

“아들이 효자네요.”

“예!, 딸 넷, 아들 하나인데 잘해요. 결혼하면서부터 며느리가 언제 모셔도 모실 거니까 아예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살아요. 그 양반이 미리 예감하셨는지 오포에 집 살 때 아들 이름으로 사더라고요. 자기 앞으로 샀으면 세금으로 다 뺏기고 그나마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상속세로 거의 반은 납부해야 하니. 잘하셨네요.”

“집 살 때 딸 넷을 불러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은 아들 앞으로 할 테니 서운한 사람은 이야기하라고요’ 딸들도 모두 고등학교까지만 다 가르치고 출가해서 그만그만하게 살고 있으니 ‘그러시라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따님들도 효녀들이군요!”

커피 한 잔에서 시작된 대화가 한동안 오가게 되었다. 아저씨가 살아계셨다면 종이컵에 커피믹스를 넣어 석유평로 위 팔팔 끓고 있는 주전자의 따가운 물을 부어 한 잔 주셨을 텐데 아쉬웠다.

“며느리가 살자 했으니 그렇지 아들이 살자고 했으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요즘 며느리들이 부모 모시려고 하나요?”

“그렇지요. 참 착한 며느리네요.”

거의 구두를 다 닳았는지 광이 반짝반짝 나는 구두를 내 앞에 내놓았다. 돈을 지불하고 나오는 마음이 무거웠다. 노년에 그렇게 활발하고 의종게 살던 부부였는데 지금은 아내 혼자서 구뎃방을 지키고 계신다.

사람은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 살아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가

참 그 사람의 마지막을 기억하게 된다. 구뚝방을 하면서 부유하게는 살지 못했을지 모른다. 구두 닦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수입도 그만큼 줄었을 테니 대략 짐작이 가는 일이다. 딸 넷을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아들은 대학을 졸업시켰다고 했으니 자식들 공부시키고 먹고사는 일이 빠듯했을 것이다. 그러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구뚝방을 하면서 항상 쾌활하게 사셨다. 구두 닦는 일이 남에게서 존경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겠지만, 그것을 천직으로 두 부부가 함께 나와서 자신들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셨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구두를 잘 닦아 드리는 일이어서 구두만큼은 반들반들 윤이 나게 닦으셨고 구두 수리에도 빈틈이 없으셨다. 자기들이 아니라면 떨어지거나 파손된 구두를 신고 다녀야 하니 그것을 수리해 주고 받아 든 손님들의 환한 미소에 만족하셨다. 그리고 자신들의 입장에서 고객 만족을 시키는 일을 다 하시고, 고객 감동을 위해 한 가지 더 하셨던 것이 기다리는 동안 따끈한 커피믹스 한 잔이었다.

가끔 들리는 구뚝방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아저씨의 타계 소식에 마음이 찡찡했다. 아주머니가 가게를 이어받아 혼자 하고 계시는 모습이 영 마음을 아프게 한다. 두 분이 계셨을 때 참 보기 좋았다. 부부가 두런두런 이야기하며 열심히 구두를 수선하고 광택을 내는 모습에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아저씨의 소탈한 웃음소리와 자기도 뭔가 남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에서 진심을 느끼게 되어 좋았다. 부디 아프지 않은 나라에 가서서 편안한 영면을 하셨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커피 한잔하세요. 우리 집에 오면 무조건 커피 한잔하셔야 해요.”

구뚝방을 나오는 귓전에 아저씨의 음성이 마음을 울린다.



박종섭

- 2021년 <문학저널> 수필 등단
- 현) 여성경제신문 칼럼니스트, 문학저널 이사, 한국문인협회 회원
- 2023년 <문학저널> 작품상 수상
- 저서 : 「행복노트」, 「가슴 떨릴 때 GO! 제주 한 달 살기」 외 공저, 다수 대학 교재

내 마음속의 금지곡

서주린

밤 10시가 좀 지나 무심코 TV 채널을 돌린다. ‘가요무대’ 시간이다. 노래를 듣던 중 모 가수가 ‘꿈에 본 내 고향’을 부른다. 참으로 오랜만에 듣는다.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다 보니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울컥해진다. 중학교 졸업 후 고향 공주에서 여름 밤 친구들과 마을 앞 개울에서 미역 감고 자갈밭에 누워서 즐겨 부르던 애창곡이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 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천 리
언제나 외로워라 타향에서 우는 몸 꿈에 본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

이 노래는 중학교 졸업 후 집을 나와 서울에서 고교와 대학을 마치기까지 어려운 역경에 처할 때 마음 흔들릴까 봐 의식적으로 멀리했던 것이 나이 팔십이 넘은 지금까지 까맣게 잊고 있던, 스스로 정한 내 마음속의 금지곡이다.

시골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대전 H중학교에 입학해서, 졸업 무렵에 선친과 갈등을 빚었다. 아버지는 사범학교 진학을 원하셨고, 나는 교사가 싫다고 대전에서 일류라고 하는 D고에 응시했다가 낙방했다. 초등학교 우등생이 유학길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 못하고 방황하면서 공부 소홀히 한 자업자득이다. 진학은 꿈도 꾸지 말라는 아버지의 엄명에 후기 시험을 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낙향해서 농사일을 거들었다.

몇 개월 농사일을 거들다 보니 평생 농사꾼은 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우리 동네 외가로 피난 와서 몇 년 같이 학교 다닌 친구에게 취직 부탁 편지를 보냈더니 그 친구로부터 일단 상경하라는 답장이 왔다.

늦가을 벼 타작할 때였다. 품앗이로 부모님이 당숙네 일 나가시면서 곧 따라 오라는 분부에 “예!” 대답하고선, 서울로 간다는 간단한 쪽지를 남기고 중학교

때 입던 교복과 중3 책 몇 권 넣은 책가방을 들고 나섰다. 1957년 11월 7일로 기억된다.

친구 도움으로 마장동에 위치한 모 주물공장에 입사했다. 당시엔 좁고 질퍽한 논밭 두령을 지나야만 하는 시내에서 먼 변두리 지역이었다. 고온 불가마에서 녹여낸 뜨거운 쇳물을 긴 쇠막대국자에 담아 발독처럼 몇 줄씩 길게 늘어선 금형에 옮겨 부어 삼발이 등의 농기구 주물을 제작하는 것이 주된 일로, 견장한 성인들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 하루하루의 일이 여간 고된 것이 아니었다. 집에는 안심하시란 편지를 바로 드렸더니 짜락눈 흘날리는 초겨울 어느 날,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눈물의 상봉을 했다. 이후로 어떠한 난관이 닥쳐도 눈물을 보이지 말자는 다짐을 했다.

이 공장에서는 고등학교 진학의 꿈이 어렵었다고 생각되어 이듬해 초 지인의 주선으로 회현동에 있는 OO특수부대에 사환으로 들어갔다. 선임 사환 두명과 2개월 쯤 근무하던 어느 날 모 과장이 희망을 묻기에, 야간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싶다고 했더니 내 방(과장실)에 근무하면서 공부하라고 한다. 그 해 4월 서대문 E고등학교에 입학했다.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1학년 말에 부대가 의정부로 이동하게 되어 망연자실해 있던 차에 근무처 모 부사관의 알선으로 그의 부친이 운영하는 조미료 제조회사에 입사했다. 낮에 일하고 밤에 학교 다니는 일이 오죽했으랴. 더구나 학비도 빠듯한 박봉으로 버스비 아끼느라 웬만한 거리는 걸어서 다녀야했다.

1961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K대학교 행정학과 2부(야간)에 합격은 되었으나 등록금이 문제였다. 사정을 알게 된 회사 임직원들의 도움 덕분으로 다행히 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몇 개월 뒤에 회사가 창동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어 크게 낙담하던 차에, 회사 대표와 친분으로 몇 차례 방문한 바 있는 M구청 총무과장이 OO과에 임시직으로 발령 내 주었다. 대학 4년을 무사히 마치고 1964년 2월에 영예의 학사모를 썼다.

졸업과 동시에 입영통지를 받고 논산훈련소 재검을 받는 과정에 체중미달로

입대 불가란다. 그도 그럴 것이 고교와 대학 4년, 7년 기간에 잠시 여동생과 같이 있을 동안의 따뜻한 밥이 그리워진, 오랜 자취 생활에 몸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다. 하지만 군대만은 졸업과 동시에 다녀오겠다는 평소의 일념이었기에 입영 의사의 간곡한 청이 받아들여져 육군 사병으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아직까지도 커다란 자긍심으로 여기고 있다.

1967년 9월에 만기 제대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에 들어, 다음 해 3월에 총무처 시행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 천우신조,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하여 공복의 길에 들었다.

주경야독! 의지와 달리 공부할 시간의 제약으로 깊은 학문 탐구가 부족했다. 더 배우고자 하는 욕심에 퇴근 후 여의도 동아문화센터에 나가서 여러 분야 공부하던 중, 오 모 교수님이 지도하는 수필반에 입문하여 2001년 계간 『창작수필』 가을호에 「이순명(耳順銘)」으로 등단하였다.

그 후 초등학교에서 배운 옛시조의 매력에 끌려 시조 공부를 시작, 2015년에 계간 『시조문학』 작가상 수상으로 등단했다. 그렇지만 수필과 시조 어느 것 하나 쓴 글이 마음에 차지 않아 아직도 배움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고학 시절에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좋은 작품을 써서 보여드리는 것이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다. 고대 그리스의 비극 시인 소포클레스가 「클로노스의 오이디푸스」를 쓴 것이 80세 때였고, 독일의 요한 볼프강 폰 괴테(1749~1832)가 세계 문학사상 최대 걸작 중 하나인 희곡 「파우스트」를 완성한 것이 80세가 넘어서였다고 하니 책가방 들고 배움을 찾아다니는 것이 무슨 흥이 되리오.

고향 공주에는 부모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일가친척 몇 분 안 남았을 뿐 더러 초등학교 동기들마저 만남이 힘들어졌지만, 선산에 몇 대 위 조상님들과 부모님 산소가 있기에 명절과 기제사, 별초 등이 있을 때마다 찾는다. 그러기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고향이다.

이제 잊혀졌던 내 노래를 찾아서 고향을 그리는 나의 오랜 금지곡을 해제할

때가 되었다. 십 대에 고향을 떠나 일곱 번이나 강산이 변하였기에 낭랑했던 옛 목소리는 아니겠지만, 고향 생각이 나고 부모님이 그리워질 때면 '꿈에 본 내 고향'을 목청껏 불러 보리라.



서주린

- 2001년 계간 《창작수필》, 2015년 계간 《시조문학》 등단
- 창작수필작품상, 시조문학작품상, 한국전쟁문학상 수상
- 시조집 : 『저 하늘 목화밭들은 어느 누가 가꾸나』



제3부

소설

김 경 | 벽 너머에
김성달 | 겨울 신발을 산다
민금애 | 언제나乙을이었다
서기향 | 직박구리
손경형 | 이름 없는 풀
양창국 | 기막힌 조우
엄현주 | 썬로이
이예원 | 하늘이 열리다
조경진 | 기억의 편린
최균희 | 목마른 나무

벽 너머에

김 경

그날, 우리가 함께한 그 자리에 오늘도 네가 있다. 늘 그랬듯 어딘가 숨어 있다가 툭 튀어나왔는가. 나는 그날처럼 너와 눈을 맞춘다. 일그러진 네 얼굴엔 얽힌 복잡한 감정… 분노나 증오 따위가 아닌, 빠져린 절망과 지독한 슬픔 같은 것. 흐트러지지 않는 네 감정선은 날카로운 화살촉이 되어 내 폐부를 찌른다. 눈앞이 아찔하다. 네 입술이 움찔거린다.

어, 어… 밀지 마, 제발… 살려줘!

쥐어짜는 듯한, 당황스런 네 목소리는 끊어졌다 이어지고 또 끊어진다. 나는 대책 없이 찢찢매기만 한다. 극한 상황에 대처하는 순발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제로다. 너는 바들거리며 내 가슴속으로 스며든다. 심장은 멎었지만, 아직 온기가 남아 있다. 문득 낮선 목소리가 우리 사이를 비집고 끼어든다.

인내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라.

아련한 저 목소리… 네게도 들렸을까. 나는 낮선 목소리를 향해 날을 세운다. 무엇을 어떻게 인내하고 누구와 화해하고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날, 거짓말처럼 한순간 서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 기습적으로 암흑의 벽이 세워졌다. 내가 네 손을 놓친 바로 그 찰나에 벌어진, 너무도 끔찍한 일이었다. 너와 나의 확실한 거리감의 척도, 게다가 형체가 불투명한 구조물이라 이쪽저쪽의 경계마저 불분명했다. 나는 심장이 조여들다 못해 숨이 딱 멈춰 버린 느낌이었다. 혼신을 다해 온몸으로 벽을 밀어 밀다가 포기했다. 가까스로 벽면에 달라붙었다. 문, 문이 어디에 있지? 눈을 부릅뜨고 훑어나갔으나 벽면은 흠집 한 점 없이 매끈했다. 개미 한 마리 드나들 구멍조차 찾지 못했다. 그런 사이에 너는 벌써 벽 너머 그쪽에 발을 붙이고 숨소리조

차 내지 않았다. 나는 오로지 벽에만 몰두했다. 벽 너머로 가는 길만이 나의 목표였다. 그러나 벽은 불에 녹일 수 있거나, 도구로 깨부술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었다.

그날부터였다. 벽은 내가 너를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앞을 가로막았다. 단숨에 우리 둘 중의 한 사람은 한쪽에 갇힌 신세로 전락했는데, 어쨌든 내가 아니면 너였다. 아니, 엄밀히 말해 우리 둘 다 한 꼴이었다. 그놈의 벽 때문에 상대에게 나아갈 수 없는 신세... 너의 부재는 곧 나의 부재이고, 그것은 공포였다. 공포 때문이라도 나는 부질없는 짓에 매달렸다. 틈만 나면 해머를 치켜들고 벽을 깨부수는 데에 열중했다. 제아무리 철옹성일지라도 그 끝을 보일 터였다. 하지만 결국 허물어진 쪽은 나였다. 나는 극심한 무력감에 빠졌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정신과 상담을 시작했다. 가느다란 뿔테 안경을 쓴 의사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었다. 편안한 이웃 아저씨 같은 인상이랄까. 의사의 등 뒤에 내려진 크림색 블라인드에서 빛이 뿜노는 듯했다.

마음을 편히 하시고 심호흡을 한번 해 볼까요? 자, 무슨 말이든지 다 좋아요. 하고 싶은 말을 해 보세요.

벽이... 벽 때문에..., 벽을 부술 수가 없어요.

나는 미적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그녀와 함께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때 상황이 사진처럼 훤히 보이는데도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아요. 왜 그녀만 벽 너머로 가버린 걸까요? 어젯밤 꿈에도 얼마나 마음이 설렸는지... 데이트를 했다구요. 근데 또 벽이... 그녀가 느닷없이 도망쳤어요. 순식간에 사라졌죠. 어찌나 허망한지...

영상을 되돌리듯 수십 번 머릿속에서 오가던 장면이 갑자기 뒤죽박죽되었다. 자갈길에 발가락이 걸리듯 얘기하는 대목마다 자꾸 제동이 걸렸다. 의사는 묵묵히 귀를 기울였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의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 보였다.

그동안 상당히 힘드셨군요. 물론 지금도 얼마나 중압감에 시달리는지 알겠

어요. 특히 벽이 문제네요. 일단 그 벽을 지워야 하는데, 다른 벽을 한 번 찾아 볼까요? 혹시 즐거웠던 추억 속의 벽이 있을까요?

뜻밖의 물음이었다. 나는 의사의 눈을 바라보며 두 손을 깎지 껴다. 뜬금없이 보물찾기 놀이가 떠올랐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소풍 때마다 으레 보물찾기를 했다. 보물찾기가 시작되면 괜한 긴장감으로 초조하고 조바심이 났다. 빨리 쪽지를 찾아야 하는데, 숨이 가빴다. 나는 코까지 벌름대며 눈을 번뜩거렸다. 종아리에 쥐가 날 정도로 정신없이 이곳저곳을 탐색했다. 그 와중에 깨끔발을 하면서 친구들의 동선도 흘끔거렸다. 마침내 접힌 쪽지 한 장이 손에 들어왔다. 그 순간의 희열이라니.

뭔가 좀 떠오르는 게 있어요?

무슨 일통을 저지르다 들킨 아이처럼 나는 화들짝 놀랐다. 보물찾기와 벽은 하등 무관했다. 나는 머뭇머뭇 의사를 바라보았다. 의사의 여유롭고 다사로운 어투를 피해 창문 쪽으로 시선을 보냈다. 4월의 햇살이 한여름 못지않게 기세 등등 쏟아졌다.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햇빛이 너무 따갑네요.

의사가 의아하다는 듯 눈을 치떴다. 나는 그제야 블라인드가 햇빛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아, 눈이 좀 부셨군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착각할 수 있죠.

의사가 고개를 주억거렸다. 나는 서서히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보물찾기에 나서는 때처럼 정신을 모았다. 기억의 더듬이가 일순간 신호를 보내왔다.

그해 여름, 나는 상병이었다. 장마가 물러가자 설상가상으로 지독한 폭염이 펄펄 끓었다. 아침부터 불기둥은 급속도로 올라가는데, 우리 부대원들은 담벼락을 구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군부대 인근 마을이 강도 높은 폭우로 축대밭이었다. 집집마다 담이 무너지고, 길은 길대로 온통 진흙투성이였다. 종일 부대원들은 팔다리를 걷어붙이고 벽돌담 쌓기에 온 힘을 쏟았다. 실상 작업은 별

게 아니었다. 뜨거운 햇볕과의 전쟁. 목이 타다 못해 숨이 턱턱 막혔다. 부대원들은 해가 떨어지는 즈음에야 환호성을 질렀다. 눈앞에 펼쳐진 달콤한 노동의 열매라니. 복구된 담벼락은 늘 지나치던 보통의 담이 아니었다. 완벽한 하나의 예술품이 당당하게 다가왔다. 절로 자긍심이 샘솟았다.

와, 대단해요. 예술품 맞습니다. 멋진 추억담을 들으니 제 어깨가 다 으쓱해 지네요.

의사는 활달하게 웃으며 현실적인 담벼락의 추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 벽이 떠오르기만 하면 추억의 담으로 그 벽을 지우라고 조언했다. 일주일이나 지났을까. 담벼락의 추억도 별 효험이 없었다. 노동으로 빛나는 벽돌담일지라도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벽보다는 약한 조형물에 불과했다. 그런 것도 실제와 가상의 괴리일까? 나는 그저 제자리에 머무른 채 공포심만 더 부풀렸다. 패기나 자긍심이 오히려 압박감의 수위를 높일 뿐이었다.

다리가 파근하더니 마치 그날 그때처럼 저러온다. 그때 나는 저린 다리를 질질 끌며 온몸을 벽에 부딪치며 얼마나 몸부림쳤던가. 너는 보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 이름을 불러대는 것이었다.

성아야! 배성아! 지금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이따가 꼭 만나.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아니, 정신을 급격히 잃어가고 있었다. 환청을 네 진짜 목소리로 인식했다. 착각했다. 네 연약한 몸은 버둥대는 사람들 틈에 힘없이 파묻혔다. 마지막 인사를 나눌 겨를도 없었다. 물론 너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빙충맞은 놈이 또 있을까. 악몽이야! 모든 게 다 악몽! 나는 이제야 악다구니를 부리듯 목청껏 소리를 지른다. 목소리는 천연덕스레 두세 갈래로 갈라진다. 꼭 남의 목소리 같다. 가슴에 오싹오싹 한기가 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또 재현될 수 있는 악몽이다. 그 악몽의 현장에 나는 생각 없는 물상처럼 멍하니 서 있다. 그것도 네가 이 세상에 나온 기념일에 말이다.

오늘은 네 생일날이다. 내가 너 없이 홀로 지내온 지 420일째 되는 날이다. 유난히 꽃을 좋아했던 너, 나는 널 보듯 날마다 꽃을 보곤 한다. 네가 선물한 투명 오각 유리 꽃병은 지금도 내 방 창가에 놓여 있다. 네 생일 선물로 나는 무엇을 마련했는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꽃이다. 그날처럼 오늘도 너는 흔연스레 꽃을 품에 안으려나.

꽃 한 송이면 차고 넘친다구. 뭐랄까... 가만히 꽃과 마주하고 있으면 내 자신이 꽃이 된 기분일랄까?

산산한 성격의 너는 꽃처럼 병긋거렸다. 아니, 수정처럼 맑은 네 감성이 바로 꽃이었다. 우리가 함께한 마지막 네 생일날이 꿈결처럼 아득하다. 토요일이었다. 애오라지 축복의 메시지로 흰 눈이 흩뿌렸던가. 너는 흰 눈을 두 손에 받으며 재잘거렸다. 어쩐, 하늘도 배성아를 축복해주네? 나는 서프라이즈를 잡고 직진 선물을 공표했다. 무작정 남대문 꽃시장으로 내달렸다.

대도상가 3층은 꽃의 천국답게 향기와 색깔, 신선도 등 모든 면에서 으뜸이었다. 너는 앙증맞은 안개꽃을 첫 번째로, 상큼한 장미를 두 번째로 골랐다. 우아한 안개꽃밭에 도사린 꽃의 여왕을 연출한 것이었다. 꽃다발과 함께 기습적으로 달려든 네 입맞춤, 그 은은한 향기로움이라니.

잠깐만, 여기 꽃 수명 연장제 가져가요. 영양도 주고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답니다.

감청색 비니모자를 쓴, 눈매가 서글서글한 주인 여자가 말했다.

네? 수명 연장제요?

너는 액상 10ml포 한 개를 받아들고 눈을 뚱그랗게 떴다. 꽃수명 연장제라니. 너처럼 나도 처음 들었다. 하지만 ‘꽃 수명 연장제’라는 용어가 낯설면서도 낯설지 않았다. 꽃도 생명체이니, 물과 공기 못지않게 필요한 성분일 터였다. ‘인간 수명 연장제’란 단어가 뇌리를 스쳤다. 능히 개발될 획기적인 약이 아니런가. 너는 ‘꽃 수명 연장제’를 손에 들고 야릇한 표정을 지었다.

100세 시대가 무너지고 200세로 치달을 불길한 예감, 어때? ‘인간 수명 연

장제’는?

설마 그런 약이?

설마라니, 가능 100%에 한 표! 생각해 봐.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등등 우수한 코로나 백신 제약회사들 있잖아? 그렇게 초고속으로 백신을 내놓을 줄 알았냐구. 바야흐로 인간은 우주여행 시대에 접어들었잖아? 과학이 도대체 어디까지, 어떤 미지의 세계에 이를진 미지수지.

야, ‘인간 수명 영양제’는 입에 올리지 말자. 무섭다, 무서워.

나는 과격하게 손사래를 쳤다. 정말 소름이 돋았다. 빛의 속도로 변모하는 이 시대에 그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AI도 초를 다투며 진화할 테고. 더 진화한 AI에게 수명 영양제는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울 수도 있었다. 문득 어디선가 부드러운 꽃향기가 풍긴다.

나는 가슴에 안고 있는 꽃다발을 내려다본다. 안개꽃과 장미가 어우러진 꽃다발은 그날 네가 골랐던 꽃다발과 거의 흡사하다. 가슴이 찌릿찌릿하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 심연에 가라앉은 깊은숨을 토한다. 숨은 일순간 허공으로 흩어진다. 아까부터 차디찬 눈송이가 눈꺼풀을 건드린다. 촉촉한 눈시울을 손으로 훔친다. 아, 이렇게 좁은 골목이었구나. 믿어지지 않는다. 새삼스레 무슨 단서라도 찾으려는 듯 사방을 휘둘러본다. 우리가 생사를 달리했던 공간이 겨우 이 정도였다니. 이같이 작은 공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찼다니. 분명 사고가 아니라 사건, 아직까지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대사건이다. 불현듯 앙가슴이 조여온다. 아니, 온몸이 쥐어짜듯 조여온다. 고개조차 한쪽으로 돌릴 수 없는 느낌이 이런 것인가. 내 몸피만 한 밀폐된 공간에 나는 갇혀있다. 한 발 떼기가 버겁다. 실제로 발이 들리지도 않는다. 공간의 압박감이 극도에 이른다. 그것은 사고의 틀까지 짓누르는 공포를 유발한다. 그날도 그랬다. 꿈쩍도 할 수 없는 비정한 골목에서 버둥버둥하다가 끝내 벽이 세워지는 상황에까지 몰렸다. 그렇더라도 간절한 내 바람은 여전히 지속된다. 설령 또다시 그런 처지에 떨어질지라도 그 공간, 그 골목으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

돌릴 수만 있다면... 나는 애써 호흡을 고르며 벽 너머를 하염없이 바라본다. 벽 너머는 캄캄하고, 거울 앞에서 있기라도 한 듯 엉뚱하게 내가 보인다. 인파로 옥죄는 골목 안에 홀로 서 있다. 그렇다. 나는 왜 이 시간에 사무실을 박차고 이곳을 찾았는가.

나는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했다. 6개월 휴직 후에 복직하면서 입술을 깨물고 마음을 다잡았다. 헤매며 떠돌던 길을 말끔히 청산하자. 광폭한 토네이도에도 휴직계를 쓰지 말자. 복직한 지 어느새 7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어찌어찌 불안불안,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어온 날이 많았다. 오늘도 사실 그런 날의 연장선일지 모른다. 충동적으로 두 손을 들고 말았는가. 시발점은 평평 휘날리는 눈이었다. 그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박감이 몰려왔다. 사방이 벽이었다. 더는 버거웠다. 벽에 둘러싸인 채로 버틸 재간이 없었다. 벽을 벗어나기 위해 이곳에 달려온 거였다.

기상 예보는 며칠 전부터 호들갑을 떨며 역대급 한파에 눈폭탄을 예고했다. 머리 위로 낮게 내려온 하늘은 거의 잿빛이었다. 사무실에 들어와 곧바로 오후 회의의 안건 자료에 매달렸다. 두 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겨우 허리를 펴고 일어났다. 바깥세상은 출근길과는 영 다른 겨울왕국이었다. 영화 '겨울왕국'의 안나와 엘사, 그리고 너. 너는 '겨울왕국'의 마니아였다. 나는 재바르게 책상을 정리하고, 가방을 둘러맸다. 마침 부장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 어디 가려고?

저, 반차 좀 내려주세요.

왜, 어디 안 좋아? 회의 자료는 다 됐고?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자료집을 내밀었다. 부장은 몇 장 넘겨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거렸다. 워낙 업무에 엄격한 성격인데도 따뜻한 품이 있었다. 내가 정신과 병원에 다닌다는 걸 안 뒤로는 번번이 살갑게 대해주었다.

곧바로 지하철 역사로 향했다. 인도에 쌓인 눈으로 발을 디딜 때마다 보드득보드득 마찰음이 올라왔다. 신발코에 눈을 맞추며 걷다가 슬쩍 고개를 들었

다. 하필 바로 앞에 파리바게뜨였다. 대형 유리 너머로 진열대의 풍성한 빵이 한눈에 들어왔다. 나는 주저 없이 유리문을 잡아당겼다. 사각 쟁반에 치킨커틀릿 샌드위치를 올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우리가 즐겨 먹던 간단한 점심 메뉴다. 아메리카노까지 담긴 쟁반을 들고 이층 계단을 밟았다. 정오 가까운 시간인데도 몇 군데 빈자리가 눈에 띄었다. 안쪽 창가 두 번째 자리에 앉았다. 우리 자리였다. 샌드위치 랩 포장을 벗기는데, 봉긋한 입술 사이로 나오던 네 말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얘기를 주고받으며 음식을 나눠 먹던 때의 정겨움. 이렇게 혼자 말없이 음식을 삼키리라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역시 네 말이 맞다. 치킨커틀릿 샌드위치는 한 손에 잡기 편하고, 야채가 듬뿍 들어 있어 식감이 좋았다. 하지만 맛은 네 말과 판판으로 멍멍했다. 하기가 샌드위치뿐만이 아니다. 언젠가부터 음식들이 죄다 한 맛으로 통일되어버렸다. 그 맛은 맛이라고 할 수조차 없는 멍멍함이다. 우리가 유혹당했던 달콤짹짹, 달콤씹씹, 새콤달콤, 매콤달콤한 맛들의 향연은 끝났다. 정신과 의사는 입맛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며 내 등을 다독거렸다. 진료실에서 나온 나는 목울음 소리로 웅절거렸다. 성아야! 미안해. 나만 숨 쉬고, 나만 밥 먹어서... 그래, 멍멍한 맛이 무슨 대수인가. 너와 함께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현실이고, 그 비현실적 현실에 나는 아직도 부적응자인 것을.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누구 때문인가. 나인가? 너인가? 아니면 제 3자인 누군가가 도사리고 있는가. 고통은 날이 갈수록 커간다. 원인과 원인 제공자라도 밝히고 싶은 간절한 열망. 열망은 나 혼자만이 마음이 아니다. 그날, 영문도 모른 채 떠난 망자들을 추모하는, 살아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다.

골목은 카오스였다.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뒤섞이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우리는 잔뜩 웅크린 채 철판 담장 앞쪽으로 자꾸 밀려났다. 누구 없어요? 제발 빨리 좀 구해주세요. 사람이 죽는다고요. 네가 울부짖었다. 오늘, 이처럼 험하니 뚫린 골목길이 그때는 뻑뻑한 콩나물시루였다. 밀지 말라고! 밀지 마! 사람들의 고성어 계속 터져 나왔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한 손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만 네가 뒷사람에 밀려 고꾸라졌다. 너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구토증을 호소했다. 찬 기운이 훅 끼치더니 희멀건 물을 토했다. 나는 황급히 팔을 뻗어 너를 안았는데, 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너를 안고 있던 한 팔을 풀어 네 뺨을 비비대다가 급기야 내 얼굴로 네 얼굴을 비비댔다. 내 얼굴이 얼얼하도록. 가까스로 뜬 네 눈에서 똑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 그 순간, 묵직한 바위가 우리를 덮쳤다. 아니다. 바위가 아닌, 바위 같은 덩치의 사내였다. 비록 네 손을 놓쳤을망정, 내 손은 네 검색 트렌치코트의 벨트를 단단히 움켜잡았다. 그런데 그만 현기증이 일면서 맥없이 손의 힘이 빠졌다. 아슴푸레한 내 의식 속으로 네 노랫소리가 스며들었다.

이 밤 지나고 나면 날 깨울 그대 올 테죠~~

저 문 열리면 또다시 빛은 내게 닿을 테죠~~

할로윈 축제를 앞두고 네가 즐겨 부르던 ‘잔혹동화’였다. 너는 긴 속눈썹의 게슴츠레한 눈으로 아련한 표정을 지었다.

‘잔혹동화’를 부르면 왠지 할로윈 축제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라구.

글쎄... 그렇게. 그런 것 같아.

나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물론 그 노래를 불러본 적도 없고, 듣는 데에도 인색했다. 노래의 선율에서 묻어나는 몽환적인 분위기가 싫었을 뿐이다. 다시는,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네가 좋아하는 노래라면 나도 좋아할 자신이 있다. 나는 어처구니없게도 뒤늦게 맹세라는 것을 해 본다. 너는 할로윈 축제 며칠 전부터 나비를 쫓아 사뿐대는 소녀처럼 굴었다. 초등학교 4년을 미국 시애틀에서 다닌 너는 영어 발음이 거의 원어민 수준이다.

Trick or Treat, Trick or Treat. 사탕과 초콜릿 받으러 친구들과 밤새 몰려다녔어. 집집마다 기괴한 형상의 불이 얼마나 휘황찬란 빛났게? 어른들도 곱게 단장하고 아이들을 기다렸지.

너는 사진까지 보여주며 희희낙락했다. 사진 속의 너는 열한 살이다. 보랏빛 망토에 노란 원뿔 모자, 호박 유령 목걸이를 서너 개나 걸고 있었다. 유령 목걸

이만 없으면 영락없이 신나는 파티 차림새였다.

고대하던 10월 29일 밤이 열렸다. 우리가 준비한 공포 가면은 보면 볼수록 으스스하고 섬뜩했다. 눈, 코, 입에서 선홍색 피가 줄줄 흘러내렸다. 우리는 그 가면을 쓰고 죽은 영혼을 쫓아낼 자신감에 넘쳤다.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 태원 역사를 빠져나왔다. 골목에는 우리와 그만그만한 사람들이 성난 파도처럼 출렁거렸다. 네가 내 팔짱을 끼면서 뇌까렸다. 우리는 명실공히 사냥꾼이라구. 죽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영매를 부정하는, 그러니까 ‘귀신 잡는 사냥꾼’!

골목은 여전히 한산하다. 아니다. 숯제 텅 비어 있다. 나는 우두커니 앞을 응시하다가 고개를 뒤로 돌린다. 얼핏 등 뒤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어느 틈에 왔는지, 백팩을 멘 건장한 청년 서너 명이 자주색 철판 담장 앞에 서 있다. 아마 저들도 1번 출구로 나와 해밀톤 호텔을 한 번 쳐다보고서 풋락커 가게를 끼고 들어섰을 것이다. 그리고 담장에 붙은 추모 쪽지들을 읽는 중이다. 좀 전에 본 쪽지들이 하나하나 눈앞에 스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기다려, 내가 갈 때까지. 보고 싶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마지막 세 분, 제 CPR 안 아프셨나요? 영원히 기억할게. 답에도 꼭 만나자. 아픔 없고 슬픔 없는 곳에서 잘 지내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자, 사랑해.

나는 내 쪽지 글에서 그만 목이 맨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자, 사랑해. 내 쪽지만이 아니다. 모든 쪽지 내용이 가슴을 찌른다. 멀쩡한 159명의 젊음이 이 골목에 들어섰다는 이유 아닌 이유로 떠나면 강을 건넜다. 남겨진 것은 오로지 기억과 추모뿐, 나는 기억과 추모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그 시간은 네 아픔을 돌아보기는커녕 내 아픔에만 매달린 부끄러운 시간이다. 나는 이렇게 민층한 내 민낯을 본다.

나는 이제 네가 서 있던 그 자리에 꽃다발을 내려놓는다. 나는 뽕뽕 얼어붙은 차디찬 손으로 네 얼굴을 어루만지듯 장미꽃을 쓰다듬는다. 무심한 눈송이가 장미꽃 위에 차곡차곡 쌓인다. 송이송이마다 순정한 눈꽃이 피어난다. 눈꽃

에서도 장미 향기가 숨을 쉰다. 나는 눈꽃을 어루만진다. 나는 알고 있다. 네가 그곳, 벽 너머에서 나를 맞이하고 있음을. 배성아, 언제나 이렇게 함께하자. 사랑해. 나는 걸음걸음 뒤돌아보며 느릿느릿 골목을 빠져나온다.

※

다녀왔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세상을 떠난 159명의 희생자들이 영원히 할 수 없는 말.

영문도 모른 채 하늘의 별이 된 제 동생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입니다.

유가족과 많은 시민들이 간절하게 바라왔던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은 대통령이 특별법을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방법으로 외면당했습니다. 참사의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것도 모자라~~ (중략)

지겨운 절망을 넘어 내일을 위해 투표합시다.' 고 유연주의 언니 유정(27살)이 2024년 3월 21 오후 2시, 이태원 참사 골목 입구에서 쓴 대자보의 일부다.

이태원 골목에서 동생을 잃은 언니가 자신이 쓴 대자보를 추켜들고 있다. 나는 대자보를 꼼꼼히 읽는다. 행사장인 골목 입구에 사람들이 꽉 찼다.

릴레이 대자보 소식을 들은 것은 한 달 전이었다. 오늘이 목요일이어서 나는 이틀간 휴가를 냈다.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그녀의 용기가 새삼 돋보인다. 세상의 어머니만 강한 게 아니다. 세상의 언니는 오빠보다 강하다. 그녀의 목에 두른 목도리와 옷깃에 단 리본 배지의 보라색이 빛난다. 일순간 적막감이 흐른다. 고요하다. 나는 마음을 도스른다.

다녀왔습니다. 저는 왜 이 말을 더 들을 수 없는가요? 그 이유를 밝혀달라고 1년 넘게 다른 유가족과 함께 외쳐왔습니다.

그녀의 울부짖음이 고요함을 깨뜨린다. 그녀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뜬다. 커다란 눈에 눈물이 그렇그렇하다. 갑자기 바람이 분다. 그녀의 손에 들린 대자보 종이가 힘차게 펄럭인다. 그녀의 긴 머리칼이 마구 날린다. 잘 지냈어? 반가워. 바람결에 불쑥 네 목소리가 묻어난다. 네 하얀 손이 시야를 가린다. 나는 머릿속이 하얘져 쪼그려 앉는다. 흐릿한 네 눈동자에 내 눈동자를 부딪쳐보려

고 안간힘을 쓰면서 간신히 선다. 너는 나를 바라보기만 한다. 나는 다리가 허
청허청해 네게 다가가지 못한다. 성아야! 나는 너를 향해 팔을 뻗는다. 너는 입
을 꼭 다문 채 내 이름조차 부르지 못한다. 나는 한 발 한 발 다가가다가 하마
터면 거꾸러질 뻔했다. 정신을 가다듬는다. 얼마나 슬픔이 깊으면 입술마저 얼
어붙었는가.

늦잠을 잤다. 동살이 든 걸로 알았는데, 넉넉한 아침 햇살이다. 생생한 대자
보 현장을 품고 잠들었다. 애잔한 네 모습이 꿈속에서도 생생했다. 꿈은 현실
보다 더 현실적이었다. 나는 마음껏 감정을 표출하고, 너 역시 마음을 활짝 열
어줬었다. 나는 행여 너를 놓칠까 봐, 다시는 볼 수 없을까 봐 심장이 닳도록
안달복달했다. 희한한 일이다. 꿈속에서 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애를
태우다니. 예전과 사뭇 다른 너의 면모 탓인가. 아니면 내가 지나치게 욕정에
충실했는가. 마냥 달뜬 뜨거운 내 감촉에 너는 오뉴월 서릿발로 맞섰다. 결국
내가 와락 포옹하려는 찰나, 너는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었다. 나는 하전한 심
정을 어찌지 못해 이불을 걷어챘다. 새벽 3시 20분, 눈을 부릅뜨고 보이지도
않는 천장을 노려보았다. 마치 천장에 내가 붙박여 있길라도 하는 양. 몇 분 몇
초나 지났던가. 나는 다시 꿈속에 떨어졌다. 내 영혼과 네 영혼의 맞닥뜨림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을 터다. 너는 풀죽은 얼굴로 1번 출구 골목 입구에서 있
었다. 그런데 나를 보자마자 대뜸 공포 가면을 썼다. 가면인 줄 뻔히 알면서도
나는 소름이 돋았다. 나는 서둘렀다. 어서 빨리 공포 가면을 써야 했다. 어디에
있지? 이상하게 가면이 보이지 않았다. 내 가방은 물론 네 가방 안에도 없었
다. 왜 그래? 도대체 정신이 있긴 해? 할 수 없지, 뭐. 나 먼저 가야겠어. 너는
왈칵 짜증을 내면서 뺑하니 돌아섰다.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나는 괜히 억을
하고 분한 마음에 울화가 치밀었다. 빈주먹으로 허공을 연속 강타했다. 가면은
안 쓰면 안 돼? 꼭 써야 하는 이유가 뭔데? 네가 없는 골목에서 나는 마음껏 성
풀이를 했다. 끼이익 낄, 문득 핸들을 틀며 급브레이크 밟는 소음이 귀청을 찢
는다. 소음 속에서 너는 차 문을 박차고 나갔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홀연히 사

라져버렸다.

동거를 결정하고 나니 마음이 바꿨다. 서둘러 오피스텔을 계약한 뒤에 각자의 살림살이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폐기했다. 소파만 사면 끝이었다. 일요일 오후, 살랑바람이 부는 한강 고수부지에서 자전거를 탔다. 가볍게 브런치를 먹고 가구점에 들렀다. 각자의 기대치를 접고 3인용 일자 스타일로 의견을 통일했으나, 재질에서 대립했다. 나는 부드러운 천에, 너는 내구성이 뛰어난 가죽에 꽂혔다. 너는 한 발도 물러나지 않았다. 워낙 알레르기 비염이 심한 너지만, 의외의 예민한 반응이었다. 결국 빈손으로 가구점을 나온 우리는 차 안에서도 씩씩거렸다. 김단이 이렇게 융통한 줄 진짜 몰랐어! 너는 시트벨트를 풀고 달리는 차 문을 열려고 했다. 네가 안차게 나오는 바람에 나는 당황했다. 급브레이크 외에는 뒷막이를 전혀 못하고 말았다. 동거를 날린 우리는 쉬이 남남이 되었다. 꼭 39일 뒤에 할로윈 달이 열렸다. 네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할로윈이 지나면 올리브색 가죽 소파를 살 예정이었는데.

책상 뒀 아래 칸 서랍을 연다. 공포 가면 두 개라 고이 포개져 있다. 한 가면의 빨간 눈은 바비처럼 크고, 또 하나의 파란 눈은 젓가락처럼 가늘고 길다. 가면들에서는 여전히 선혈이 떨어지고 있다.

이틀째 휴가일인 오늘은 시청 광장에서 보낼 참이다. 시청 앞 합동분향소에서 특별법 촉구 집회가 있다.

경복궁 역사를 빠져나온다. 합동분향소에 일찍 나가 집회 준비를 도우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아침 일찍 부장의 전화를 받았다. 부장이 급성 장염으로 입원한 바람에 휴가를 반납했다. 베트남과 중국의 현지 마케터들을 인솔해 공장 세 곳을 돌았다. 4명의 마케터들은 꼼꼼하게 냉동식품의 출시 과정을 살폈다. 모짜렐라 호떡만두, 영양밥, 직화생선구이 등등. 그들은 하나같이 엄지척까지 해 보였다.

집회는 벌써 시작되었을 터다. 설핏한 해가 하늘 한 귀퉁이로 밀려간다. 종일 쌓였던 긴장감이 시나브로 풀리는 느낌이다. 네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것은 너무도 자연스럽다. 너와 자주 걸었던, 우리의 일상이었던 산책길이 바로 근처다. 너는 이 시간대를 하늘의 별 보기만큼이나 좋아했다. 뉘엿뉘엿 지는 해의 분신인 노을빛 때문인가. 나는 해를 정면에 두고 서서히 발을 떼다. 노르스름한 빛 위로 주황이 스며들다가 금세 홍시 빛이 뿌려진다. 초를 다투는 색색의 빛들. 노을의 세상이 열렸다. 내 모습이 어때? 지금 완전 노~을~에 취했어. 노을에 꼬인 네 혀의 사랑스러운 치기. 나는 네 치기보다 더 취했다, 너에게.

내가 입사했을 때, 너는 옆 유관부서인 영업부의 대리였다. 초보자인 나는 매사에 덤벙대기 일쑤고, 너는 어떤 업무라도 척척 처리하는 능력자였다. 내가 대리가 되자 너는 과장이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차장 물망에 올랐다.

서촌 먹자골목은 경쾌한 거리다. 대개가 젊은이들, 길거리 커플들이 차지한다. 생기에 찬 그들의 얼굴에는 도도함마저 엿보인다. 얼마만인가. 고소한 냄새가 코를 간질인다. 들기름 메밀국수 집 앞은 벌써 긴 줄이 나 있다. 이 집의 주 메뉴는 들기름에 버무린 메밀국수다. 국수 위에 김가루, 녹차가루, 살얼음이 사뿐히 올라간 비주얼부터 일품이다. 우리는 항상 비빔국수에 코를 박았다. 나는 국수에 고명이 잘 섞이도록 비비고, 너는 국수가 잘박잘박 잠길 정도로 육수를 부어 휘휘 저었다. 이태원에 가기 전날에도 그 감칠맛을 실컷 즐겼다. 메밀국수는 푸석거림 없이 적당히 쫄깃했다. 나는 별안간 쟁걸음으로 메밀국수 집을 지나친다. 그리고 번개처럼 먹자골목을 벗어난다. 너와의 추억이 너무 깊다.

사직단 쪽으로 몸을 튼다. 조봇한 인도 여기저기에 화분이 즐비하다. 옥잠화, 비비추, 둥굴레의 싱그러움. 주뻗주뻗 올라온 초록 잎이 서로 키재기를 한다. 색색의 철쭉꽃은 계절의 주인공답게 상큼한 봄빛을 뿜어댄다. 카페 '백석, 흰 당나귀'의 열은 불빛이 흘러나온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의 첫 구절이 입 안에 맴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우리는 카페 불빛을 올려다보며 눈 내리는 밤을 떠올리다가 2층 계단을 올랐다. 와인 잔을 가볍게 부딪쳤다. 혀끝에 묻어나는 달콤썩썩한 와인 방울. 밤 공기는 을씨년스럽고 건조하고…. 우리는 흰 당나귀가 되어 마음 깊이 울었다. 그만 목이 멘다. 어쨌든 그날 이래 이곳은 우리의 최애 카페로 등극되었다. 나는 너를 위한 이벤트를 기획했다. 시간은 눈 내리는 밤, 공간은 이곳이었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테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양응양 울을 것이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의 마지막 구절을 읊고, 숫눈처럼 하얀 네 목에 펜던트를 걸어줄 참이었다.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5년 주기로도 이행할 이벤트도 꿈꾸었다. 참담한 꿈일 줄도 모르고. 주인 잃은 스위트 알함브라 펜던트는 지금도 덩그러니 내 책상 한쪽에 있다. 이제 펜던트는 영원한 그리움의 상징이다. 문득 낮익은 향기가 번져온다. 보라색 수수꽃다리인가, 아니면 하얀 쥐똥나무인가. 제철이 아니라는 확신에도 사방을 두리번거린다. 오묘한 느낌에 가슴이 뛰다. 여느 때처럼 우리는 바투 붙어서 걷고 있었다. 너는 늘 하던 대로 내 팔에 매달리듯 상체를 기대고 있다. 아, 향기의 정체는 너였다. 찰랑거리며 반지르르한 네 머리카락이었다.

사직단을 지나 광화문 광장에 이른다. 의외로 사람들이 넘친다. 평일에 집회 인파는 아닐 테고, 봄맞이 시민들이다. 밝고 환한 차림새가 그들의 성향을 말해준다. 그리고 보니 너는 떠나기 전날의 차림새 그대로다. 청바지에 얇고 짧은 흰색 패딩이 단정하고 유쾌해 보인다. 우리의 커플 룩이다.

시청 광장 쪽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신호를 기다린다. 시청 광장의 허공에 풍선들이 하늘거린다. 보라색 일색이다. 횡단보도를 한달음에 건너 합동분향소로 향한다. 두근두근, 심장이 가장 먼저 감정을 드러낸다. 심호흡으로 심장을

달란다. 병렬된, 너와 한배를 탄 사람들의 영정이 보인다. 차마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주춤거린다. 행여 네 얼굴에 내 얼굴이 맞닿는다면? 네 영롱한 눈망울에 내 눈동자가 얼비친다면? 점점 더 숨이 차오른다.

특별법 촉구 집회가 진행 중이다. 단상에 오른, 자식 잃은 아버지의 호소가 광장에 울려 퍼진다. 허스키한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숙연해진다. 얼마나 외쳐댔으면 저렇게 목이 갈라지는가. 봄볕에 그을린 거칠고 어두운 얼굴빛도 애처롭기 짝이 없다.

세상은 참사 전과 후로 뚜렷하게 나뉘었다. 마치 불변의 진리처럼, 너는 없고 나는 있다. 하지만 나는 결코 참사 전의 내가 아니다. 사고는 시·공간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체득했다. 따라서 모든 시·공간이 불안전할 수밖에 없었다. 너 없는 빈자리, 그 고통의 심연. 삶은 낭떠러지로 추락하면서 곳곳에 균열을 터뜨렸다. 나를 압박했다, 야금야금.

이 세상에는 언제 어디에나 빛이 존재합니다. 김단 님은 고통을 극복하고 빛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 익숙한 세계로 돌아올 수 있어요.

상담을 받은 지 5개월가량 지났을까. 의사의 처방전은 빛이었다. 나는 빛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었다.

혹시 들어봤나요? 음유시인 레너드 코언이 부른 '앤섬(Anthem)'이라는 노래를요. '모든 것에는 갈라진 틈이 있다. 그 틈을 통해 빛이 스며든다.'라는 노랫말이 나오죠. 빛은 김단 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모두가 찾아야 하는 삶의 길입니다. 고통이 우리를 할퀴고 간 틈을 찾아 메우기보다는 그 틈을 통해 스며드는 빛을 봐야 합니다.

왠지 의사의 말이 미쁘게 들렸다.

나는 단상을 흘끗거리면서 발을 옮긴다. 영정 사진 옆 칸으로 간다. 별, 네모, 하트 모양의 다양한 쪽지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문장마다 애절하기 그지없다. 만날 때까지 편히 지내고 있어, 라는 쪽지에서 그만 울컥한다. 아니다. 울컥할 일이 아니다. 억울하다.

지난달 초에도 이곳에서 대통령 규탄 집회가 있었다. 대통령이 진상규명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토요일이어선지 시민들이 크게 호응했다. 왜 기자들이 코빼기도 안 보여? 누군가가 불멘소리를 냈다. 저 외국인은 뭐야? 기자야, 유튜브야? 여기저기서 내뿜은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실제로 현장 라이브 방송 기자들은 그림자도 없었다. 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던 오체투지 행진 때와는 다른 분위기였다. 그때는 한 백여 명이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출발했다. 오체투지는 난생처음이었다. 북소리에 맞춰 두 손을 모아 무릎을 꿇고, 두 팔 두 다리와 이마를 아스팔트 바닥에 대고…. 그날 밤, 9시 뉴스에서 오체투지 현상이 나왔다. 하나같이 새까매진 이마에서 뭔가가 반짝거렸다. 하나, 둘, 셋, 넷…. 그것은 슬픔과 아픔에 겨운 백오십 아홉 개의 별이었다. 강릉 하늘을 수놓던 은하수처럼 그 빛이 또록또록 아름다웠다.

은하수를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대. 갈 거지? 너는 강릉 안반데기를 가자고 졸랐다. ‘구름 위의 땅’이라고도 불리는 그곳은 중미산 자락 해발 1,100m에 조성된 고랭지 채소밭이다. 하얀 감자꽃과 초록 배추의 풍광은 깜짝 선물이었다. 은하수를 보는 적기는 한여름이고, 별천지는 초승이나 그믐 때가 제일이다. 또한 이른 새벽이면 별과 일출도 볼 수 있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둡고 좁은 오르막길을 운전했다. 일출 전망대에 올랐다. 온 하늘에서 무수히 쏟아지는 깨알 같은 별들. 자연의 숭고함이랄까, 경외심이랄까. 우리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너는 하늘을 향해 노래를 불렀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동쪽 하늘에서도/서쪽 하늘에서도/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별은 하염없이 빛나고, 네 노랫소리는 별을 맴돌았다. 단 한 번만이라도 그때 그 노래를 들을 수 있다면. 듣고 싶다. 아니, 보고 싶다. 성아야! 내가 얘기해준 본성적 운동, 너는 기억할까. 흙은 무겁다는 그 본성에 따라 무거움의 중심인 지구로 향하고, 불은 가볍다는 그 본성에 따라 천상으로 올라간다고 했지. 네 본성은 흙일까, 불일까.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가.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나는 완전히 깜깜이다. 그날 네가 벽 너머로 스러졌다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

집회가 끝났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한다. 빌딩과 거리의 야광이 떠나가는 발길을 호위하듯 에워싼다. 나는 회원들과 함께 정리 작업을 서두른다. 커다란 쓰레기봉투가 금세 두둑해진다. 날카로운 꽃샘바람이 뺨을 때린다. 나는 몸을 움츠리고 서성이다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는다. 몇몇 사람들도 군데 군데 정물처럼 앉아 있다. 하늘을 올려다본다. 아직 별은 눈을 뜨지 않았다. 비둘기 서너 마리가 푸드득 날개를 털며 날아오른다. 비둘기들이 사라진 허공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든다. 작은 새는 광장을 가로질러 어두운 하늘로 향한다. 내 시선은 작은 새의 실루엣을 쫓아간다. 실루엣이 지워진 자리에 모래알 처럼 작은 빛이 반짝거린다.

인내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라. 문득 어디선가 울리던, 낯설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몇 개월 전, 네 생일날에도 들었던 소리다.

광장이 텅 비었다. 광장은 차가운 밤공기가 파고들면서 쓸쓸한 기운이 감돈다. 밤하늘의 작은 빛은 여전히 제자리에서 반짝거린다. 쳐다보면 볼수록 익숙하고 정감 어린 빛이다. 아, 별꽃이다. 한 송이 하얀 별꽃... 얼핏 삼삼한 네 모습이 별이 되고 꽃이 된다. 나는 별꽃과 눈을 맞추며 천천히 광장 밖으로 향한다.



김경

- 2000년 《월간문학》으로 등단
- 단편소설집 《얼음벌레》, 《다시 그 자리》(세종 우수도서), 《푸른바다거북》(아르코문학나눔)
- 중편소설집 《게임, 그림자 사랑》(문광부 우수도서), 장편소설 《페르소나의 유혹》
- 한국소설문학상, 만우박영준문학상 등

겨울 신발을 산다

김성달

사내는 껌질이 마른 밤을 깎으며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연말이라 이곳저곳 방송국에서 앞다투어 시상식 중계로 시끄럽더니 한 해의 마지막인 오늘은 매년 이맘때에 울리는 보신각 타종 소리 중계에 열을 올리는 모양이다.

사내가 검은 봉지에 든 밤을 발견한 것은 딸의 책상을 닦던 중이다. 나무로 된 책상은 딸이 태어나던 해 사내가 시장 목공소에 특별히 부탁해 제작한 것이다. 따뜻한 느낌의 고급스러운 재질의 나무 책상이었다. 사내는 어렸을 때 책상이 없어 옆드려서 숙제하고 공부하면서 자랐다. 그 바람에 윗도리의 팔꿈치가 반들반들 닳아져 찢어지고는 했다. 딸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크게 만든 나무 책상은 때가 잘 타서 사내는 틈만 나면 닦았다. 마른 수건으로 먼지를 털고, 물을 묻힌 부드러운 수건으로 구석구석 닦는다. 얼룩이 생기면 치약으로 닦아내거나 어떤 경우에는 올리브오일로도 닦는다. 뒤틀림 현상을 막기 위해 매일 창문을 열고 공기를 환기시킨다. 오늘도 집에 돌아와 콩나물국에 두부찌개와 김치를 반찬으로 저녁을 먹은 후에 책상을 닦으려다가 그 밑에 놓인 검은 봉지를 보고, 며칠 전에 얻어온 밤이 든 봉지라는 것을 알았다.

그 봉지는 사내가 새벽이면 문을 열고 물건을 진열하는 서너 곳 점포 가운데 하나인 헌책방 가게에서 얻어온 것이었다. 단골 노파가 들고 왔다가 두고 간 모양인데 열흘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자, 헌책방 주인 오 사장이 심심할 때 하나씩 까서 먹으라며 사내의 손에 들려주었다. 사내가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

자 오래 두면 어차피 먹지 못하고, 혹시라도 노파가 나타나면 자신이 사주겠다고 자꾸 내밀어서 받아 온 것이었다,

밤껍질을 까며 사내는 틈틈이 텔레비전에 눈길을 둔다. 그사이 보신각 타종 중계 장면은 사라지고 화려한 옷을 입은 배우들이 트로피를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한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말을 잊지 못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내는 그 말이 너무 예쁘고 듣기 좋았다. 세상이 저런 말로만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자 저도 모르게 마른 밤처럼 물기 없는 입이 병그죽 벌어진다. 보얀 속살이 드러난 밤은 제법 먹을 만 해 보이지만 도통 입에 넣지 않던 사내는 쌍밤이 나오자 바로 입안에 넣고 우적 씹는다. 사내는 군밤보다 생밤을 좋아하는 딸을 위해 일을 끝내고 돌아오면서 밤을 한 봉지씩 사들고 오곤 했었다. 저녁 먹은 후에 제 몸보다 서너 배 큰 책상에서 숙제하는 딸 앞에 마주 앉아 생밤을 하나씩 까서 입에 넣어주면 날름날름 받아먹던 그 입술과 잇몸 그리고 하얀 치아가 지금도 생생하다. 그때도 사내는 쌍밤이 나오면 속껍질을 벗기지 않고 그대로 씹었다. 뚫었다. 그때마다 딸이 이상하다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사내를 보았다. 그 모습이 그림다.

사내는 꽤 수북하게 쌓인 알밤을 보면서도 먹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 텔레비전은 화려한 시상식이 모두 끝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포부와 각오를 표현하는 말과 표정이 가득하다. 사내는 알밤을 봉지에 주섬주섬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고 걸레로 방바닥을 깨끗이 닦고 이부자리를 깬다. 기온은 밤이 깊어지면서 더욱 떨어지고 있다. 화장실 앞에 붙어 있는 보일러 온도를 살피고 온 사내는 이부자리 밑에 깔린 전기장판의 온도를 1에서 2로 높이고 불을 끄며 자리에 눕는다. 또 하루가 고요 속으로 사라진다. 사내는 서늘한 어깨 위로 이불을 당겨 덮으며 오른쪽으로 돌아눕는다.

그때 반지하 창밖 길 위로 무엇인가 질질 끌리는 소리가 들린다. 매일 이맘때 들려오는 그 소리는 오늘따라 유난히 메마른 길바닥을 끌고 지나가는 차가운

느낌으로 다가온다. 그 기운이 이불을 덮어도 시린 사내의 양쪽 어깨 위로 고스란히 전해져 온다. 혹시 비라도 오는 날은 그 소리가 훨씬 부드럽고, 눈이라도 오면 거의 들리지 않고, 누군가 싸박싸박 눈 밟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3년 전에 사내가 이곳으로 이사 온 후 매일 밤 들어 온 그 소리는 청소차가 오기 전에 근처의 쓰레기를 끌어모으는 소리다. 10분쯤 지나면 어김없이 청소차 엔진 소리가 들리며 쓰레기 싣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점점 멀어져 간다. 그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고요가 찾아왔는데도 사내는 잠들지 못한다. 다시 왼쪽으로 돌아눕지만 어쩐지 오른쪽 어깨가 사뭇 시리다.

오늘 새벽에 책상을 닦고 세수를 한 사내는 환기를 시키고 첫차를 타려고 서둘러 지하철역으로 걸었다. 12월 마지막 날 새벽은 며칠 동안 따뜻한 기운과 이별하기를 작심한 듯 기운이 푹푹 떨어지고 있었다. 불이 시린 찬 공기를 뚫고 지하철역에 도착하니 첫차가 막 들어오고 있었다. 사내는 열차 4-6칸에 타고 문 바로 옆 오른쪽에 자리를 잡았다. 3년 동안 앉아오는 자리였다. 첫차 특유의 냉기가 가지지 않은 자리에 앉은 사내는 평소처럼 눈을 감았고, 열차는 곧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디쯤인가 싶어 설핏 눈을 뜬 사내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다. 그의 시선이 쏘인 곳은 맞은 편에 앉은 승객의 운동화와, 낡고 께죄죄한 그 운동화가 품고 있는 맨살이 고스란히 드러난 발목이었다. 사내는 그것이 마치 무의 파란 부분처럼 새파랗게 보였다. 세상의 모든 추위가 고스란히 모인 것 같았다. 그 추운 발목을 품고 있는 운동화는 자주색이지만 너무 낡고 물이 빠져 자주색이라 부르기가 무색했다. 운동화와 발목에서 시선을 돌리지 못하던 사내가 고개를 들어 상대방을 흘깃 바라보았다. 성마른 벼집이 채 가지지 않아 보이는 옛된 얼굴의 여자였다. 화장을 거의 하지 않은 얼굴에 이른 새벽 집을 나서야 하는 피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사내는 얼음 조각처럼 차가워 보이는 여자 발목에서 줌처럼 눈을 땔 수 없었다. 그 운동화와 발목은 사내가 열차에서 내릴 때까지도 미동이 없었다.

자리에 누운 사내는 그 발목이, 그것을 받치고 있던 남루한 자주색 운동화가 좀처럼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사내는 왼쪽 오른쪽으로 번갈아 눕지만, 오른쪽으로 누우면 왼쪽이 왼쪽으로 누우면 오른쪽 어깨가 자꾸 시리다. 양쪽 어깨에 추운 발목과 남루한 운동화를 올려놓은 듯 시리고 무겁다. 딸애의 신발이 한 짝씩 매달린 것처럼 애달프다. 사내는 갑자기 오한이 나고 코와 입에서 뜨거운 기운이 터져 올라오지만 이빨을 꽉 물고 버티며 잠을 청한다. 이빨 꼭 문 고통이 다른 아픔을 물어 뜯어주기를 바라며 견딘다. 매일 밤 그렇게 견디고 있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사내는 출입문 앞의 신발장 문을 열어본다. 굵이 닳은 사내의 구두 한 켤레와 딸의 여름용 샌들이 쓸쓸하게 놓여 있다. 사내는 딸의 샌들을 들고 밀창에 찍힌 숫자를 들여다본다. 너무 낡아 겨우 보이는 숫자는 235이다. 신발장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온 사내는 시린 어깨 위로 다시 이불을 끌어당긴다.

새벽 4시 30분에 눈을 뜬 사내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책상을 닦기 시작한다. 그동안 정성을 다해 닦고 보듬었지만 여기저기 크고 작은 상처가 많다. 마치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좁은 곳으로 살림을 줄이면서 책상 때문에 애를 먹었지만 어떡하든 끌고 들어가 자리를 잡아 앉혔다. 아내가 임신하자 주문 제작한 책상이었다. 신산한 삶과 함께 줄어드는 집 공간에 비해 책상이 너무 컸지만 사내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금 사는 곳에 책상을 넣으려고 출입문을 뜯어내기도 했다. 사내는 딸과 동갑인 책상을 제 몸처럼 아낀다. 새벽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게 책상 닦는 일이다.

사내는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길을 걸어 지하철을 탄다. 오늘도 어제처럼 6-4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다가 뜨자 어제 보았던 그 발목과 운동화가 보인다. 청바지 밑단 아래로 고스란히 드러난 맨살의 발목과 남루한 운동화는 오늘도 여전히 추워 보인다. 사내는 그 추위가 두애달파서 발목과 운동화 주인의 얼굴을 바라볼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 위로 딸의 얼굴이 겹친다. 머릿속이 혼란스

러운 사내는 쫓기듯이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여자 쪽을 흘깃 바라본다. 열차 벽에 머리를 기대고 여자가 눈을 감고 있다. 사내는 여자의 감긴 눈이 춤다.

시장에 도착한 사내는 익숙한 몸놀림으로 서너 군데 점포의 문을 열고 그 안에 가득 쌓아놓은 물건이 담긴 상자를 가게 앞에 진열하기 시작한다. 증고책 책방은 책이 무겁지만 비교적 일정하게 진열하는 순서가 있어 수월하다. 하지만 옷 가게는 그때그때 진열순서와 종류가 바뀌어 손이 여러 번 간다. 낚시도구를 파는 곳은 더욱 복잡하지만 사내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몸이 굼뜨고 손에 잡은 상자나 물건이 자꾸 미끄러진다. 육신에 쌓인 세월이 만들어내는 몸의 노화는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사내는 시장에서 잔뼈가 굵어 한때 자신의 가게까지 가졌었다.

새벽부터 몸을 바쁘게 움직인 사내는 국밥집에 들어가 선짓국 한 그릇으로 배를 채우고 다시 가게 이곳저곳을 다니며 주인들이 내어놓은 택배물건들을 옮기거나 새로 들어온 상품들을 진열하고 손님들이 구입한 물건들을 자동차에 실어주기도 하면서 하루를 보낸다. 해가 짧은 겨울에는 오후 4시쯤 되면 시장 가게들은 벌써 문 닫을 준비를 하고, 사내는 새벽에 내어놓았던 물건들을 다시 가게 안으로 하나하나 들여놓기 시작한다. 그러는 동안 누구도 사내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사내 역시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는다. 묵묵히 몸을 움직일 뿐이다. 헌책방을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닫고 벗어 두었던 검은 목도리를 목에 두른 사내는 말없이 시장을 떠난다. 헌책방 주인이 또 밤이 든 검은 봉지를 손에 들려준다. 사내는 가타부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는 등을 돌린다.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향하던 사내가 오늘은 시장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꺾여 도로를 따라 걸어 올라간다. 한 10분 동안 어둠이 제법 짙어진 거리를 걸어가자 갑자기 불빛이 환하게 밝아지며 신발을 전문으로 파는 노점이 파배기처럼 꼬인 50미터 거리가 나타난다. 사내는 그때부터 발걸음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거리 양옆으로 쌓여있는 신발을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한다. 크고 작은 다양한 색깔의 운동화 사이로 발목까지 올라가는 운동화와 털신이 보인다. 신발 앞

에 적어 놓은 1만 원, 2만 원, 3만 원 가격에 따라 모습과 격이 다르다.

사내는 열차 안에서 보았던 운동화와 발목이 눈에서 종일 떨어지지 않았다. 아교풀로 붙인 것처럼 눈앞에 붙어 어딜 가도 따라다녔다. 신발 노점거리의 끝까지 왔는데도 사내는 선뜻 신발을 집어 들지 못한다. 두어 번 잡아 보기는 했지만 그냥 내려놓는다. 그 추운 발목을 감싸기는 어쩐지 부족해 보인다. 그냥 노점거리를 빠져나와 부지런히 지하철 역사를 향해 걸어가는 사내의 눈에 불빛을 환하게 쏟아내는 길 건너 상점들에 진열된 신발이 크게 클로즈업되어 다가온다. 스포츠 브랜드 점포들이 모여있는 그곳은 시장이 이전하기 전까지 불야성을 이루던 곳이다. 사내는 지하철 역사로 내려가기 전에 잠깐 멈추어 그곳을 바라보다가 쟁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간다.

집으로 돌아온 사내는 저녁 준비 전에 화장실에서 마른 수건을 가져와 책상을 닦는다. 그동안 얼마나 닦았는지 책상은 예민하게 반들거린다. 거의 20여 분 동안 책상 구석구석을 닦은 후에야 사내는 씻고 저녁 먹을 준비를 한다. 사내가 시장 점포 문을 닫고 돌아오면 오후 6시쯤 되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책상을 닦고 퇴근해 돌아올 딸을 기다리면서 저녁을 준비했다. 오후 7시 30분쯤 되면 어김없이 문을 열고 들어온 딸은 그사이 사내가 차려 놓은 밥상 앞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말이 없었다. 그건 사내도 마찬가지였다. 딸은 콜센터에 근무하면서 더욱 말이 없어진 듯했다. 사내는 그러려니 했다. 딸은 출근해 왔으면 고객의 말을 듣고, 대답해야 하는 직업이었다. 얼마나 많은 고객의 말들을 상대해야 하는지 사내는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그렇기에 굳이 딸에게 말을 시키지 않았다. 말을 하지 않고 얼굴만 보아도 심중을 알 수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딸이 몇 년 돈을 모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겠다고 취업을 한 곳이 콜센터였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는 그런 날이었다. 전조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꿈을 꾸지도 않은 평범한 그런 여름날이었다. 오후 7시 30분쯤 평소처럼 퇴근한 딸은 늘 그랬듯이 사내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앞에 앉았다. 그날 사내는

딸이 좋아하는 미역줄기를 조물조물 무치고 시원한 오이냉국을 밥상에 올려놓았다. 사내가 앞으로 밀어주는 접시에서 미역 줄기를 젓가락으로 집어 올리는 딸의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다. 사내는 놀라 딸의 얼굴을 보면서 눈빛으로 그 까닭을 물었다. 한동안 꾸역꾸역 미역줄기만 입속으로 밀어 넣던 딸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아빠. 사람들이 욕을… 욕을… 너무 많이 해.”

딸이 서러운 듯이 울음을 터뜨렸다. 말간 눈물이 딸애의 콧등 옆을 따라 흘렀다.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던 사내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다.

“너도… 너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그랬니.”

무심코 뺨은 사내는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했는가 싶어 얼른 딸의 얼굴을 살폈다. 놀란 듯이 울음을 멈춘 딸이 동그랗게 뜬 눈으로 사내를 올려다보았다. 사내는 아차 싶었지만 이미 뺨은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었다. 딸은 눈물이 그렁그렁하는 눈으로 사내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 담긴 복잡한 심사를 사내는 읽어내지 못했다. 딸이 근무하는 옥상에서 몸을 던지는 날까지도.

훗날 사내는 그날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밥을 우물거리며 울상 짓는 딸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이따금 뉴스에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콜센터 직원들에게 거친 언사와 욕설을 퍼붓는다는 말을 들었지만, 딸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미처 생각지도 못했다. 그날만 생각하면 사내는 자신의 혀를 잘라버리고 싶었다.

사내는 딸이 근무하는 고객센터는 콜(call) 수를 채우지 못한 상담사들에 대해 인센티브 평가에서 감점을 주는 사실도 몰랐다. 일간·주간·월간 단위로 실적 순위를 매기며, 고객센터를 평가하는 지표와 고객센터에 내려보내는 프로모션 공지 쪽지라는 것이 매일매일 딸과 같은 현장실습생들의 목을 옥죄는 줄도 몰랐다. 딸의 자리가 물리적인 감시에 적합하게 배치되었고, 딸의 모든 콜 상황, 휴식 및 이석 상황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초 단위로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다. 또한 딸이 근무하는 부서가 고객이 서비스 해지를 요구하면

이를 막는 부서라는 것도 몰랐다. 이 부서는 고객 의사에 반하는 설득 작업을 맡았기 때문에 '욕받이 부서'라고 불린다는 것도 역시 몰랐다. 사내는 딸이 근무하던 부서가 해지율, 재약정 등으로 직원 실적을 평가해 실적급여를 책정한다는 것도 몰랐다. 콜수 할당량을 몇 프로 채우느냐가 실적 채점 기준이 되며, 하루 정해진 콜기준을 미달할 경우 고과 점수가 감점되고, 해지 방어 업무를 하면서 상품 판촉 업무까지 한다는 것도 몰랐다.

딸이 하는 일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내는 그날 딸의 얼굴에 천연덕스럽게 빨었다.

“너도... 너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그랬니.”

그날 이후 좀처럼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지 않던 딸은 뜨거운 여름날, 근무하던 건물의 옥상에서 아래로 몸을 던졌다. 오늘도 그 딸을 가슴에 묻지 못하는 사내는 그래도 살겠다면 살뜰히 챙겨 먹은 저녁상을 치운다.

새벽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사내는 집으로 들어가 우산을 챙겨 나올까 하다가 그냥 새벽길을 걷는다. 아무도 밟지 않는 눈 위로 차곡차곡 눈이 쌓인다. 지하철 역사에 도착한 사내는 열차 6-4칸에 자리를 잡고 앉아 주위를 둘러본다. 열치의 6-4칸을 타는 사람은 늘 같았다. 부부로 보이는 남자와 아주머니, 넥타이를 매고 서류 가방 든 남자와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이다. 이들은 사내처럼 항상 같은 앉는 자리에 앉았다. 사내는 비어있는 맞은편의 자리를 바라본다. 그동안 열차를 타고 자리에 앉으면 눈을 감는 바람에 여자가 그 자리가 언제 앉았는지 몰랐다. 눈을 뜨면 추운 발목과 낡은 운동화가 보였다.

열차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사람 몇명이 들어오면서 사내 맞은편에 누군가 자리를 잡고 앉는다. 겨울인데도 얇은 가을 패딩 차림의 그 여자이다. 사내의 눈이 그녀의 발목으로 향한다. 검은색 바지와 자주색 운동화 사이에 맨살이 고스란히 드러난 발목이 또 새파랗게 보인다. 목이 긴 양말이라도 신고 나오지 어찌면 저리도 미련할까? 오늘같이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얼마나 차가울까 싶은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목이 움츠러든다. 짙어진 가방을 앞으로 모

아 권 여자는 눈을 감고 미동도 없다. 열차가 정거장에 정차할 적마다 승객들이 들어왔고, 사내의 눈앞에서 여자의 추운 발목과 남루한 운동화가 사라진다. 사내는 역에서 내리면서 여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지만 승객들에게 가려 보이지 않는다.

눈 오는 날이면 가게 앞에 내놓은 물건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그 위에 촘촘하게 비닐을 덮어야 한다. 비닐을 다 덮도록 날씨 탓인지 새벽 손님이 한 사람도 없다. 사내는 새삼스럽게 텅 빈 시장 안팎으로 시선을 돌린다. 청계천 복원사업을 시작하면서 삶의 터전을 잃게 생긴 시장 상인들이 자살까지 하면서 극렬하게 반대하자 그들을 설득하려고 서울시는 현대식 건물을 새로 지어 상인들을 유혹했다. 6,000여 명의 상인들이 서울시의 말을 믿고 현대식 건물로 옮겨갔다. 사내도 마찬가지였다. 상인들은 특별 분양가로 점포 1개에 7,000만원을 약속받았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평균 분양가가 2억 가까이 치솟았다. 저렴한 분양가 약속을 믿고 이주 보상비를 받고 덜컥 삶의 터전을 내준 상인들 가운데 꽤 많은 이들이 입주 엄두를 내지 못했고, 사내처럼 무리하게 입점한 상인들은 상당한 빚을 얻어야 했다.

사내는 분양가의 상승을 부추기는 건설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줄 몰랐고, 일단 삽질이 시작되면 룸살롱도 먹여 살려야 하고, 공무원들 골프도 쳐야 하는 것도 몰랐다. 그래서 상가 분양가가 자꾸 높아졌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상인들에게 돌아간다는 것도 몰랐다. 상가 분양이 안 되어 점포를 쪼개어 분양했지만 신통치 않았다. 점포에 입점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던 사내는 시간이 지날수록 빚만 늘어가자 손을 털고 빈 몸으로 시장으로 돌아온 게 3년 전이다. 한때는 상인들 사이에서 가나안땅이라고 불리던 그곳에 지금까지 남은 상인들은 100명이 채 안 된다. 삶의 터전을 옮겼던 6,000여 명의 상인들 가운데 나머지는 흔적조차 없다. 사내처럼 시장으로 돌아온 사람은 수십 명에 불과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활성화 명목으로 거대자본과 탄탄한 유통망을 갖춘 대형 백화점, 대규모 할인점, 영화관과 쇼핑공간이 어우러진 멀티플렉스,

찜질방과 야간 스케이트장이 들어와 있지만 점포 입점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해 고양이들만 왔다갔다하는 유령 상가가 되었다.

우여곡절을 겪고 빈손이 된 사내는 어디에도 갈 데가 없었다. 교육지책으로 시장으로 돌아온 그에게 시장 상인들이 곁을 내준 일거리로 그나마 호구를 견디고 있었다. 사내가 맨몸으로 돌아온 그때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딸의 뒷바라지는 커녕 사채에 시달리며 여기저기 일자리를 전전하던 사내의 아내는 어느 날 새벽 심장마비로 영영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사내는 새로운 해가 시작된 첫날 눈이 내리는 시장에서 서 있으니 이런저런 생각으로 가슴과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

날씨 탓에 시장에는 일찍 인적이 끊겼고, 사내는 주섬주섬 점포 정리를 시작한다. 활기를 잃은 시장은 언젠가 스스로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내는 착잡하다. 사내는 건널목 붉은 신호등 앞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신호가 바뀌자 서둘러 걷는다. 사내는 신발 노점상 도로 건너편 스포츠용품 브랜드 이름을 크게 내붙인 점포가 네댓 개 늘어선 거리의 첫 번째 가게 문을 밀고 들어간다. 화려한 조명 아래 깔끔하게 진열된 신발의 가격은 노점에서 보았던 가격보다도 동그라미가 하나는 더 붙어 있다. 사내는 발목까지 올라오는 자주색 여성 운동화를 사 들고 집으로 돌아온다.

신발이 든 쇼핑백을 들고 신발장 앞에서 머뭇거리던 사내는 책상 밑 밤이 든 봉지 옆에 세워두고 저녁을 차린다. 김치와 두부찌개 콩나물국을 밥상에 올리면서 사내는 자신의 맞은편에 딸의 숟가락과 젓가락을 나란히 놓아두고 전기 밥솥에서 밥을 퍼 밥공기에 담는다. 저녁을 먹은 사내가 텔레비전을 켜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큼지막한 자막이 눈에 달려들면서, 목소리가 환청처럼 귀를 뚫고 들어온다.

“불법 노동행위에 시달리던 콜센터 여직원 자살”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화면을 급히 끈 사내는 어쩔 줄 몰라 방안에 우두커니 서있다가 책상 밑에서 밤이 든 봉지를 꺼내 칼로 껌질을 벗기기 시작한다. 하

지만 몸이 떨어져 칼을 든 손이 자꾸 미끄러진다. 결국 칼이 손가락을 베고 지났지만 사내는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아프지 않다. 이까짓 손가락이 조금 베었다고. 사내는 살면서 미움을 가지지 않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날 딸이 흘리는 눈물을 본 순간 사람이, 세상이 미웠다. 그래서 말했다. “너도… 너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그랬니.” 솔직한 마음이었다. 그래도 딸에게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었다. 사내는 수천 번 자책해도 이미 늦었다. 쏟아지는 비를 멈추게 할 수 없었다면, 함께 그 비를 맞아야 했다. 사내는 그러지 못하고 딸더러 그들과 똑같이 욱하라고 했다. 인간이 아닌 것들과 똑같이 되라고 말했다. 사내는 그 순간 자신은 인간이 아니었다고 자책하고 또 자책하지만 딸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튿날 새벽 집을 나서는 사내의 손에 신발이 든 쇼핑백이 들려있다. 사뭇 차가워진 새벽 공기를 뚫고 지하철역에 도착한 사내는 6-4칸으로 들어가 앉는다. 기다렸다는 듯이 열차가 미끄러진다. 사내는 그 여자가 타는 역사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이 꽤 길게 느껴진다. 드디어 문이 열리자 사내는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키며 맞은 편 자리에 시선을 주지만 열차가 출발하는데도 비어있다. 쇼핑백을 감싸고 있던 사내의 두팔에 힘을 빠진다.

이튿날 새벽에도 집을 나서는 사내의 손에 신발이 든 쇼핑백이 들려있지만, 열차의 맞은편 자리에는 그 여자가 없다. 그 자리에 앉은 다른 사람들의 발목은 따뜻한 양말로 덮여 있거나, 발목까지 올라오는 부츠나 운동화를 신었다. 그 이튿날도 사내는 신발 든 쇼핑백을 들고 나가지만 새파랗게 चु던 발목과 낡은 운동화를 만나지 못한다.

오늘도 새벽에 집을 나서기 전 신발이 든 쇼핑백을 버릇처럼 집어 든 사내는 멈칫한다. 매일 출퇴근 때마다 들고 다니던 쇼핑백은 손잡이와 모서리가 많이 닳아 보풀이 일었다. 사내는 쇼핑백에서 신발을 꺼낸다. 목이 긴 자주색 운동화이다. 사내는 그 운동화를 잠바 속에 품고 깎은 생밤이 든 봉지를 들고 지하철역으로 향한다.

사내는 항상 걷던 익숙한 길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얼룩덜룩 뒤틀리면서 낮 설고, 어둠 속에서 주의 깊게 이쪽을 응시하는 여자를 발견한다. 그 여자가 딸 같기도 하고, 낡은 자주색 운동화의 주인 같기도 한 사내는 갑자기 어떤 사실을 깨닫는다. 딸과 함께 같이 공기를 호흡하고, 같이 물을 마시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잤던 그 세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으로 그에게 들어와 버렸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 여자가 등을 돌리는 순간 사내의 눈앞에서 사라진다.

6-4칸에 오른 사내는 늘 앉던 자리에 앉아 열차가 출발하기를 기다린다. 이상하게도 첫차를 탄 사람이 사내밖에 없다. 무슨 일인가 싶어 두리번거리던 사내는 오늘이 연휴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하지만 타는 승객이 없다. 6-4칸에는 여전히 사내밖에 없다. 그 여자가 타던 정거장에 도착했는데도 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사내는 품고 있던 목이 긴 자주색 운동화를 꺼내어 맞은편 자리 아래에 내려놓고, 짙은 생밤이 든 봉지도 옆에 나란히 놓아두고 문이 닫히기 전에 열차에서 얼른 내린다. 눈앞에서 사라지는 열차를 바라보며 사내는 새삼스럽게 목이 긴 자주색 운동화의 사이즈를 기억한다. 235이다.



김성달

- 『한국문학』에 단편을 발표하며 작품활동 시작
- 조연현문학상, 고양행주문학상, 한국문인협회작가상, 탄리문학상, 아시아문학상 우수상 등 수상
- 소설집 『환풍기와 달』, 『낙타의 시간』, 『이사 간다』, 연작소설 『미결인간』(근간), 평론집 『한국소설을 읽다』 등

언제나 을지이었다

민금애

이웃 학교와 친목을 위한 배구대회가 열렸다. 나는 본교이고 개최지는 우리 학교 분교다. 학생 수가 본교의 1/4도 안 되는 학교. 규모도 작고 군 소재지와 교통도 불편한 시골이다. 한마디로 소개하자면 신규 교감들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학교다. 그래서 발전도 없고 비전도 없다. 학급수도 전체 3, 4개. 주변은 빈촌, 소촌이다. 교감도 담임을 맡는 열악한 학교. 그렇지만 승진과 동시 필연적으로 이 년 정도 모두 거쳐 가는 중간 지점이다.

친목 행사는 학교의 대소와 관계없이 돌아가면서 했다. 군 소재지 학교들의 잔칫날이다. 별로 마음 내키지 않지만, 시골 교사들의 유일한 즐거움이기 때문에 겨자 먹기로 참석할 수밖에 없다. 그곳에서 그를 만났다. 중후한 멋쟁이. 이상스레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더 멋져지고 있다. 특히 남자들은 적당히 출세하면 그만큼 멋스러워지는 특전이 있는 모양. 신규 교감이라는 타이틀답게 멋진 사내. 신규답게 의욕적인 남자. 동료 교사들이 일구월심 칭찬들이다. 동기생 중에 교감 승진이 빠른 편이란다. 능력이 축출하였다는 호평이다.

박해*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고 웃어본다. 살다 보니 내 이름은 흔한 이름이 아닌데 어느 날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다섯이던가? ‘픽’ 하고 웃었다. 생각하면 가여운 이름인데. 넷째 딸로 태어난 나는 그만이로 불렸다. 제발 딸을 그만 낳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무렇게 불린 이름이다. 출생신고를 하러 면사무소에 갔단다. 면 직원이 생각한 이름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아버진 아무거나 지어 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때는 그랬다. 그냥 아무렇게나 부른 게 이름이다. 특히 여자들 이름은 더 그랬다. 그만이라.

“첫 글자는 금이라고 하고 뒷글자는 무엇으로 할까요? 금자? 금순? 금옥? 금

자는 너무 흔하고, 금순이는 불쌍해 보이고. 금옥이라고 합시다. 여자니까 구슬옥으로.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얼렁뚱땅 지어진 이름.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 찬 흥남 부두에서 오빠 손을 놓치고 울고 있는 여자가 금순이라는 노래가 유행하던 때다. 면서기는 생각 없이 금옥이라 지어주었다.

그 남자. 내가 아는 남자가 아니기를 바랐다. 여전히 그는 갑이고 나는 을이다. 교감과 평교사. 생각만 해도 오금 저린 사이. 그가 우리 학교로 오지 않는 것에 감사했다. 대부분 괜찮은 사람들이지만 교감의 횡포는 언제나 평교사들을 질리게 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자기감정에 취해 맹목적인 결재 보류로 거슬리는 아랫사람을 괴롭혔다. 치사한 갑질이었다.

없는 곳에서는 나라님 흉도 본다는 말이 있다. 매사에 억지를 쓰고 지랄 칠하는 교감. 마치 월급을 자기 돈으로 주는 듯이 생색을 내며 월급날이면 무언가 으스스대고 트집을 잡는 사람도 있다. 대부분 남보다 빨리 승진한 사람들의 비열한 특징이다.

출근길의 뒤에 교감이 오는 줄 모르고 심한 욕을 한 적이 있었다. 정말 개**라도 하려는 데 뒤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교감이었다. 물론 그 후 교감은 의도적으로 결재를 미루고 나를 골탕 먹였지만 나도 당하는 사람은 아니다. 법전을 들이대고 교감을 이긴 기억이 있다. 물론 기분 나빴겠지만, 문서, 특히 법전에는 약한 것이 사람이다. 그의 웅졸한 보복에 대한 비난은 모두의 생각이 고 지나친 갑질 이자만 누구도 반격하지 않았다. 자신에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한 비겁함이다. 살아남기 위한 비굴한 일 보 후퇴다.

교장 아들 결혼 건. 싫건 좋건 결혼식에 가지 않을 사람은 없다. 평교사로서. 교감은 일주일 전부터 누가 참석할 것인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평교사들은 질리고 신경질 나기 시작했다. 당일에 퇴근 20분 전에 모든 교사를 결혼식장으로 보냈다. 평소 덕을 쌓지 않는 사람의 지나친 아부는 오히려 화를 불렀다. 다음 날 지방신문 귀퉁이에 결혼식 참석을 위해 전 직원을 일찍 퇴근시킨 교감

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교장은 자식의 좋은 날이 구설에 오르내려 평생 자식에 미안할 거라고 우울해했으나 모두 쾌재쾌재했다.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지만, 평교사들은 침묵으로 교감의 낭패한 모습을 즐기고 있었다. 나만 싫어한 것이 아니다. 모두 교감을 싫어해 앉기만 하면 우리는 교감의 너절함을 홍보는 것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다. 참 더러운 인성의 소유자들이 이상하게 출세는 언제나 선두 주자다. 세상사 모순 중 하나다. 물론 정말 존경스러운 교장, 교감들이 많지만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도 있었다. 출세는 인간에게 비열함을 합법적으로 사사하는 사회악이고 인간을 졸렬하고 형편없이 만들어줄 줄 아는 지름길이었다.

친목 배구대회가 시작되었다. 정년이 넬모레인 교장선생님은 의자에 앉아 대회를 관람하고 있었다. 교장선생님은 인간적으로 훌륭한 분이셨다.

박정희 대통령의 일 년 선배이면서도 그 시대 박 대통령의 은전을 멀리한 사람. 전임 교장의 빛을 탕감하고자 알뜰하게 학교 살림을 한 사람. 당신이 싼값으로 매입한 땅에 원룸을 30여 동 지어 시골에서 유학 온 가난한 학생들에게 전기, 수도세만 받은 사람. 이 정도면 충분히 존경받을 만하다.

일화를 소개하자면. 직원들이 편을 나누어 배구했다. 당신은 의자에 앉아 구경하고. 그런데 배구공이 교장선생님 쪽으로 날아갔다. 그때 교장선생님은 편하게 허리띠를 풀어놓고 앉아 계셨고. 중부지방이 너무 살이 썩 마름모 체형이다.

공이 본인에게 달려들자, 허리 풀어놓은 것을 깜빡 잊고 별떡 일어나 공을 잡은 교장선생님. 바지가 주르르 내려가 버렸고. 우리에게 그저 작은 웃음 조각을 만들어준 희대의 사건이다. 그럴싸한 구설의 훌륭한 소재이지만 누구도 그 일로 뒷담화를 하지 않았다. 평소 그의 인격에 대한 후 한 찬사가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한 반 70명(전쟁 직후라 집마다 전쟁으로 유보된 아이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입학해서 학생 수가 많았다) 잡아도 15년이면 천 명이 넘는다. 신이 아닌 이상

모든 제자를 기억하기는 힘든 일이다. 어쩌면 다행스러운 그의 망각을 좋게 받아들여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세상사는 항상 여러 가지 사건들의 교합으로 이뤄지는데 피해자가 아니면 모든 사건이 전부 기억의 집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약간 씩씩한 기분이 되었다.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설핏 들었다가 억울하다는 뭉클 마음이 생겼다.

제법 근사한 풋내기였다. 초등 3학년 때의 일이다. 사범학교를 갓 졸업하고 모교로 첫 발령을 받았다는 총각 선생님. 섬마을이 아니어도 총각 선생님은 인기가 최고다. 겨우 나는 9살이었다. 공부를 잘했다. 장사하시는 아버지 덕으로 유치원도 다녔다. 소위 금수저였다. 그리고 유전적으로 우수한 두뇌는 금상첨화였다.

새 학기가 되면 반장 선거를 한다. 1, 2학년은 시골이지만 완전 치맛바람에 의해 임원이 선출된다. 설명을 덧붙이자면 어머니라는 사람이 학교 들락거리는 횡수가 많은 사람의 자리다. 일제강점기에 교육받은 사람은 그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임원 경력이 은연중 다음 해 임원 선출의 초석이 되었다. 그렇게 임원은 언제나 주먹구구식으로 연장되었다. 어쩌어쩌하다 보니 1, 2학년에 임원을 했던 아동이 우리 반에 한 명도 오지 않았다.

반장. 하고 싶었다. 그렇지만 어린 마음에도 당당히 선출되고 싶었다. 1, 2학년을 그냥 숨죽이며 마음을 밖으로 내놓지 않았다. 치맛바람은 일제의 병폐였으며 더러운 잔해였다. 황금 앞에 굴종하는 것은 인간 최대 약점이다. 돈만 있으면 귀신도 맷돌을 갈게 한다는 말이 결코 빈발은 아니다. 권력 위에 군림하는 것이 돈인 세상. 그러나 아직 세상 험한 꼴에 익숙하지 않은 나는 호시탐탐 다른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공부 잘하는 반장. 다른 아이들보다 무엇인가 특출한 사람. 공부하기 위해 다니는 곳이니 공부를 잘하는 사람.

새로 부임한 선생님이 반장 선출 방법을 설명할 때 속으로 쾌재 했다. 공부라면 자신만만한 상태. 공부가 참 쉬웠다. 시험 볼 때마다 올 백 아니면 하나 정도 틀렸다. 내가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었다.

“신수 시험을 보겠다. 그래서 백 점인 사람을 반장 시키겠다.”

역시 멋진 남자라고 생각했다. 뜬눈으로 밤을 보냈다. 떼어 놓은 당상에 대한 설렘과 기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당당한 임원. 부모의 치맛바람이 아닌 임원. 어린 나이였지만 만화를 즐겨 읽은 나는 떼떽함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김종래, 서정철의 만화. 내용 대부분이 권선징악이었다. 학교 후는 언제나 이웃 만화집에서 날마다 쭈그리고 앉아 만화 보는 것이 일과였다. 유일한 즐거움이었고, 만화는 나의 훌륭한 스승이었다. 선과 악을 제대로 알려준 스승이다. 정의가 무엇인지 가르쳐주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가르쳐준 교과서가 만화였다.

그와는 변함없이 자주 만남이 이루어졌다. 흥몽에 시달렸다. 억울하다는 생각은 항상 나를 괴롭혔다. 부당하다는 아우성 떠나지 않았다. 분교는 모든 것을 본교와 의논한다. 그는 주 3, 4회 정도 본교에 들렸다. 본교의 모든 것을 모방해서 실행했다. 그의 위치는 점점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가 묻는 것에 대하여 성의를 다해 답변했다. 첩과 처의 공생 같은 부적절한 관계다. 숨죽이며 그를 도우면서 자괴감에 빠지곤 했다. 그는 친절하고 태도도 만점이었다. 신은 왜 남자들에게 나이가 들면 더 의젓해지도록 만들었는지 알미운 마음이 생겼다.

신은 그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두 사람을 백 점짜리로 만들었다. 그때는 휴전이라는 서글픈 승리로 인해 모든 것이 무질서 상태였고 특히 관공서의 무질서는 언제나 선두였다. 남자가 모든 것의 우선인 사회 풍조는 관공서에서 더 심했다. 누구도 반발하지 못했다. 전쟁은 남자의 수를 줄이는 대신 여러 가지 특권을 부여했다. 그리고 여자는 나. 반장은 무조건 남자라야 한다는 불문율 때문에 부반장이 되었지만 실지로 여자 반장이나 마찬가지로 권한이 주어졌다. 아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내게 잘 보이기를 원했다. 집에서 먹을 것을 갖다주기도 하면서 나와 놀기를 원했다. 처음 생각은 그게 아닌데 스스로 조금은 교만해지고 있었다. 감투란 것이 이렇다고 혼자 웃기도 여러 번.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여자아이들 속에서 독보적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알아서 아침하는

친구들을 굳이 싫어할 이유도 없었고 백 점이라는 무시무시한 점수 때문에 나의 자리는 견고해졌다.

전쟁 직후라 제대로 체제가 잡히지 않는 것은 사회가 아니라 관공서이고 학교 운영도 마찬가지였다. 3년의 전쟁으로 질서보다 무질서만 존재한 때. 옆 반에서 임원이 되지 못한 여자가 어느 날 우리 반이 되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어머니를 둔 아이. 물론 1, 2학년 부반장이었던 아이. 그 애의 어머니는 학교 드나들기를 밥 먹듯 했다. 어렸지만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그리고 그 애의 집에서 여자 장사를 한다는 것도 알았다. 여자 장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우연히 알았다. 그 모든 것이 나와 무관하리라 생각해서 그 여자에게 말했다. 2 학기에는 네가 여자 반장이 될 거야. 당연한 절차며 믿음이었다.

그는 본교에 들릴 때마다 나를 찾았다. 알고 찾는 것인지 모르고 찾는 것인지 모호하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해 언제나 마음과 반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상냥한 웃음으로 대했다. 그의 물음에 과할 정도로 충실한 조력자가 된 것이다. 그는 언제나 후한 식사로 나의 도움을 치하해 주었다. 그럭저럭 일 년이 지나갔다. 그가 부르면 언제든 분교로 가서 도왔다. 세상사가 그렇다.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좋겠지만 그리하지 못했다. 그는 태도가 최고였다. 주변 모두 그의 능력을 치하하고 나와 가까운 관계를 시기하는 사람이 생겼다. 언제까지 이 놀음을 견뎌야 하나가 가장 큰 고민으로 다가왔다. 승진을 위한 헌신적인 아부라고 빈정대는 사람들 속에서 나의 숨죽은 분노는 점점 한계점에 도달했다. 승진이라. 웃음이 나왔다. 아버지에 밀려 선택한 교직이다. 호시탐탐 교직을 떠날 궁리만 한 내게 이런 비난은 어불성설이건만 특별히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나는 그저 세월이 가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손재주가 좋았던 나는 학교를 위해 많은 일을 했지만, 칭찬 대신 시기가 나를 기다리는 악순환만 계속되었다.

敎者 卒知奴란 말. 결국 재주 많은 사람은 재주 없는 사람의 노예만 된다는 뜻이다. 그 말은 내게 해준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부임하기 전까지 학교

의 많은 일을 한 사람이다. 나의 부임으로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자 퍼붓는 야비한 충고이고 비열한 칭찬이었다. 난 관여하지 않았지만, 야비한 충고와 비열한 칭찬은 비난으로 둔갑하여 불어나기 시작했다. 남보다 우수한 것은 당사자에게 독이다. 육체는 괴롭고 정신은 교만해지니 어찌 좋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나의 선함 믿음이 깨진 것은 그 애가 우리 반으로 들어와 두 달도 못 된 어느 날이다. 느닷없이 쏟아지는 소낙비가 그런 것인지? 선생님은 내게 한마디 말도 없이 그 애를 여자 반장으로 임명했다. 놀란 것은 누구도 선생님의 처사에 항의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때의 답임은 완전 독재자였다. 답임의 말이면 무조건 통과다.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었다. 그것뿐이면 좋았겠지만 반 아이들 태도다. 내게 무엇인가를 갖다주던 아이들이 확 변해버린 것이다. 그 까짓 과자 몇 개가 아니라 나를 완전 외톨이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영악한 아이들, 아니 끼니 걱정을 하는 가난한 시대에 굶주린 아이들. 그들에게 비과 하나, 연필 한 자루의 위력은 대단했다. 새 여자 반장은 수시로 물건을 나누어 주고 나를 괴롭혔다. 내 편이 하나도 없는 학교는 지옥이었다. 꼭대기에서 준비 없이 골짜기로 떨어진 나. 학교 가는 것이 무서웠다. 혼자 사십이 넘는 반 아이들을 상대할 여력이 없다. 천국은 그렇게 짧았다. 천국이 답임의 변덕으로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그 애의 어머니가 여러 남자 선생님과 잤다는 소문이 아이들 입에서 나왔지만 내게는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 같은 반이지만 전쟁 직후라 나이 제한이 없어 나보다 4, 5살 많은 아이는 키득거리며 이야기했으나 의미를 잘 몰라 그저 냉가슴으로 당하고 살았다. 그해. 나는 학교에 가는 대신 성당이 보이는 언덕에서 혼자 놀다가 하교 시간에 맞춰 집으로 돌아갔다. 영문을 모른 부모님은 백 점인 딸의 시험점수가 십 점, 이십 점에 오락가락하는 이유를 추궁했으나 굳게 다문 입은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9살 소녀는 어른사회의 모순과 정의라는 것이 참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수완이 좋아서인지 능력이 출중해서인지 답임은 다음 해에 이웃 큰 하교로

전근을 가버렸다. 남은 3년 동안 어머니의 덕택인지 그 애는 계속 반장 자리를 유지했다. 시험을 볼 때마다 난 언제나 그 애의 점수와 비교했다. 언제나 1점이라도 내가 높았지만 석연치 않은 기쁨에 시달렸다. 불안정한 기쁨은 많이 괴롭혔다. 어찌다가. 짹짹한 기쁨은 슬픔보다 못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가슴속 깊이 숨어있던 증오는 때때로 흉몽에 시달리게 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비굴한 위선이다. 언제나 아팠으나 혀를 깨물고 감내했다. 그 이면에서 언제나 출렁거리는 것은 어른에 대한 실망과 주변에 대한 무지한 분노였다.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실망과 분노. 모든 것을 가슴 깊숙이 숨겼다. 그냥 무조건 참자. 자존심과 분노의 마지노선을 절벽 맨 아래까지 끌어내렸다. 그리고 무조건 참았다. 그것만이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는 살길이었다. 을의 최후 보루였다.

생각해 보면 그 많은 제자를 기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의 침묵을 이해하려고 했다. 누구에게 말이라도 하고 싶은 충동. 그의 얼굴 앞에 당신은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은 공복처럼 나를 허기지게 했다.

으스대지 마세요. 능력이요?

사람들은 보는 대로 생각하고 일단 생각이 굳어지면 현실화해서 믿어버린다. 그와 나의 이야기가 심심하지 않게 동료들 입에 오르내렸다. 능력이 있는 교감과 야망 있는 여교사. 교사라는 집단은 사회 우수아들의 집단이다. 우수한 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뭉쳐지지 않는다. 서로에 대한 경계와 시기심. 학생을 어떻게 잘 가르치냐보다 누가 얼마나 잘났는가가 더 흥미롭다. 그리고 잘난 사람은 언제나 왕따였다. 최고는 아니었지만 어디서나 상위그룹 속에 산 내게도 예외가 없었다. 적당히 잘하는 사람. 나는 무조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칭찬해 주었고 일부는 부메랑처럼 내게 돌아왔지만, 나머지는 시기로 변질하여 괴롭히는 무기로 돌아왔다. 나로선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구석에서 숨죽이고 살아도 재능이란 것은 기침과 같아 남에게 먼저 들

켰다. 가난이나 연애처럼,

세월은 잔인하게 모두에게 공평하다. 2여고는 호남에서 제일가는 명문고다. 2여고에 몇 명이 들어가느냐가 모든 여중의 실력 척도다. 그래서 모든 여중의 교사들은 한 명이라도 더 2여고에 보내기 위해 혈안이었다.

시험 전 예비 소집 날. 그곳에서 그 애를 봤다. 악연도 그런 악연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2여중. 군마다 시골 학교에서 탁월한 최고라야 입학이 허가된 곳이다. 하나만 들어도 좋은데 6학년 담임이 욕심부렸다. 25개 성적 항목에 전부 100점만 합격이 보장되는데 둘이 합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항목 하나는 우를 주었다. 누군가를 봐주기 위한 공여지책이었다. 결과는 두 사람 다 서류 검사에서 불합격되고 말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하나는 3학년 때 나에게서 반장을 강탈한 그 애다.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자주 그 애 집에 드나든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 이웃 규모가 작은 학교에서 한 명이 합격했다고 교장이 6학년 담임을 불러 비난을 퍼부었으나 정해진 입학허가의 문은 이미 빗장이 드리워진 상태로 결과는 변함없었다. 6학년 담임선생님이 도시에서 뇌물 먹은 것이 적발되어 시골로 쫓겨났다는 소문을 들은 것은 한참 후의 일이다. 사람들에게 대한 불신의 싹이 하나 더 생겼다. 축복 없는 아프고 서글픈 싹이다. 그렇구나. 애써 무시하고자 해도 그 애는 언제나 경쟁상대로 내게 머물렀다. 우리는 도시로 유학 와 다른 중학교에 다녔다. 그것으로 그 애와 인연이 끝나는 줄 알았다.

여름방학이 시작하는 날. 8월. 본교 분교가 합세하여 물놀이를 갔다. 여교사가 적은 시기라 나는 여러 가지 봉사를 했다. 차를 나르고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는, 생색나지 않는 여자들 일이다. 그분은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만든 사람이다.

나는 물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온갖 손님맛이에 분주했다. 교장선생님은 물속에서 팬티 줄까지 풀어놓고 앉아있었던 모양이다. 점심을 먹고 헤엄에서

튼 젊은 선생님이 술 한잔 걸치고 물속에 들어갔는데 그곳이 흘러 내려오던 물이 낙차로 인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며 패어있는 물웅덩이였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부하직원을 보고 놀란 교장선생님이 벌떡 일어나 몇 번 꺽충꺽충 뛰었다. 상황이 생명이 오가는 위험한 상태라 누구도 교장선생님을 눈여겨보지 못했다. 나중에 교장의 모습을 보고 웃었지만, 어이없는 웃음거리지만 누구도 그 일을 들먹이지 않았다. 상스럽다고도 주책이라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귀여웠다는 뒷담. 평소 그분의 선행이 만든 결과다. 물놀이가 우리 모두를 재미있게 만든 것이다. 주말부부인 여선생에게 월요일 만나면 싱긋 웃으며 씨 받아와서 하고 말해도 누구도 욕하지 않았다.

유신, 그해 가을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왔다. 벼를 베어 논바닥에 누어놓은 농민들의 시름은 한없이 깊어져 갔다. 비가 조금 마른 듯해 뒤집어 놓으면 다시 비가 와 바닥에 자빠진 벼는 곧 축축해 버렸다. 그렇게 벼는 매일 뒤집히기를 반복하다 누운 채 새싹을 내놓았다. 누구의 노함이 그런 이변을 만들고 있는지. 농민들은 하늘을 원망하며 벼 뒤집기를 반복하면서 시름을 만지고 있었다.

그곳은 시골. 전라남도 ㄷ군의 작은 면 소재지에 있는 전체 15학급의 농촌 학교이고 나는 임용 5년 차인 평교사다.

그는 참 기발한 아이디어 생산자였다. 그렇게 농민들의 시름이 하늘을 찌를 때. 유신 찬성을 위한 국민투표를 한다고 상급관청에서 주민 계몽을 하라고 공문이 왔다.

어이없는 부당함에 반발하면서도 직원들은 그의 아이디어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다. 옳고 그름을 탓하다 잘못하면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시기라 모두 잠잠했고 혼자 부당하다 잘못하면 불이익만 당할 처지라 나도 동조했다.

느닷없이 학예회를 한다고 볍아대는 그의 너절한 충성. 독창, 합창, 그리고 무용 등을 가르쳐 일과를 마치면 우리는 마을회관을 순회했다. 피곤한 농민을 위로한다는 그럴싸한 명분에 고소했지만 불가항력이었다.

유신 찬반투표는 그렇게 홍보되었다. 학예회 중간중간 60년대 시골 장 나일

론 극장 사회자가 약을 선전하듯이 절대적인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 많은 무지한 농민에게 그는 이렇게 강조했다.

“여러분, ○표 밑에 ○표 하세요.”

우매한 농민들에게 그의 연설은 그야말로 절대적이었다. 나도 유신 찬성에 그렇게 동조했다. 그때는 그것이 생존의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변명하는 것이 비겁한 것임을 안다. 다음 해 그는 읍 소재 학교로 영전했다. 그의 공적을 상부가 인정한 결과다.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도서 벽지로 좌천하고 영거주춤 동조한 사람은 평온하게 현상 유지 상태로. 모시던 훌륭한 교장선생님이 자신의 퇴직 위로금까지 학교에 기부하고, 후임 온 그가 벌린 첫째 성공작이었다.

그의 승승장구는 앞만 보고 날아가는 새의 생리였다. 후진을 모르는 배였다. 우수함을 나쁜 곳에 악랄하게 사용하는 사람이건만 그것도 능력이다. 부하직원에게 절대 기분 나쁜 소리도 하지 않고 언제나 상냥한 웃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나의 분노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주 작은 돌멩이에 지나지 않았다.

그와 나의 염문은 눈덩이처럼 크게 부풀어 올랐다. 나는 출세를 위해 상관에게 지나치게 아첨하는 여자로 둔갑했다. 승진하기 위해서. 아니면 도시로 진출되기 위해서. 그의 칭찬과 호의가 염문으로 둔갑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소문이다. 그리고 소문이란 것이 본인에게 알려질 때는 일파만파 소문이 완전 진실로 변질한 후다. 나를 당황하게 한 것은 소문에 대한 그의 태도다. 그의 모호한 태도는 소문을 사실화시켰다. 그의 잘생긴 외모는 세상 더러운 염문을 현실화해 그를 빛나게 했다. 그리고 나는 본의 아니게 출세를 위해 남자에게 접근하는 기생충이 되었다. 어이없이 억울하고 모진 인연이다. 아니라고 억울해한 것은 메아리 없는 독백일 뿐. 학교는 그의 탁월한 수완과 나의 능력으로 계속 발전되었다. 어찌란 말인가? 나더러 어찌하란 말인가? 고민하면서도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한 미로 속의 어린애처럼 나의 분노 범벅인 이성은 헤매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입학시험장에서 그 애를 만난 나는 악몽에 시달렸다. 그리고 초등

학교 시절의 아픔 속에 갇히고 말았다. 잊고 살았다. 있다기보다는 무시하고 살았다. 아픈 기억을 구태여 끄집어내 고통을 감수할 이유는 없었다. 그의 소식도 그 애도 지우고 싶은 백지 속의 지름 1밀리 정도의 검은 점일 뿐. 남을 괴롭히기 위해 내 아픔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 난 그 애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 애는 당황해하며 내 손을 잡았다. 그 애의 당황함은 옛날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다. 나의 호의는 옛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간접 암시였다.

분노가 걱정으로 변했다. 만약에 그 애만 합격한다면? 하느님, 공자님, 부처님, 예수님을 들먹였다. 당신들 양심이 있다면 그런 결과는 만들지 마세요. 아 니 전지전능하다는 모든 성인을 들먹이며 조아렸다.

시험 전날은 푹 잠을 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교과서를 점검했다.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처지가 안타까웠고 짜증이 났지만. 그러다 내일 시험장에서 잠이라도 오면 어찌할 거냐는 하숙집 아주머니의 염려조차 두려움이 된 날이다. 날밤으로 일어난 아침 머리가 아프기조차 했다. 이래서는 안돼하고 자신을 추슬렀다. 정말 안간힘을 쓴 날이다. 어느 것이 정답인지? 아니 혹시 답안지를 한 문제 내려쓰지 않았는지? 더러 그런 실수를 하는 사례가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다. 흥몽인지 악몽인지 애매한 꿈이 계속되었다. 하숙집 아주머니 말로라면 식사 때마다 아무리 깨도 일어나지 않았단다. 입시 학생 경험이 많은 아주머니라 걱정은 하지 않았다고 하셨다. 하루가 천추 같다는 말이 이런 것일까? 일주일을 마음을 앓았다. 밥도 먹지 못했고 잠도 자지 못한 몰골은 영망이었다. 비몽사몽으로 일주일을 보냈다. 입맛이 없으니, 밥도 먹지 못한 일주일이다. 스스로 살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제발, 제발이요.’

정의의 신이 존재한다면. 천주님, 당신은 부모가 다니지 않는다고 제게 세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신을 배반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다니겠습니다. 당신이 제 손을 잡아주신다면 당신을 믿겠습니다. 아니 저를 아프게 한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작은 미움도 키우지 않겠습니다. 모두 무조건 용서하겠

습니다. 이번만 제 어깨를 다독여 주신다면요.

교장이라는 자리는 모든 교사의 최고의, 최후의 요새다.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온갖 치사한 짓도 서슴지 않는다. 남보다 높이 오르고자 하는 욕망 앞에 성인군자는 없다. 수단과 방법도 치사해지기 시작했고 학교경영에도 검은 속내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그는 인맥도 좋았다. 그를 따른 사람들에게 후하게 덕을 베풀었다. 그의 곁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사람은 아주 간사한 변온동물이다. 그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노동자가 변덕이 시작했다. 웃음에 교활이 보이기 시작했다. 누구도 눈치 채지 못하는 비열함이 선명하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 변화에도 사람들은 그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모르는 체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이 전신을 괴롭혔다.

두고 볼 수 없는 비리가 불쑥불쑥 모습을 보였지만 아무도 들먹이지 않는 사회에 혐오감을 느꼈다. 사표를 내기 위해 그를 방문했다. 그는 온화한 미소로 나를 저지했으나 내 결심을 꺾을 수 없다고 느꼈는지 술 한잔하자고 했다. 사표를 그에게 던진 상대라 굳이 사양할 필요가 없어 응하기로 했다.

그 애의 죽음은 내게 충격을 주었다. 매우 타당한 이유가 적나라하게 신문을 장식했다. 일류고 진학 실패에 비판 자살. 기사는 그 애를 동정하고 미화시켰다. 수재, 재원. 초등 때부터 일등을 놓치지 않는 수재의 죽음은 많은 사람을 애석하게 했다. 그까짓 일류 고가 무엇이라고. 아니거늘. 난 기사를 보고 허허 실소했지만 이미 죽은 친구에게 오물을 뒤집어씌우고 싶지 않아 무시했다. 신문도 죽은 자를 욕보이지 않는데. 사회는 그렇게 거짓에 관대했다. 그것도 일제강점기의 잔해인지 모른다. 살기 위해 비굴해지고 국민을 속이는 위정자가 더 판치는 사회상. 그 속에 숨을 쉬는 사람들의 정신이 올바르게 다면 또한 희극이다. 임사홍만 간신이 아니다.

미안하다는 그 애의 유서. 나를 위한 속죄인지. 홀로 남은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속죄인지. 바보 같으니라고. 네가 미웠지만 죽기를 바란 적은 없었는데.

그 애를 죽인 것은 그 애의 어머니였고 그 일에 확실하게 동조한 그였는데. 왜 네가 죽어? 순간의 욕심이 부른 환란. 자신의 한을 풀고자 자식을 이용한 어머니의 못난 집착. 소문에 의하면 극성스러운 어머니의 희생양이라고 한다. 어머니의 직업(여자 장사) 때문에 중학 시절을 우울하게 보냈다고도. 어느 것이 사실이든 나는 앓던 이가 빠진 상쾌함에 잠시 좋았고 곧 그 애를 잊었다. 세상에 정의란 것이 있다고 하면서. 딸의 시체를 끌어안고 통곡하는 그 애 어머니의 사진은 많은 어머니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어머니는 정말 딸이 죽은 이유를 단순한 불합격인 줄 아는지?

지나친 나의 망상일 수도 있지만, 깨름직했다. 자살은 어차피 충동적 실수가 빛은 비극이다. 처지 바꿔 생각해보면 나라도 그리했을 것이다. 사람은 항상 내가 만일이라는 것을 생각한다.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자신을 위로하면서 다행이라는 말을 생각하며 위기를 곤란한 상태를 그렇게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와의 독대는 처음이다. 공적인 만남에 지극히 사무적인 태도 그 이상의 것은 없었다. 그의 일을 도우면서. 그가 몇 번인가 개인적인 만남을 원했지만 내 반응은 언제나 거절이었다. 그가 소문을 긍정으로 받아들여도 항의하지 않았다. 나의 침묵이 그를 더 당황하게 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무관심. 나의 무관심에 비틀거리는 그를 보면서 키득거리는 잔인함에 스스로 놀라기도 했다.

제법 분위기 있는 고급 음식점이다. 방안은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자기도 있다. 부의 상징이다. 마주 앉았다. 가슴이 이상하게 울렁거린다. 토할 것 같은 기분. 역겨움 같은 것이다.

그가 원하는 대로 술잔을 채워주고 나도 조금 마셨다.

“나 때문이요? 사표를 내는 이유가?”

무슨 착각인가 하고 코웃음 쳤다. 하기야 착각은 자유도 뻔뻔한 자기 위로 수단인 것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녕 그의 기억 속에 나는 없다는 말인가? 사람들에게는 부분 망각이 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을 열심히 부정

하면 그것이 남의 과거 속으로 도망가 버리는 편리함이다. 그 생리를 모른 사람이 세상 어느 곳에 벗어나 있으라

“맞는군요. 나를 향한 선생님의 눈빛에는 언제나 적의와 경멸이 묻어 있었소. 요란한 호의 뒤에 숨어서 나를 관찰하는 음흉함에 치 떨리면서도 내색할 수 없는 비굴함이 힘들었소. 그렇소. 난 탄탄대로만 달렸소. 시대가 내게 준 행운이요. 난 내게 손짓하는 행운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움켜잡았소. 선생님을 처음 보았을 때 온몸이 놀라고 있음을 느꼈지만 무시했소. 그냥 스쳐 간 수많은 인연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소. 너무나 고분고분한 순종에 잠깐 착각도 했었소. 이성으로서 내게 대한 호의라고. 난 많은 여자의 관심 속에 언제나 왕자처럼 으스스했소. 흔한 호의라고 애써 억박지르는데 이상한 통증 같은 게 계속되었소. 지독히 아프진 않지만, 손톱 밑의 가시 같은 걸끄러운 고통. 이곳에 부임해서 선생님의 이력서를 처음 보았소. 어느 시점에 나와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 아픈 손가락. 실수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행한 치부. 나도 처음엔 그리할 생각이 아니었소. 그런데 남자는 자칫 순간을 제어하지 못해 엄청난 실수를 하지요. 찬*이 어머니의 초대를 받고 술을 한잔 먹었고. 그다음은 기억이 없었소. 선생님은 지독한 이기주의자요. 내가 스스로 고해성사를 하도록 만드는 치밀함이요. 상대의 무조건 순종은 거역보다 무서운 힘을 발휘해요. 선생님은 입안의 혀처럼 나의 원함을 무조건 수용했소”

그게 아니라. 성가신 문제가 싫어서 응한 것뿐인데. 직장 상사와의 싸움은 잘못 여부를 벗어나 무조건 아래 사람이 지는 것이라. 상관의 의도적인 괴롭힘을 이기는 부하는 자고로 없는 현실인데 구태여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벌이고 싶지 않아서였거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찮은 것이라는 생각은 나를 힘들게 했소. 어떤 사람을 이해하기 힘들면 그의 과거로 들어가 보라는 말이 있소. 그러면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 이해를 한다고. 그해 선생님을 눈여겨보고 염려를 많이 했는데 다행히 다음 해부터 원래대로 잘 자라고 있어 안심했소. 그리고 잊

어버렸소. 잘 견디고 있다고 하는 고마운 마음이었소. 그리고 정신없이 살았소. 출세하기 위해서. 마치 그 실수를 만회라도 하듯 정직하게 살았소.”

실수라고. 무심코 던진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가 재수가 없어서라는 이론이다.

“무조건 순종은 거역보다 잔인한 형벌입니다. 적을 알아야 싸움에 이긴다는 말이 있소. 선생님의 눈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무서운 적군이지요. 이제까지 올곧게 쌓아온 내 성이 한순간 무너지더이다. 그리고 그것이 비열한 위선이라는 것을 알았소. 그 참담함은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애써 버텨온 오만이 무너지면서 모든 금지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선생님의 입이 무서웠소. 처음 위선을 알았소. 선생님을 가까이 두고 감싸기 시작했소. 아주 비열한 방법이지요. 염문도 일부러 만들었소. 염문은 남자에겐 훈장이 되지만 여자에겐 치명적인 결함이라는 것을 알면서. 일종의 치사한 견제구 같은 것이지요. 위선이란 것은 내가 조절할 때는 훌륭한 의상이 되지만 남의 눈에 들켜버리면 오물보다 못한 쓰레기예요.”

나는 상관과 부하라는 관계가 주는 불리함을 피하고자 모르는 체했거늘. 또 귀찮고 성가셔서 모르는 체했는데 오히려 그 침묵이 상대를 더 힘들게 한 것 같다.

“내가 2학기라고 못을 박았지만, 짧은 혈기로 덮에 걸리다 보니 이성과의 지가 별개로 행동하더이다. 그 애 어머니의 배 위에서 허우적거리는 실수는 한번으로 끝나야 하는데 그리하지 못했소. 남자의 취약점이지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이성이지만 감정은 짧은 남자에겐 치명적 약점이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무서운 함정입니다. 교육자 집안에서 바르게 살아온 내게 치명적 결함이 휘어지는 게 아니라 꺾여졌다는 것입니다. 서둘러 그곳을 떠났지만, 그 여자는 집요하게 나를 추적했소. 그래서 결혼도 실패로 끝나버렸고. 3박 4일 그 여자와 지냈던 적도 있었소. 그때는 무조건 좋았으니. 이래선 안 되겠다 생각 들어 섬으로 도망가 버렸소. 전화위복이라고. 섬 생활이 내게 득이 되어 남보

다 먼저 승진할 수 있었소. 매우 후회스럽지만, 또 그런 기회가 온다면 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यो. 남자니까.”

남자니까 웃음이 나왔다. 그의 가여운 침몰이 우습다. 새삼스럽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 할 생각이 없다. 그의 치부이면서 을이 된 나의 치부이기도 한 사건이다.

“난 무서웠소, 선생님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는 고약한 형벌을 감내할 자신이 없소. 차라리 스스로 평범한 소인이 되는 길을 택했소. 조금 치사하고 악랄해지니 더 편안해지는 삶, 참 아이러니한 일ियो. 나의 변화를 감히 선생님이 지적하기를 바랐는데. 우리가 똥을 피하는 것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이거늘. 아, 선생님에게 나는 더러운 똥 이상의 것이 아니구나! 생각이 드니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 들어 며칠 힘들었소. 나를 이해해 주고 계속 도와주기를 바라다면?”

어불성설을. 염치도 없이, 체면도 없이. 나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가엾다기보다는 그의 행동이 위선으로 느껴지니 그 일이 내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새삼 느꼈다. 가해자는 슬금슬금 잊을 수 있지만, 피해자의 상처는 불에 덴 흉터처럼 지워지지 않는 것을 정녕 모른다는 말인가? 어린 소녀가 느낀 분노는 화상보다 지독한 마음 앓이인 것을.

그의 기괴한 행적이 계속되었다. 그렇다고 학교 운영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 능력 있는 사람답게 행정업무는 확실했다. 위선과 위악이 싸운다면 과연 누가 이길까? 위선은 명예와 존경과 칭찬을 가져오지만, 위악은 주변에 경멸을 머무르게 한다. 그렇지만 위악은 자유롭게 자신을 무너뜨리고 편하게 한다. 내 시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뒤통거리는 그를 보는 것에 작은 쾌감을 느꼈다. 그의 말마따나 잔인한 행동인 것 나도 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내 앞에서만 형편없는 줄부가 되는 그. 안타깝기보다는 짜증이 났다. 얼핏 이 작자가 이런 식으로 내 입을 봉해버리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의 시체가 저수지에 떠오른 것은 정녕 나와 무관한 실수인가? 의심이 들었으나 애써 모르는 체했다. 남자에게 한번 무너진 자긍심은, 다스리지 못하는 삶과 같이 평생 짊어질 형벌이구나 생각했다. 그가 차라리 촛지 때문에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면 황금에 약한 인간의 속성에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의 유해가 운동장을 가로질러 학교를 떠났다. 사람들은 그를 좋게 기억했다. 말년에 약간의 좋지 못한 일들이 있었지만, 치적이 더 많은 사람으로 우리 머리에 남았다. 죽은 사람에겐 관대한 것이 산 사람의 몫이다. 평범한 소시민은 적당히 불의와 타협을 하는 사람이다. 가끔은 낯 붉어지는 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질러진 실수. 그가 처리하지 않는 내 사표는 그의 죽음과 함께 무효화 되었다. 그 애의 자살은 작은 파도였고 그의 죽음은 노도였다. 그렇지만 많이 편안해졌다. 합법적으로 미워할 사람이 없어진 것은 다소 심심했지만. 인생사 합법적으로 미워하고 경멸할 상대가 있는 것도 결코 나쁜 일만은 아닌 것 같다. 경멸과 증오는 완벽한 궁합을 이뤘다.

갑들은 죽음이라는 무시무시한 승부수로 후련함, 가여움, 미만함에 나를 가둔 채 평생을 을로 살게 했다. 내가 우울할 최초이고 최후의 보루다. 그가 처리하지 않는 사표 때문에 나의 교직 생활은 그 후로도 몇 년 계속되었다. 끝



민금애

- 2007년 7월 시사문단 신인상
- 2023년 1월 제48회 한국소설문학상
- 2024년 11월 제1회 송파문학상 수상

직박구리

서기향

1.

낡은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 이곳은 내가 30년째 살고 있는 곳이다. 그래도 30년을 자란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단지 내 풍경만큼은 여느 휴양지가 부럽지 않을 만큼 좋다. 6월 장마철, 며칠째 내린 비에 사방이 눅눅하다. 그렇게 퍼부어대고도 아직도 더 내릴 비가 남았는지 하늘은 오늘도 담묵색 구름에 덮여 있다. 곳은 날씨에 꼼짝 없이 간헐 지내기를 여러 날 째이다. 지루한 시간을 견디면서 낡은 소파에 앉아 바깥 날씨를 살피고 있을 때였다. 타다다다 부웅~고막을 찢을 듯 요란한 오토바이 소리가 아파트 단지를 흔들며 지나가자마자 베란다 앞 고엽나무에 등지를 틀고 새끼를 키우고 있는 직박구리가 끼이잇 끼이잇, 끼이잇...목청을 한껏 높이고 시끄럽게 울어대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가 지루한 낡은 노인 회관에라도 가면 좋겠지만 목청을 한껏 높이고 울어대는 직박구리 만큼이나 시끄러운 인간들 때문에 출입을 포기한 건 오래전이다. 몇 시나 되었나? 벽시계를 쳐다보았다. 12시 30분이다. 아침을 먹는 등 마는 등 해서 그런가. 배가 고팠다. 먹고 기운 차릴 만한 음식을 떠올려 보는데 바로 위층에 사는 303호가 즐겨먹는 소머리국밥이 생각났다.

‘이 양반은 밥이나 먹고 들어왔나?’

나는 303호와 점심을 같이 할 생각으로 휴대전화기를 집어 들고 버튼을 눌렀다. 무얼 하고 있는지 신호음만 들릴 뿐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오라는 곳은 있어도 가고 싶은 곳이 없는 반면에 303호는 오라는 곳도 많고 갈 곳도 많은 노인이다. 노인회, 복지관, 교회 모임, 동창 모임 등으로 행동반경이 넓었

다. 오늘 같이 굵은 날씨에도 어딜 가 있는지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다. 통화를 포기하고 종료 버튼을 누르려고 했던 찰나였다.

“여보이소? 나다”

전화기 속에서 303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비가 오는데 어딜 그렇게 돌아다닙니까?”

나는 팬스레 심통을 부리며 말했다.

“날곳이 하느라고 그런지 무릎이 아파 온맘에 와 있다.”

온맘은 아파트 상가 안에 있는 한의원이다. 오늘처럼 날씨가 굵은 날이면 늙은이들로 바글거린다. 진료비 천오백 원만 내면 침을 놔주고 물리치료기로 어깨와 다리를 주물러주고 뜨끈뜨끈한 팩으로 찜질까지 해준다. 치료 목적보다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가 고역스런 노인들에게는 온맘 물리치료실처럼 좋은 곳이 없다.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빈 침대가 없을 만큼 노인들이 바글거린다. 침대를 차지하고 누운 노인들은 멀리 있는 자식들보다 온맘 한의사가 더 효자라고 입을 모아 칭송한다.

“너도 이리 온나.”

303호가 나를 꼬드겼다.

“안 갈래요.”

치료 목적이라면 모를까. 하릴없이 시간을 보낼 목적으로 온맘 치료실 침대에 드러눕는 짓은 하고 싶지 않았다.

“소머리 국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내가 요즘 소화가 잘 안된다. 물리치료 마치고 집에 갈 때 온맘 옆에 있는 죽집에서 팔죽 사가지고 갈 테니 밤 먹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뜨끈한 국밥도 좋지만 습기 잡는 팔죽이 더 제격일 수도 있었다. 내가 알았다고 대답을 하자 303호가 전화를 끊었다.

303호를 기다리면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데 창밖에서 다시 거센 바람 소리와 짹아아 빗줄기가 퍼붓는 소리가 들렸다. 며칠을 내린 비에 집안 곳곳이

녹녹해지면서 곰팡이 냄새가 났다. 오전 빗줄기가 멈춘 걸 보고 공기를 환기시키려고 베란다 문을 열어놓았었다. 열린 창문을 타고 거센 바람에 밀려 들이치는 빗줄기를 본 나는 후다닥 일어났다. 베란다로 나가 창문을 닫으려고 손에 힘을 주고 쪽 밀었다. 꼼짝도 하지 않았다.

“워, 워. 늙은이 기운 빠지 마라.”

죽을힘을 다해 창문을 밀자 그때서야 끼이익 소름 돋는 소리를 내며 창문이 닫혔다. 열고 닫을 때마다 기운을 흘랑 빼놓은 걸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창틀을 교체하고 싶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오래전에 재개발 승인이 떨어졌다. 조만간 이주 명령이 떨어지면 집을 비워야 한다. 이사 갈 집에 생돈을 들이기가 아까워 그냥 지내고 있는데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30년 전에 입주한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집들은 전용면적 13평, 17평, 25평의 소형 평수들뿐이다. 내가 분양받아 30년을 살았던 이 25평 아파트가 이 단지에서는 가장 넓은 평수이다. 운 좋게 분양 추천에 당첨되어 이 아파트에 입주했을 때만 해도 부자 소리를 들었다. 그때만 해도 나 또한 질푸른 녹음을 뽐내면서 울창하게 자란 저 나무들처럼 기운이 펄펄 솟구쳤었다. 그 기운만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당당했었다. 지금은 어떤가. 30년이란 물리적 시간은 외벽마다 뱀이 기어가는 듯 구불구불한 균열을 만들고 계단 턱도 각이 날아가 버렸다. 그런 이 아파트처럼 내 상태도 그렇다. 이주 명령이 떨어지고 주민들이 떠나고 나면 이 아파트는 헐리게 된다. 그러면 30년 동안 살아왔던 내 삶에 흔적들도 사라질 것이다. 올해로 80살이 된 나 같은 늙은이에게 내일이란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니까 어찌면 내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을지도 모른다. 낡은 아파트가 헐리고 고급스런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처럼 가끔은 인간의 육신도 재건축 되었으면 좋겠다는 공상을 해본다. 그럴 수 있었다면 206호도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지 않을 수 있었을 테니까 말이다.

206호도 나처럼 분양 추천에 당첨되어 30년 가까이 이 아파트에서 살다가 서너 달 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였다. 나보다 두 살이 아래였지만 세상은 나 먼

저 떠나고 말았다. 지금도 그렇지만 206호의 죽음을 받아들이느라 한동안 참 많이 힘들었다. 어느덧 나도 80대, 그래도 유독 노인들이 많은 이 아파트에서는 어른 측에 들지도 못한다. 그런 만큼 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갑자기 쓰러지거나 죽은 노인들을 실어가는 구급차 경적 소리가 자주 들린다. 206호가 죽었던 그날 밤에도 구급차 경적 소리가 들렸었다. 그 소리를 듣고도 그저 또 누가 죽었나 보다 생각하고 무심히 흘려들었다. 다음 날 오전이 되어서야 그 차에 실려 간 사람이 206호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었다. 전날까지도 노인 회관에서 멀쩡히 잘 놀다가 집으로 돌아갔다는데 그렇게 되고 말았다. 오래전부터 당뇨에 협심증까지 앓고 있었으니 예고되어 있던 죽음이기기는 했으나 그래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갈 줄은 몰랐기에 더 힘들었다. 이 베란다에서는 206호가 살았던 아파트 부엌 창문이 바로 보인다. 황금빛 저녁햇살이 나뭇잎 사이를 뚫고 유리창에 반사될 때 베란다에 넣어놓은 빨래라도 걷고 있으면 그걸 본 206호가 부엌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저녁밥 안 먹었으면 우리 집으로 오라고 소리를 지르곤 했다.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내가 30년 동안 이 아파트를 떠나지 않고 사는 동안 다른 아파트들은 여러 번 주인이 바뀌었다. 내가 지금껏 이 아파트에서 터줏대감처럼 눌러 살고 있는 것은 솔직히 이 아파트가 좋아서만은 아니었다. 은행에 다니던 큰 아들이 IMF 때 정리해고를 당하고 말았다. 그런 큰아들의 재기를 위해 사업자금의 일부를 도와주려고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 빚에 묶여 있다 보니 팔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다. 다행히 아들은 그 빚을 떼먹지 않고 전부 갚아주었다. 그런 사이에 재개발 아파트로 지정되었다. 투기 붐이 일면서 집값이 꺾충 뛰더니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시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다.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 잡은 격이었다. 덕분에 노후 자금만은 확실히 챙길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눈 감을 때까지 필요한 생활비와 요양병원비 정도는 충당될 것 같았다. 그렇게 30년을 이 아파트에서 살다보니 이젠 자식들이 내가 이 아파트에 입주했을 때와 같은

나이가 되었다. 그런 세월 속에서 특별한 추억이 있다면 입주 때만 해도 볼품 없이 작았던 나무들은 30년을 무럭무럭 자라서 휴양지가 부럽지 않은 숲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이런 숲을 내 정원인 양 누리고 살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될까. 봄에는 꽃향기가, 여름에는 나무향기가,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헐벗은 가지마다 하얀 눈꽃이 핀다.

그렇게 주변 환경은 나무랄 데 없이 좋지만 현재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살고 있는 입주주민들은 경제적으로 하층민인 세입자가 태반을 넘는다. 낡은 데다 조만간 이주가 시작되는 아파트이다 보니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올리지 않자보니 세입자의 대부분은 영세민이거나 노인들이었다. 경제적 수준과 인격적 수준이 반드시 등식으로 성립하지는 않지만 현재 이곳 주민들의 수준은 예전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졌다.

아파트 노인회에 인간 직박구리가 나타나 휘젓고 다니는 일도 예전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었다. 내가 인간 직박구리를 처음 본 것은 작년 초봄 무렵이었다. 그날은 부녀회에서 한 톱 쓰기로 했으니 회원들은 모두 모이라고 며칠 전부터 광고를 하고 있었다. 나도 303호와 노인 회관으로 갔다. 그때 두어 번 본 적 있는 한 중년 여자가 나를 보고 아는 체를 했다.

“아이고, 교양할머니께서도 오셨네. 반갑습니다.”

내 손을 잡고 반기는 제스처를 취해보였다. 그 여자는 단지 내 주민이 아니고 13평이 밀집해 있는 타 단지에 사는 주민으로 알고 있었다.

“저건 왜 또 여기 와 있노?”

내가 노인 회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모르는 것이 없는 정보통인 206호에게 물었다.

“거기는 노인들이 너무 많아서 앉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란단다.”

206호가 내 귀에 입을 대고 소곤거렸다.

같은 단지이든 타 단지이든 같은 아파트 주민인 이상 못 오게 막을 법적 권한은 없었기에 노인들은 그냥 어울려 지내고 있는 모양이었다. 여자는 목청도

엄청 크고 무엇보다 입심이 대단했다. 어느 누구도 말로는 여자를 당해내지 못했다.

“저거 말이다. 보면 볼수록 우리 베란다 앞에 고욤나무에 동지를 튼 직박구리를 닮았다.”

한참을 여자를 쳐다보고 있던 303호가 내 귀에 대고 속닥거렸다. 여자를 직박구리에 비교한 303호의 표현은 정말 적절했다.

“형님 말이 딱입니다.”

나는 손바닥이 얼얼하도록 박수를 쳐가며 웃었다.

303호의 말대로 베란다 바로 앞에 있는 화단의 고욤나무에는 직박구리 한 쌍이 있었다. 처음에는 나뭇가지 꼭대기에 찌글찌글 마른 채 붙어 있는 고욤나무를 따 먹으러 왔다가 날아가곤 했었다. 그랬는데 언제부터인가 고욤나무에서 끼잇~끼잇~금속을 긁는 듯 듣기 싫은 직박구리의 울음소리가 시도 때도 없이 들려왔다. 참다못해 나는 직박구리를 다른 곳으로 쫓아버릴 작정을 했다. 작대기 하나를 구해서 고욤나무 가지를 툭툭 쳤다. 직박구리가 잼싸게 몸을 날려 산수유나무 쪽으로 피했다.

“너, 나 무섭지? 그러니까 여기서 시끄럽게 울지 말고 제발 멀리 다른 나무에 가서 살아라.”

의기양양하게 한마디를 하고 돌아섰을 때였다. 정수리에 뾰족한 것이 콧 박히는 느낌이 들면서 아팠다. 손을 머리에 대고 이게 뭐지? 위를 올려다보았다. 직박구리 한 마리가 베란다 밖으로 잼싸게 날아가는 것이 보였다. 내 머리를 쪼아댄 범인이 틀림없었다. 그날 이후부터 내가 베란다에 나타나면 직박구리는 이 나뭇가지 저 나뭇가지를 옮겨 다니면서 나를 노려보았다. 그런 며칠 후였다. 고욤나무 가지에 있는 동지 안에서 부화한 새끼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느 사이 새끼들도 어미만큼 자라 밤낮없이 끼이잇 끼잇 고약한 울음소리를 보냈다. 그때서야 나는 아파트 화단의 나뭇가지마다 떼를 지어 날아다니던 참새 떼들이 사라진 걸 알게 되었다. 참새들이 자청해서 떠난 것은

아닐 것이다. 뭐가 되었던지 제 등지 근처에서 얼씬 대는 것이 있으면 깡패처럼 달려들어 내쫓는 것이 직박구리 새들의 습성이므로 참새들은 쫓겨 떠난 것이 분명했다.

그날 이후에도 노인 회관에 가면 인간 직박구리가 터줏대감처럼 놀러 붙어 있었다. 그 옆에는 노인들이 서열이라도 정한 듯이 쪼르륵 앉아 있었다. 인간 직박구리가 실새 떠버릴 때마다 노인들은 어이구 잘 논다. 입이 헤벌쭉하니 벌어졌다.

“새가 날아든다.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무료하게 앉아 있는 노인 앞으로 가서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운 후에는 춤을 추며 신명을 불러일으켰다. 꽤나 놀아본 솜씨였다. 무료함이 일상이었던 노인들에게 인간 직박구리의 등장은 활력소가 되기에 충분했다. 그 여자-인간 직박구리는 그렇게 걸쭉한 입담과 노래와 춤으로 노인들의 환심을 샀다. 그런 한편으로 그 여자는 제 편과 아닌 편을 철저히 구분했다. 제 편을 자처하는 노인들에게는 꿀 같이 달달한 말을 건네며 갱긱처럼 찰싹 달라붙지만 아닌 노인들에게는 마음씨 고약한 계모가 전처 자식 대하듯 통명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 무렵 노인회에서는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었다. 후보로 나온 사람은 두 명이었다. 법학과 출신이라는 임 씨와 젊은 시절 주먹 꽤나 쓰면서 정치판에서 놀았다는 강 씨 노인이었다. 타 단지에서 사는 직박구리를 이곳으로 불러들인 사람이 강 씨 노인이며,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인간 직박구리에게 돈을 주었다는 소문도 심심찮게 들려왔다. 하지만 회원들 대부분 그런 걸 문제 삼지 않았다. 선거일이 닥쳐 투표를 통한 선거를 치렀다. 개표 결과 인간 직박구리가 선거운동원으로 뛰었던 강 씨가 임 씨를 현저한 표 차이로 누르고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그 선거가 끝나고 사흘 쯤 지났을 때였다. 임 씨 노인을 지지했던 206호가 이 선거는 불법 선거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사실이냐 아니냐. 진실 공방을 벌이던 과정에서 그 여자-인간 직박구리와 206호 사이에 고성어 오갔다. 성질

급한 206호가 먼저 인간 직박구리에게 공격성 발언을 날렸다.

“소문에 듣자하니 이놈저놈 붙어먹는 것이 특기라더라. 시집을 간 것이 세 번이라 했나 네 번이라 했나. 재주도 좋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이놈저놈에게 붙어먹는 걸 네 눈깔로 보고 그딴 주둥아릴 놀리는 거냐? 맞 좀 봐라.”

인간 직박구리가 씩씩대면서 손가락을 짹 펴들더니 206호의 머리카락을 손가락 사이마다 끼우고 앞으로 확 잡아당겼다. 206호가 두 팔과 두 다리를 개구리처럼 좌우로 짹 벌린 채 바닥에 납작하게 엎어지고 말았다. 동시에 온몸을 벌벌 떨더니 오줌까지 줄줄 싸고 말았다.

“저거 이제 보니 깡패다, 깡패.”

303호가 얼굴을 붉히고 말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구였던 206호가 그런 모욕을 당하는 걸 본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한 마디 했다.

“내가 살다 살다 참 별 더러운 꼴을 다 본다. 예전 같았으면 너 같은 저질은 상대도 안 했던 나다. 누구 앞에서 그 따위로 배워먹지 못한 막된 행실을 하는 거냐?”

나는 고함을 지르며 말했다. 그런 내 말에 인간 직박구리는 피식 비웃음을 보내더니 앞으로 바짝 다가섰다.

“아이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잘난 분께서 강남 고급 주택에 살지 못하고 어찌다가 이런 서민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건가요?”

인간 직박구리는 내 말이 가당치 않다는 듯 빈정거리며 조소를 보냈다. 꽃밭에 있으면 꽃향기를 맡고, 화장실 앞에 있으면 구린내를 맡을 일밖에 없다더니 똥통도 저런 똥통이 없다 싶었다. 나는 목구멍을 차고 올라오는 구역질을 참지 못해 웅웁거리며 그 당장 노인 회관을 나와 버린 후 출입을 끊어버렸다.

그 일은 회원들 대부분 보아 알고 있는 사건이었으므로 나는 조만간 인간 직

박구리가 노인회에서 쫓겨나게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실제로 전개되는 사정은 정반대로 오히려 직박구리의 기세가 더 당당해져 가고 있었다. 그러면서 인간 직박구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당한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문이 즐기차게 들려왔다. 당한 노인들은 인간 직박구리에게 대항은커녕 오히려 더 고분고분하게 군다고 했다. 그건 인간 직박구리가 노인회 회장 강 씨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시간이 갈수록 직박구리의 세력은 더 단단해져 노인회라는 정부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실세로 군림하고 있었다. 대통령이 부럽지 않을 권력을 휘두르는 직박구리 앞에서 회원들은 읍소하기 바빴다. 혹여 왕따라도 당할지도 모른다고 지레 겁을 먹은 회원들은 인간 직박구리가 자장면이 먹고 싶다고 하면 얼른 중국집에 전화해 배달을 시켜주고,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말하면 마트까지 직접 가서 사다 바치기도 했다. 심지어 부녀회와 관리실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겨도 아무도 나서서 항의하지 않았다.

직박구리에게 머리채를 잡혀 엎어지면서 오줌까지 싸는 망신을 당했던 206호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당한 일로 얼굴에 시꺼먼 멍이 들어 열흘 남짓 병원을 다니고 있는 206호를 본 나는 못된 버릇을 고칠 겸 치료비라도 청구하라고 충동질을 했다. 하지만 206호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아들 며느리가 어머니 잘 놀고 계시라고 용돈까지 두둑이 챙겨서 보내줬는데 애들처럼 싸움질이나 하고 다닌 걸 알게 될까봐 겁이 나서 그렇다고 했다. 하지만 진심은 그랬다가 아주 직박구리 눈 밖에 나서 노인 회관에 얼씬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망신을 당하고도 노인 회관에 갈 때마다 떡, 요구르트, 사과, 찌빵 같은 간식거리를 싸들고 가서 직박구리에게 안겨줄 이유가 없지 않은가 말이다. 내가 너는 속도 없냐고 빈정거리면 206호는 풀 죽은 얼굴을 하고 그래도 노인 회관을 가야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 어찌겠느냐고 대답했다. 206호는 혼자 있는 것을 못 견뎌 한다. 열두 살 무렵에 생모와 사별하고 계모 밑에서 자랐다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고

혼자 광에 갇힌 적이 있는 후로는 혼자 폐쇄된 공간에 있으면 불안감이 든다고 했다.

나는 인간 직박구리를 볼 때마다 비위가 상해 속이 메스거렸다. 은근히 저 인간 누가 흠씬 두들겨 패주기를 바랄 정도였다. 참다못해 그런 속내를 303호에게 비추었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대었다. 나이는 우리보다 훨씬 적어도 당뇨, 고혈압, 심장병까지 병이란 병은 다 차고 있는 병주머니이다. 그런 걸 누가 어설피게 건들면 갓값 물어줄 일만 생길 뿐이라고 했다. 어쩌면 직박구리가 누구든지 걸리기만 걸려라, 바가지 왕창 씌어 뜯어내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는지도 모른다면서 극구 만류했다. 303호의 말이 일리가 없지 않았다. 결국 함구하고 말았지만 온 몸에 똥물이라도 튄 것처럼 구역질이 나서 견딜 수 없었다. 마음 여린 206호는 그런 인간 직박구리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눈치만 보다가 세상을 떠났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고 나는 직박구리에게 고욤나무를 빼앗기고 내쫓긴 참새 떼처럼 타 동에 사는 직박구리에 밀려서 노인 회관 출입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 하루가 아무리 지루해도 저질스런 인간 직박구리와 한 공간에 있고 싶은 마음은 추오도 없었다. 그 인간 직박구리가 노인회를 장악한 지 여러 달이 지난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노인들의 외로움을 담보로 노인회의 실세로 행세하는 재미가 여간 쏠쏠하지 않다고 한다.

2.

303호가 팔죽을 사 들고 집으로 온 것은 2시가 다 되어 갈 때였다. 오는 길에 노인 회관에 들렀다 온 모양이었다. 비닐봉지 안에서 일회용 용기에 담긴 팔죽을 꺼내 식탁에 올려놓고는 인간 직박구리의 혐담을 한바탕 늘어놓았다. 나는 팔죽이라면 자다가도 별떡 일어나던 206호를 생각했다.

“형님, 이 팔죽 보니 206호 생각이 나네요.”

내 말에 303호의 얼굴빛이 어두워졌다.

“그러게 말이다.”

303호가 눈시울을 붉혔다.

나는 못 본체하고 팔죽을 퍼먹기 시작했다. 눅눅한 날씨에 먹는 뜨끈뜨끈한 팔죽 맛이 별미이다 보니 그릇이 금방 비워졌다. 하지만 정작 팔죽을 사 온 303호는 그대로 있었다.

“퍼뜩 먹지 않고 뭐하기는 기요?”

내가 팔죽 그릇을 앞으로 바짝 밀며 말했다.

“사실은 말이다. 내가 며칠 전부터 먹기만 하면 자꾸 체하고 속이 메스꺼워 입맛이 당기질 않는다. 아들에게 말했더니 MRA를 예약해 왔다고 하더라. 내 일 검사받는 날인데 오늘 아들이 퇴근길에 데리러 온다고 했다. 간 김에 며칠은 있다 올라고 한다. 냉장고에 남아 있는 반찬도 버릴 건 버리고 옷도 좀 챙겨야 할 것 같아서 집에 갈란다. 다녀와서 보자.”

303호는 팔죽은 그대로 두고 일어났다.

“검사하고 금방 오소.”

“알았다, 차 안에서도 그냥 앉아 있지 않고 발바닥에 땀나도록 땀기.”

303호는 우스갯소리를 하며 집을 나갔다.

그 303호가 아들 집으로 간 지 보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노인네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하루 몇 번 303호가 오나보려고 베란다로 나가 아파트 광장을 내려다보곤 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였다. 점심 무렵 덩동덩동 현관 인터폰이 울렸다. 나는 303호가 온 걸로 생각해 부리나케 현관문을 열었다. 그런데 문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은 303호가 아니었다.

“저 303호 며느리예요. 어머니 짐 챙기러왔는데 소식을 전하려고 들렀어요.”

“짐을 챙기다니요?”

“어머니가 검사결과 채장암 말기로 나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현기증이 몰려왔다.

“그럼?”

“의사 선생님 말씀이 길어야 두 달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

하고 요양병원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는 듯 달갑지 않는 표정을 하고 303호의 소식을 전한 며느리는 총총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갔다. 303호는 평소 판사인 아들 자랑에 입에 침이 마를 날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아들과 같이 사는 것을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불편하게 여겼다. 나이는 80대를 훌쩍 넘겼어도 평생을 교사로 재직하다 정년퇴직을 했던 만큼 어느 누구에게도 속이고 들어갈 줄 모르는 깨끗한 성격 탓으로만 여겼었다. 그런데 며느리를 보고 나니 그 이유를 대충은 짐작되었다.

3.

몇 달 사이에 친구를 모두 잃어버린 나는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떨어지고 있었다.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이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나니 귀에서 이상한 소리까지 들렸다.

‘더 살아서 뭐할 건데! 더 살아서 뭐할 건데!’

저승사자가 문 앞에서 나를 붙잡아 가려고 와 있는 것만 같았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206호처럼 혼자 쓸쓸히 죽으면 상관없는 남의 입방아에 내 자식들이 오르내리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건 싫었다. 그래서 누가 되었든지 같이 살 자식을 찾아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제일 먼저 큰딸에게 전화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살면 안 될까? 직접적으로 속을 비쳐보았다. 하지만 큰딸은 엄마, 나 시어머니 보내고 1년도 안 됐어. 나 보고 또 하라고? 완강하게 거부했다. 사정을 모르고 물은 말이 아니었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펄쩍 뿔 줄은 몰랐다.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했다는 자책감만 들고 말았다. 그래서 작은딸에게 전화를 했는데 내가 집에서 노는 사람이냐고,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하고 사는 내 사정 잘 알면서 엄마까지 떠안는 일은 못 한다고 딱 잘라 말했다. 사실 다른 자식은 몰라도 작은딸에게는 빈말이라도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었다. 몇 해 전 저 세상으로 떠난 남편은 생전에 많은 사업을 했지만 실패만 거듭했

다. 그로 인해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자식이 작은딸이었다. 재주 많고 영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눈을 질끈 감고 작은딸의 날개를 꺾어버렸다. 그 딸이 딱 한 번 원망을 드러내며 내게 퍼부어 댄 적이 있었다. 세월이 흘렀건만 응어리를 안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로는 작은딸에게 무얼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눈치가 보일 수 없었다. 다시 큰아들에게도 전화를 했는데 내 말은 제대로 들을 생각도 않고 짜증스런 말투로 나중에 이야기 하자고 했다. 그 말에 나도 발끈하며 나중에 언제 나 죽고 나면? 하고 소리를 높였다. 큰아들은 내 말이 한가한 잡담으로 들리는지 죽기는 왜 죽느냐고, 지금 손님들이 몰려서 바빠서 길게 이야기 못하니까 진짜 용건부터 말하라고 했다. 나는 할 말이 없어 전화기를 내려놓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지금껏 나를 제일 많이 챙긴 효자 아들인 막내아들에게도 전화를 했는데 용돈 보내드릴 테니 친구들과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겠냐고 물었다. 결국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피하기는 제 형이나 누나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솔직히 자식에게 얽혀 살 생각을 없었다. 그랬어도 막상 자식 넷에게 돌아가면서 서운한 대답을 듣고 나니 서러움이 왈각 솟구쳐 올랐다. 막내아들 말대로 여행이라도 같이 떠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이런 하소연을 늘어놓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나 있던 303호마저 세상 떠날 준비를 하느라고 요양병원 중환자실에서 코에 호스 꽂고 누워 있다는데 같이 여행 다녀올 친구라니... 자식들이 무심히 뱉어내는 말을 들을 때마다 칼날에 가슴이 뭉뚱뚱 베이는 기분이었다. 서럽고 억울했다. 시집을 세 번인지 네 번인지 갓 었다는 직박구리 같은 여자도 외로울 사이 없이 자식들이 들락거리면서 떠받든다는데 나는 뭐를 잘못해서 이런 홀대를 받는 걸까. 눈물이 그렁그렁해졌다. 그날 이후에는 죽을 만큼 지루해도 자식들을 상대로 전화기를 드는 일이 쉽지 않았다. 홀로 남는 외로움이 이렇게 큰 것인지 정말 몰랐었다. 제 새끼 키울 때는 봐달라고 문턱이 닳도록 뻗질나게 찾아오던 자식들이었지만 이제 써먹을 수 없는 폐품이 되고나니 늙은 어미가 제 집에 아주 눌러앉을까봐 겁을 내는 건지 몰라도 힘들다고 해도 다들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그 바람에 노인들 앞

에서 어깨를 꼿꼿하게 세우고 당당했던 나도 그만 기가 부쩍 꺾이고 말았다. 차라리 나도 요양원으로 들어갈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정신줄을 놓아버렸다면 모를까. 아직은 아니다 싶었다. 의식 말짱해 가지고 병든 노인들 틈에서 보내는 일도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닐 것 같았다. 어쩔 수 없이 나도 아파도 안 아픈 척, 용돈이 떨어져도 있는 척, 외로워도 즐거운 척하는 삼척 할매로 살아야 할 것 같았다.

문제는 최근 들어 자꾸 헛것이 보이는 일이었다. 베란다로 나가면 206호가 손을 흔들고 서 있는 것이 보이고, 거실에 있으면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에 이어 나다. 문 열이라 라고 말하는 303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눈을 감으면 오래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 아버지까지 보이고, 안방으로 들어가면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보였다. 때로는 모두 한꺼번에 내게 달려들어 “가자, 가자” 하는 말을 하면서 내 손을 잡아당기기도 했다. 그때부터 나도 206호처럼 혼자 집안에 있는 것이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오늘도 빗줄기가 좌좌 쏟아지는 중에 몇 번이나 가자! 가자! 하는 환청을 들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나는 정신을 차리려고 집을 나왔다. 이제 막 7월이 시작되었는데 8월처럼 뜨거운 폭양이 쭈글쭈글한 내 살갓에 화살처럼 박혔다. 아파트 숲에서는 쓰르라미들이 전기톱에 쇠가 깎이는 소리를 내며 악을 쓰고 울어 대고 있었다. 불현듯 어릴 적 살았던 산골마을이 떠올랐다. 동네에는 동경유학생이었던 오빠가 있었다. 그 오빠와 나는 ‘사의 찬미’를 불렀던 윤심덕과 ‘설국’이란 소설을 쓴 가와바타 야스나리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었다. 6.25 전쟁이 발발하는 바람에 사범학교에 입학만 해놓고 학교를 다니지는 못했지만 그 시절 한 가닥 했던 나는 한동안 그 오빠 생각으로 마음을 설렘던 적이 있었다. 남편과 결혼 후 소식을 모르고 지냈지만 살아 있다면 나와 같은 머리가 허연 노인이 되었을 것이다. 어쩌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다. 자식 넷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내게 그런 추억이 있었던 것조차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 문득문득 고향 마을을 다녀오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

게 일곤 했지만 아무리 간절해도 실행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허탈한 꿈일 뿐이었다.

아파트 정문까지 온 나는 발걸음을 우뚝 멈췄다. 저 정문을 나서면 갈 곳이 없기 때문이었다. 갈만한 곳을 생각하느라 우두커니 서 있기를 한참이었다. 근처에서 끼이잇 끼이잇 성질 사납게 울어대는 직박구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인상을 찡그리고 직박구리가 날아가는 것을 쳐다보는데 내 시선에 들어온 것은 키 큰 나무에 반쯤 가려져 있는 노인 회관 건물이었다. 보나마나 꼴 보기 싫은 인간 직박구리가 설쳐대고 있을 게 뻔했다. 나는 노인 회관 건물을 못 본체 지나칠 작정을 했다. 그런데 발작처럼 소변이 마려웠다. 참기 힘들었다. 나는 부리나케 노인 회관 건물 안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변기에 걸터앉고 보니 오줌은 몇 방울 툭툭 떨어지다 말았다.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였다. 두런두런 주고받는 말 속에 남들보다 두서 배는 큰 목청에 가래가 낀 듯 탁한 목소리가 들렸다. 인간 직박구리의 목소리였다. 황급히 회관을 빠져 나가려고 했을 때였다. 드르륵 미닫이문이 열리더니 하필이면 인간 직박구리가 나왔다.

“어머나, 교양할머니시잖아요?”

뻔뻔한 모습을 한 여자가 나를 보고 반색을 했다. 여자는 못 본 사이에 많이 변해 있었다. 처음 이곳에 나타났을 때만 해도 행색이 피죤피죤하거니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시커먼 문신을 한 눈썹에,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진한 화장, 싸구려 유리 장식이 주렁주렁 매달린 꽃무늬 블라우스, 너털너털한 마사가 달린 집시치마를 입은 차림이 천박하거니와 이루 말할 데 없었다. 시골 장터에서 본 늙은 접대부를 연상시키던 인간 직박구리가 허물을 벗은 나비처럼 깔끔해져 있었다.

“오랜만입니다요.”

인간 직박구리는 이 노인 회관에서는 자신이 실세임을 과시하느라 그러는지 강남 사모님 못지않게 혀를 잔뜩 꼬부리고 말했다.

“놀다 가세요.”

인간 직박구리가 내 손을 덥석 잡았는데 순간 나도 이해 못 할 안도감이 들었다. 나는 인간 직박구리에게 잡힌 손을 뿌리치지 않은 채로 회관 방으로 끌려갔다.

“참말로 오랜만입니다. 자주 좀 오지 그래요.”

방안으로 들어선 나를 보고 노인들이 반기며 인사를 했다.

문득 직박구리에게 얻어맞고 오줌을 싸는 망신을 당하고도 빵, 사과, 떡 같은 간식거리를 갖다 바치던 206호의 모습이 떠올랐다. 견다가 기운이 떨어지면 먹으려고 들고 나왔던 인삼 절편 몇 조각과 호두가 들어있는 봉지를 나도 모르게 인간 직박구리 손에 쥐어주고 말았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하지? 나도 이상했다.

“역시 교양 할머니는 수준이 달라도 한참 다르다니까요. 친구 분들도 안 계시는데 혼자 지내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언제든지 친구가 되어 들릴 테니 자주 나오세요.”

내가 쥐어준 봉지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확인을 한 인간 직박구리가 살랑대는 미풍처럼 부드러운 어투로 말했다.

이상했다. 인간 직박구리가 내게 친절할수록, 그런 친절에 안도하는 내 가슴 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생기고 있었다. 그 구멍 안에서는 또 다른 내가 슬피 울고 있었다.



서기향

- 2001년 단편소설 [진실]로 문단 데뷔
- 저서 : 단편 창작집 [벽난로가 있는 실내 풍경], 장편소설 [적도의 새] 생태탐조 소설 [새들은 모래를 삼킨다] 7인 공저 스마트 소설집 [여자 넷, 남자 셋]의 각종 문예지에 단편소설 30여 편 발표
- 수상 : 장편 [적도의 새] 조선문학 작품상 수상. 2023년 여수해양문학상 [돌계정] 가작 수상
- 활동 : 소설가협회 이사과 감사역임. '작가포럼' 편집위원장 역임 현재 편집위원. 계간문예지 '연인' 현재까지 편집고문

이름 없는 풀

손경형

온종일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흐르던 땀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이젠 아침저녁으로 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확실히 여름이 갔나 보다. 가을은 소리 없이 다가왔다. 나는 이름 없는 풀이다. 봄에 여름에 이름 없는 풀이라도 꽃을 피우고 싶었는데 올해도 꽃을 피우지 못했다. 그렇게 봄에 여름에 꽃을 피우게 도와달라고 매달렸는데, 봄은 여름 뒤에 여름은 가을 뒤로 숨어버렸다. 이제 가을이 왔지만, 가을도 가버리면 정말 꽃을 피울 수 없는 겨울이 올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죽기를 각오하고 가을에 매달려야 한다.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가을은 꽃을 피우기보다는 세상을 짙은 무지개색으로 물들이고 싶어 한다. 가을을 새로운 것에 관심을 쏟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이용하고 싶어 한다. 나무에 잎을 떨어뜨려 거리를 물들이고, 떨어지지 않는 잎들은 울긋불긋 물들이고, 피어있는 꽃을 열매로 바꾸면서 밤낮없이 다람쥐처럼 분주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물들이고 떨어질 잎도 없고, 핀 꽃을 열매로 바꿔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살아있음의 의미조차 없는 나한테는 관심조차 없다.

나는 내 나이도 모른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언제 태어났는지, 얼마나 이곳에서 살았는지, 얼마만큼 살 것인지. 나는 생명이 있는 것들은 반드시 생명이 꺾이는 날이 온다는 말을 누군가에게 들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났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왜냐면 나는 스스로 살아있다고 믿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생각하고 죽을 만큼 고통을 느끼고 아파하니까, 그래서 차라리 죽고 싶지만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다. 그리고 나는 언젠가 죽겠지만, 나는 내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나는 꿈도 없다, 아니 가질 수 없다. 왜 태어

났는지, 왜 태어나서 죽음을 맞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내 나이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모른다. 나는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은 기억이 없다. 아무도 나와 눈을 제대로 마주친 적이 없다. 길가에 피어있는 풀이기 때문에 그저 밟고 지나갈 뿐이다. 나는 이름 없는 풀이라 누군가가 불러줘야 꽃을 피울 수 있고 죽어도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행복한 죽음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나는 탄생을 축하받지도 못하고, 죽음이 안타깝다는 말조차 듣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게 그 어두운 곳으로 갈 운명이다.

과연 나는 태어날 자격도 죽을 권리도 선택하지 못하고 겨우 하루하루 허덕이며 목숨줄을 붙잡고 누군가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걸까? 너는 내게 말한다. 꿈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거라고. 그래야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그래야 새로운 꿈을 이어나갈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러니 밝히고 밝히더라도 희망을 키우며 원하던 원하지 않던 후회 없이 살 수 있다고.

오늘도 나는 나를 밟고 빠르게 하루를 걸어가는, 뛰어가는 너의 발판이 될 뿐이다. 나는 너의 발판이 되는 것이 싫다고 투정을 부리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네가 걷다가 뛰어가다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나를 보아주기를 바라는 것뿐이다. 그리고 나와 눈길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하늘을 올려다 보기를 바라는 것이다. 너는 항상 앞만 보며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나도 너를 따라 걷고 싶다, 달리고 싶다. 그런데 땅은 내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를 않는다. 나는 너와 또 다른 누군가의 발밑에 밟히며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친 숨만 몰아설 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나도 자라고 싶다. 키도 크고 싶다. 누군가에게 밟히지만 않는다면 나도 너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우아하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너는 나에게 말한다.

“너는 꿈을 꾸지도 않으면서, 꿈을 키우지도 않으면서 핑곗거리만 찾고

있어.”

나는 네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지도 몰라.”

너의 말처럼 나는 세상을 원망하기 바빠서 매일 땅에 엎드려 울기만 하고 있어. 그래, 나도 달라질 거야. 부지런히 하늘을 쳐다보며 내가 걸어갈 길에 붉은 카펫을 깔아놓을 거야. 누구도 듣지 않는,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햇님과 미소를 주고받는다. 그래, 나는 오늘도 제자리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땅이 흔들려도, 물이 넘쳐나도. 그러나 그런 나를 보면서 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는 것을 본다. 그런 너를 보면서 나는 너를 위해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하는 나 자신에게, 하늘을 향해, 신을 향해 오늘도 소리를 지르며 비명을 토한다. 길가에 쓰러져 혈떡거리는 너, 그런 너의 몸에 깔려 죽음을 기다리는 또 다른 나, 나, 나. 바람과 구름, 하늘에게 너와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의 말을 신에게 전해달라고 울부짖을 뿐이다. 너와 나의 환상은 계속된다. 나는 살기 위해, 너와 살고 싶어 하늘을 향해 오늘도 소리지른다. 나의 이름을 불러줘, 나의 이름을 찾아줘.

햇살을 뒤로하고 나한테 다가오는 너. 너무 눈이 부셔 너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다. 네가 나한테 다가왔을 때 나는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나에게 다가온 너는 나한테 말을 걸었다.

“네 이름이 뭐야. 네가 나를 기억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곳을 자주 다녔어. 그러다가 너를 지켜보게 됐어. 그런데 나는 너의 친구를 본 적이 없어. 아무도 네게 말을 건네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왔어. 잘 있었어? 그럼 안녕.”

너는 나를 처음 본 것처럼, 매일 나와 많은 말을 주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 그렇게 너는 매일 내게 다가와 같은 말과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은 한마디 말만 던지고 사라져 갔다. 그렇게 네가 나를 찾아 줄 때마다 나의 앞은 하나씩 하나씩 자라

났다. 그런데 지금은 네가 나를 찾아왔는데 더 이상 잎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았다.

“평상시 너의 말과 행동은 단순해. 그런데 네 눈을 보면 많은 생각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너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나는 모르겠어. 나는 네가 좋아하는 이름을 불러주고 싶은데 네가 뭘 좋아할지 고민스러워. 그래서 너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제 만난 것처럼, 그런데 오늘 처음 만난 것처럼, 또 너는 나한테 너의 생각만 남긴 채 떠나간다.

“갈 땐 가더라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가면 안 될까? 그럼 나는 나의 이름을 불러준 너를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를 기억할 수 있게 더 자주 나를 찾아와 주지 않을래.”

나는 오늘도 너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

“미안해. 하지만 그건 안돼. 왜, 너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냐고? 그건 말할 수 없어.”

“알고 싶어…….”

너는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자리에 주저앉으며 나에게 귓속말을 한다.

“으음. 이 말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네가 뭘 모르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잘 들어. 으음, 으음, 아니야 하지 않을래. 내가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네가 받을 상처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깐.”

“나는 내 이름도 내가 누군지도 몰라. 왜 태어났으며,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누군가에게 밝히고 밝히면서도 왜 이 자리에서 떠나지도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이유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이 내게 큰 아픔이고 상처라는 것을 너는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너의 이름을 말할 수 없다는 거야. 너는 누구나 좋아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너의 이름을 시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너의 이름이 불러주는 순간 너는 죽음을 각오해야 해. 물론 아닐 수

도 있지만. 그런 이유로 나는 네가 너의 이름을 몰랐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는 큰 상처를 받을 거야.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서라도 말할 수 없어. 미안해. 그래서 나도 내 이름을 너에게 말하지 않는 거야. 나도 너처럼 이름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려고 하니까. 그래야 공평하지, 내가 내 이름을 너한테 말하지 않듯이, 너는 네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으니까. 너도 내 이름 모르고, 나도 네 이름 부르지 않고.”

너는 내게 말한다.

“그런데 분명히 해야 할, 조심할 필요가 있어. 만약 다음에 나를 만났는데 누군가가 내 주변에 있다면, 나를 만나더라도 아는 척하지 말아줘. 내 친구들이 네가 이름도 없는 너와 친하다는 것을 안다면 나를 무시할 수도 있어. 그럼 나는 상처를 받겠지. 너도 내가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겠지. 그리고 나는 오늘처럼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만 너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야. 나는 아무도 네가 누군지 알리고 싶지 않아. 네가 나만 좋아해 주길 바라는 거야. 그래, 내 욕심이 과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네가 내 친구로만 남아 주었으면 해.”

햇살에 비춰어진 너의 뒷모습은 눈이 부셔 볼 수 없을 정도로 멋지고 아름답다. 짧은 두 뒷, 또렷하고 서글서글하게 생긴 두 눈망울, 귀엽고 잘생긴 멋진 작은 얼굴, 알록달록한 점이 온몸을 뒤덮은 긴 털, 나는 겨울이면 땅속에 기어 들어 가서 추위에 떨고 있는데, 너의 긴 털은 한겨울 땅 위에서도 따뜻하게 보인다. 마지막으로 떡 벌어진 어깨 근육, 늘씬하고 튼튼해 보이는 네 개의 다리로 당당하고 늠름하게 걷는 걸음걸이를 가진 너를 보내며, 나도 오늘도 눈물짓는다.

사실 나는 네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네 입을 통해 직접 듣고 싶었을 뿐이다. 나는 네가 고양이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네가 없을 때 가끔 나를 찾아 주는 또 다른 친구도 있다. 그 친구 이름은 개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개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다. 너는 내가 아무도 모르는 너만 아는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나 또한 네가 다른 누군가가 알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나는 봄·가을로 웨딩촬영을 하기 위해 공원을 찾는 수많은 커플을 봤다. 사람들은 꼭 결혼사진만 찍기 위해 공원에 오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젊은 연인, 늙은 연인, 만남을 즐기는 연인뿐만 아니라 헤어지는 연인들도 공원을 찾는다. 오늘은 여자, 남자 두 연인이 친구들과 결혼 전 웨딩사진을 찍기 위해 공원을 찾았다.

“정인 씨, 선민 씨하고 손을 맞잡아 주세요.”

정인은 신부, 선민은 신랑이다.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입술을 맞대고 가볍게 키스를 해 주세요. 네, 네 움직이지 마시고 잠시 숨을 멈춰 주세요. 신부님 웃기 마시고 신랑은 숨을 참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마지막 장면을 준비해 주세요.”

정인은 머리에 하얀 베일을 휘날리며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하얀 구두를 신고 공원을 뛰어다닌다. 남자 사람은 청색 턱시도에 흰 와이셔츠, 청색 구두를 신고 여자를 쫓아가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맑은 얼굴로 뛰어가는 그녀의 모습은 하늘을 날아가는 백조처럼 아름답고 우아해 보였다. 그녀를 뒤쫓는 그의 모습은 동화에서 갓 튀어나온 왕자처럼 날렵하고 용맹스러워 보인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처럼 가능하면 자연스럽게 해 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신부님 잠깐 그 자리에서 멈춰서 뒤돌아보아 주세요.”

정인은 앞으로 달려가다가 갑자기 제자리에 서서 뒤를 돌아보려고 하다가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말았다. 선민과 촬영하는 사람, 웨딩촬영에 함께한 신랑과 신부 친구들이 소리를 지르며 그녀에게 뛰어왔다. 그녀는 멧쩍은 표정으로 어설픈 웃음을 지으며 금세 일어나지 않고 아래를 내려다 봤다. 그러다가 숨죽이고 있는 나와 갑자기 눈이 마주쳤다.

“정인 씨 괜찮아요?”

“선민 씨. 이것 보세요.”

괜찮다는 정인의 말에 선민도 무릎을 꿇고 나를 쳐다보았다.

“우리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행운의 네 잎 클로버가…….”

웅성거리며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보기 위해 몰려들기 시작했다.

“뭐어, 행운의 네 잎 클로버?”

“어디, 어디?”

나는 민망해 잠시 얼굴을 붉혔지만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나는 드디어 내 이름을 찾았다. 나의 이름은 네 잎 클로버였다. 촬영기사는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동영상을 찍고 있다.

“이건 기적입니다. 신랑, 신부님 다시 한번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촬영기사의 말에 선민과 정인의 지인들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주위 사람들도 두 사람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나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우리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주려고 온 여러분께 행운을 나누어 드립니다.”

선민의 말에 또 주위 사람들이 손뼉을 친다.

“네 잎 클로버가 이 자리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행운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손대고 싶어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도 선민의 말에 한마디 덧붙인다.

“아무렴. 욕심을 버려야지. 신랑, 신부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기원합니다. 덕분에 나도 행운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던 할아버지가 손뼉을 치며 네 잎 클로버를 따라다가 쓰다듬더니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드디어 나는 내 이름을 찾았다. 사람들이 떠난 자리, 길고양이와 유기견이 내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다.



손경형

- 송파문인협회 소설분과 위원장
- 심상문학회 이사
- 국제pen한국본부회원

기막힌 조우

양창국

방수혁은 55세에 명예퇴직 당했다. 그가 퇴직한 두 달 후, 아내가 동창들과 동남아 여행 갔다가 버스가 굴러 집단 참사를 당하는 사고에 끼어 타계했다. 그해 그는 실업자가 되고 홀아비가 되었다.

그는 재취업하여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사회에 전수해 주려 했으나, 어느 기업도 그를 채용하겠다고 하지 않았다.

그는 건강이라도 챙겨야 한다고 여기며 초등, 중고등, 대학, 직장 퇴직자 등이 모이는 여러 산악회를 따라 산을 올랐다. 친구들과 등산 일정이 없는 날은 그의 아파트에서 바라다보이는 대망산을 올랐다. 대망산은 그의 집에서 전철로 세 정거장 떨어진 곳에 있는 높이 350m의 산으로 정상까지 오르내리는데 왕복 한 시간 반이 걸린다.

방수혁은 아침 9시쯤 집을 나서 전철을 타고 가서 산을 오른다. 11시쯤 집에 돌아와서 샤워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집 근처에 있는 문화원에 여러 강좌에 등록하고 강의를 듣는다.

1년 넘도록 산을 오르다 보니 같이 산을 오르는 동년배들과 안면을 트고 그들과 어울려 그들이 보온병에 담아온 커피를 나눠 마시던지, 정상 근처의 등산로에서 좌판을 벌이고 음료수를 파는 세 여인, 모두 50대 후반 60대 초반의 나이인, 여인들로부터 음료수를 사서 마신다.

등산로 밑에서 위로 첫 번째 자리한 여인은 한 잔에 2,000원 받고 막걸리를 판다. 가벼운 안주도 판다. 두 번째 자리 여인은 커피, 녹차와 홍차를 판다. 세 번째 여인은 콜라, 사이다 등 음료를 판다. 초콜릿 등 과자류도 판다.

세 여인은 한 여인이 잠시 자리 비운 사이 옆 가게를 봐주는 등 사이가 좋다.

방수혁은 등산하며 알게 된 친구들과 정상에서 산 아래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며 세 여인 가게에서 커피도 사서 마시고, 막걸리도 사서 마시고, 사이다도 사서 마시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떠벌린다. 분위기가 좋아지면 하산하여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점심도 같이한다.

막걸리를 마시며 항상 커피를 채운 보온병을 가방에 넣고 매고 오는 50대 초반에 IT 회사에서 잘린 대머리가 떠벌렸다.

“저기 저 세 여자 3만 원이면 한번 살 수 있어.”

“그래요?”

방수혁이 눈을 크게 뜨며 묻는다.

“가끔 보면 한 사람씩 자리를 비울 때가 있는데 그때 몸 팔러 갈 때요.”

은행을 다니다가 50대 초반에 명예퇴직 당한 안다니가 아는 체했다.

방수혁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이 산 어디에서 그 짓을 할까 궁금했다. 그렇다고 하산하여 그 짓 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릴 거다.

등산로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니들이 다 명랑하고 활달하여 그런 짓을 할 것 같지 않다.

궁금하면 참지 못하고 뿌리를 캐야 하는 성격의 방수혁은 산을 오를 때마다 세 여인을 보며 몸을 팔 여인들이 아닌데 공연히 나쁘게 소문이 난 것 아닌가 생각했다.

녹음이 한창 우거진 초여름 어느 날, 방수혁은 몸 판다는 소문이 정말인가, 어디서 그 짓을 하나, 확인해 보고 싶었다.

그는 커피를 사는 척하며 슬쩍 3만 원을 여인에게 건넸다. 여인이 힐끗 방수혁을 쳐다보더니, 착착 접어놓은 돗자리를 들고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방수혁은 엉거주춤한 자세로 여인을 따라갔다. 등산로에서 벗어나 한 3분쯤 내려가니 바위 밑에 돗자리를 깔만한 평평한 공간이 나왔다, 바위가 완전히 등산로를 가렸다. 여인은 돗자리를 평평한 바위 위에 깔았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바지를 벗고 팬티도 벗었다. 음부가 그대로 노출됐다. 그녀는 비스듬히 누

우며 옷을 벗고 올라타라는 신호를 보냈다. 벌건 대낮에 하부를 다 노출한 여인을 내려다보며 방수혁은 섹스할 기분이 전혀 나지 않았다. 그는 섹스할 생각으로 3만 원을 건넨 게 아니고 어디서 어떻게 그 짓을 하는지 알려 한 거라 담담하게 말했다.

“됐어요. 옷 입으시지요.”

방수혁은 말하며 그 자리를 피해 산에서 내려갔다.

다음날 방수혁은 커피 파는 여인을 보기가 민망했으나 그녀는 방수혁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세 사람이 커피를 파는 장소에서 50m 아래 등산로에 커피 장사 한 사람이 더 등장했다. 몸매로 봐서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으로 보였으나 방수혁은 그녀가 장사를 시작한 지 십여 일이 지나도 그녀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을 특별히 볼 일이 없는 방수혁은 무심코 그녀를 지나치며 산을 올랐다.

날씨가 기가 막히게 좋은 날, 방수혁 일행은 정상에 모여 대머리가 보온병에 담아온 커피를 나눠 마셨다. 일행 다섯 명이 나눠 먹자니 한 사람 앞에 반 잔도 돌아가지 않았다.

“내가 새로 온 아주머니한테 몇 잔 더 사 오지.”

안다니가 등산로를 따라 내려갔다.

“혼자 들고 오려면 힘들 텐데.”대머리가 안다니를 따라 내려갔다. 두 사람은 커피 다섯 잔을 나눠 들고 올라온다.

“와! 커피 파는 아줌마 미인이다.”안다니가 떠벌렸다.

“짚었을 때 한 미인 했겠는데 3만 원 주고 할 만 하겠어.”

대머리가 떠벌렸다.

“앞으로 커피는 그 여자한테 산다.”안다니가 허허거렸다.

하산하며 방수혁은 궁금하여 혼자 커피 파는 여인을 유심히 쳐다보며 내려갔다. 그녀가 탄 곳을 보고 있어 얼굴을 보지 못했다.

방수혁은 다음날 등반하며 그녀의 얼굴을 보려 했다. 그녀가 탄 곳을 보고

있어 보지 못했다. 방수혁은 정상에 모인 일행에게 자기가 커피를 쏟겠다고 하고 커피를 사러 내려갔다. 그는 만 원을 내밀며 커피 다섯 잔을 주문했다. 돈을 받는 그녀를 보고 방수혁은 허, 했다. 눈에 익은 얼굴이다. 그녀도 놀라는 반응이다.

방수혁은 면 소재지 초등학교에 다녔다. 한 학년이 두 반이었다. 1반은 남녀 공학, 2반은 남자만 편성됐다. 1반은 제 나이에 입학한 남녀학생, 2반은 제 나이가 지나 입학한 남학생들이다.

방수혁의 집은 방 두 칸 초가삼간이었다. 마당은 손바닥만 했고, 흙담을 둘러다 길 건너에 바로 군수 사택이 있었다. 반듯한 기와집에 정원이 넓었다. 창문은 유리창이었고, 군수 전용 관용차가 들락거렸다. 방수혁의 집과 비교하면 대궐이었다.

아침을 먹으며 아버지가 새 군수가 부임했다고 했다. 군수는 방수혁과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라 막 6학년이 된 방수혁은 그냥 들어넘겼다.

담임선생님이 하얀 깃이 달린 상의에 검은색 치마를 입은 여학생을 데리고 교실에 들어섰다. 그녀는 유난히 얼굴이 보얗다. 같은 반 여학생들은 햇볕에 그을려 얼굴이 거무죽죽한데 그녀는 흰 눈같이 얼굴이 하얗다. 그녀가 들어서니 교실이 환해지는 것 같다. 그녀는 운동화를 신었다. 한 반 학생들은 고무신을 신고 다닌다.

“새로 전학해 온 박현주다. 잘들 지내라.” 담임선생님이 그녀를 소개했다. 그녀는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인사하고 선생님이 지정한 자리로 가서 앉았다. 그녀는 코가 오뎅하고 눈망울이 맑았다.

하룻길에 방수혁은 박현주가 그보다 50m쯤 앞서서 가는 것이 보였다. 그는 거리를 두고 졸래졸래 그녀를 따라갔다. 그녀는 군수 관사로 들어갔다. 새로 부임한 군수 딸인 모양이다. 그 후 등교 때는 군수 아버지가 출근하며 그녀를 학교 앞까지 태워다 줘서 같이 등교는 못 했지만, 자연스레 같이 하교하는 때가 많았다. 방수혁은 현주와 같이 하교할 때 저절로 신이 났다. 그녀에게 잘 보

이고 싶고 그녀에게 잘해주고 싶어 자주 그녀의 가방을 들어다 줬다. 방수혁은 그녀가 점점 좋아졌다. 방학이 되기 며칠 전 하교하며 그녀는 그에게 자기 집에 들어가자고 했다. 방수혁은 주눅이 풀리며 그녀를 따라 그녀의 집에 들어갔다. 단풍나무, 소나무가 서 있는 잔디가 깔린 정원이 넓었다. 현관에 들어서자 거실이 수혁의 집 두 방과 마루를 합친 것보다 넓었다. 피아노가 눈에 띄었다. 현주는 따로 그녀의 방이 있었다. 책상도 있고 서가도 있었다. 방수혁은 안방에 아버지와 아들 셋이, 건넌방에 어머니와 딸 셋이 같이 자고, 밥상을 책상으로 쓴다. 서가에 동화책도 보이고 백과사전도 보였다. 현주는 수혁을 엄마에게 우리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이라고 소개했다. 바로 길 건너에 산다고 했다. 공부를 제일 잘한다는 말에 수줍음을 타던 방수혁은 길 건너에 산다는 말에 창피했다. 현주의 어머니는 현주 잘 가르쳐주라고 하며 유과와 식혜를 내왔다. 유과와 식혜를 다 먹고 현주가 피아노를 쳤다. 곡명이 엘리자를 위하여, 라고 했다. 방수혁은 엘리자가 누굴까, 했다. 그녀는 피아노를 치며 노래도 불렀다. 목소리가 고왔다.

그녀의 집에 데려간 후 현주는 방수혁에게 곰살맞게 굴었다. 그런 그녀를 보며 방수혁은 그가 크면 현주를 색시로 삼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첫사랑이 커갈 무렵 막 가을이 올 때 현주는 서울로 전학갔다. 방수혁의 아버지는 군수가 중앙청으로 영전했다고 했다. 중앙청이 뭔지 잘 모르는 방수혁은 현주가 떠나간 것만 슬펐다. 그렇게 어린 천사, 현주가 그를 떠나갔다.

방수혁은 먼 소재지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녔다. 성적은 항상 1등이었다. 3학년 담임선생님이 우리 학교에서도 서울대학 한 사람 보내보자며 집이 가난하여 대학 갈 꿈도 꾸지 못하는 방수혁에게 대학 입학시험을 치를 것을 강요했다. 그는 담임선생님이 마련해준 차비로 입학시험을 치르려고 난생처음 상경했다. 그는 문리대 영문학과에 톱 붙었다. 그의 서울대 합격에 고을이 들썩했다. 마을 유지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그의 첫 등록금을 마련해줬다.

그는 입주 과외를 하며 숙식을 해결하며 학교에 다녔다.

교정에 라일락이 활짝 피어 향기가 진동하는 봄에 축제가 열렸다. 과 대표는 이대 성악과 학생들을 초청한다고 했다. 영문과 동기 여학생들의 입이 나왔다. 추첨을 통해 파트너를 정한다고 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꽃 같은 여대생들이 몰려왔다. 방수혁은 꽃들의 화려한 향기에 정신이 황홀했다. 그는 꽃들을 보다가 눈이 커졌다. 처녀가 된 박현주가 그 가운데 서 있다. 현주도 수혁을 알아보고 놀라는 기색이었다. 두 사람은 자석에 끌리듯 다가가서 손을 잡았다. 그 장면을 본 과 대표가 방수혁은 파트너가 정해졌으니 추첨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봄 축제 후 첫 일요일, 두 사람은 종로 4가 전철역에서 만나 원남동을 지나 창경원에 갔다. 그들은 동물원도 들리고 식물원도 들리며 호호거렸다. 연못가에 앉아 사이다를 마시며 조잘거렸다. 첫사랑 옛정이 소록소록 피어났다. 현주의 아버지는 중앙부서 실장이라고 했다. 도지사만큼 높다고 했다. 주중에는 입주 과외 학생 가르치느라 방수혁이 시간을 낼 수가 없어 두 사람은 일요일에 만났다. 경복궁, 덕수궁도 가고, 남산도 올랐다. 영화관도 가고 음악감상실도 갔다. 그렇게 시골에서 피지 못했던 사랑을 키워갔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걸었다. 키스한다든지 하는 육체적 접촉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데이트하며 드는 돈은 거의 현주가 냈다.

방수혁은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서 학보로 최전선에서 1년 반 복무하고 제대 후 복학했다. 군대 복무기간에 그들은 편지로 마음을 전했다. 현주는 졸업 후 바로 이탈리아로 유학 갔다. 성숙한 천사로 짜장 방수혁 앞에 나타났던 그녀가 저 멀리 날아갔다.

방수혁은 졸업 후에 큰 무역회사에 취직했다. 수출 입국을 내세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수출 일선에서 뛰는 방수혁은 자주 해외 출장을 다니며 바쁘게 살아갔다. 현주로부터는 유학 후 두어 번 편지가 오다가 답장이 끊겼다. 애타게 현주의 소식을 기다리며 바쁘게 회사 생활을 해가던 방수혁은 그녀로부터 소식

이 뜬해지자 차차 그녀를 그리는 시간이 짧아졌다. 멀리 있으면 마음도 멀어져서 이탈리아에 있는 현주를 밀어내고 한 팀에서 근무하는 여인이 그 자리를 조금씩 채워갔다. 둘은 결혼했고, 아들딸을 낳고 가정을 꾸렸다.

방수혁은 신문에서 박현주의 귀국 독창회를 세종 문화회관에서 연다는 기사를 봤으나 그날 마침 첫아들 돌날이라 돌잔치에 참석해야 해서 독창회에 갈 수가 없었다. 이미 가정을 가진 방수혁은 종종 박현주의 공연 소식을 문화란에서 보았으나, 공연히 공연장에서 얼쩡거리며 평지풍파를 일으키기 싫어 공연장을 찾지 않았다.

세월은 흐르고 그렇게 첫사랑도 잊혀갔다.

커피를 사며 방수혁은 바로 현주를 알아봤다. 현주도 방수혁을 알아봤다. 두 사람의 세 번째 만남은 어색했다.

박현주 때문에 등산을 중단할 수도 없어 방수혁은 평소대로 산을 올랐고, 그녀도 커피 장사를 계속했다. 방수혁은 커피를 살 때 항상 현주에게서 샀고 그렇게 만남은 이어졌다. 그의 등산 친구들 사이에 현주는 몸을 팔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말을 듣고 방수혁은 마음이 놓였다.

방수혁은 등산로에서 가볍게 인사하며 현주를 지나칠 때마다 날개 꺾인 천사를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애잔했다. 현주 아버지는 차관까지 했었다. 이탈리아 유학까지 다녀오고 집안이 좋아 괜찮은 남자와 결혼했을 텐데 어떻게 하여 현주가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했을까, 도와줄 방법은 없을까, 그 생각이 주제넘은 생각인가? 방수혁은 혼자 끙끙댔다.

어느 날, 방수혁은 현주가 커피 장사를 접을 시간에 맞춰 산에 올랐다. 그녀가 좌판은 등산로 옆 나무 뒤에 세워놓고 팔다 남은 커피, 종이봉투, 부스터를 배낭에 넣는 것을 보고 방수혁이 그녀에게 다가가 배낭을 매주겠다고 했다. 그녀가 완강히 거절했다. 그는 강제로 배낭을 빼앗아 메고 커피 끓일 물을 담아 온 큰 빈 주전자를 들고 앞장서서 산에서 내려갔다. 그는 문득 초등학교 때 그녀의 가방을 들어다 주던 생각이 떠올라 가슴이 짠했다.

산에서 내려오자, 그녀가 배낭과 주전자를 빼앗아 매고 버스가 오자 쏜살같이 도망쳤다.

방수혁은 닭 쫓던 개 마냥 멀어지는 버스를 쳐다봤다.

다음 날도 그녀는 완강히 저항했다. 셋째 날, 그녀는 그에게 배낭과 주전자를 맡긴 채 같이 버스를 탔다. 두 사람이 내리는 정류장이 같았다. 버스를 내려 그가 짐을 집까지 메다 주겠다고 하자 그녀는 펄쩍 뛰며 거절했다. 그녀가 무겁게 배낭을 메고 주전자를 들고 사거리를 건너는 것을 보며 방수혁은 가슴이 아릿했다. 그렇게 그녀를 보내고 집 현관에 들어서자 집이 탄 날보다 더 텅 빈 것 같고 마음이 허전했다.

다섯 번째 짐을 들어다 준 날, 그녀는 그녀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며 그녀의 집이 길 건너 연립주택이라고 알려줬다.

비 오는 날, 방수혁은 박현주에게 전화하여 점심을 같이 하자고 했다. 그녀가 어렵게 30분 후 버스정류장 쪽으로 나가겠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오래된 낡은 옷을 입고 나왔다.

방수혁은 비도 오는데 잠시 드라이브하고 점심을 먹자며 그녀를 싣고 88 올림픽 대로로 들어섰다. 그는 하남 스타필드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그들은 식당가로 가서 한식을 먹고, 방수혁이 이렇게 만난 기념으로 옷을 한 벌 사 주겠다고 했다. 현주가 펄쩍 뛰며 거절했다. 그는 그녀를 강제로 끌고 신세계 백화점에 들어갔다. 그녀는 틈을 봐서 백화점에서 도망쳐 나갔다. 그는 별수 없이 그녀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비 오는 날, 그는 그녀를 다시 점심에 모셨다. 전철을 타고 롯데몰 식당가에 가서 소주를 곁들이며 갈비를 뜯었다.

술이 몇 순배 돌아 달렸던 그녀의 마음이 풀어지며 그녀는 살아온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아버지가 고위직 공무원이고 이탈리아 유학까지 다녀온 그녀는 준재벌 집 큰아들과 결혼했다. 남편은 돈 벌 줄은 모르고 쓸 줄만 아는 한량이었다.

귀국 후 현주는 모교에서 일주일에 세 시간 시간 강사 자리를 얻었다. 강사 자리라도 유지하려면 1년에 한 번 이상 공연 실적이 필요했다. 그것도 세종 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 등 큰 홀에서 공연한 실적이 필요했다. 그녀가 버는 돈으로는 공연 비용도 모자랐다. 공연비 일부를 친정의 도움을 받았다. 시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그럭저럭 회사가 굴러가서 남편은 해프게 쓰는 생활을 즐겼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돈 벌 줄 모르는 사장이 경영하자 회사가 흔들거렸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마약을 하는 의사의 꼬임에 빠져 마약 중독자가 되었다. 급전직하 회사는 빚더미에 올라앉고 남편은 유학까지 다녀와서 돈을 못 번다고 아내를 구박했다. 회사는 파산했고 마약쟁이 남편이 자살했다. 친정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기댈 형편이 못 되었다. 현주는 카페에서 피아노를 치며 생계를 이어갔다. 마음이 울적하면 피아노 반주에 맞춰 에스터테이를 조용히 부르며 박수를 받았다. 나이가 들자 그 자리에서 밀려나고, 호구지책으로 등산로에서 커피를 팔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방수혁을 만났다.

이제 박현주는 방수혁과 만남을 피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비 오는 날마다 점심을 같이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방수혁은 해질 무렵 등산하여 박현주의 집을 메고 내려와서 박현주가 사는 연립주택 입구까지 들어다 주었다. 그녀는 항상 연립주택 입구까지만 그의 접근을 허용했다.

자주 만나 식사를 하다 보니 옛정이 다시 살아나고 남녀는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됐다.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던 어느 날 반주를 곁들여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며 방수혁이 그의 집에 가서 커피를 마시자고 했다. 여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수줍어하며 좋다고 했다. 방수혁이 혼자 사는 집에 들어서서 어색하게 소파에 앉아 있던 박현주는 남자가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며 수선을 떨자, 부엌으로 와서 커피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남자더러 소파에 앉아 있으라고 커피를 타가지고 왔다. 방수혁은 아내가 죽고 처음으로 여자가 그의 집에서 타 주는 커피를 마시며 가슴이 뭉클했다. 그 여인은 그의 첫사랑 여인이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애정 영화를 봤다.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자연스럽게 안고 서로를 애무하다가 고개를 넘었다.

방수혁은 나신의 박현주를 안고 전신이 떨리고 숨이 가빴다. 마치 슛총각이 처음 여자를 안은 것 같이 덜덜 떨렸다. 그의 모든 신경이 전율하며 그녀를 받아들였다.

폭풍이 지난 후,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 이렇게 또 만났네요. 현주 씨 이제 커피 장사 그만하고 나랑 합쳐서 이 집에서 삽시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돌아온 첫사랑에 감사하며 고요히 눈을 감고 그녀의 가슴을 쓸었다. 순간 그는 첫사랑은 헤어지네 헤어지네, 하는 유행가 가사가 떠올라 이 행복한 순간에 무슨 방정맞은 생각, 하며 자책했다.

그는 평소와 같이 다음날 등산했다. 그녀가 커피를 팔러 나오지 않았다. 방수혁은 그녀가 그의 말을 듣고 합칠 준비를 하나, 하며 가슴이 설레었다. 다음 날도 다음 날도 그녀는 등산로에 나타나지 않았다. 방수혁이 전화했다. 통화가 되지 않고 소리שמ으로 연결됐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방수혁은 그녀가 근심되기 시작했다. 병이 난 게 아닌지 걱정되었다. 혼자 사는 그녀가 아파 누운 것은 아닌지 애가 닳았다. 그는 그녀가 연립주택에 사는 것만 알지 몇 동 몇 호에 사는지는 모른다. 항상 그녀는 연립주택 입구에서 배낭과 주전자를 받아 들고 손을 흔들며 사라졌다.

전화도 받지 않는 그녀가 걱정되어 방수혁은 연립주택으로 그녀를 찾아 나섰다. 5층짜리 연립주택 세 채가 줄지어 서 있다. 그는 연립주택 정원에 들어서서 명칭하게 건물을 올려다 봤다. 50대 후반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오자, 그는 그녀에게 박현주씨를 아는가, 물었다. 그녀는 이상한 눈으로 방수혁을 올려다보며 모른다고 했다. 두세 번 더 그런 물음이 오가고 방수혁은 그렇게 그녀의 집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직원에게 박현주 씨가 사는 동호수를 알려 달라고 했다. 직원은 개인 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

그는 그녀가 사는 동호수를 알아놓지 않은 그의 세심하지 못한 성격이 후회되었다.

그렇게 세월이 훌쩍 흘렀다. 그녀는 등산로에도 나타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행방을 찾을 길이 없다.

그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짱, 하고 하얀 날개를 펼치며 어린 천사로 등장했다가 서울로 날아가고, 대학교 1학년 때 다시 화려한 날갯짓을 하며 나타났다. 가 이탈리아로 날아가고, 60이 다 되어 날개 꺾인 천사로 등산로에 나타났다. 가 사라졌다.

그는 날아가 버린 첫사랑을 찾을 길 없어 마냥 서러웠다.

반년이 지난 어느 날 대망산 정상에서 커피를 마실 때 안다니가 빅 뉴스라고 떠벌렸다.

“어제 동창들과 소원산 등산 갔다가 산길에서 혼자 커피 팔던 미인 봤다.”

귀가 번쩍 튼 방수혁이 정말 그래요, 하고 물었다.

“거기서 커피 팔고 있던데.”

그 말을 들으며 방수혁은 그가 그녀를 대망산에서 쫓아낸 것 같아 가슴이 무너졌다.

그는 소원산으로 선뜻 그녀를, 첫사랑을 찾아가지 못하고 망설였다.



양창국

- 1998년 장편 '방황의 미로'로 지구문학 통해 등단
- 장편 '아누스의 불꽃' 외 다수, 창작집 '다 흘러간다' 외 다수
- 동탑산업훈장, 한민족문학상 등 다수 수상

썬로이

엄현주

비행기가 하노이의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 무렵이었다. 한국 시각으로 새벽 2시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런 내게 딸애가 한 팔을 잡으며 조심해라고 속삭이듯 말했다. 그러자 반사적으로 나는 캐리어의 손잡이에 힘을 주고서 고개를 끄덕였다. 삼십여 년 전에 초보 엄마였던 나는 딸애를 데리고 외출할 때면 조심하라는 말을 수없이 했고, 그럴 때마다 딸애는 얌전하게 고개를 끄덕이곤 했었다. 이제 세월과 더불어 우리 모녀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공항 밖으로 나가자, 우리가 예약한 여행사의 피켓을 든 청년이 눈웃음을 지으면서 일행을 맞이했다. 동그스름한 반달눈과 도톰한 턱이 왠지 낯설지 않게 여겨져 한국인인가, 하는 생각을 하며 그가 안내하는 대로 짐을 싣고 버스에 올라탔다. 앞으로 사흘간 가이드를 맡게 되었다면서 그는 자신의 이름을 ‘후’라고 소개하고 덧붙여 말했다.

“한국 이름은 썬인후라고 합니다. 제 몸 사분의 일은 한국인 피가 흐른다고 제 아버지께서 따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라이파이한이었던 아버지께선...”

외모와 유창한 한국어 덕분에 잠시 한국인이라고 믿었던 나는 라이파이한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왠지 불편한 마음이 들어 그만 눈을 감아버렸다. 곧이어 그의 소개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잠시 들리더니 차 안은 조용해졌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포장도 제대로 되지 않은, 한적한 길을 버스는 달리고 또 달렸다.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걸까? 흔들리는 몸을 바로 하며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 깊은 잠에 빠진 듯했다. 옆에 앉은 딸애마저 눈을 감고 있어서 물어

볼 수가 없었다. 첫째 날 숙소가 공항에서 한참 떨어진 리조트라고 하던 걸 뒤늦게 떠올리며 나도 슬며시 눈을 감았다.

사촌오빠의 부음을 전하는 올케의 전화를 공항 대합실에서 받았다. 비행기 승차 시각을 이십 분 앞두고 있을 때, 진동모드에 맞추어 둔 휴대폰이 조용히 몸을 떨었다. 화면에 사촌올케라고 뜨는 걸 보며 나는 잠시 망설였다. 올케와의 통화가 이번 여행을 막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어서였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수년째 고생하고 있다는 사촌오빠의 소식을 간간히 듣던 중이라 그의 사망 소식이 머잖아 전해올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여행과 문상. 어쩔 수 없이 둘 중 하나의 선택버튼을 누르듯 통화버튼을 질끈 눌렀다.

“오늘 삼우제 지나고…. 닷새 됐네요.”

맑고 고요한 음성이었다. 침전된 흙탕물 위로 시간이 지나면서 맑은 물만 떠오르듯, 오랜 간병 기간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다 가라앉힌 건가?

“아니, 왜 이제야 연락하세요? 오빠 문상을 당연히 가봤어야 했는데…. 이 더위에 어떻게 혼자 상을 치렀어요?”

문상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안도감에 나도 모르게 톤을 높여 과장된 목소리를 냈다. 그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올케의 입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 했던 말들이 흘러나왔다.

“오빠 유언이었어요. 이 더위에 괜히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불러 힘들게 하지 말고, 다 끝난 다음에나 알려라고 했어요. 민폐 끼치지 말라며….”

내가 사는 서울에서 남쪽 소도시 N시까지의 차로 대여섯 시간쯤 걸리는 거리이긴 하지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하나밖에 없는 사촌오빠의 문상을 마다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게다가 자식 하나 없는 오빠의 처지까지 생각한다면….

“오빠도 참, 몇 날 며칠씩 걸리는 거리도 아닌데…. 가시는 마당에 무슨 그런 염치까지 차려야 한대요? 언니 혼자서 어떻게 다 치렀어요?”

“근처에 사는 친정 식구들이랑 간단히 지냈어요. 배웅하는 자식 하나 없이 쓸쓸히 떠나는 길이지만 뭐 팔자이거니, 해야지요. 그래도 숨 거둘 때는 편안

하게 보였어요. 가기 며칠 전부터는 신음도 덜 하더라고요. 끄끙 앓는 소리 대신 나중엔 썩, 썩, 그러다가 뭐래더라. 토이어나, 로이어나, 뭐 그런 소릴 정신 없이 자꾸 해댔긴 했지만…. 어쨌든 마지막에는 덜 괴로워하는 것 같아 다행이다 싶었네요.”

“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한번 내려갈게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도 이제 명퇴해서 남는 게 시간이거든요.”

30년 넘는 교직 생활을 마치고 올 2월에 퇴직해서 몇 개월째 시간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지만, 오빠 병문안 갈 생각 한번 하지 못한 데 대한 자책감이 뒤늦게 들었다. 하지만 올케는 마치 오빠의 생일 잔치에 초대하듯 49재에 오라는 말을 밝은 목소리로 했다.

“그럼, 오빠 사십구재 때 오세요. 그쯤에 장소랑 시간을 정해 연락할게요.”

앞으로 40여 일 후쯤이면 무더위가 물러가고 가을이 찾아와 있을 것이다. 내가 나고 자란 N시의 가을을 아주 오랜만에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나는 탑승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게이트의 반짝이는 불빛을 따라 걸어가는데 문득 50년도 넘는, 시간의 저편에서 오빠의 생생한 목소리가 내 귓가에 울렸다.

“작은아버지, 잘만 하면 한몫 잡을 수 있답니다. 우리 어머니께 꼭 집을 사드리고 싶습니다.”

가족들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파병 용사가 되어, 그 시절에 월남이라 불리던 곳으로 떠나던 오빠. 그 오빠의 부음을 듣고서도 여행을 가기 위해 베트남행 비행기 탑승구로 향해 가는 나. 우리가 한집에서 살았던 시절이 아득하면 곳에서부터 숨 가쁘게 달려와 내 손을 잡을 듯했다. 나는 그 손을 슬며시 뿌리치고 여권을 찾아 쥐었다. 그리고는 깊은숨을 한 번 들이쉬었다가 내뿔었다.

하노이 외곽에 있는 리조트는 어둠 속에서 저 혼자 불을 밝히고 있었다. 선잠에서 깨어난 일행들은 캐리어를 끌고서 각자 배정받은 방으로 찾아가기 바빴다. 일단 푹 주무시고 12시쯤 로비에서 만나자는 가이드 청년의 말을 귓

으로 들으며 나는 딸과 함께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갔다. 복도 맨 끝에 있는 방의 호수를 확인하고 들어가서는 간단히 세수만 하고 침대에 누웠다. 그러자 바뀐 잠자리를 탓하며 몸을 뒤척일 새도 없이 깊은 잠에 나는 금세 빠져들었다. 눈을 떴을 때는 11시가 이미 넘은 시각이었다.

인원이 20명이나 되는 패키지여행이었지만 약속 시간을 어기는 사람은 없었다. 첫 목적지인 옌뜨 공원으로 향해 가는 버스 속에서 가이드 청년은 일행들을 둘러보며 이번 팀원들과 3박5일 동안 즐겁고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함박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러자 버스 뒷좌석에서 누군가 걸걸한 목소리로 불쑥 끼어들어 말했다.

“후 씨, 그 보조개가 백만 불짜리네. 어떻게 한쪽 뺨에만 살짝 들어갔지? 마치 손톱으로 콧 쪽어놓은 것처럼 말이야. 어쨌든 남자 얼굴에도 보조개는 역시 매력 포인트라구.”

그 말에 그는 약간 계면적은 얼굴이 되어 한쪽 볼을 문지르며 말했다.

“깜언. 저는 이 보조개가 아주 불만이었습니다. 여자들에게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쪽 다 있는 것도 아니고, 한쪽에만 손톱자국처럼 있어 흥터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러셨다고. 아들인 저희 아버는 없는데 대를 건너 손자인 제게 보조개가 있다면서… 한평생 할아버지 이야기는 좀처럼 입 밖으로 내지 않더니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제 뺨을 쓰다듬으면서 네 할아버지가 보고 싶구나,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보조개 때문에, 이젠 얼굴도 모르는 한국인 할아버지가 궁금하고 그리워졌습니다. 자, 제 보조개 이야기는 여기서 접고 우리가 갈 국립공원 옌뜨는 베트남에서 보기 드문 산악지대로 정상인 화안사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갈 겁니다.”

사십 년 넘게 서울에 살면서 타본 적이 없었던 케이블카를 하노이에서 타게 되다니. 피식 웃음이 났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도 숨 가쁘게 앞만 향해 달려갔을까? 그 덕분에 이제 우리가 살 만큼 되었다고 믿는 내게 남편과 아이들은 말

한다. 항상 혼자만 바르게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건 문제라고, 누구나 가끔 게으름을 부리기도 하고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는데 그걸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건 오만이라고. 그럴 때마다 나는 강하게 반박한다. 아니, 대체 내가 언제 게으름을 부리고 실수를 저질렀다는 거야? 말해봐. 난 결코 그런 적이 없어. 난 오로지 열심히 살아왔을 뿐이야. 내 반응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가족들을 보면 죽을힘을 다해 내가 달려왔던 길들이 눈앞으로 펼쳐지다가 어느 순간 아득히 멀리 사라져 버리고 만다.

덥고 습한 공기가 훑 얼굴에 와 닿았지만, 울창한 숲 사이로 나뭇잎들을 흔들며 간간이 바람이 불어와 견딜 만했다. 가이드 청년은 케이블카에서 내린 일행들에게 화안사로 안내해 경내 여기저기를 보여주며 설명하기도 하고 사진도 찍어주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간간이 농담을 던져 일행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이미 그와 친해진 몇몇은 휴대폰을 들고 함께 사진을 찍느라 바빴다. 그러다 여기저기서 도움을 청하는 이가 있으면 그는 기꺼이 달려가 해결해 주었다. 친절하고 예의 바른 그의 태도에 호감이 느껴졌다. 딸애도 나와 같은 마음이 드는 모양이었다.

“이번엔 우리가 가이드를 잘 만난 것 같아. 그치?”

“그러게. 다행이야.”

나는 웃으면서 대꾸했다. 그는 또 다른 절을 보여주기 위해 앞장서 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가파른 계단이 수도 없이 이어진 지점에 이르자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서 잠시 기다리시라고 했다. 딸애는 내 얼굴을 슬쩍 건너다보며 물었다.

“엄마, 괜찮겠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행 중에 내 나이가 제일 많을 것 같다는 짐작이 들자, 오기가 괜히 나를 부추겼다. 평소에 무릎이 불편하다고 불평했던 사실 따위는 까마득히 잊은 얼굴을 하는 내게 딸애는 재차 물었다.

“정말 괜찮겠어? 나중에 다른 소리하지 마. 난 몰라.”

“앤··, 날 늙은이 취급하네. 저깟 걸 내가 못 오르겠어? 중간에서 너더러 업어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 염려 마.”

살짝 눈을 흘기더니 딸애가 내 손을 잡아 왔다. 딸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지만, 경사가 워낙 가팔라 만만치 않았다. 서른셋인 딸은 올 연말에 결혼한다. 결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엄마와 둘이 여행을 다녀오고 싶으면서 고른 여행지가 베트남이었다. 한여름에 하필이면 베트남이냐고 했더니, 지금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덥긴 마찬가지라며 하롱베이의 동굴들을 보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딸애가 회사에서 받은 여름휴가 기간이 짧아 멀리 갈 수 있는 처지도 못 되었다.

“좀만 참아. 이따가 마사지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내 몸을 남에게 좀처럼 맡기지 않는 편이지만 여기서는 마사지를 받아줘야 남은 일정을 한결 수월하게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다 마사지 받는 장면을 상상해 보았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영상 하나가 떠올랐다.

으스스한 달빛이 스며드는 발 위로 어른어른 그림자가 비치는 아래채의 방문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대청마루에 앉아 부채질하다가 중얼거렸다.

“오늘도 형님이 민수안마를 받으시는구먼. 어찌 저리 효잘까? 혼잣손에 샅바느질하며 아들 하나 키워도 형님이 큰소리칠 만하시네.”

“그러게. 우리 형님이 저렇게 효자셨지. 형님 잃고서 어머니가 얼마 못 가실 줄 알았단니까. 그런 아들이 없어졌는데 뭘 낙으로 사시겠어? 민수라도 하나 남겨놓으셨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까딱 잘못했다가는 대가 끊길 뻔했으니··.”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는 그만 부채를 놓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딸만 다섯을 낳은 어머니가 더 이상 출산을 한다는 건 무리였다. 그걸 아는 아버지가 또 실수를 해버렸다. 두 형제뿐인 집안에 대를 이을 아들은 달랑 민수 오빠 하나였다. 앞으로 아들이 더 태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민수 오빠는 가문을 이어갈, 귀하디귀한 존재로 집안에서 여겨졌다. 그런 탓인지 큰어머니는 시동

생 집의 아래채에서 얹혀살다시피 하게 되었지만 늘 당당했다.

“아들 돈 게 큰 벼슬이여, 벼슬.”

자기 집의 한쪽을 내어준 것도 모자라 동서 시집까지 살게 된 어머니로서는 마음이 편할 리 없었다. 게다가 큰어머니는 늘 양반 행세하던 친정을 들먹이며 잘난 척까지 해대니, 어머니는 눈꼴 시리지 않을 수 없었던 모양이었다. 참다 못해 가끔 혼잣말로 세상이 달라질 날이 올 거라고, 딸들이 대접받는 날이 올 거라고, 어머니는 예언자처럼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곤 했다. 앞으로 바뀔 세상에 대비하기 위해선지 어머니는 딸 다섯을 악착스레 뒷바라지해 모두 전문 직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다. 그 후 어머니의 바람대로 세상이 바뀌었고, 딸 다섯은 모두 어엿한 직업인으로 중년의 나이를 넘겼다. 하지만 그걸 지켜봐야 할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도, 큰어머니도 모두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지 꽤 오래다. 집안의 하나 아들이던 민수 오빠까지 혈육 한 점 남기지 못한 채, 그 뒤를 이어 이제 떠나버렸으니….

민수 오빠가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큰어머니 얼굴은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떠 놓고 월남 간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길 빌던 시절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집 장만할 돈을 마련해 금의환향한 아들 덕분에 그간 누렸던 행복은 간밤의 짧은 꿈처럼 사라져 버린 모양이었다. 맑은 가을 햇살이 환하게 내리는 우리 집 마당을 걸어 들어오는 그녀의 얼굴 위로 칙칙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대체 뭐 때문인지, 원.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한의원에서 약을 몇 재나 먹었는데도 왜 소식이 없는지 모르겠단니까. 용한 무당한테 푸닥거리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네. 자네, 혹시 잘 아는 무당 없는가?”

“형님도 참, 그랬다면 제가 진작 푸닥거리하고 아들 낳았겠네요. 차차 생기겠지요, 뭐. 혼인한 지 십 년 지나서 낳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둘 다 아직 젊고 아무 이상이 없단니 기다리면 되겠지요.”

어머니의 말은 듣기에 따라 가시가 돋쳤다고 느껴질 법도 했지만, 큰어머니

는 그런 걸 따질 경황조차 없어 보였다.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니 걱정한 게지. 월남 갔다 온 사람 중에 아이 못 낳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소릴 얼마 전에 들었다네. 아니면, 기형아가 나오기도 하고…”

“왜요? 이유가 뭐래요? 괜히들 해쌍는 소리겠지요, 뭐.”

궁금증으로 생기가 도는 어머니의 얼굴을 슬쩍 피하며 큰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웅얼거렸다.

“약 때문이라나. 나무에 뿌리는 제초제를, 그걸 많이…. 아니네. 설마 이 덕 조상님들도 양심이 있으면 대 이을 자식을 뉘 수라도 점지해 주시겠지. 달리 뵈술 사람이 누가 또 있길 하남. 암, 우리 민수 하난데.”

큰어머니는 돌연 태도를 바꾸어 조상님들에게 강짜라도 부러볼 심산인지 뒷말은 자신만만하게 했다. 그런 큰어머니를 바라보는 어머니는 그러면 그렇지 뭐, 하는 낫빛이 되어 입가에 싸늘한 웃음을 지었다.

“내 맘 하나만 바꾸면 되거늘. 이 세상 어디에서든… 민수 자식이기만 하면… 그만 갈라네.”

무슨 소린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혼자 웅얼거리더니 큰어머니는 다시 당당해진 모습으로 우리 집 대문을 나섰다. 그런 큰어머니를 배웅하고 어머니는 평상 위에서 가을벌에 잘 마르고 있는 고추들을 뒤적거리며 중얼거렸다.

“당최 저 속을 알 수 없다니까. 지금까지 죽을상을 하고 있더니, 갑자기 뉘 소리래? 민수가 아이를 남모르게 낳아 어디 숨겨놓은 것도 아닐 테고…. 하여튼 알다가도 모를 양반이야.”

나는 마루에 걸터앉아 벌에 잘 말라 보송보송한 빨래들을 개고 있다가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무엇이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다. 그걸 놓칠세라 나는 빨래들을 와락 움켜 잡았다.

어슴푸레 빛나던 하현달, 만삭이 된 배를 안고 있는 여자, 여자의 옷자락을 왱살스럽게 잡아끌고 가던 큰어머니의 당황한 몸짓… 그 광경을 우연히 골목 입구에서 마주치게 된 나는 숨죽이며 훑쳐보다 뛰는 심장을 감당하지 못해 그

자리에 주저앉기까지 했다. 희미한 어둠 속에서 드러난 이목구비지만 한눈에도 동남아 여자라고 여겨졌다. 여자는 큰어머니에게 양 손바닥을 비비며 뭐라고 울부짖었다. 미처 말이 되지 못한 소리가 푹 푹 끊어지면서 어둠 속에서 나지막하게 울렸다. 내 귓가를 안타까이 두드리는 여자의 울부짖음. 나는 어쩔 수 없는 심정으로 여자의 얼굴 위를 비추는 달을 올려다보았다. 반만 남은 달이 여자의 눈 위에서 애잔하게 흔들리며 빛났다.

다음날은 큰집 식구들이 새로 장만한 집으로 이사하느라 모두 분주했다. 그리고 얼마 동안 나는 그들이 떠나간 빈방을 내 방으로 만드는 일에 몰두했기 때문에, 그 광경을 목격한 걸 그만 까마득히 잊고 지낸 터였다.

오빠가 결혼한 지 십 년이 지나면서 친척 어른들이 모여 양자 운운, 할 때면 나는 만삭의 동남아 여자와 그녀의 반달눈과 희미하게 빛나던 하현달을 떠올렸다. 그리고 나면 문득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 뱃속 아이는 세상에 무사히 나왔을까, 잘 자라고 있을까, 아들일까, 딸일까, 오빠는 그 아이 존재를 알고 있을까….

엮힌 여자의 손끝에서 그동안 멍쳐 있었던 내 몸의 근육들이 풀리면서 팔다리가 녹신거렸다. 아야야, 기분 좋은 비명을 지르는 내게 딸애는 옆에서 나란히 마사지 받다가 말을 걸었다.

“거봐, 좋지? 앞으로 서울 가서도 종종 받으러 다니자.”

방 여기저기서 낮은 비명과 웃음소리가 울리다가 부스스한 머리매무새로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보며 딸애와 나도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지고 일어날 채비를 차렸다.

마사지가 끝나자, 가이드 청년은 일행을 수상 인형 극장으로 안내하기 위해 버스로 안내했다.

“마사지 잘 받으셨습니까? 하루 종일 눈에서 일하고 오시는 할머니를 우리 아버지는 열심히 안마해 드리곤 했습니다. 그걸 보고 자란 탓인지 저도 우리 어머니에게 자주 안마해 드립니다. 이제 제 안마 실력도 수준급입니다. 지금

부터 삼십 분쯤 후, 수상인형극을 보게 될 겁니다. 이걸 일생에 딱 한 번만 보면 된다고들 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볼 만하다는 말입니다. 흥 강 유역의 농민들이 수확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가이드 청년의 말을 똑 자르고 앞좌석에 앉은 남자가 엉뚱한 소리를 해댔다.

“가이드님, 아주 효자일세. 난 우리 아들놈한테 지금껏 한 번도 그런 효도를 받아본 적이 없다네.”

그러자 뒤편에서 누군가 괄괄한 목소리로 받아쳤다.

“요즘 세상에 똥 아들 안마여? 바람 걸 바라야제. 효도는 개뿔!”

효도는 개뿔이라고, 하는 말에 나는 씩쓰레한 웃음을 지었다. 그러다 청년의 얼굴 위로 효자라고 칭송을 듣던 민수 오빠의 얼굴이 슬며시 겹쳐 내 눈앞에 떠올랐다.

수상인형극은 농민들의 축제를 다룬 이야기로 가이드의 말대로 한 번은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형극이 끝나자, 그는 우리 일행을 식당으로 안내하면서 앞으로의 일정에 관해 설명했다.

“이 근처 베트남식당에서 저녁을 드시고 호텔에 들어가는 것으로 일단 오늘의 일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내일은 하롱베이에서 배를 타고 동굴 구경을 한 후, 선상 뷔페로 점심을 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자유 시간 후, 저녁에 야시장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언제 들어도 가이드 청년이 하는 한국말은 정확하고 매끄러워 마치 모국어 처럼 느껴졌다. 저 정도로 남의 나라말을 하자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을까? 얼굴도 모르는 할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던 걸까? 이런 생각들을 머릿속으로 해가며 나는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퇴근 시간인지 도로가 혼잡했다. 길가에 열대과일 행상들이 줄지어 앉은 테를 거침없이 오토바이들이 파고 들어갔다. 그 광경을 보자 나는 두렵고 아찔하게 느껴졌지만, 상인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었다. 오토바이 수가 인구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답게 그들에게는 늘 겪는 일상인 모양이었다. 가

이드 청년의 말은 계속되었다. 오토바이가 마구 거리를 누비며 다니고, 신호등과 횡단보도도 거의 없지만 교통사고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무질서 속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오랜 식민지 생활과 전쟁을 겪은 이 나라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과 협동으로... 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몇 개월 전까지 국사 교사인 나도 저렇게 힘주어 교단에서 우리 민족에 대해 설명하곤 했었다.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는 끊임없는 외세의 침입을 받고, 결국 일본 식민지 생활까지 했지만, 민족의 긍지를 잃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한 번도 우리가 남의 나라를 침입한 적이 없기 때문이지요. 비록 피해를 입긴 했지만, 피해를 준 적이 없기에 떳떳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른 나라를 침입할 힘이 없어서라고 하지만 그보다는 남을 괴롭히지 않는, 우리 민족성 때문이에요. 이런 설명을 들은 아이들의 반응이 너무나 심드렁해서 나는 맥이 빠졌지만,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은 변함이 없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음식점에 도착했다. 분짜와 쌀국수, 샐러드로 푸짐한 저녁 식사가 나왔다. 식사 시간이 삼십 분이라는데 젓가락을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는 딸애를 나도 모르게 재촉했다.

“내가 제일 싫은 게 뭘 줄 알아? 급하게 밥을 먹어야 할 때야. 그리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며 체한 것 같아. 엄만 늘 밥상머리에서 빨리빨리, 정말 짜증 난다고.”

평소와 달리 발끈하며 젓가락을 놓는 딸애를 어이없이 바라보다 나도 젓가락을 놓고 말았다. 정해진 시간을 어기지 않게 하려는, 딸애에 대한 나의 배려가 무참하게 박살이 나버렸다.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멍한 얼굴로 나는 중얼거렸다.

“진작 말을 하지. 삼십 년이 넘도록 어떻게 참았대? 정말 어이가 없네.”

“말했으면 엄마가 들었을 것 같아? 늘 혼자만 옳지. 엄마 말이 우리 집에서 법이잖아.”

그러면 끝까지 입을 다물던지, 하필이면 이런 곳에서... 느닷없는 딸애의 공격에 성질대로 할 것 같으면 짐을 싸 들고 바로 공항으로 가버리겠지만 낯선 나라에서 그럴 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행의 눈들을 모른 채 하기 힘들었다. 나는 무슨 정신으로 식당을 나와 호텔 방까지 왔는지 모를 정도였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휴대폰에서 카톡 메시지 들어오는 소리가 연방 났다. 가족 채팅방에서 남편과 아들애, 딸애가 서로 문자를 주고받는 모양이었지만 나는 모른 채 했다. 내 딸이 우리 집에서 범이라는 딸애의 말을 곱씹으면서 가족들에게 나도 모르게 저지른 잘못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다가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딸애는 활짝 갠 얼굴로 조식 뷔페를 먹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날라다 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들을 먹기도, 밀쳐놓기도 곤란해 난감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러다 문 입구에 서 있는 가이드 청년을 발견했다. 청바지에 푸른색 체크 남방셔츠를 입은 그의 모습이 하도 눈에 익어 내 기억 속의 사람들을 떠올려 보다가 피식 웃고 말았다. 베트남 청년이라는 걸 그만 깜빡하다니, 나도 참. 어이없어 웃는 내 웃음에 영문도 모르는 딸애가 배시시 따라 웃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 웃으니까 아직 예쁘시네. 화내면 주름살만 늘어요.”

“망할 것, 에미를 놀리고 있어.”

내 기분도 그만 풀려 커피를 훌쩍거리며 호텔레스토랑의 창을 바라보았다. 눈부시게 맑고 푸른 하늘과 바다가 끝없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딸애는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고서 배 타기에 딱 좋은 날씨라는 소리를 몇 번이나 했다.

하롱베이로 가는 버스 속에서 가이드가 삿갓처럼 생긴 모자를 들고 말했다.

“이 모자가 눈에 익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베트남어로 농이라고 하는데, 햇볕과 비를 모두 가려주기 때문에 여기서 필수랍니다. 오늘 배를 타고 나가실 때 필요할 것 같아 제가 여러분께 선물로 하나씩 나눠 드리겠습니다.”

모자를 쓰고서 딸애와 나는 깔깔거리며 웃다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몇 번 찍었다. 선착장에 도착하니 바람이 심하게 불어 우리는 모자를 손으로 꼭 잡고

유람선에 올라탔다. 바다 한가운데로 배가 나아가자 오랜 해풍과 파도에 침식된 기암괴석과 여러 섬 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그럴 때마다 가이드는 전해오는 이야기들을 열심히 설명했고, 어느 나라나 비슷한 전설에 우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유람선에서 내려 동굴들을 구경하러 다녔다. 수십 개의 계단을 오르내리며 황금빛 증유석과 기묘하고 다양한 석순들을 보자 연방 탄성이 튀어나왔다. 다른 여행객들과 마찬가지로 딸애도 열심히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에 바빴다. 동굴 속이지만 기온은 바깥과 다름없는 데다 습하기까지 해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밖으로 나왔을 때는 온몸이 눅눅하게 젖어 마치 비라도 맞은 듯했다. 젖은 몸을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닷바람에 말리며 다시 유람선 위에 오르니 여러 가지 해물과 채소로 푸짐한 식사가 마련되어 있었다.

우리 식탁 맞은편에 앉은 일행 하나가 마치 신선이 된 기분이라며 흥얼거리더니 휴대폰으로 음식들을 찍기에 바빴다. 그 말에 나도 공감하다가 다음 날이면 돌아가 일상과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한숨이 나오려 했다. 밀린 집안일이며, 딸애 결혼 준비며, 참석해야 할 모임들... 아, 무엇보다도 올케를 찾아보는 일이 제일 시급했다. 49재 때까지 모른 채 하고 가만히 있는 건 경우가 아니지 않은가? 더구나 문상도 못 했는데...

이십여 년 전, 중풍과 치매로 고생하던 큰어머니의 부음을 듣고 나는 퇴근 후에 밤 기차를 타고 N시로 내려갔다. 11월 중순인데 코트 속으로 들어오는 새벽바람이 매워 온몸을 부르르 떨어가며 겨우 택시를 잡아탔다.

“오느라고 고생했지요? 벌써 겨울이 시작되는지 날씨가 추워졌어요.”

영안실 입구에서 내 손을 잡아 오는 올케에게 나는 말했다.

“언니,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저야 뭐... 오빠가 고생하셨지요.”

요양병원을 마다하고 끝까지 집에서 간병한 오빠와 그걸 원했던 큰어머니 탓에 가장 힘든 사람은 올케라는 걸 나는 모르지 않았다. 큰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봉양하는 오빠 이야기가 미담처럼 종종 들려왔지만, 며느리 입장이 되어 효

자악부(孝子惡夫)라는 생각이 내겐 먼저 들었다. 어쨌든 오빠는 그동안 간병하느라 고생한 탓인지 한쪽 볼에 볼우물이 움푹 펠 정도로 흘쭉해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러자 나는 예전의 오빠 모습과 함께 바쁘게 사느라 잊고 있었던 지난 시절을 안타까이 떠올려보았다. 밤하늘의 별자리를 가르쳐준 사람도, 우리 집 뒷산에 핀 야생화들의 이름을 말해주는 사람도, 마당 한구석에 핀 봉숭아 꽃으로 내 손톱을 물들여 준 사람도 다 오빠였다. 그 시절, 준수한 외모에 다정 다감한 오빠를 나는 최고의 남자로 여겼었다. 이제 그때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겨우 오십 대 중반에 중늙은이처럼 되어버린 오빠를 보자 나는 잠시 할 말을 잊었다.

“민주 왔냐? 학교는?”

“월차 냈어요. 송 서방은 출장 중이라 저 혼자 왔어요.”

오빠와 달리, 영정 속의 큰어머니는 젊고 고운 모습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가 너무 낮설어 나는 슬프기보다 당혹스러웠다. 큰어머니가 평생 굳은 얼굴로 지내신 탓이라고, 저렇게 웃으시니 얼마나 보기 좋으냐고, 내 심 아쉬워하며 절을 올렸다.

“워낙 깔끔하신 분이러 더 견디기 힘들어하셨어요. 나중에는 정신이 흐려지시니까 사람을 찾으러 월남 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조상님들께 면목이 선다나요. 당신 실수로 놓쳤다면서.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두 손바닥을 짹 짹 비시기까지 하시면서... 대체 뭘 놓치신 건지, 평생 실수라고는 하지 않으셨다는 분이...”

“그 쓸데없는 소릴... 내가 예전에 월남 간다고 했을 때 큰 충격을 받으셨겠지. 옆에 나를 두고도 월남 가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나 봐.”

오빠는 민망해하며 올케의 말을 막았다. 하지만 순간 짐작 가는 것이 있어 내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오갔다. 설마 그 여자를, 그 여자의 뱃속 아이를? 오빠는 다 알고 저러는 걸까? 아이 없는 아들 부부를 보며 큰어머니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으리라. 세상을 떠날 즈음에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후

회하셨던 걸까? 장례를 치르는 내내 나는 그 생각들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양자를 들먹이던 집안 어른들은 모두 저세상으로 떠나고, 21세기와 더불어 대를 잇는 문제는 더 이상 우리 집안의 중요한 이슈가 되지 못했다. 그 덕분인지 그들 부부는 한동안 평온하게 지내는 것 같더니, 결국 고엽제에 오빠의 발목이 잡혀버렸다.

“세상에, 이게 뭐야? 하늘에 가 닿을 죄악. 만 대를 기억하리라. 아유, 끔찍해. 베트남에 있는 한국인 증오비래. 이런 게 육십 개가 넘는다고? 난 그동안 몰랐어. 엄만 알고 있었지? 국사 선생님이었으니까. 우리 조상님들만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줄 알았는데 실망이야. 만날 우리만 당했다더니, 남의 나라에 나쁜 짓을 저지른 걸 보면 똑같네. 쫘쫘.”

호텔 방에서 딸애는 야시장에서 사 온 용과와 람부탄을 먹으면서 인터넷을 하다가 말했다. 클렌징티슈로 얼굴을 닦던 나는 그 말에 잠시 손을 멈추었다. ‘한국인 증오비’라는 단어를 학생들 앞에서 한 번도 일컫지 않고 교단생활을 끝낸 것은 과연 잘한 일일까, 잘못된 일일까? 뭐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그런 나를 돌아다보며 딸애는 또다시 답을 재촉했다.

“뭐라고 설명 좀 해봐.”

“그야 국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트남전쟁이 그 당시 우리 경제에 큰 보탬이 되긴 했지.”

어정쩡한 내 대꾸에 딸애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크크,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네. 어쨌든 우리가 미안해서 이제 여기에 병원도 짓고, 건물도 많이 짓고 한다나 봐. 그렇게라도 해야지, 뭐”

나는 손끝에 힘주어 덕지덕지 남은 화장 얼룩을 마저 닦아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역사의 오점도 이렇게 닦아내고 싶었다.

다음날도 날씨가 화창했다. 일행들은 하나같이 농 모자를 손에 들고 버스에 올라탔다. 가이드 청년도 한 손에 쥐었던 농 모자를 좌석에 놓고서 마이크를 잡았다. 여전히 유창한 한국어로 그는 여행 마지막 날의 일정을 설명하기 시작

했다.

“앞으로 두 시간 정도 가면 다시 하노이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일정은 호안끼엠 호수를 둘러보고, 그 근처에 있는 옥산사에 갈 겁니다. 그리고 자전거 인력거인 씨클로를 타본 후, 성요셉 성당에 가고, 마지막 코스로 롯데 전망대에도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석식을 마친 후, 밤 비행기를 타고…”

차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가이드 청년의 까무잡잡한 얼굴 위에서 아른거리자 아직 옛된 티가 남은 그가 미소년처럼 보였다. 저 청년을 따라 낯선 나라를 사흘씩이나 누비고 다닌 일이 갑자기 아득한 꿈처럼 여겨졌다. 이제 몇 시간 후면 떠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리라. 그러자 한국을 떠나기 직전에 걸려 왔던 올케 전화가 문득 생각났다. 오빠가 마지막에 신음 대신에 했다는 말, 썬… 로이? 토이? 그건 어느 나라 말일까? 무슨 뜻일까? 아무리 궁금해도 물어볼 오빠가 없다는 생각이 들자, 그의 죽음이 그제야 현실로 와 닿았다. 청년은 마이크를 잡고 베트남문화에 관해 설명하다 내릴 때가 다 되었다고 했다.

“자, 이제 여기서 내려 호안끼엠 호수와 옥산사를 보고, 씨클로도 탈 것입니다. 햇볕이 많이 뜨거우니 제가 드린 농을 쓰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가이드 청년은 보란 듯이 쥐고 있던 마이크를 좌석에 내려놓고 농을 썼다. 모자 아래로 약간 튀어나온 광대뼈와 쪽 뺨은 코가 강조되면서 청년의 모습이 약간 달라 보였다. 그러자 순간 내 눈앞에 흑백사진 하나가 떠올랐다. 농 모자를 쓰고 월남서 보내온 오빠 사진. 큰어머니는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걸어두고 오빠 대신이라며 늘 바라보곤 했었다. 사진 속의 오빠가 튀어나온 듯한 청년의 모습에 나는 그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가 버스 출입구 쪽으로 나갔을 때 청년은 벌써 앞장서서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옆에서 뭐라고 제지하는 딸애의 말을 귓등으로 듣고 그의 뒤를 바짝 쫓아갔다. 그러다 갑자기 그가 몸을 뒤로 돌리는 바람에 내 몸과 부딪치고 말았다. 당황해하며 그가 내뱉는 말이 순간 내 귀에 꽂히듯 들어왔다.

“썬로이. 아, 미안합니다.”

썬로이가 미안하다는 말이구나! 나도 모르게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내 입에서도 같은 말이 흘러나왔다.

“썬로이.”

호안끼엠 호수가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다. 찰랑거리며 빛나는 호수 수면 위로 꽃히는 햇살을 부신 눈으로 바라보다가 나는 이런저런 속엿말을 해보았다. 혹시 소민수라는 이름을 들어봤습니까?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할아버지 성함을 물어봐도 될까요? 아주 오래전에 할머니께서 한국에 다녀가셨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만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중얼거렸다.

“설마? 아닐 거야. 아니야. 나도 참... 미쳤어, 정말.”

어쩌면 여행 내내 민수 오빠 생각에 내가 너무 깊이 빠진 탓인지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왜 그래?”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보는 딸애의 눈길을 피하면서 중얼거렸다.

“네 오촌..., 민수 아저씨랑... 너무 닮았어.”

“누구? 저 가이드? 그 아저씨 근처에도 안 간 것 같은데, 뭘. 라이파이한이라는 말에..., 엄마도 참, 정신 차려.”

어이없어하는 딸애의 말에 나는 그만 비시시 웃고 말았다.

그새 저만치 앞장서 걸어가던 청년이 호수 위의 붉은색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한낮의 환한 햇살 아래 드러난 그의 곧고 탄탄한 등이 눈부시게 아름답다. 그 위로 오빠의 음성이 자꾸만 울려서 나는 듯했다.

“썬...로이...썬...로...이...”



엄현주

· 평사리문학대상, 법계문학상(장편동화), 작가 포럼 문학상 수상, 아르크 창작지원금 수혜. 투망(단편소설집), 불꽃선인장(단편소설집),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장편소설), 온화한 슬픔(장편소설집). 공동 작품집으로 기침 소리, 카페인 랩소디, 코비드 19의 봄 등 다수

하늘이 열린다

이예원

오상철이 죽었다. 그와는 50여 년이나 친구라는 관계를 유지해온 터이고, 나는 동기 동창회장을 맡은 터라 문상은 자연스러운 발길이었다.

정년까지 채운 공직생활을 한 오상철은 장식용 꽃에 둘러싸인 영정 사진 속에서 환히 웃고 있었다. 부인이 아직 혼전인 두 딸과 상 주로 서 있는 빈소는 예상보다 한적해서 마지막 가는 길의 장내는 허허로울 정도로 행하다.

구석에 자리 잡은 친구가 손짓하는 곳으로 가니 중학교 동창 서너 명이 앉아 있다. 같이 오기로 약속했던 친구들이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라 주먹 악수를 하고 흘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다들 왔다가 갔나 보지?”

“어제, 밤 11시에 가서 내일이 발인이라니까, 오늘 대부분 문상을 올 텐데, 너무 썰렁하지?”

“그러게 말이야.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디나 그렇지만, 직장에서는 아무도 안 온 거 같지?”

“그런 거 같지?”

“.....”

말없이 장내를 둘러보는 다른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내 머릿속은 몇 년 전 어떤 직장 동료의 한 말이 떠올라 기분이 씁쓸하다.

“오상철 씨하고 ○○고교 친구라지요?”

“아니, 중학교 동창이지요.”

“그 친구가 그 ○○고등학교는 나왔어요? 그 친구는 김형과 ○○고교 동창이라서 아주 친한 것처럼 말하던데.

“.....”

그가 기다리는 답변 시간을 긍정도 부정도 못하고 침묵으로 어정쩡 하자, 그가 다시 말했다.

“김형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두고 있지요?”

나의 침묵을 견디고 난 그가 무심히 흘려보낸 말이었다.

그의 말투로 보아 그와 직장 동료들은 이미 오상철의 거짓 허세를 비웃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가 모른 척하는 것을 면박 주듯 그는 볼멘소리를 던지고 사라졌다. 오상철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에 대한 소문이라 별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쩌다 만나게 된 자리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는 특히 더, 직장 동료가 아닌 친한 친구에게 하는 언행을 보이는 일이 가끔 있기는 했다.

오상철 문상을 마치고 집에 가는 동안 근래 들어 갑자기 세상을 떠난 친구들이 꽤 많다는 생각을 하며, 새삼 노년에 접어든 자신의 나이가 느껴져 우울하다.

어쩌다 동창회에서 만나기도 했지만, 그의 소식을 들은 것은 몇 달 전, 그가 담낭암 수술을 받았다는 소문이었다.

오상철이 공무원이 되어 같은 부처로 오기 전인 청년 시절에는 다른 친구들보다 만나는 횟수가 오히려 잦았던 적도 있다. 사법시험 공부를 한다며 여러 해 이곳저곳 산사에 가기도 하던 그가 서울에 오면 우리 집으로 자주 찾아왔다. 그럴 때는 그가 바둑을 잘 두어 좋은 적수로 종일 시간을 같이 보낸 적도 있었다.

오상철이 중학교에 다닐 때는 우수한 몇 명에 낄 만큼 공부도 잘하는 애였다. 그런데 그는 자기형이 당시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앙정보부에 나간다니면서 어깨를 잔뜩 올리고 힘을 주며 걷는 품새의 언행을 해서, 어리고 순진무구한 동급생들 기를 죽이는 행태를 보여 특별한 인상을 주기도 했다.

내가 oo고교에 입학하고 2년쯤 지난 후에도 재수를 하고 있던 그가 나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을 만든 것도 바로 그런 허세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리라.

어느 해 겨울 방학 중에, 그가 집에 찾아와 교복을 하루만 빌려달라면서 하는 말이 “매주 금요일 저녁에 가정 교사를 하고 있는데. oo고교의 특별한 명찰이 달린 교복을 한번 입고 가고 싶다.” 것이었다. 학교 앞에서 특별한 스티치로 마감 처리된 마름모꼴 모양의 제 이름 명찰까지 만들어 와 사정하였다. 썩 내 키지는 않았지만, 방학 중이라 별일이야 있겠나 싶고 거절하기도 어려워 교복을 빌려주면서 당부하는 것만은 잊지 않았다.

“다음 주 월요일에 개학인데, 오늘이 목요일이니 금요일 하루만 입고 토요일까지는 꼭 가져와야 한다. 알았지?”

“걱정하지 마. 내일, 금요일 하루만 입고 돌려줄게.”

하지만 그는 일요일 저녁이 되도록 오지 않았다. 당시는 부잣집만 백색 전화라는 걸 쓰던 시절이라, 우리 집도 그의 집도 전화는 없었다. 그는 우리 집을 알고 찾아왔지만, 나는 그가 먼목동에 산다는 것밖에 몰랐다. 일요일 밤새도록 기다렸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부모님께서는 말도 못한 채, 잠도 못 자고 애를 태우며 내 머리통만 두들겨댔다.

새벽 여섯 시쯤에 대문 밖에 나가 종종걸음을 치며 그를 기다렸다. 7시 반에는 집에서 떠나야 하는데, 속이 새까맣게 났다.

골목 어귀에서 뛰는 발자국 소리가 나며 그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그가 말없이 내민 교복을 낚아채 내 명찰 위에 얹힌 그의 명찰을 떼서 집어 던지면서 “미친 놈!”을 내뱉고 돌아섰다.

그는 재수도 실패하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후, 서울대를 목표로 몇 년 공부하는 것 같았다. 그 후엔 사범고시로 목표를 바꾸고 여기저기 산사로 공부하러 들어갔다는 소문도 들렸다.

과학자가 되겠다는 목표로 물리학과 도전을 했으나 2지망 학과로 입학해서, 학과에 마음을 못 붙인 나는 3학년부터는 고시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마침 고시생을 대상으로 허락되는 00대학 법선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학과

도 바꾸고, 아예 고시 준비에 전념하게 됐다.

방학 동안, 계룡산 감사의 어느 암자에 삼 개월 작정 입주를 하고 있던 어느 날 그가 눈앞에 턱 나타났다. 연유를 물어보니 그도 행정고시 공부차 입주를 시작했고, 내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내 동생한테 들어 알고 왔다는 것이었다.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야 친구니까 가르쳐주고 정보도 주었다. 귀찮기도 하거니와 쓸데없는 노력으로 보이는 그의 열정이 딱해 조연 삼아 충고를 했다.

“너, 잘못하다가는 중요한 시기를 다 놓쳐버릴 수도 있어,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해 보는 게 어때? 우선, 4급 주사 시험(지금의 7급 공무원 시험)부터 치르고, 고시는 천천히 해도 되잖아.”

“빠른 길로 가 보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구나....”

내가 행정고시에 합격해 건설부로 발령받아 정부종합청사 근무를 시작한 다음 해, 그는 4급 주사 시험에 합격해 내 앞에 나타났다. 자기도 주택국을 희망해 들어왔다고 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중견 공무원에게 2년 동안 해외 연수 기회가 부여되는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어, 나는 첫 희망자로 선발돼 영국에 나가게 되었고 고생 끝에 기간 내에 석사학위를 마쳤다.

그러는 동안 나라 안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유고로 지도자가 벌써 바뀌어 있었다.

정치적 요동보다도 내가 더 피부적인 변화를 느낀 것은 정부종합청사에 군 출신 고위직이 아주 많아졌다는 것이다. 당시는 건설 붐이 한창일 때였다. 별정직 공무원으로 들어온 그들에게 건설부는 다른 부서보다 전문 지식이 부족해도 만만하고 구미가 당기는 부처였으리라. 그렇지 않아도 별정직 공무원으로 공보관 등 상위직에 군 출신들이 많이 진출해서 경험을 했던 터라 걱정이 앞섰다.

김재규가 정보부장 되기 전에 건설부 장관이었고, 그 밑의 요소요소에 군 출신이 포진해 있어 그들의 속성도 어느 정도 학습되어 온 터였다. 김재규 장관

이전에도 역시 군 출신인 모 장관이 모 지방청 청사에 시찰을 나와, 군 내무반 시찰로 착각했는지, 검지 손가락으로 창가의 먼지를 훑어본 행적은 유명한 일화였다. 기술고시나 행정고시 출신을 제외한 고위직에 많은 군 출신들이 과장 국장으로 앉아 있었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서정쇄신”의 일환으로 공무원 인사이동을 대규모로 한 지라, 나는 귀국해서 전에 있던 본부에 못 들어가고 00 지방국토관리청에 근무하게 되었다.

청의 살림을 맞고 있는 서무과장 역시 군 출신이었다. 월요일마다 조회시간이면 훗한 인물의 청장이 청렴한 공무원에 대해 훈시를 했다.

청에서 맡은 업무가 부실시공 방지 감사하는 일이라 외근이 많았는데, 한두 달 지내는 동안 용돈은 풍족해졌다. 대접을 잘 받으니 그러저럭 기분이 좋았다. 아내에게 추가 생활비를 내어 줄 때 좋아하는 모습에서, 보잘것없는 박봉 월급봉투에 시큰둥하던 모습이 비교되기도 했다.

그렇게 이삼 년 지나는 동안 아파트 평수도 바뀌고, 아이들 모습과 찌들었던 아내의 모습도 조금씩 바뀌고 있었지만 정작 편치 않은 건 내 마음이었다.

청 내의 주변 사람들도 다 같은 상황일 테지만 출근하자마자 외근 나가는 뒤 통수가 괜히 근지럽고 표정 관리도 적당히 해야 했다. 때로는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까지 들어서 외근이 내키지 않는 때가 많아졌다. 본부와 다른 생활에 익숙지 않은 것 같았다.

본부에서 정책을 기안하고 수행하던 자부심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어렵지만 중앙부서에서 일하던 엘리트 의식은 언제였던가 싶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안부를 물을 때면 으레 나오는 답변은 “본부에 다시 들어가야지.”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폼 좋고 청백리상을 부르짖던 청장이 거금의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다. 그가 구속되는 장면의 뉴스를 TV 화면에서 보며,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일까?’ 걸리면 죄가 되고, 안 걸리면 죄가 안 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다.

분명한 것은, 수갑 찬 그의 모습 위에 내 모습이 잠깐 오버랩 되는 것을 느끼며 뭔가 편치 않은 기분이 가슴을 훑고 지나갔다는 것이다.

오상철의 소식은 동창회를 나가지 않아도 다른 친구를 통해 가끔 들려 왔다. 적지 않은 발전기금을 쾌척하는 것으로 보아 경기가 꽤 좋은 모양이라고 했다. 내가 다음 해에 근무하게 된 부서는 본부의 00 계획과였다. 다시 청정 지역에 온 듯한 기분이었다. 그런데 내 귀에 들려온 소문은 “그곳이 얼마나 더 좋기에 옮겼나?”였다.

아무려나 마음은 편 했다. 그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얼마 후, 부서 변동이 있어 옮겨간 도시계획과의 P 과장도 영관급 군 출신이었지만 사람은 좋아 보였다.

4년 동안 비토당했던 문건의 온천부지 허가서가 들어있는 결재서류를 들고 그의 책상 앞에 섰을 때, P 과장이 흔쾌히 사인을 하며 말했다.

“이게 또 왔어요?”

“잘 살펴봤는데, 별 하자가 없어서요.”

“그 사람, 아주 좋아 했겠네.....?”

“네....., 좋아하더라구요.”

입가에 설핏 흘리는 야릇한 그의 미소에서 뭔가 집히는 게 있었지만, 말없이 서류를 들고 나왔다.

며칠 후 열린 사무실 회식에서 드디어 P 과장이 속내를 드러냈다. 작정을 한 듯 일찌감치 취기를 올려놓은 그가 건너편에 앉은 나를 손짓해서 가까이 다가간 내 귀에 입을 대고 나지막하지만 당차게 쏘아붙인 말은 “너 혼자 처먹니?”였다. 그제서야 나는 그동안 그가 마주칠 때마다 뭔가 못마땅한 표정을 보여 의아했던 의문이 확 풀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날 회식비를 K 주사에게 넘겨준 게 답례로 받은 전부였다는 것을 말할 분위기가 이미 아니었다. 그의 눈에 노기와 분노가 넘치도록 실려 있었지만 나도 할 말이 없었다.

그의 속뜻은 알 수 있지만, 해명할 시간도 지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입을 다물었다. 새 부서로 오면서 나는 이미 나의 중심을 다스리는 기둥 하나를 마음속에 단단히 세워 놓았기 때문이었다.

직책상 해야 할 일들이 많은 중에는 자연스럽게 부딪치는 일 말고도, 때로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무력함을 느끼는 혼란 속에서 괴로울 때가 있었다. 일상의 평범 속에 있는 악, 자신 속에 있는 악의 경향성과 싸워야 하는 일은 자신을 곧추세워야 하는 마음속에 기둥 하나를 세워 놓아야 가능했다.

아무튼, P 과장과의 일을 겪고서야 자신이 처한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다. 혼자 소신을 지키겠다고 한다면 자릿값도 못 한다는 눈총이거나 먹이 사슬도 모르는 염치없는 놈이라는 눈총을 견뎌야 한다는 것도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 그래도 내 머릿속을 광 때리는 그 말을 듣기까지는 그러저럭 견딜 수 있었다.

불면증이 있는 아내는 일찌감치 자리에 들면서 목사의 설교 CD를 틀어놓고 잠을 청하는 게 오랜 습관이자 처방이었다. 나도 특별히 거부감이 없이 같이 듣다가 잠을 자곤 했다.

그날도 예외 없이 잠자리에서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날 이후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고심을 하게 된 것을 나는 우연이 아닌 어떤 거룩한 존재의 권고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성경의 시편 어떤 구절에 나오는 어느 시인의 기도문이라는데, 그것은 뜻밖에도 늘 흔들리는 존재인 나, 내 마음을 읽고 대신해 주는 호소문 같은 기도 내용이었다.

“내 영혼을 빈궁 한대로 버려두지 마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것은 내면에서 혼란스럽던 어떤 것을 분명하게 가름 해주는 명령 같은 것이라 피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도 크게 소리 내어 외치고 싶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만 아니면 입 밖으로 내놓고 말았을 것이다 “소신대로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악인들의 영향력에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고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악한 일에 가담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의 화려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악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와 무엇보다도 자신 속에 있는 악의 경향성과 일상의 평범 속에 있는 악과 싸울 때, 마치 자석에 끌리는 쇠붙이처럼 흔들리는 나를 꾸짖고 곧추세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소서.”

민원 대면이나 인허가, 감사 직책 등 매일 계속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는 악의 경향 속에서 마음의 중심이 무너질 가능성이 많은, 내적 힘이 없는 부끄러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기도 속에서 가능했다. 그때마다 수감 찬 C 청장의 모습이 떠올려지는 것도 나의 결심을 재촉했다. 그것은, 소신 없이 먹이 사슬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이대로의 생활이 보여주는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어 괴롭기까지 했다.

그래서였을까, 영국에서 귀국하며 아쉬웠던 명문대 학위취득 꿈이 되살아나 자주 요동쳤다.

뜻이 있는 곳에 길도 있다는 말은 괜한 말이 아니었다. 미국 연방 장학금의 한 종류인 어떤 기회가 개도국의 증견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정보를 갖게 되었다. 마침 그동안 영국 연수 기간에 받은 국비 혜택에 대한 의무 복무 기간도 막 지나고 있는 시점에 그 기회의 신청 마감이 임박하고 있었다.

아내에게는 미 연방정부의 초청 기회만 운을 떼었다. 나의 깊은 고민까지 감지하지 못한 아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내 마음은 복잡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다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그것은 성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출애굽 해서 광야 생활의 고난을 감내해야 했던 상황이 연상되고, 장학금이 끊기는 일 이년 후부터는 아내의 뒷바라지가 요구되는 경로 이탈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일단, 총무처에 2년 휴직계를 제출했다.

“당신은 국가의 혜택으로 석사학위까지 했으면 더 열심히 일해야지, 왜 또 어디를 가려고?”

별 떼고 들어온 차관은 사인을 거부하며 정색을 하고 질책했다.

다른 방법은 없었다. 긴 시간 갈등하며 고민하던 갈림길에서 막상 결정은 순간적이며 즉흥적으로 진행됐다. 햇빛이 따가워서 옷을 벗는 것이지 거센 바람만이 옷을 벗기는 건 아니었다.

총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장소로 선택한 곳은 철새 도래지로 알려진 안면도였다. 서해 고속도로를 두어 시간 달리면서 아내가 기절할지도 모를 그 얘기를 털어놓을 기회를 찾으며 내용을 정리했다.

질펀하게 펼쳐진 갯벌이 멀리 보이고 먹이 사냥을 하느라 수면 위를 찰싹거리는 바닷새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다.

“나, 사표 냈어.”

“.....?”

모두 다 저질러 놓고 선택의 고통스러웠음을 얘기하는 동안 놀라움에 커졌던 눈동자와 벌어진 입이 한동안 멈춰져 있는 아내에게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의 만류가 저지할 수 없을 만큼 내 결심이 컸고, 충분히 고심했어.”

너무 뜻밖이고 기가 막혔는지, 말 대신 눈을 멀리 철새 무리에 던져둔 채 멍하니 앉아 있던 아내가 얼마 만에 입을 열었다.

“당신의 꿈도 포기하는 일인데, 그게 그렇게 간단했어요?”

“당신에게는 간단한 말로 줄였지만,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버려야 하는데 어떻게 간단했겠어, 하나를 버려야 한다는 아쉬움 때문에 흔들리는 고뇌의 순간이 컸지만 이제와서 다른 부처로 갈 수도 없고, C 청장의 수갑 찬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이 생활이 많이 괴로웠거든.”

“남들이라고 다들 잘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괴로워요?”

“다른 부처는 이렇게까지 혼탁하지 않을 테지만, 어찌겠어. 삶이라는 게 온통 이런 선택의 순간으로 채워져 있다는 걸 당신도 잘 알잖아.”

“옛말에도 한 우물을 파야 물이 나온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길을 바꿔요?”

누구한테....., 아니다. 내가 목사님한테 의논을 해 볼게,”

“남의 인생인데, 누가 꼭 짊어져서 해라 마라, 도움말을 해주겠어?”

“당신 결정에도 필요하지만, 나도 지혜가 필요해서요.”

“선택이 힘들 땐, 최악이라도 걸러 내라는 말이 지금 나에게서는 최선의 선택이야. 어차피 방향을 틀었으니, 이제는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어.”

“최악?....., 무엇이 그렇게 최악인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지금 내가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언젠가 당신도 이해할 날이 있겠지....”

“당신, 무슨 사고 친 거는 아니지?”

“지금은 아니지만, 앞일은 모르잖아. 하루라도 마음이 편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 그 길을 찾은 거야.”

미국에서의 광야 생활이 시작된 후, 늦은 나이에 하는 공부도 어려웠지만 장학금이 끊어진 이후부터 세 명의 아이들과 살아내기 위해 선택한 아내의 헌신적인 뒷바라지는 치열했다. 여자 혼자서 할 수 있는 자영업으로는 세탁 편의점이 그래도 가장 만만해 보여 시작한 일이지만, 모든 것이 서툴고 힘든 타국에서 처음 뛰어든 생업의 어려움은, 열대 바다 위의 펭귄처럼 적응이 어렵고 생각보다 힘이 들어서 가끔 나도 나가서 일을 나눴다. 아직 어린아이들의 등교준비나 생활 쇼핑 등등, 아내가 하던 집안일도 모두 챙겨가면서 살았다.

초기의 정착비에 자동차 마련에 가게 마련까지 하고 나니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는 은행 잔 고가 걱정이었다. 커가는 아이들의 장래를 걱정하게 되고, 88 올림픽 이후 다락같이 오른 서울의 집값을 생각하면, 귀국 후의 대책이 막막했다. 기회의 땅이라는 미국에서 돈을 모두 탕진하고, 종잇장 하나 달랑 들고 갈 수는 없었다.

공부를 잠시 접고,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본격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모색한 끝에 델리 그로서리를 매입해서 열심히 일했다. 삼 년이란 세월을 그렇게 또 보내게 되었다.

가끔 미주 한국일보를 사서 볼 때가 있는데, 어느 날 신문에서 동료의 승진 기사를 본 후 지금 자신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고 후회와 미련을 품은 상실감이

견잡을 수 없는 고통으로 밀려왔다. ‘그때, 왜 내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 제정신이 아니었나 보다.’라는 후회와 미련을 마음속에 눌러 담으면서 선택과 후회가 한 몸으로 서로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역사에 가정이란 없다고 하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기쁨이 될지, 후회와 미련으로만 남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시간이 다시 온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지...’를 부질없는 희망 고문처럼 되 뇌였다. 그때는 국민 연금제란 것이 도입되기도 전이고, 지금처럼 공무원이 좋아지는 시대가 올 줄을 몰랐다. 그렇더라도 이런 고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아쉬움을 곱씹었다.

“직업 선택은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보다는 살면서 마주치는 다양하고 우연적인 사건들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처럼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한 굽이 돌고, 여러 갈래로 굽이 돌아 어떤 길로 들어설지를 모르고 선택한 결과는 오래도록 미련의 꼬투리로 남았다. 그럴 때마다

서점에서 사들인 기독교 서적을 밤새워 읽어가며 마음을 다스렸다.

속으로 쌓인 불만이 많을 테지만, 내색하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는 아내에게도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다 드러낼 수 없었다. 다만, 생각과 삶의 일치를 꿈꿔 온 무모함이 고통의 단초가 되었음을 후회하며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일하며 공부했다.

계획보다 늦어진 결과지만 모든 과정을 마치고 한국소재 연구소에 연구위원 자리를 얻어, 학업 중인 아이들과 아내를 남겨둔 채 혼자 귀국을 했다.

떠날 당시는 지금처럼 아파트가 비쌀 때가 아니었고, 고환율도 아니었기 때문에 집 팔아서 가지고 나간 돈은 이미 그동안의 경비로 다 없어지고, 대비책으로 열심히 벌어서 가지고 온 돈으로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아파트를 도심에서 찾기는 어려웠다.

설상가상으로, 국가 재난으로 닥친 외환위기 사태가 몰고 온 환율 폭등으로 이제부터는 두고 온 아이들의 교육비 대책이 더 큰 문제였기 때문에 수도권에

중형 아파트를 겨우 마련하고 안착했다.

어쩌다 나가본 동창회에서 보니, 역시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한 우물만 판 친구들 경제력이 훨씬 더 탄탄해 보였다, 어느덧 은퇴를 앞둔 나이들이다 보니 삶의 여유를 누려도 되는 때이기도 했다.

오랜만이라고 회식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오상철이 반색을 하며 말했다.

“언제, 우리 집에서 저녁 한번 먹자.”

강물이 내려다보이는 넓은 거실에서 식후 다과를 나누는 시간까지 오상철은 자신이 은퇴 후에 잡았다는 부업 얘기를 늘어놓았다. 한 마디로, 그의 인생은 살맛이 난다는 것이었다.

오상철이 취기를 핑계 삼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야, 이제 좀 물어보자. 나 참 많이 궁금했다.”

“네가, 왜 공무원을 그만두고 미국행을 했는지... 아무 이유가 없었잖아?”

“공부하고 왔잖아?”

“글쎄, 공부도 좋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 승진도 하고, 넌 나하고 달라서 좋은 끝을 보게 될 줄 알았는데..., 많이 궁금했었어. 나뿐만이 아니고, 다들 궁금해하더라.”

“너는 많이 행복했니?”

“나는 뭐..., 좋았지. 니가 그만두기 전 하고 지금은 공무원 대우가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럼 됐지 뭐.”

오상철의 집을 나와서 내 집이 있는 수도권을 향해 운전하는 동안, 힘차게 들려오는 베토벤의 ‘황제’ 음악 때문인지 마음이 가볍다. 하나님께서 다시 선택을 묻는 시험을 하시는 것 같다.

“너는 행복하니? 다시 그런 정체성을 묻는 시험과 도전을 받는다면, 너는 무엇이 될래?”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저는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고달프기 짝이 없던 고난의 시기가 제게 약이고, 구원이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선택 기회를 주신 시험은 바로, 또 다른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직 학업 중인 아이들 때문에 몇 해 해 본 기러기 아빠 생활도 다 지나고, 아내가 완전히 가정에 돌아와서 교회 생활도 정식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국토부 B 차관 보의 투신 보도를 본 것은 아내가 먼저였다.

며칠 전부터 수사 중인 뉴스에 그의 이름이 자주 오르기는 했었다. 학교 후배이면서 행정고시도 한참 후배인 그의 기사를 관심 있게 보게 된 것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후배였기에 친 면이 없어도 이름 정도는 머릿속에 담긴 사람이었다.

요즘의 세태 변화는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너무도 닳고 닳았다고 할까, 순진했던 내 과거의 고뇌를 이해하기에는 시대물에서나 있는 일로, 지금 시대에서는 ‘능력 없는 바보’라고 생각 할 것이라는 것과 그 정도의 일을 고민하는 사람은 없을 만큼 변한 세상이라는 걸 모르지 않지만 동지애적 비감으로 잠을 편히 못자고 뒤척이게 된다.

‘이 사람은 얼마나 고뇌가 컸으면 강물에 뛰어들었을까?’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당시의 상황과 고뇌가 어제 일처럼 생생히 다가온다.

아내 역시 잠을 못 자고 있었는지 이번 기사를 연관 지어, 먼저 그간의 심정을 털어놓는다.

“여보, 사실 나는 그동안 당신이 사표를 내던질 만큼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들이라고 다 잘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서, 마누라를 고생시키나, 솔직히 화나고 원망까지 되는 것을 참고 사는 게 더 힘들었어.”

“지금은 어떤 느낌인데.....?”

“우선, 그 본인인 안됐구, 그 가족들 기막힐 생각도 나구, 얼마나 사면초가로

수사가 조여왔으면 그랬을까. 그래서 그 상황에서 많이들 죽잖아요.”

“무엇보다도, 지금은 군정이 아니잖아, 그러니 상황이 그때와 다른데도 힘들었나 보지,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만연된 사회적 결과라고 봐야겠지만, 이미 사회가 어지럽혀 질대로 어지러우니까. 먹고 먹히는 게 만연된 세상인데, 그 친구라고 어찌겠어.”

“이제 다 지내놓고 하는 얘기지만, 당신이 내다본 게 이거였구나. 이제 알겠어.”

“이제 알겠어?”

“그래서 새삼,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제 얘기지만 그 감사의 시초는, 바로 당신의 설교 CD였어.”

“그래요?”

“‘악에 물들어 악인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라!’가 하나님의 명령 같이 들렸으니까.”

“하여튼, 하나님은 견딜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셨으니까 감사하죠, 생전 처음 해 본 그 고생에도 나를 견디게 해준 것은, 애들을 위해서라도 당신을 꼭 제 자리에 갖다 놓겠다는 다짐을 했던 거예요,”

“당신이 잘 견디어 줘서 고마웠어.”

“나는 사실, 요즘 들어서야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거 같아. 그동안은 그 말이 계속 안 풀리는 숙제 같은 문제라고만 생각해 왔어.”

“나한테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목적하는 사람으로 키워 내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마련하신다네요. 체험 없이는 깨닫게 되지 않는 것이니, 우리에게도 꼭 맞는 말씀이잖아요.”

“.....좋은 말이야. 우리가 여기서 계속 편안히 살았다면, 절대 닿을 수 없는 깨달음이지. 따지고 보면, 풍족함에서의 가치관이랄까, 나의 정체성을 시험하신 것 같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난을 통해 깨우치게 하는 시험이었어.”

마치 부모가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를 훌륭한 자식으로 키우기 위해 엄하게 교육시키는 것처럼, 그러나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고달프기 짝이 없는 길,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게 하신 것 같아.”

“당신 믿음이 나보다 깊네요,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에요,”

주일 날 아침,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교회에 나가 예배에 참석 중이다.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기쁨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강대상에서 들려오는 목사의 설교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시간이 멈춘 듯 내 귓가에 계속 맴돌고 가슴에 큰 울림을 주는 두 마디의 외침이 천상에서 내려오는 뇌성처럼 크게 울려 퍼진다. “감사합니다.”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감사의 기도를 입속으로 끝낸다.



이예원(본명 이정희)

- 2003년 [한국소설]에 단편소설 <얼음매미>로 신인상 수상, 등단
- 중단편소설집 [춘향이 마돈나를 만나다]
- 장편소설 [매미 소리]

언니야 기억나?

조경진

사각사각 사르르 사각사각 사르르

밝고 환한 곳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온몸이 뾰뾰 뭉여 있고, 방바닥에 눕혀져 있었다. 아니 눕혀져 있었다기보다 내동댕이치어져 있었다고 봐야 옳다.

눈도 뜨지 못하고 젖도 빨지 못했는데 어찌 밝고 환한 곳이라고 기억하는 걸까. 이것이 첫 번째 기억의 불가사이다.

어느 날 내가 언니에게 물었다.

배냇저고리를 입은 채 손발이 뾰뾰 뭉여 있는 너를 할머니 방에서 처음 봤을 때, 나는 니가 죽은 줄 알았다. 그걸 니가 어떻게 기억하지?

뭐라고? 그럼 사각사각 사르르 소리는 무슨 소리야?

누에 애벌레가 뽕잎 먹는 소리지. 할머니 방이 누에 치는 방이었거든.

그럼 이 기억도 그즈음의 기억일까? 잔디밭에 기린같이 생긴 갈색 점박이 키 큰 짐승이 활짝 핀 민들레 같은 노란 꽃잎을 뜯어먹으려고 입질하는 모습이 여기저기 흩어져있었어. 내가 꽃잎을 못 뜯어 먹게 하려고 손가락으로 짐승의 입을 자꾸 떠밀었지. 저리 가, 저리 가. 아무리 밀어도 꿈쩍 안았어.

그건 우리가 할머니와 함께 살 때 우리 방 벽지 무늬였어. 그러니까 니가 두 살 때였을 거야.

아이, 그러면 내가 혼자 있을 때 토막토막 떠오르는 기억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란 말이야?

그래, 참 신기하구나. 기억나는 대로 또 말해봐.

음, 이걸 좀 확실한 기억인데 우리가 부산 보수동 책방골목 막다른 일본 적산가옥에 살 때, 우리 집 뒤쪽에 공동우물이 있었잖아, 그 우물 건너편 유리 미닫이가 여러 짝 달린 집에 살던 여자 생각나? 물 길러 가는 엄마를 따라 우물가에 가면 유리 미닫이를 살며시 열고, 가늘고 긴 하얀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작고 낮은 소리로 오닝교 상, 오닝교 상, 하며 부르던 자그맣고 예쁘장하던 일본 여자 말이야.

그래, 나도 생각나. 참 애잔해 보였어. 그때 팔일오광복을 맞은 우리 민족이 한국 남자와 결혼한 일본 여자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사랑한 죄로 부모 형제의 반대도 무릅쓰고 현해탄을 건너와 살다가 모국의 패전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처지의 그녀들을 광복의 기쁨에 들뜬 우리 민족이 어떻게 대했을까. 갑자기 적대적 관계로 변한 한국에서 여생을 살아가야 하는 일본 여자의 처절한 신세를 누가 헤아려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육이오전쟁이 터졌지. 큰외삼촌, 엄마의 단 하나 뿐인 혈육 말이야. 여순반란 사건에 연류 되어 숨어다니다가 장티브스에 걸려 돌아가셨잖아.

너는 그때 네 살 밖에 안 됐을 때인데 어찌 그 일을 기억해?

새벽이었어. 오즘 누러 나오다가 안방에 불이 켜져 있어서 문을 밀고 들어갔지. 엄마랑 마주 앉았던 신사가 박하사탕 한 봉지를 주더라고. 너무 좋아서 양 어깨에 매달려 팔딱팔딱 뛰었지. 엄마가 내 손을 잡아 끌어당기며 꾸짖었어.

기집애가 큰 일하는 사람 어깨 짚으면 재수 없다. 이리 와 인사부터 해야지. 너희 큰외삼촌이야.

외삼촌이 나를 훌쩍 안아 자기 무릎에 앉히며 말하더라.

선이는 경사스런 신선이니까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야.

커다란 손바닥으로 내 머리를 몇 번이고 쓰다듬어 주었어.

엄마가, 이리 와서 어서 더 자야지, 하며 외삼촌 무릎에서 나를 끌어내려 아

랫목 이불 밑에 눕히고 토닥토닥 재워 줬어.

외삼촌이 그렇게 다녀간 후, 경상남도 도청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우리 아버지가 쫓겨났잖아. 나중에 알고 보니 아는 사람 누군가가 투서를 넣은 모양이더라고 엄마가 말했어. 육이오 전쟁 중에는 그런 일이 부지기수였더라. 잠시 잠깐이었지만 정말 고생 많이 했어.

그래, 나도 기억나.

그때 우리 부모는 우리를 먹여 살리느라 첫새벽에 일어나 국제시장으로 달려 가서 피난민이 내다 판 보따리를 사 왔지. 길고 뚱뚱한 보따리를 풀면 군용 담요며 헌 옷가지며, 온갖 잡동사니가 수두룩이 쏟아졌지. 아침나절 내내 보따리에서 쏟아진 물건들을 정성껏 손질한 후, 점심도 먹는 등 마는 등 팔릴만한 물건들을 골라 짊어지고 부산 국제시장 난전거리로 내달렸지. 이 거리 저 거리를 떠돌며 목청 높여 되팔아먹고 살 거리를 장만했지. 언니는 그때 몇 살이었어,

내가 1941년생이니까 열한 살?

부산에서 6.25를 맞게 된 우리 다섯 식구는 나날이 변하는 전세에 따라 피난처를 구하지 못해 전전공궁했단다. 피난민은 들이닥치고 전쟁 세력은 점점 나빠지고 양식마저 떨어져 오도 가도 못하게 되자 아버지는 피난지를 고향 집으로 결정했던 모양이야. 부산은 큰 도시고 남해는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섬이니까 더 안전하다고 믿었겠지. 이삿짐과 언니와 오빠를 실은 트럭이 골목 집을 떠날 때 나도 따라가겠다고 울며불며 동동걸음을 치던 생각이 나. 2년쯤 지나자 언니와 오빠가 되돌아왔어. 그새 남해섬도 인민군 천지가 되었다면서……. 이 흑백 사진 생각나? 언니가 내게 갖다 준 거잖아.

아, 할아버지 환갑잔치 사진이네. 빨간 패션 모자를 쓴 네가 엄청나게 예뻐.

우리가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났던 날이네. 엄마아빠 사랑을 처음으로 독차지했던 행복한 시간들이기도 했네. 그런데 언니, 참 이상하지. 행복했던 그 2년 동안의 일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육이오 전쟁이 끝나고 아버지가 군청 행정사무관으로 복직되면서부터 우리는

큰 까국 고향 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지. 그때 언니는 결핵성 늑막염을 앓고 있었어. 병든 아이를 업고 10리가 넘는 자갈길을 걸어 병원에 다녀야 했던 엄마는, 오빠를 앞세우고 외갓집을 찾아가 검정 빨랫비누 한 궤짝을 얻어왔지. 남제모시 장사를 시작했어. 냇물이나 저수지물에서 방망이질로 빨래하던 시절, 검정 빨랫비누는 퍽이나 구하기 힘든 세제였지. 물물교환처럼 엄마는 비누를 주고 남제모시를 받아와 양잿물에 삶아 씻고 풀 먹여 다듬이질하면 향라 보다 더 고운 모시로 재생되었지. 이렇게 손질한 남제모시를 부산 국제시장 포목점에 납품한 다음 경도양단이나 모본단 같은 고급비단으로 돌려받아 읍내 포목상에 내다 팔았대요. 이렇게 2중 3중으로 번 돈을 3년간 모았더니 장터가 베허거리에 고래 등 같은 기와집 한 채를 사고도 남았대요.

남동생이 태어나 영금영금 기기 시작한 어느 봄날, 마당가를 기어 다니며 놀던 동생이 온데간데없어졌어. 양철 뚜껑 닫히는 소리를 들은 엄마가 다짜고짜로 우물로 뛰어들었지. 좁은 우물 돌담을 딛고 엄마의 몸이 겨우 들어갔지만 허리를 꾸부릴 공간이 없었대. 동글동글 파문 이는 우물 물속에 한쪽 발을 깊이 찢러 넣었대. 한참 있으니 엄지발가락을 무는 듯한 힘이 느껴지더라. 오호라. 이때다. 하고 엄지 발가락끝을 낚싯바늘처럼 휘어서 무릎을 구부려 올리고 동생의 손가락을 낚아채 가슴으로 안아 우물가에 올려놓았다고 말할 때, 엄마는 숙련된 서커스단원보다 더 기교가 넘쳤더라고. 어느새 동생은 축담을 기어 올라 마루 밑에 우두커니 앉아있었어. 시퍼렇게 질린 입술에는 희멀건 침물 자국이 방울방울 맺혀있었지.

막내 삼촌이 장가가던 날. 새 각시 무릎에 앉아 떼쓰다가 매 맞은 일도, 아랫집 연순 네 목화밭에 몰래 들어가 목화다래 따먹다가 들킨 일도, 종종 생각나지만 무엇보다 확연한 기억은 엄마가 장터가 베허거리에 아무도 몰래 사 놓은 집이 있다는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귀뜸해준 일이었어. 아무래도 난 그때 애정결핍이었던 가봐. 할머니도 엄마도 아빠도 언니와 오빠마저도 내 편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 남동생이 태어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지. 혼자

말하고 혼자 소꿉 살고, 혼자 다니고 그러다가 완전 베풀이가 되고 말았어.

마지막 기억은 읍내 장날이었지. 지난 장날에 엄마가 새로 사준 검정색 반구
두고무신 바닥을 칼로 찢어 시멘트 담장에 갈아 놓고 저절로 떨어져 물이 쏜다
며 이번엔 언니랑 똑같은 꽃 그림에 나비 달린 코고무신을 새로 사 오라고 졸
랐지. 신발 떨어진 곳을 한번 보여 달라는 엄마 코 밑에 칼로 찢어 뭉갠 신발
구멍에 손가락을 찢러 넣고 들이댔지. 엄마가 그날 새로 사 온 신발은 또 검정
색 반구두고무신이었어. 나는 그런 엄마가 너무 미웠지. 언니를 잡고 하소연하
며 물었더니 언니의 대답은 아래와 같았어요.

어머니가 너에게 왜 그랬느냐면,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딸이거든.



조경진

- 2004년 문예지 《문학과창작》 신인상 등단
- 2020년 작품집 『비수』(계간문예) 발간
- 2020년 계간문예작가상 수상

목마른 나무

최균희

오월이다. 신록의 싱그러움이 날로 더해간다.

사람들이 왁자지껄 물려드는 주말이다. 양팔을 부모에게 맡기고 발을 동동 구르며 공원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부럽다. 질투가 난다. 하지만 그들을 축복해 주고 싶다. 공원에 들어서면 사람들이야 내가 이토록 열열히 반기고 있음을 알 리 없지만.

해가 저서 그들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시간까지 나는 양팔을 흔들며 그들에게 행복의 메시지를 보낸다. 가정이란 작은 천국이며 사랑과 기쁨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따스한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공원 입구 작은 빌라의 대문에 기대서서 집안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대화를 엿듣고 있다. 기분이 상쾌하다. 문득, 나를 돌아본다.

어느 날, 내가 창문을 열었을 때였다.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베란다의 커다란 질그릇 화분의 흙을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쪼아 먹고 있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갔는데도 낯선 새는 날아가지 않았다. 그리 예쁘지도 않은 갈색과 잿빛이 알록달록한 색깔의 작은 새는 나를 반히 바라보는 것이었다.

“야, 꼬맹이 새야, 거기 화분에서 무얼 먹고 있는 거야?”

내가 혼잣말처럼 지껄이자 작은 새는 곧바로 대답했다.

“여기 말라버린 나무 밑에 씨앗이 몇 개 떨어져 있기에 쪼아 먹었어.”

“그래? 열매가 있었어?”

나는 지난해까지 여기 이 화분에서 자랐던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실히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언젠가 본 듯한 초록빛 색깔의 나뭇잎과 동그랗고 빨간

작은 열매가 어렵듯이 떠올랐다. 그렇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 말라 죽은 나무를, 그것도 이파리가 모두 떨어져서 지금은 그 나무의 모양새를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 작은 새와 대화가 가능한 것이 신기하여 또 물었다.

“네 이름이 뭐니? 네 가족은 없어?”

“응, 사람들은 우리를 흔히 개똥지빠귀라 하지만, 서양에선 로빈새라 부른 다더라. 또 티티새란 이름도 있다는데 난 그 이름이 마음에 들어. 난 태어날 때 부터 우리 엄마 아빠 얼굴을 못 봤으니까 지금은 고아지만,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래, 나도 널 티티새라고 불러줄게. 그럼 넌 지금까지 누가 키워주었니?”

“내가 앞에서 새끼로 깨나기 전에 우리 부모는 아이들의 손에 잡혀갔고, 난 뼈꾸기 둥지에서 태어났다고 들었지만, 지금 그들도 어디로 날아갔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난 부모형제가 있는 새들을 가장 부러워한다. 너도 부모형제가 있지?”

“난 우리 집에서 외동아들이야, 우리 부모가 있긴 하지만 난 그들을 증오했고 있어. 매일 싸움만 하고, 아버지는 무관심, 어머니는 과잉보호. 난 둘 다 싫어. 차라리 난 네가 부럽구나. 어디든지 마음대로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맞아. 언제부턴가 너는 아주 쓸쓸하고 외로운 표정으로 여기 베란다에 나오곤 했어. 난 벌써부터 널 지켜봤지만, 그게 그렇게 길게 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넌 더 이상해졌구나.”

“흥, 네가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안다고? 이 꼬맹이 작은 새야, 저리 비켜!”

나는 공연히 신경질이 나서 팔을 저어 티티새를 쫓아버렸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왜 양말은 뒤집어 벗어놓아요? 빨래할 때마다 내가 다시 뒤집어야 되겠어요?”

“빨래하기 싫으면 당신도 직장을 나가! 돈 벌어서 파출부를 쓰면 될 거 아니

야?”

“남처럼 월급이나 제대로 받아오며 큰소리치시지. 오늘도 공치고 온 주제에-.”

“뭐야? 돈 벌었어도 당신에게 줄 돈은 없어.”

“어디서 어떻게 벌었는데요?”

“당신을 알 것 없어.”

나는 고개를 가웃거렸다. 그리고 내 양말을 벗었다. 바르게 놓아도 보고 뒤집어 보기도 했다. 그까짓 게 뭐 대수라고 오늘은 싸움거리가 양말로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바가지를 굽는다. 아버지는 쿠션을 던진다. 어머니는 거실의 TV를 크게 틀어놓고, 아버지를 향하여 욕을 퍼부어댄다. 아버지는 술기운이 별경게 달아오른 얼굴 위에 신문지를 올려놓고 그대로 코를 골아버린다.

어머니는 나에게 저녁을 차려줄 거냐고 물었다. 난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었다며 거절했다. 2층으로 올라왔다. 벌써부터 아버지를 꼭 닮아간다며 나무라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내 뒤를 따라온다. 이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보내면 된다.

난 우리 집의 4대 독자다. 그들이 결혼하여 만 7년이 되던 해에 내가 태어났다. 할머니가 살고 있는 시골 큰집이나, 공원 건너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외갓집도 아들이 귀하다. 나는 양가집에서 대단히 귀한 존재로 대우 받고 있다.

그런데 어머니 요즈음 나 때문에 마음고생을 좀 한다. 학교에서 학부모 임원으로 활동하고 싶은 마음과는 달리, 종종 학교에 불려가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훈계만 듣고 오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도 내가 친구 석이랑 24시 편의점 옆에 있는 노인정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린 적이 있다.

“훈인 지난해부터 담배를 피운 것 같은데 어머니는 알고 계셨나요? 물론 호기심으로 시작했겠지만 요즈음 나쁜 아이들하고 어울리고 있으니, 가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세요.”

어머니는 담임선생님에게서 들은 내 이야길 아버지한테 꺼내지만 소용이 없다.

최근에 어머니는 이혼 소송을 냈다. 잘은 모르겠으나 그들이 싸우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성격 차이도 있겠지만 매번 돈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일류대학을 졸업했다. 판검사 시험을 앞둔 장래가 총망 되는 청년이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겉모습은 정반대다. 이목구비는 그런대로 봐줄만 했지만, 20세기에 보기 드문 작은 키에 머리까지 훌러덩 벗겨졌다. 거기애다 실업자 빈털터리다. 반면, 어머니는 내로라하는 집안에서 부유하게 자랐다. 더욱이 대학시절에는 교내 축제에서 당당하게 퀸으로 뽑힌 미인이었다.

그 당시 외갓집에서 두 사람의 결혼을 극구 반대했다는 사실이 이해가 간다. 아버지는 몇 년째 원하는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자 큰 꿈을 접었고, 취직을 하려 했지만 시시한 일자리는 성이 차지 않았다. 신혼 초에는 외갓집에 얹혀살다가 중간에 독신자 아파트를 얻어 나갔다.

내가 생긴 뒤로 월세부터 시작하여 겨우 지금 살고 있는 공원 옆 2층 빌라로 옮겨온 것도 몇 년 되지 않는다. 실제로 이 집도 말이 빌라일 뿐,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조립식집이다. 운이 좋아서, 엄밀히 따지면 조경 사업을 하고 있는 외할아버지 덕분에, 이 집에 살게 된 것이다.

아버지는 조경에는 관심조차 없는데다 아직도 여기저기 취직자리를 기웃거리지만 한 직장에서 오래 머물지를 못했다. 특하면 상사하고 다투거나 월급이 적다며 뛰쳐나오는 게 일수였다. 요사인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들어와서 큰 횡재를 바라고 있다.

어머니가 이혼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돈벌이도 못하는 실업자 아버지가 술주정을 넘어서 이제는 폭력까지 행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늦게 본 귀한 아들 핑계와 주위의 만류에 의하여 두 차례나 소송을 취하한 적이 있다.

“네 아버지와 더 살다가는 내 명대로 못 살지. 너도 봤잖니? 어제 가죽 허리 띠를 마구 휘둘러 여기 이렇게 멍이 퍼렇게 들었던 말이다.”

“그래도 난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는 건 싫어요.”

어머니는 나를 설득하여 도망하듯 집을 나왔다.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경기도 K시에 셋방 하나를 구했다. 며칠째 벼룩시장이며 매트로 신문을 뒤적거리던 식당에 취직을 했다고 좋아했다. 나는 곧 새로운 학교로 전학했다.

“넌 열심히 공부만 하면 돼. 네 학비는 충분히 댈 수 있으니까-”

어머니는 몸은 고되어도 마음은 여간 편안한 게 아니라고 말했다. 그 지긋지긋한 아버지와 진즉 헤어져 살 걸 왜 한 집에서 아옹다옹 싸우면서 살았는지 후회스럽다고도 했다. 난 전학 온 학교라서 친한 친구도 없거니와 선생님들도 모두 낯설어서 학교에 가기 싫었다.

어머니를 속이면서 며칠 째 PC방을 전전하고 있을 때,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수소문 끝에 찾아냈다고 했다. 당장 집 앞에서 만나자는 전화였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제안에 따랐다.

“그래도 친구들 많은 곳이 좋지 않니? 학교는 내가 다니던 곳으로 다시 복학 시켜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아버진 나를 위해 각서까지 써놓고 전에 다니던 학교에 복학시켰다. 그 다음 날 학교에 어머니가 찾아왔다. 나에게 다시 K시로 갈 것을 종용하였다. 나는 아버지에게 핸드폰으로 이 사실을 알렸다.

학교에서 만난 두 사람은 체면이고 무엇이고 볼 것 없이 학교 복도에서 큰 소리로 싸웠다. 이내 교장실로 불려가서도 서로 자기 의견만 내세우며 질타를 해댔다.

“비행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결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입니다. 아들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이혼이란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이윽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겠느냐는 교장선생님

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결혼식장의 주례 앞에서 서약하듯이 겉으로는 ‘네’라고 대답했다. 나도 증인이 되어 한 마디 할 수 있었다. 난 어느 편도 아니며 부모와 함께 살 것을 희망한다고.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큰 소동을 벌인 부모가 부끄럽고 창피했다. 난 더 이상 학교에 안 다니겠다고 했다. 그래도 다음 날 학교에는 갔다. 친구들은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웬지 아이들이 날 비웃는 것 같았다.

그 일이 있은 후, 어머니는 근린공원 입구에 있는 빌라로 다시 살림을 합쳤다. 그러나 난 아무하고도 말하기 싫었다. 시간이 나면 2층 내 방에 틀어박혀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즐기거나 만화책을 빌려다 보았다. 아래층은 출입통로로만 사용할 뿐 잠시도 머무르고 싶지 않은 곳이 되어 버렸다.

여느 때처럼 아래층에서 싸우는 소리가 또 들려왔다. 그들은 싸울 때마다 아들 때문에 억지로 살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했고, 나는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었다. 학교공부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늘은 내 성적문제를 놓고 싸우는 듯 했다. 어머니는 아버지더러 자식 일에 너무 무관심하다 했다. 아버지 어머니더러 집에서 자식 교육하나 제대로 못 한다고 나무랐다.

언제부터인지 나는 그들이 싸울 때마다 귀를 틀어막고 창문을 열면 바로 나타나는 공원의 풍경을 보기 위해 앞 베란다로 나오는 버릇이 생겼다. 베란다라야 유리 새시도 없이 노천이라서 비가 오면 그대로 새어 들어오는 작은 공간이다. 그래도 공원의 맑은 공기가 기분을 한결 새롭게 해 주었다.

한참동안 멍청하게 서서 공원에서 있는 크고 작은 여러 모양의 나무들과 그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곤 했다.

‘공원의 나무들은 한 번 자리를 잡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저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 부모는 헤어지지 못해 야단일까?’

멀리서 보기에다 다정하게 보이는 중년의 부부가 오늘도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었다. 떠돌이 고양이 두 마리는 어제처럼 또 휴지통을 뒤지고 있

었다.

‘그래. 사랑을 받기 위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개나 고양이, 새들보다는 차라리 한 자리에서 보살핌을 받는 나무가 훨씬 근사하겠구나.’

내가 공원의 나무들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내 몸이 갑자기 떨려 오기 시작했다. 감기몸살이라도 앓는 것처럼 호흡이 가빠지고, 눈앞이 어지러웠다. 팔다리에 쥐가 나서 몸이 오그라드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나는 아프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가 식당으로 불러내어 밥을 먹자고 했다. 그녀의 성화에 할 수 없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수저로 밥을 먹으려는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간신히 밥을 뜨고, 다음은 젓가락질을 하려는데 반찬이 집어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밥이 먹기 싫으면 그만 먹으라고 했다. 아버지는 나에게 흘끗 눈을 흘기고는 자리를 떠났다. 그렇게 며칠을 반복하는 동안 그들은 내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남기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넘어갈 무렵이라서 공원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술에 취한 목소리와 날카롭게 따지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귀를 막고 베란다로 나와 근린공원으로 눈을 돌렸다. 아카시향이 진하게 전해 왔다.

“잘 있었니? 아직도 넌 외롭고 답답한 심정을 풀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 부모는 그래도 널 끔찍이 사랑하던데, 넌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 차라리 잘 되었다. 두 사람이 다투고 있는 사이에 좋은 구경이나 해 보렴. 저기 공원을 봐.”

티티새는 나에게 한 마디 던져놓고 곧장 날아가 버렸다. 티티새를 따라 시선을 보낸 곳에는 한 여인이 멋진 차림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 뒤로 나의 초등학교 친구인 석이가 기운 없이 걸어오고 있었다.

석이는 헌 종이를 모아 팔아서 힘들게 살고 있는 녀마주이 할머니의 손자다. 그는 오늘도 학교에는 가지 않고 아마도 온종일 오락게임을 즐겼을 것이다. 석

이 부모는 이혼한지 오래 되었다. 내가 요사이 석이를 못 만난 이유는 순전히 내 건강 때문이다. 아마도 내 몸이 자유로웠다면 나도 석이와 PC방에서 몇 시간은 함께 지냈을 텐데 - .

석이 아버지는 이따금씩 할머니와 석이가 살고 있는 집에 들르지만 생활비는 한 푼도 보태지 않고, 오히려 할머니에게 물려준 재산이 없어 자기가 고생한다며 한바탕 퍼부어댄 뒤 떠나곤 한다. 아들에게 눈길도 한 번 주지 않는 아버지를 석이도 증오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손자 석이를 이기지 못한다. 석이 할머니도 이따금씩 학교에 불러갔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석이는 이미 게임 중독에 빠져 있었고, 할머니의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매사를 제멋대로 하는 석이지만 나하고는 제일 친한 친구였다.

‘그래 석아, 네 앞에 걸어가고 있는 여인의 빨간 핸드백 속이 궁금하지? 현금이 제법 많이 들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빼앗으면 학교 준비물은 물론 게임도 마음껏 할 수 있을 거고.’

내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마자, 별안간 석이는 공원 길가에 방치되어 있는 돌멩이 하나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뒤통수를 탁! 때렸다. 여자가 휘청거리며 쓰러지려는 순간, 석이는 핸드백을 빼앗아 출렁랑을 쳤다. 그 때 티티새가 여인의 주변에서 후드득 날아오르며 잿빛 깃털 몇 개를 땅에 떨어뜨렸다. 나는 석이의 갑작스런 행동에 깜짝 놀랐지만, 혀가 굳어져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내가 학교에 가려고 책가방을 들자 책가방이 스르르 손에서 빠져나갔다. 이제 팔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운동화를 신고 대문을 나서려던 나는 그 자리에 푹 쓸어졌다. 학교에는 가지 못했다.

저녁이 되자 어머니가 2층 내 방문을 열었다. 내려와서 밥을 먹으라 했다. 그녀는 내 안색을 살피더니 그냥 문을 닫아버렸다. 전에는 배고프지 않니? 무엇이 먹고 싶으냐? 고 꼬치꼬치 캐물었겠지만, 요사인 그녀의 태도도 달라졌다. 아마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된 것 같다. 그뿐이었다. 아버지는 거

의 2층에는 올라오지도 않았다.

내 몸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나는 힘들게 베란다로 나와 공원에서 시끄럽게 지저귀는 새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때, 생김새가 우락부락하게 생긴 청소년들 한패가 나타났다. 그들 중 몇 사람은 입에다 담배를 물고 있었다. 그들은 나의 시야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공원의 벤치에 나란히 걸터앉았다.

그 중에서도 키가 훌쩍 크고, 무릎이며 종아리 부분이 찢어진 청바지에, 검정 티셔츠의 깃을 높이 세워 입은 녀석이 장이다. 그는 뒷머리를 길게 기르고, 공원이나 길거리를 배회하는 청년들 중 가장 주먹이 세다. 그들은 종종 나와 석이 같은 힘이 약한 아이들이나 후배들의 용돈을 빼앗았다. 아니 빌려 달라고 갚지 않았다. 때로는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담배, 술, 빵이나 과자 심부름을 시켰다.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까지 행사하는 불량배들이다.

내가 그들 한 명 한 명을 기억 속에서 떠올리고 있을 때, 지난 번 그 티티새가 또 날아왔다. 이번에는 아예 허락도 없이 나의 어깨 위에 앉아서 말을 걸었다.

“네 어깨가 많이 굳어있구나. 마치 막대기처럼. 저기 벤치 옆으로 떠돌이 고양이 한 마리가 재빠르게 지나가고 있지? 저 녀석도 처음엔 부잣집 거실에서 사랑받으며 살았는데, 그들이 이사 가면서 떼어놓고 간 거라고. 정말이지 사람들은 믿을 게 못 돼. 한 집 식구처럼 밥도 같이 먹고, 잠자리도 같이 해놓고선, 하루아침에 저렇게 길거리에 버리고 가다니-.”

‘그래, 저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 생각이 또 여기에 미치자 조금 전 그 짱은 옆에 있는 친구와 귓속말을 나누었다. 친구는 재빨리 도망치는 고양이를 붙잡아 왔다. 그들은 한참 동안 고양이를 귀찮게 하며 데리고 놀았다. 그리고는 결국 끔찍한 일을 벌였다. 짱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날카로운 면도칼을 꺼내어 고양이의 한 쪽 다리와 꼬리를 잘라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은 울부짖는 고양이의 모습을 핸드폰에 담으며 킬킬거리고 웃어댔다. 그들은 그 사진을 인터넷에 동영상으로 올리면 더 재미있을 거라고 말했다. 티티새는 파드득 날아서 벤치 주변을 휘! 돌더니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최근에 나는 말이 입안에서만 뱅글뱅글 돌 뿐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피부는 얼룩얼룩 무늬가 생겼다. 전신이 나무껍질처럼 단단해지면서 굳어갔다. 나는 안간힘을 다해 베란다로 빠져나왔지만, 마비가 된 팔다리는 둔해져서 더 이상 움직이기 힘들었다. 간신히 화분의 마른 나무를 붙들었다. 그때 나는 내 영혼이 그 나무속으로 스며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내 육체는 어디로 갔을까? 나는 이제 사람의 형체가 아니었다. 나는 나무와 하나가 되었다. 며칠 후 내 몸뚱이 곳곳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우리 부모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서 떠들썩했다. 학교와 친척들에게 전화를 하고, 핸드폰에 남겨진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였다.

“우리 아이가 사라졌어요.”

“우리 혼이 가출을 했나 봐요.”

“우리 아들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언제였니?”

아래층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2층으로 들려왔다.

며칠째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다. 그래도 나는 연둣빛 새싹을 조금씩 펼쳐 나갔다. 비라도 시원하게 한 줄기 내려주었으면 좋으련만 요즈음 들어 햇볕은 더욱 짹짹 내리쬐었다.

‘공원의 나무들은 비가 안 와도 꼬떡없이 잘 자라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몸이 배배 꼬이고, 이파리들이 힘없이 늘어지는 거지? 이러다간 한 철도 못 견디겠구나.’

모든 걸 체념하고 기운이 쪽 빠져있는데, 아래층에서 싸우는 소리가 또 들려왔다.

“아, 글썄, 혼이 집을 나간 건 순전히 당신 잘못이야? 나하고 잘 지내던 아일 이리로 데려온 게 누군데요?”

“뭐라고?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지. 학교에 가서 아들 망신을 준 건 당신이라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갈증을 느낄 무렵, 부슬부슬 봄비가 잠깐 내리

다가 그쳤다. 다행히도 뿌리는 아직 살아있었기에 나무가 된 나는 목을 축인 뒤, 팔다리에 힘을 주고 이파리들에게도 조금씩 수분을 공급하면서 정신을 차렸다.

얼마간 그들이 기거하는 아래층에서는 인적이 끊겼다.

“넌 이제 완전한 나무가 되었구나. 그러니 네 부모가 널 알아볼 리 없지. 그들은 그 동안 네가 써놓은 일기장을 찾아내어 읽어보고 무척 후회하는 것 같았어. 지금도 서로를 원망하지만, 동분서주 너를 찾느라 정신이 없더군. 너를 생각하는 마음도 진실이고, 이제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는 듯 해.”

나는 티티새의 속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부모가 날 찾아다닌다는 말은 듣기 싫지 않았다. 나의 둥그렇던 나뭇잎이 서서히 육각형 모양으로 바뀌면서 나뭇잎 끝에는 뾰족뾰족한 바늘 같은 것이 생겨났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길었다. 나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한잠 푹 자고 싶었다.

‘그래, 저 공원의 나무들도 모두 한겨울 깊은 잠을 자고 났지. 이제 새봄이 되니까 연둣빛 새싹을 움트게 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포근한 잠으로 빠져들었다.

그날도 봄비가 촉촉이 내렸다. 공원의 나무뿐만 아니라 베란다에 있는 나의 갈증을 충분히 해소 시켜주었다. 두꺼워진 나뭇잎들이 조금씩 힘을 얻어 연둣빛에서 시나브로 진한 초록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눈을 떴을 때 낮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온 동네를 다 돌아보고 공원 구석구석을 찾아다녔지만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너무 무심했어.”

“나도 친척들 모두에게 연락하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지만 우리 아이를 보았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제발 돌아와 다오.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들을 책망하며, 목매인 소리로 나를 찾고 있음이 분명했다.

“어머니, 아버지, 나 여기 있어요. 2층 베란다로 올라와 보세요!”

반가운 마음에 큰 소리로 외쳤으나, 그들은 내 목소리를 못 알아들었는지 곧바로 올라오진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어머니가 힘없이 베란다로 올라왔다가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불렀다. 시들어버린 나무대신 멀쩡하게 서 있는 나무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여보, 신기해요. 여기 화분의 나무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살아났어요.”

어머니가 소리치자 아버지가 숨 가쁘게 뛰어올라왔다.

“저참, 신기하군, 어떻게 이 나무가 다시 살아났지? 당신이 물을 준 건 아니지요?”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 말라있던 호랑가시나무가 이렇게 살아날 줄은 몰랐어요.”

‘호랑가시나무?’

난 처음 듣는 이름이라서 가시를 세워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가 맨 처음 이 나무를 어디에서 가져다 심었었지?”

“글쎄요, 그 동안 관심을 두지 않고 버려두었는데-.”

그들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고개를 내저었다.

“맞아요. 우리가 몇 년 전 겨울에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들기 위해 사왔었어요.”

“아니야, 이 나무는 사온 것이 아니고, 삼년 전에 우리가 이혼하러 법원까지 갔다가 화해하기로 하고, 함께 떠난 여행지에서 민박집 할머니한테서 얻어온 그 나무야.”

“그리고 보니 그 나무가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몇 군데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귀한 천연기념물이라 했어요.”

나는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호랑가시나무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났다.

다음 날, 어김없이 티티새가 베란다로 날아들어 왔다.

티티새는 예전처럼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앉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나에겐 사나운 가시가 있기 때문이다. 창틀에 앉아서 나의 기분을 살피고 있는 티티새에게 내가 먼저 말을 건넸다.

"티티새야, 넌 호랑가시나무에 대해 알고 있니?"

"물론, 알고 있다 뿐이냐? 호랑가시나무의 꽃말이 무언지 아니? 네가 원한다면 호랑가시나무와 우리 티티새의 전설도 말해 줄 수 있어."

난 티티새를 통하여 어렵풋이나마 호랑가시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지금 한국에서는 호랑가시나무의 유래를 '호랑이 등글기'에서 찾는다고 했다. 호랑이가 등이 가려울 때 이 나무에 밑에 와서 뽀족뽀족 돌아난 잎의 가시로 등을 긁었기 때문이란단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예수님이 빌라도의 채찍을 받으며 "나는 왕이니라."라고 하자, 군병들이 예수를 조롱하며, 황제의 월계수 면류관 대신 호랑가시나무로 만든 가시관을 씌운 이야기라든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이마에 파고드는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며 고통을 받을 때, 그 고통을 덜어 주려고 날카로운 가시를 부리로 뽑아내다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죽은 가냘픈 작은 새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로빈새(티티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어쨌든 이 나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건 우리에게 길조임이 분명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동의를 구하며 무척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우리가 처음 만나 사랑을 할 때, 함께 떠난 등산지에서도 이 나무를 보았어. 그리고 우린 약속했었지. 사시사철 푸른 상록수처럼 우리 사랑 변치 말자고-."

아버지도 약간은 상기된 듯 얼굴색을 바꾸며 맞장구를 쳤다.

"그래요. 사시사철 푸른 잎에 빨간 구슬처럼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이 나무는 틀림없이 우리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줄 거예요."

두 사람의 의심쩍은 눈이 이내 별빛처럼 빛났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이 통하

는지 부드러운 눈길로 마주 쳐다보았다.

“어서 물뿌리개를 가져와요. 물을 주고 보살펴야 사랑의 열매가 열릴 테니까. 벌써 한 쪽에선 꽃들이 지고 있는 걸!”

“이 화분을 아래층 마당으로 가지고 가요. 우리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야 관심을 갖고 가끔씩 물을 줄게 아니겠소?”

그들은 예전의 부모가 아니었다. 그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그들의 말씨가 달라졌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다.

며칠 전부터 집안에서 고양이 소리가 들려왔다. 어찌된 일인지 티티새에게 물었다. 얼마 전 불량배들한테서 다리와 꼬리를 잘린 그 고양이를 우리 부모가 집으로 데려와 극진히 간호해주면서 기르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갑자기 기운이 솟아났다. 어깨와 팔다리에 힘을 주어 크게 기지개를 켜다. 오늘따라 공원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맑고 시원하게 느껴졌다.

“야, 저기 석이랑 짱이랑 나타났다. 오늘은 또 무슨 사고를 칠까? 기다려지는데? 어 때, 호랑가시나무야, 너도 기대되지 않니?”

공원에서 아이들이 지나가는 여학생들의 책가방을 빼앗아 놓고 길을 막고 있었다.

“안 돼, 티티새야,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편히 쉬고 싶어 찾아오는 공원에서 저런 나쁜 일들이 벌어지면 되겠니? 티티새야, 네가 말했지? 넌 예수님의 이마에 박힌 가시들을 뽑아주다가 죽은 의리 있는 로빈새의 후손이라고. 그런데 넌 지금 좋지 않은 비행들을 보면서 즐기고 있단 말이다.”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너도 이미 사람은 아니야, 넌 나무란 말이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천연기념물로 보호하는 나무라니까 그래도 넌 역세계 재수가 좋은 놈이지만-. 그래, 너와 내 생각은 같지 않을까? 이놈의 세상 믿을 것 하나 없으니 아무렇게나 되라고-.”

“아니야, 난 우리 부모의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도 바뀌었어.”

“흠, 네 생각이 진정이라면 내 마음도 바꾸어 볼까?”

티티새는 보르르 날아서 석이랑 장발 짱이랑 불량배들이 모인 곳으로 날아갔다.

이윽고, 티티새가 무엇을 어찌 했는지 몰라도, 그들은 여학생들에게 길을 터주었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 벤치에 앉아서 자기들만의 게임을 즐기며 킬킬거리고 있었다.

나는 뒤늦게야 내 잘못을 깨달았다.

‘정말 그럴 생각은 조금도 없었는데-. 나 때문이야.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세상을 저주했기 때문이었어. 아무리 어른들이 미워도 이 아름다운 공원에서 더 이상의 비행은 안 돼.’

나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엄습해오는 무서움에 떨었다.

“우리 부모도 서로를 용서하고 나를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는데, 나는 지금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잖아.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무력무력 자라서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것뿐이야. 나무가 한 곳에 자리를 잡으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듯이 가정의 행복과 사랑도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게 말이야.”

나는 무성한 잎을 자랑하며 죽죽 자라났다. 부모가 매일매일 번갈아가며 사랑의 말을 건네주고, 목이 마를세라 자주자주 관심을 가지고 물을 주었기 때문이다.

“호랑가시나무야. 어서어서 잘 크렴. 우리 훈이 너를 보면 무척 반가워 할 거야. 넌 멋진 나무야, 사시사철 푸르니까 우리 훈이 아무 때나 와도 상관없어. 봄여름 가을도 좋고, 하얀 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 식구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너에게 예쁜 장식을 매달아 줄게.”

어머닌 우리 가족이 함께 모이는 날을 꿈꾸고 있었다.

나는 은은하게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부르는 찬송가였다. 두 사람은 아들을 위해 가까운 성당을 찾아가

기도를 하는 것 같았다. 주말은 물론이고 새벽기도도 빼놓지 않고 다녔다.

“하느님, 우리 혼이 어디에 있든 건강하고 무사하게 잘 지내다가 돌아오도록 도와주세요.”

그들은 틈만 나면 기도를 하며 내가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나는 좁은 화분에서는 뿌리를 쪽쪽 뺏어나갈 수가 없었다. 자리가 좁아서 답답하고 힘들었다. 그들은 나의 속마음을 벌써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삽과 팽이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다.

“이 나무를 대문 옆에 심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오가며 늘 바라볼 수 있고, 또 공원으로 놀러오는 사람들도 함께 볼 수 있어 좋을 테니까요.”

“그렇게 합시다. 아마도 이 나무가 우리 키만큼 자라면 우리 아들도 틀림없이 돌아올 거요.”

“그래요. 우리가 이사를 가면 혼이 집을 찾아올 수 없을 테니까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공원 입구 이 집에서 떠나지 맙시다.”

나는 더없이 행복했다. 드디어 우리 부모가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법을 알게 되었다는 기쁨에 주르르 눈물을 흘렸다. 그 수액이 두 사람의 손에 닿자 그들은 서로 두 손을 꼭 붙들었다. 그들의 입에서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흘러나왔다. 물론 내가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울먹임이었지만.

그들은 마당 한 쪽의 흙을 깊이 파고 더욱 윤기를 발하는 나를 곧추세웠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붙들고 마주 서서 두 발로 자근자근 뿌리가 흙에 잘 묻히도록 밟아주었다. 누가 들을세라 작은 소리로 찬송가를 부르며.

이제 공원은 완전히 푸른빛으로 변했다. 나 또한 질세라 반짝반짝 윤이 나는 두꺼운 이파리들을 자랑스럽게 펼쳐보였다. 나는 전에 티티새로부터 들은 호랑가시나무의 꽃말을 떠올렸다. ‘당신을 지켜줄게요’ ‘가정의 행복, 평화’ ‘앞날을 준비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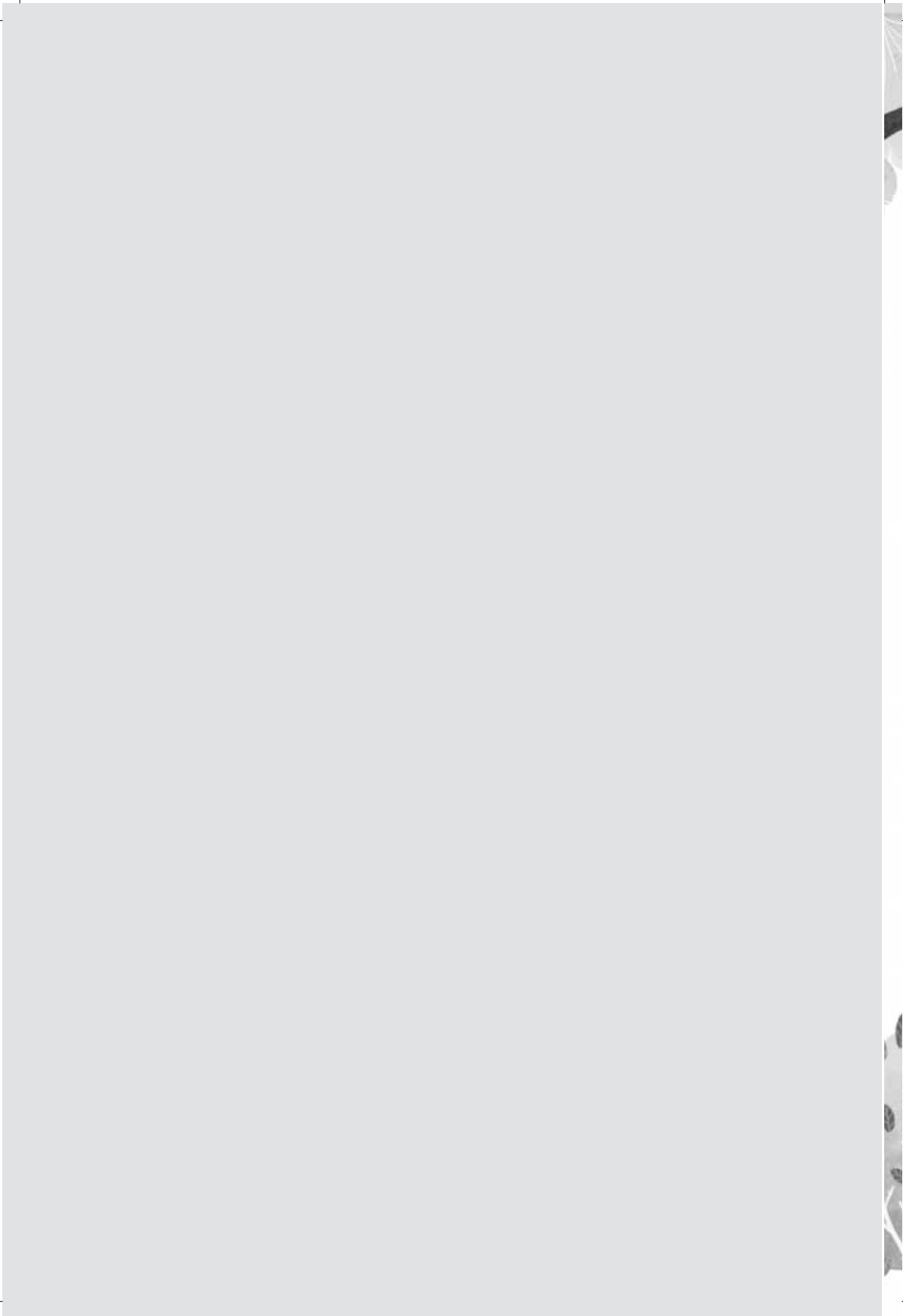
어디선지 고운 새 한 마리가 옆에 있는 높은 나뭇가지 위에 날아와 앉았다. 모처럼 명랑하고 유쾌한 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아래 낮은 가지에서는 내

비밀을 영원히 간직한 채, 나와 함께 지낼 티티새가 부리와 꼬리를 위아래로 흔들며 박자를 맞추고 있었다.



최균희

- 197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화 당선
- 창작동화집 『아기 참새』 외 30권
- 장편소설집 『평양기생학교 스캔들』 단편소설집, 『라인강의 푸른 날개』
- 청소년 장편소설 『꿈을 가꾸는 교정 1, 2, 3권』 자서전 『교육과 문학, 두 수레바퀴를 굴리며』 등
- 한국문학예술상, PEN문학상, 한국아동문학창작상, 김영리아동문학상, 상상탐구작가상, 개나리동요대상, 독서문화상, 어린이날 본상, 홍조근정훈장 등





제4부

제17회 한성백제백일장

일반부 대상 | 전진희 _ 배넛저고리의 언어
금상 | 박서윤 _ 관계의 언어
은상 | 권수민 _ 숨, 1961
동상 | 김선영 _ 세상을 바라보는 자리

학생부 대상 | 안유찬 _ 곰팡이꽃
금상 | 전유선 _ 식탁 위 방부제
은상 | 정예은 _ 방부제 여름
은상 | 박세건 _ 꼬리
동상 | 장하은 _ 멀미
동상 | 박준우 _ 징검돌 작전

2025년 제17회 한성백제백일장 당선자 명단

◆ 일반부

	이름	주소	비고
대상	전진희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로	운문
금상	박서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산문
은상	권수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운문
동상	김선영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	산문

◆ 학생부

	이름	주소	비고
대상	안유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문일고등학교 3학년	산문
금상	전유선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안양고등학교 3학년	운문
은상	정예은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하안북중학교 3학년	운문
	박세건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진건초등학교 6학년	산문
동상	장하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와룡고등학교 3학년	산문
	박준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서울용동초등학교 3학년	운문

2025년 제17회 한성백제백일장 심사평(운문)

더 멋진 현재를 위하여

심사위원 | 서주문 · 이상진 · 이영숙(글)

어느 글에선가 나는 과거에 대한 주석과 현재에 대한 해명과 미래에 대한 전망이 상상력을 빌려 글로 표현된 형태가 문학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는 우리가 과거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끌어당겨 쓰는 현재적 존재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 특히 시에서 그것은 사물의 기원과 지금까지 없었던 세계의 도래를 현재화한다. 다시 말하자면, 시를 쓰는 현장으로서의 지금—여기가 과거와 미래의 용광로이며 저수지라는 의미이다. 맑게 제련된 쇳물이고 영양분이 풍부한 물줄기로서의 시는 현실을 향해 나아간다. 2025년도 한성백제백일장에서 이는 어떻게 구현되었을까. 운문과 산문의 공통 주제는 일반부가 <배넷저고리>와 <원근법>이고, 중·고등부는 <방부제>와 <멀미>, 초등부는 <꼬리>와 <징검돌>이었다. 특히 일반부의 시 당선작에 주목하게 된다.

일반부 장원을 차지한 전진희의 「배넷저고리의 언어」는 ‘배넷저고리’와 ‘시’를 은유적으로 겹쳐 놓으면서 전혀 새로운 지점을 확보하고 있다. 시 속에서 “세상의 모든 질문”이나 “묻지 않는”, “말을 건넬 수 없다”의 의미는 모두 ‘질문’으로 모아진다. 세상의 질문은 실용적이고, 이분법적이고, 가치편향적이기 일쑤이다. 그러나 ‘배넷저고리’의 “여백”은 미래 세계의 “질문”을 무용하게 만든다. ‘배넷저고리’에는 아직 “단추”라는 고정관념도 없다. ‘질문’은 미래로부터 ‘배넷저고리’에 당도하지만, “침묵의 대표자”로서의 ‘배넷저고리’는 어떤 언어(질문)에도 물들지 않는 순수의 기원(起源)이다. “감싸기만 하고 묻지 않

는/아주 오래된 사랑의 문법”으로서 ‘배냇저고리’는 “옷이 아니라/처음부터 온전히 한 사람을 위한 시였다”는 것. ‘배냇저고리’와 ‘시’는 ‘아기’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경이와 찬탄을 “침묵”으로 수행한다.

‘배냇저고리’는 신성한 의식(儀式), 혹은 주술과도 연계된다. 일반부 은상 수상작인 권수민의 「숨, 1961」에서 그것은 “지니고 있으면 좋은 일만 생”기는 기원(祈願)의 대상이다. “이사가는 내 손에 외할머니가 쥐여주신” “외삼촌의 배냇저고리”처럼, 실제로 우리 중 일부는 대학이나 취업 시험 보러 가는 당사자의 ‘배냇저고리’를 품에 넣었던 경험들이 있다. 1961년생인 ‘외삼촌’이 첫 숨을 터뜨린 후 입었던 “한 뽀짜리” ‘배냇저고리’가 “반세기”의 시공을 거쳐 “낯선 새집”에서 불러일으키는 “축복”의 광경을 보라. “할머니의 청춘과 삼촌의 첫 숨이/가만히 손을 잡고 걸어 들어”와 “텅 빈 방에 우리 가족의 역사를 새겨 넣”는다. “좋은 일만 생긴”다는 “외할머니”의 말씀은 앞으로도 내내 진실일 것이다.

학생부 금상 수상작인 전유선의 「식탁 위 방부제」에는 제목과는 달리 “상한 냄새”와 “썩 향”이 진동한다. “아빠”의 부재에 대한 “엄마”의 추모, 혹은 사랑 방식은 “아빠가 좋아하던 김치를 버리지 못하”는 다소 독특한 방식으로 표출된다. “엄마,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라고 항의하면서도 “서로 부패하지 않으려/매번 말을 삼”키는 “우리”에 의해 방부제 역할을 하는 “엄마”의 의지는 강화된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조금은 유예되지만 결국은 함께 “부패해 가는” 추모의 극단이 “미묘”한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시이다. 시로 독자를 설득할 수 있는 시적 논리에 대한 이해가 조금만 더 확장되기를 바란다.

정예은의 「방부제 여름」(학생부 은상)도 ‘물건이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쓰는 약제’라는 일반적 정의를 뛰어넘는다. ‘방부제 있는 남들의 세계’와 ‘방부제 없는 나의 세계’가 대립하면서도 남들의 세계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의젓함이 느껴진다. 다소 거칠지만, 도발적인 상상력과 감각적 이미지로 충만한 시를 이끌어가는 이 자의식 강한 소녀가 이제 중3이라는 사실은 놀랍다. “에어컨 없

이도 번지지 않고 녹지 않는 법은 내가 알고 싶은 것”이란 화두를 풀어나가는 솜씨도 좋다. 다만, “세수해도 지워지지 않는 이마 위 땀방울” 등의 몇 시구에서 ‘지워지지 않는’을 대체할 수 있는 적합한 구절을 찾아내는 훈련을 병행하기를. 스스로 정진하리라 믿는다.

학생부 동상을 수상한 박준우의 「징검돌 작전」은 심사위원들을 한동안 미소 짓게 했다. 아홉 살 무렵의 화자와 그 동생이 펼친 ‘작전’의 유쾌함 때문이다. “엄마”를 속이는 이 천진한 동심에는 그늘이 없다. 옷을 세탁기에 돌려야 하는 엄마의 수고보다 형제애는 몇 배 늘었을 것이므로, 엄마도 아이들도 손해 본 게 없다. 엄마 역시 자신의 엄마를 ‘속이는’ 천진한 동심의 힘으로 지금의 건강한 엄마가 되었을 것이다. 만약 엄마가 물에 빠진 아이들을 신나게 놀도록 놔두지 않았다면, 이 시는 태어나지 못했다. 이 형제는 자라서 다시 자신의 아이들에게 ‘속아주며’ 그들을 성숙시킨다. 이 글의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이 형제의 현재 속에 과거와 미래가 다 들어와 있다.

좋은 작품들이 더 있었는데 준비된 상(賞)이 협소하여 아쉬움이 크다. 일반부에서 장동휘의 「응시」와 김인서의 「원근법」이 그렇고, 시조로 응모한 이인환의 「배냇저고리」도 수작이었다. 중·고등부에서는 김선희의 「방부제」와 황서준의 「내게 필요한 방부제」, 이형규의 「미래일화」, 조수영의 「반항」 등도 내려놓기가 못내 서운했다. 초등부에도 좋은 작품이 많았다. 정원혁의 「꼬리는 말없는 이야기」와 김태율의 「징검돌 선생님」, 이서후의 「엄마 꼬리」, 김지완의 「최고의 꼬리」, 김은우의 「징검돌에서」, 현진서의 「할아버지의 징검돌」 등이 그것이다. 다른 기회에 다른 지면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현재의 기쁨은 과거로부터 와서 현재를 관통하여 미래로 간다기보다 이미 지나온 과거와 미리 와 있는 미래의 산물, 그러므로 먼저 누리는 미래의 기쁨이기도 하다. 더 멋진 현재는 그렇게 만들어진다. 수상자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2025년 제17회 한성백제백일장 심사평(산문)

심사위원 | 김 경 · 양순복 · 손경형(글)

2025년 제17회 한성백제백일장 산문 주제는 학생부<초등부 꼬리, 징검돌, 중·고등부 방부제, 멀미>, 대·일반부<배넛저고리, 원근법> 등이다.

학생부 대상 안유찬 고3 <곰팡이 꽃>이다. 주인공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특정한 직업 없이 각 공모전에 도전하는 청년이다. 주인공은 응모하는 공모전마다 떨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에 AI를 이용해 그린 그림이 상을 타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그 뒤 주인공은 스스로 노력 없이 AI에 매달린다. 그러다가 우연히 집안에 벌레가 득실거리는 것을 보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요즘 바쁜 세상 과정보다 결과만 중시하는 세대 흐름을 잘 반영한 작품이다.

은상 박세진 진건초 6학년 <꼬리>다. 주인공 나는 유기견 머털과 친구처럼 지내다가 저세상에 보냈다. 엄마는 머털이 죽기 전 여러 곳에 공고를 보냈는데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머털이와 이별을 하고 나는 먼 훗날 자신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머털이 꼬리를 흔들며 마중 나와 주기를 바란다. 요즘은 반려견을 자식처럼 키우는 추세다. 나와 머털이 이야기가 잔잔하게 감동으로 다가온다.

동상 장하은 고3 <멀미>다. 고등학생 주인공 내가 사춘기를 겪는 과정이다. 공부에 진심인 유찬, 배우를 꿈꾸는 하빈, 사회 경력을 중요시하는 성진 등 친구들은 자신의 꿈을 향해 움직인다. 그런데 주인공 나는 뚜렷한 목표가 없다. 엄마는 갱년기, 아빠는 실업자, 사춘기를 심하게 앓고 있는 여동생. 나는 학교와 집에서도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고 멀미를 하고 있다. 그래도 멀미를 극복하기 위해 '진로 희망 작성지'를 쓰기 위해 펜을 찾는다.

일반부 금상 박서윤 <관계의 언어>다. 주인공 나는 미술학원에서 그림을 그린다. 선생이 그림을 그릴 때 원근법을 기억하라고 한다. 나는 그 말을 자신의

삶에 도입한다. 성인이 되어 회사 출근을 하면서 노숙자를 만나게 된다. 외면할 수도 있는데 자원봉사를 시작한다. 자원봉사를 막연한 동정심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다. 나는 노숙자들과 자신을 같은 캠퍼스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미래와 원근법적인 관계를 연결해서 바라보며 만족해한다.

동상 김선영 <세상을 바라보는 자리>다. 주인공은 사람들은 어느 자리, 어느 곳,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 나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로 인해 자기 생각만 당연하다고 주장하면서, 타인을 편협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삶을 살아가는 형태도 전부 다르다. 결론은 주인공은 나와 타인과의 사이에 원근법이 필요하다는 신선한 접근을 말하고 있다.

심사하면서 위의 작품 외 좋은 작품도 있었지만, 수상 인원이 한정돼 함께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다음 기회에 더 좋은 작품으로 만나기를 기대해 본다.



배넷저고리의 언어

전진희

태어나기 전부터
누군가의 숨결을 꿰매어 만든 문장
단추 하나 없는 그 옷은
세상의 모든 질문 앞에
대답이 아닌 여백으로 태어난다

감싸기만 하고 묻지 않는
아주 오래된 사랑의 문법
바느질한 이의 마음은 겉보다 안이 더 조심스럽고
실밥은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엔 밤샘이 숨겨져 있다

아이는 기억도 하지 못하는 따스한 손길
그 옷은 입히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벗겨지기 위해 만들어졌다
성장은 벗어버린 것을 쌓아 올리는 것이고
모든 시작은 잊히는 것에서부터 자란다

버려지지 않기 위해 작아지는 옷
더 이상 맞지 않기에 더 깊이 간직되는 옷
시간은 그것을 낡게 하지만

의미는 그것을 두텁게 만든다

세상은 아이에게 무수한 옷을 입히겠지만
배냇저고리만큼 포근히 감싸던 옷은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랑이 말을 건넬 수 없다면
배냇저고리는 그 침묵의 대표자다

말 대신 입히고, 기억 대신 남겨지는 것
그건 옷이 아니라
처음부터 온전히 한 사람을 위한 시였다



관계의 언어

박서윤

어린 시절, 나는 조그마한 동네 미술학원 구석에 앉아 하얀 캔버스와 마주했다. 연필 끝이 부드럽게 종이를 스칠 때마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은 마법처럼 변했다. 선생님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원근법은 단순한 기법이 아니란다. 멀리 있는 것은 작아지고,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이지.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같지 않지. 서로 다른 존재들의 거리와 의미를 존중하는 방식이란다.”

나는 붓 대신 연필을 쥐고 눈앞 풍경 속 나무들이 서서히 작아지는 모습과 산이 떨어질수록 희미해지는 모습을 그렸다. 연필 선을 따라 떨어지는 언덕은 마치 사람들 사이의 거리처럼 느껴졌다. 가까운 것은 선명하고 멀리 있는 것은 흐릿했지만 모두가 그 공간 안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캔버스 위의 작은 집 한 채와 저 멀리 미세하게 점처럼 찍힌 사람들. 이들은 서로가 얼마나 떨어져 있든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는 듯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세밀한 결까지 그려내려 할 때였다. 문득 선생님의 말씀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원근법은 눈에 보이는 거리뿐 아니라, 마음의 거리도 잴 수 있는 도구란다.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각자의 자리를 존중하며 함께 그려지는 그림이 바로 우리 삶이지.”

그 순간, 나는 원근법이 단순한 그림 기술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림이 아닌 언어를 배워가고 있다. 세상 모든 존재가 서로의 거리를 인정하며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그 신비로운 언어를 배워가는 중이라는 것을 말이다.

성인이 되어 복잡한 도시에서 하루하루를 쫓기듯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다. 출근길 회색빛 아스팔트 위를 종종걸음으로 걷던 내 시선이 문득 멈춰섰다. 횡단보도 앞,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는 한 노숙인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낡고 해진 외투에 얼굴은 수염으로 덮여 있었고, 손에 쥐 종이컵은 거의 비어 있었다. 따스한 봄볕 아래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애써 외면하며 곡선처럼 휘어져 그를 피해 지나갔다.

몸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졌고, 누군가는 코끝을 찌푸렸다. 나 역시 처음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무심코 주머니 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다른 곳에 두려 했던 그 순간 이상하게도 어린 시절 배웠던 원근법이 떠올랐다.

하얀 종이 위, 멀어질수록 작아지고 흐릿해졌던 나무와 사람들. 하지만 그 작은 점 하나에도 내가 공들여 명암을 넣고 형태를 살렸던 기억이 떠올랐다. 가까이 있는 것만이 선명하고 중요한 건 아니었다. 멀리 있는 것도 비록 눈에 잘 띄지 않더라도 그 풍경 전체의 균형을 이루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라는 생각이 들었다. 차림새는 낡고 삶의 자리는 나와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어쩌면 나와 같은 캔버스 위에 존재하는 또 다른 주인공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리감은 냄새 때문도 옷 때문도 아니었다. 내가 내 마음에 선을 긋고 있었던 것이다.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깜빡이며 파란불로 바뀌었고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있었다. 그를 다시 바라보았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 홀로 묻혀 있던 그 작은 점 하나가 갑자기 내 삶의 한복판으로 확대되어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란 우리가 정한 선의 문제일 뿐일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 더 세심히 그림을 바라보기로 마음먹었다. 모든 존재가 그 위치와 거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선을 거두기로 말이다.

나는 작은 결심 하나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엔 막연한 동정심일지도 모르겠다. 좋은 사람처럼 남들에게 보이고 싶다는 생각. 나보다 불행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착각.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그 생각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따뜻한 국밥을 건네며 눈을 마주친 순간 말없이 내 손을 꼭 잡아오던 거친 손바닥에 울컥하며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낫설기도 했다. 그 속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서사의 조각들이 숨어 있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와는 전혀 다른 궤도를 살아온 이들이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엔 웃음도, 사랑도, 자존심도, 상처도 있었다. 하나하나가 깊은 음영으로 겹겹이 쌓인 진짜 인물들이었다.

나는 그들과 눈을 맞추는 법을 배웠다. 마치 원근법을 처음 배울 때처럼 가까운 것만이 전부가 아니란 걸 알게 되었다. 멀어져 보이던 사람들과의 간극은 사실 단순한 시선의 조정으로도 충분히 메울 수 있었다. 조금 더 낮은 눈높이와 조금 더 천천히 다가가는 마음. 그 안에 존재하는 무수한 감정과 고요한 존엄이 내 마음을 조용히 흔들었다.

어느 흐린 날 오후, 정리하다 우연히 꺼내 본 어릴 적 스케치북 속 풍경화가 나를 멈춰 세웠다. 연필로 그은 소실점과 가늘게 점점 줄어드는 선들이 떠올랐다. 멀리서 희미하게 서 있는 사람. 나는 그 그림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원근법은 단순한 시각의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었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재는 마음의 태도였다. 누구나 각자의 자리에서 존재의 빛을 내고 있으며 그 누구도 그림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삶이라는 거대한 캔버스 위에서 우리는 모두 함께 그려지고 있었다. 가까이 있는 이들의 숨결은 선명하고 멀리 있는 이들의 실루엣은 흐릿했다. 어느 하나

빠져서는 완성될 수 없는 풍경이었다. 그 조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조금씩 아름다워지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숨, 1961

권수민

이사하는 내 손에 외할머니가 쥐어주신 것은
외삼촌의 배냇저고리.
지니고 있으면 좋은 일만 생긴단다.
묵묵한 장롱 냄새와 함께 반세기 전 첫 울음이 건네졌다.

모든 것이 낯선 새집의 아득한 공간,
그 한가운데에
할머니가 찍어주신 소실점 하나.

한 뼉짜리 흰 천 위에 생의 좌표가 찍혀 있다.
가까스로 여민 옷고름은 운명의 첫 매듭이었을까,
과거의 어느 출발점에서 뻗어 나온
가늘고 희미한 연장선.

가장 작은 것이 가장 먼 시간을 끌어당겨
텅 빈 방에 우리 가족의 역사를 새겨 넣었다.
점 하나로 다정한 깊이를 만든 할머니의 원근법

배냇저고리 하나가 내 낯선 공간의 중심을 잡는다.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고 있다.

시작이란 본디 가장 깊은 사랑에 뿌리내리는 일임을,
할머니의 구겨진 손이 가르쳐주신다.

반세기의 시간이 바래고 스뻘어도
아직 따스한 하얀 천의 곁 속으로
할머니의 청춘과 삼촌의 첫 숨이
가만히 손을 잡고 걸어 들어온다.



세상을 바라보는 자리

김선영

예닐곱 무렵이 되니, 아이들은 사물의 모양을 제법 잘 따라 그렸다. 전체의 윤곽도 세부적인 묘사도 괜찮아, 표현력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원근 표현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보이는 대로 그리면 돼. 앞에 있는 건 크게 보이고 뒤에 있는 건 작게 보이지? 앞에 사람이나 사물이 있으면 뒤에 있는 걸 가리니까 안 보이는 게 당연하고. 실제 보이는 대로 표현하면 된다니까.”

아이에게 그렇게 특, 말을 내뱉을 때 만해도 내가 사용하는 ‘실제’라는 말의 함정을 자각하지 못했다. 사람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위치에 대한 인식 없이, 내 눈에 담긴 것과 달리 표현되는 것을 틀리게 받아들였던 오류 말이다. 그러니 놀이터에서 보고 들은 것을 표현한 아이의 그림일기를 보고, 아무렇지 않게 지적했을 것이다.

“연아, 비행기는 아주 멀리 있으니까 아주 작게, 마치 한 마리의 개미처럼 보이는 거야. 그리고 나무 꼭대기에 달린 나뭇잎은 왜 이렇게 크게 그렸어?”

다행히 아이는 주눅 들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다.

“엄마, 내가 그네를 진짜 높이 탔거든요! 높이 올라가서 나무를 올려다봤는데 나뭇잎이 진짜 크게 보였어요. 하늘 가까이 올라가니까 비행기도 크게 보이고…”

“그렇지. 그네를 타고 세상을 보면 멀고 가까운 게 계속 바뀌겠네. 그러면 그네를 타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보이는 대로 그린 거야?”

“아니, 그냥 그린 건데요?”

대답은 허술했지만, 딸내미와의 대화는 많은 생각을 남겼다. 실재(實在)하는 것과 실제(實際)로 지각하는 것은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인데, 나는 왜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는지 의구심이 들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위치를 자각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즐곧 생각했다. 관찰자의 눈높이가 달라지면 인식되는 세계도 달라질 터, 끊임없이 변하는 수평선과 소실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관찰자를 고정해 놓아야 한다는 전제가 따르지 않겠는가. 내가 바라보는 세계가 고정되어 있는 객관의 실재(實在)라고 전제했기에 '보이는 그대로'가 있다고 착각했으며 나와 다른 시각에 대해 맞고 틀림의 잣대를 들이댔을 것이다.

견고한 원근법을 적용하며 살아온 세월에 생각이 머문다. 신 목전에 이르렀으니 그동안 나의 눈높이와 사과의 귀결점은 여러 차례 달라졌을 텐데 나는 왜 여전히 내 시각의 절대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내 삶의 수평선과 소실점은 끊임없이 변해왔다. 관찰자였던 나의 성장으로 수평선의 위치가 달라지기도 했고, 주변 요소가 급변하여 나의 시각을 교란하기도 했다. 같은 시간대에 머물면서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관찰자인 나의 위치가 달라졌음을 깨달을 때도 있었고 말이다.

같은 위치에서 바라보는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멀리 보이는 것과 가까이 보이는 것, 확대되어 보이는 영역과 축소되어 보이는 영역이 달라지는 법이다. 하물며 삶은 포물선 운동을 하는 그네처럼, 때로는 가파른 상승-하강 곡선을 그리는 롤러코스터 트랙처럼 변화무쌍한 속성을 지니고 있으니, 개인의 시각은 수많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리라. 가상의 선이 모이는 소실점은 현실 세계에 실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고정된 세계를 지각하는 원근법의 원리를 적용할 때는 조건의 한계를 인식하는 눈이 필요하다.

언젠가 시좌(視座)라는 용어를 접하고 그것이 설명하는 개념의 적절함에 몹시 공감했던 적이 있다. 시좌(視座)는 '사물을 보는 자세' '개인이 자기의 입장에서 사회를 보는 시점을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된다. '원근법'은 회화 영역의

용어로, ‘시좌’는 정치사회학적 용어로 통용되기에 이 둘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회화를 그릴 때 원근법의 한계를 정치사회학적 감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과 나의 관계를 고정된 것으로 전제하고 나의 시각에 절대성을 부여했던 그 기법의 한계 말이다.

상대가 그린 인생 그림을 보거나 내 삶의 그림을 보여주기 이전에, 항상 기억해야 할 질문이 있음을 깨닫는다. 바라보는 위치의 한계를 자각하고자 스스로 던지는 질문들, ‘당신의 자리에서는 무엇이 보이나요?’ ‘당신의 자리에서 크게 보이는 부분과 작게 보이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당신의 자리에서 희미하게 다가오는 세계와 진하게 다가오는 세계는 어떤 영역인가요?’…

시좌에 대한 자각이 생기면 수평선의 위치가 다를지라도 타인의 눈높이를 함부로 폄훼하지 않을 것이고, 수평선 아랫부분을 크게 인식하는 이와 그 윗부분 확대하여 생각하는 이를 비교하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나에게겐 한없이 축소된 세계가 누군가에게겐 넓고 깊은 세계로 지각될 수도 있음을, 중국엔 내 시좌에선 볼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무지 앞에 겸손해질 수 있으리라.

세대 격차를 실감하느라 매사 버거운 늦둥이들과의 관계, 성격 차이를 메꾸느라 시도 때도 없이 진지해지는 남편과의 관계, 나를 갈아 넣는 것 같아 늘 억울한 직장 상사와의 관계를 떠올린다. 그뿐이랴, ‘나완 곁이 다른 사람이다’라며 뒷담화를 늘어놓게 되는 동료와의 관계, ‘간섭하고 조종하려 한다’ 싶어 멀리하고 싶은 원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높이, 즉 수평선은 철저히 관찰자 중심이고 그 소실점은 가상의 선을 연결한 것에 불과하니 나도 모르는 사이 세계의 중심에 나를 세워두고 원근법을 적용한 것은 아닌지…

변화무쌍한 것을 부러 고정할 수 없고, 흘러가는 것을 억지로 정지시킬 수 없다. 관찰자가 아니라 삶의 주체로 살아가기에, 우리는 모두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있으며 때로는 격렬한 변화에 노출되기도 한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내가 터득한 원근법이 무용하지는 않았으나, 이제는 그것의 한계를 자각할 때인 것 같다. 관찰자의 자리에서 맞고 튕림의 잣대를 들이미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무쌍한 궤도와 다양한 시좌를 인정하는 삶의 주체가 된다면, 나를 소진케 하는 모든 관계도 안온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곰팡이꽃

안유찬

대학교를 휴학한 후 일년 내내 청년은 취업을 위한 실적을 쌓기 위해 전국에서 실력자들이 모이는 공모전, 이름도 처음 들어본 시골 동네에서 열리는 공모전까지 참가하며 발버둥을 쳤다. 하지만 매번 돌아오는 것은 청년의 능력 부족으로 인한 침묵뿐이었다. 탈락 문자조차도 오지 않았다. 공모전 결과 게시판엔 언제나 그의 이름이 빠져 있었다. 알림도 없고 연락도 없던 나날은 그 스스로도 실패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들었다.

그 즈음, 수도권도 아니고 이름도 낯선 공모전이 열렸다. 홍보 페이지는 허술했고 주목받을 만한 행사도 아니었지만 감각을 놓치지 않기 위해 청년은 무작정 지원했다. 당시 그는 거의 그림을 그리지 않았고 손끝엔 아무 의지도 없었다. 공모전 주제는 '생명'이었다. 청년은 한 달 전에 출시한 AI 기반 창작 앱에 '생명', '유리', '완벽'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무심하게 생성 버튼을 눌렀다. 만들어진 그림에는 비틀거리는 선이 없었고 고뇌한 숨 또한 없었다. 치열히 선을 덧댄 흔적 또한 찾아볼 수 없었고 주저한 자국도 없는 그저 정제된 결과물일 뿐이었다.

청년은 며칠 뒤 문자를 한 통 받았다. 그는 별 생각이 없었다. 언제나처럼 무료 쿠폰을 주겠다거나 무언가에 당첨되었다며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겠거니 지레짐작하고 휴대폰을 켜 그는 너무 놀라 얼어붙었다. 메시지의 시작은 '축하합니다'였고 얼마 전 AI가 만들어준 그림이 청년에게 상을 안겨주었다는 연락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청년은 간만에 외출 준비를 했다. 언제 입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주글주글한 셔츠를 푹푹이 다리고, 끈적한 왁스를 머리에 꼼꼼히 바

르고 문을 나섰다. 시상식이 열리는 공간은 어느 시골의 낡은 소극장 같은 그저 그런 곳이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의 심장은 미세하게 뛰고 있었다. 그곳에서 청년은 화려한 꽃다발과 그림이 인쇄된 액자를 받았다. 액자를 들고 그는 카메라 앞에 서서 환하게 웃으려 했지만 너무 오랜 시간 웃지 않아 웃음의 형태조차 잊은 자신을 인지하곤 쓸쓸하고도 기쁜 마음 사이 어딘가에서 굳어 있던 표정을 꺼내 들었다.

그날 이후부터 청년의 손은 그림 그리는 것을 멈추었다. 청년이 하는 거라곤 그저 앱을 키는 것이었다. 키워드를 집어넣고 그림 생성 버튼을 누를 뿐이었다. 그림 위에 남은 흔적은 그의 이름 석 자뿐이었다. 심사는 늘 통과되었고 수상자 명단엔 그의 이름은 계속해서 올라왔다. 칭찬이 이어지고 연락처를 묻는 이들이 늘어났다. 청년은 매번 당첨되는 복권을 지닌 기분이었다. 이왕 주어진 행운이라면 인생을 바꿀 정도로 써먹어 주겠노라고 청년은 다짐했다.

그렇게 청년의 스펙은 점점 화려해져만 갔다. 청년의 방에는 수상을 축하하는 상장들과 꽃다발들로 가득 찼다. 그날도 그는 AI에 키워드를 입력하고 있었다. 청년이 키보드를 딸깍거리는 정적만이 이어졌던 방 안의 정적을 깬 건 그리 크지 않았던 휴대폰 알림이었다. 휴대폰 속에 무심하게 1년 전 오늘이라는 주제로 온 사진에는 꽃다발과 그림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자신이 있었다. 흐릿하게 그때를 회상하던 청년은 문득 그때 처음 받았던 꽃다발이 떠올랐다. 간만에 꽃다발을 보며 달려온 자신을 격려하고자 청년은 꽃을 찾았다. 청년은 사진에서 눈을 떴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가를 바라보았다. 그 자리에는 꽃다발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꽃들의 시체만이 있었다. 색이 바랜 꽃잎은 마른 종이처럼 바스라졌고, 줄기 끝에는 희끄무레한 곰팡이들이 얼룩처럼 피어 있었다. 그는 다 찢어버린 꽃을 들여다보다가 어느 순간 캔버스 위를 기어가는 작은 애벌레 하나를 발견했다. 그 생명체는 썩은 꽃으로부터 나온 듯했다.

청년은 원래부터 벌레를 싫어했지만 왜인지 가만히 애벌레를 바라보고 있었다. 느릿느릿 기어가는 애벌레의 배 아래에는 그의 이름 석 자가 쓰여져 있

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 청년은 문득 애벌레가 기어 나왔던 그 꽃다발을 다시 바라보았다. 꽃잎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발끝으로 건드리자, 마른 종이처럼 바스르졌다. 꽃 사이에서 흘러나온 물은 유리 화병 바닥에 고여 탁하게 변색되어 있었다. 화병 속에는 물에 풀어서 쓰라고 준 방부제가 오래되어 생긴 무거운 입자들로 이루어진 침전물들이 함께 가라앉아 있었다. 탁한 그 물질은 마치 뭔가를 막기 위해 애쓰는 듯 보였다. 처음엔 꽃을 오래 두려는 마음도 있었던 걸까. 방부제는 꽃의 썩음을 늦추긴 했지만 그 생명을 되살려주진 않았다. 오히려 방부제 덕분에 썩어가는 과정이 눈에 띄지 않았던 걸지도 모른다. 악취를 덜 풍기게 하고 곰팡이의 속도를 늦춘 대가로 청년은 그 안의 죽음을 오래도록 외면할 수 있었다.

청년은 고개를 조금 기울인 채 그 전부를 조용히 들여다보았다. 어쩌면 애초에 받은 그날부터 그 꽃은 이미 시들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햇빛이 닿지 않는 창가에 무심히 던져둔 채 그는 꽃이 썩어가는 소리를 듣지 않았다. 색이 바래는 순간을 보지 않았고 곰팡이가 피는 속도를 외면한 채 아직 예쁘다고 믿었다. 마치 자신이 만들어내지 않은 그림 위에 이름을 적어도 괜찮다고 믿었던 것처럼, 방부제로 생명을 연장한 꽃을 예술이라 착각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다 청년은 손을 뻗어 그 꽃다발을 들었다. 곰팡이가 손등을 타고 옷 속으로 파고들 것 같은 착각이 스쳤다. 묵직한 무언가가 내장을 누르듯 가라앉았다.

그 애벌레가 그의 내면 깊은 곳을 기어 다니는 듯한 느낌에 답답했던 그는 곰팡이 냄새와 섞인 자기 숨을 들이마셨다. 그 향취는 탁했고 오래된 습기처럼 눅눅했다. 그리고 결국 그 꽃을 힘껏 내던졌다. 떨어지는 순간, 꽃다발이 떨어지는 소리 대신 무언가 안에서 끊어지는 느낌만이 남았다. 어쩌면 그가 진짜로 던진 건 꽃뿐만이 아닐지도 몰랐다.



식탁 위 방부제

전유선

아빠 없이 놓인 두 벌의 수저가
웬지 더 차갑게 보이는 저녁
팩김치에 담긴 흰 단어는
썩어가는 속도를 늦추는 힘이지만
결국은 썩는다는 점이 우리와 닮았다
엄마는 아빠가 좋아하던 김치를 버리지 못하고
이제 제발 김치 좀 버리면 안 돼?
네가 뭘 안다고 말을 그렇게 해
말이 무너진다

소금물에 삭아가는 배추처럼
엄마는 밤마다 쓴맛이 배어 있는 말들을 삼키며
유통기한을 하루씩 밀어냈다
우리는 서로 부패하지 않으려
매번 말을 삼켰다
나를 보면 아빠가 생각난다던 엄마
엄마는 말없이 밥그릇만 툭 내려놓았고
우리는 언제쯤 상한 냄새에 익숙해져갈까

엄마,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색은 열어지고 있다
식탁 위 맴도는 미묘한 쇠 향
사랑도 오래두면 변질된다는 걸
엄마는 대답 대신 반투명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눈 속에 든 하루하루가
부패해 가는 속도를 나는 느꼈다



방부제 여름

정예은

축축한 열대야와 구석
나는 방 안에서 하는 것은 없고
테이프로 대충 감아놓은 선풍기 날개가 탈탈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것을 지켜
보기만 하고

나는 여름의 실체를 알고 있지
남들은 락앤락 용기 속 깍둑썰기 된 수박을 집어먹는 팔월에
새빨강게 익은 여드름 하나에 고민하는 팔월에
해가 들어오는 방향대로 무방비하게 색이 바랜 벽지
세수해도 지워지지 않는 이마 위 땀방울은

방부제도 없이 물러가는 자두를 닦아서
점점 웅크리는 자세로 하나의 계절을 보낸다

에어컨 없이도 번지지 않고 녹지 않는 법은 내가 알고 싶은 것

교실은 여름방학이 너무 짧다는 불평으로 젖어가고
학교 앞 진돗개는 사나운 여름을 입에 물고 킁킁 짓으면서도
목줄 묶인 컨테이너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사거리 초등학교 아이들은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을 보고도

허둥대며 빨리 먹어 치우지 못했지만

어쩌면 모서리 같은 것
복도만 뜨거운 학교에서 어깨와 어깨가
고장 난 시계처럼
부딪힐 때

몸의 가장 무른 부분이 녹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 번지지 않는 법 녹지 않는 법 따위는 다 무슨 소용이지 싶은데
방부제 없는 삶은 쉽게 상하고

팔월
내가 녹고
교실이 축축해지고
진땀개가 번져요

날마다 쫓기듯 글씨체를 바꿔 쓴 일기장에서는 너무 익어 무른 자두 향이
났고요

축축한 열대야와 일기장
그사이를 갈라 자두 향 푹푹 떨어지는 페이지 사이에
방부제를 끼워요

여름이 상하게 하는 것은 나뿐이길 바라서



꼬리

박세건

우리 집에는 꼬리가 뭉툭한 푸들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머털이입니다. 마치 머털도사처럼 머리카락만 길었거든요. 그리고 꼬리가 아주 짧고 뭉툭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꼬리를 잘랐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색 푸들 강아지인데 이 아이와의 만남은 아주 특별합니다. 길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횡단 보도 앞에서 길을 건너지도 못하고 위험하게 서 있었거든요. 강아지는 신호등을 확인할 수 없기에 길을 건널 때는 사람이 많으니 가지 못하다가 막상 사람이 없고 차가 썩썩 달려오면 건너려고 했습니다. 바깥 외출을 많이 해보지 않은 강아지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 강아지가 다치면 안 되니까, 집으로 데려오게 되었어요. 유기 동물 보호소에도 연락하고 읍사무소에도 신고하고 가까운 동물병원에도 사진을 보냈지만 머털이의 주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놀란 강아지는 슬픈 얼굴로 밥도 잘 먹지 않고 옛날 주인을 그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족이 맛있는 음식도 잘 챙겨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머털이가 좋아하는 공놀이도 해주니까 차츰 마음을 열고 우리를 좋아해 주었어요. 머털이는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 개구쟁이 강아지였습니다.

슬프게도 우리가 일 년에 한 살씩 나이를 먹을 때 강아지는 일곱 살씩 나이가 든대요. 머털이는 금방 늙은 개가 되었고 그렇게 좋아하던 달리기도 더는 하지 않았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는 시간보다 동물병원에 검진을 가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슬픈 눈으로 쿨쿨 잠만 잤어요. 머털이는 에디슨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 호르몬에 변화가 생기면서 앓게 되는 몸쓸 병

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꼬리가 뭉툭한 머털이가 학교 가기 전, 나를 마중해주는 것이 좋았습니다. 뭉툭한 꼬리지만 이리저리 움직이며 잘 다녀오라고 인사해주었고,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처음에 머털이 가족을 찾아주고 싶었던 마음도 어느샌가 사라지고 불쑥 옛날 주인이 나타날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 했었지요. 그런 머털이가 아픔을 참고 잘 견뎌주더니 훌쩍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엄마는 이제 아픔이 없는 강아지 별에서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고 하셨어요.

강아지들만 모여 산다는 그곳에서 우리 머털이는 행복할까요? 여전히 나는 학교에 갈 때, 집으로 돌아올 때 머털이가 보고 싶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까요? 가끔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면 머털이 모양의 구름이 똥똥 떠다니긴 하던데 머털이는 흰 구름이 되어 자유롭게 떠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는 머털이를 물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몽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몽골 사람들은 개가 죽으면 꼬리를 잘라서 땅에 묻어준대요. 그리고 마음 속으로 다음 생에서는 개로 태어나지 말고 인간으로 태어나라고 빌어준다고 합니다. 머털이는 착한 강아지였으니까 사람으로 태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유기견이 아닌 처음부터 머털이의 강아지가 되어 살아도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떠났을 때 지금의 내가 얼마나 자기를 그리워하는지 똑똑하게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머털이가 떠나기 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헤어짐이 멀지 않았다는 것ですよ. 그래서 머털이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다가 머털이의 옛날 주인을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머털이의 특징을 잘 써서 이리저리 공고해 주었습니다. 특이한 머털이의 꼬리를 본다면 주인이 대번에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머털이가 옛날 주인을 만나 너무 기뻐한다면 마음이 섭섭하겠지만

그래도 주인을 찾아주고 싶은 건 진심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기억을 많이 가지고 머털이가 떠난다면 제 마음이 조금은 덜 슬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머털이의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문기사나 책을 보면 한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으로 섬긴다는 강아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기사들을 볼 때는 어쩐지 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영영 머털이에게 내가 1등이 아니면 어찌지 하는 생각과 슬쩍 섭섭함이 찾아 들기도 했습니다.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머털이는 전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강아지로 머털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털이도 그런 나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다고 믿습니다.

언젠가 강아지 번역기를 사서 목에 걸어주었는데 머털이가 왈왈 짖자 ‘사랑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아빠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머털이의 속마음이라고 저를 모두 부러워했어요.

우리 가족은 머털이의 꼬리를 잘라 묻어주지는 않았지만 고운 흙에 머털이를 묻어주면서 사랑했다고 말해 주었고, 다음에 또 만나자고 잘 지내고 있으라고 속삭여 주었어요. 지금도 머털이를 생각하면 슬플 때가 많습니다.

머털이의 밥그릇, 사용하던 목줄, 그리고 더는 주인이 없는 방석과 개집을 볼 때면 슬픈 마음이 들지만,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을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만나면 머털이에게 툭툭하게 말해 주려고요. 꼬리가 짧고 몽툭한 강아지의 주인은 처음부터 나왔다고요. 내가 찾아가는 날에도 머털이는 신나게 꼬르르 마중 나와 짧은 꼬리를 신나게 흔들어 줄 것입니다.



멀미

장하은

사춘기 동생이 맞춰놓은 요란한 K-팝 알람 소리와 함께 우리 집에 아침이 찾아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은 바쁜 현대인을 기만하듯 평화롭기만 했다. 아침을 먹으라는 엄마의 외침이 들려왔다. 그러나 고3 수험생에게 아침 밥은 사치다. 1분 1초라도 잠을 보충하기 위해 이불을 뒤집어썼다.

쿵쿵. 우리 집 대마왕의 발소리에 아직도 반쯤은 꿈나라에 두고 온 정신이 뇌를 두드렸다. 부은 눈 사이로 보이는 엄마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정신을 겨우 붙잡고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동생은 식탁 앞에 앉아 밥을 먹는 등 마는 등 하며 휴대폰 삼매경이었다. 실실 웃는 모습을 보아하니 남자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 모습이 꼴사나워 눈을 한 번 픽 흘려주고 식탁 앞에 앉았다. 식탁에는 갖가지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다. 모락모락 김이 나는 된장찌개, 노랗게 잘 익은 계란말이, 오색찬란한 나물 무침, 그리고 흰 쌀밥까지. 눈도 덜 뜬 채 이것저것 입으로 욱여넣던 그때, 등 짹에 짹, 하고 불꽃이 튀었다.

“천천히 먹어, 체할라!”

엄마의 걱정 반 짜증 반인 잔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나는 그제야 겨우 눈을 뜨고 입안의 반찬들을 천천히 씹었다. 맛을 음미할 시간 따위 없다. 최대한 빨리 씹어 삼켜야 한다. 그때, 눈치 없는 동생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맛없어! 라면 끓여줘!”

라면이라니. 드디어 미쳤구나, 내 동생. 순식간에 얼어붙은 공기에 뿔속까지 오싹해지는 걸 느끼며 슬금슬금 방으로 들어왔다. 아니나 다를까, 방에 들어가자마자 엄마의 큰 목소리가 방문을 뚫고 들어왔다.

“야!”

내 19년 인생 경력이 말해주었다. 누구보다 빠르게 피신하라고. 교복을 대충 걸치고 가방을 멘 채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빠르게 현관으로 달려갔다. 미안하다, 동생아! 난 먼저 간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때, 아빠가 코를 후비며 방에서 걸어 나왔다. 최근 급격하게 나빠진 경기로 인해 해고를 당한 아빠는 엄마의 눈칫밥을 먹어가며 백수 생활을 하고 있었다.

“아들, 벌써 나가?”

나는 거실을 향해 눈짓했다. 마치 소 두 마리가 싸우는 듯한 진풍경에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등을 떠밀었다. 자기가 해결할 테니 어서 가라는 신호였다. 그렇게 눈물겨운 아빠의 희생 덕에 나는 무사히 집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이번 시간까지 각자 진로 적어서 제출해라.”

담임 선생님의 말에 아이들은 저마다 분주하게 무언가 끄적였다. 멀뚱하게 앉아 있는 애는 나밖에 없었다. 그렇다. 나는 적어서 제출할 꿈이 없다. 나만 빼고 흘러가는 교실의 공기에 짓눌린 어깨가 무거워졌다.

선생님의 부름에 교무실로 들어가니 진한 커피 향이 코끝을 감쌌다. 담임 선생님이 나에게 물었다.

“왜 제출 안 했니?”

담임 선생님은 교무실 구석 나무 의자를 끌어당겨 나를 앉혔다. 딱딱하고 차가운 나무 의자는 내 착잡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의자에 앉으니 교무실의 풍경이 한눈에 보였다. 넓디넓은 교무실 속에서 나는 한없이 작아졌다.

“내일까지 써오겠습니다.”

교무실을 나와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교실로 향했다. 내가 온전히 결정해야만 하는 이 상황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 지난 겨울방학 때부터 독서실에 다니며 공부했지만 학교에 와서도 성실함을 잃지 않는 유찬이, 배우가 되고 싶

다며 친구들 앞에서 드라마 대사를 당차게 줄줄 읊어대는 하빈이, 인문계에 진학했지만 공부보다는 사회생활이 더 적성에 맞는다며 일찍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이력서에 넣을 그럴듯한 경력들을 쌓은 성진이... 나는 어디에도 낄 수 없었다. 모두 저마다의 목표가 있는 아이들이다. 한여름의 무더위 속 교실은 아이들의 입시에 대한 열정으로 한층 더 뜨겁다. 부럽다. 모든 게 부럽다. 일찍이 진로를 찾아 입시 준비를 하는 아이들, 열심히 각자의 일을 하는 교무실의 선생님들, 하다못해 아무 걱정 없이 게임을 하는 아이들에게까지도 부러움이 느껴진다. 진로를 정하고 싶지 않다.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 나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고 책임질 자신이 없다. 아직 고등학생에 불과한 나와 곧 어른이 되는 나의 간극에서 오는 괴리감에 속이 울렁거렸다.

집에 돌아가니 한바탕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빨개진 얼굴로 씩씩거리는 엄마와 눈물까지 고인 채 짜증을 내는 동생의 모습이 아주 불만했다.

“엄마는 내 마음도 모르면서!”

황. 동생의 방문이 큰 소리를 내며 닫혔다. 엄마의 한숨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급격히 내려앉은 거실의 공기에 숨이 막힌 나는 조용히 방으로 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쓴 채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눈을 뜨니 주변이 어둑어둑했다. 땀에 젖은 교복 셔츠를 갈아입고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양말을 정리한 뒤 다시 침대에 누웠다. 거실에서 엄마와 아빠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먹고 싶은 거 안 먹더라도 지들 하고 싶다고 하는 건 다 해주고 없는 살림에도 아등바등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얼마나 신경쓰고 챙겼는데... 그래, 그래도 내가 지나치게 화를 내긴 했어. 그렇지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나도 슬슬 갱년기가 오는 건지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크게 뭘 하지 않아도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서 더 짜증이 나는 건가 싶어.”

엄마의 말에 아빠도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 봐도 요즘은 젊은 사람들만 원하니, 원. 시켜만 주면 젊은 사람 못지않게 뭐든 잘해낼 자신 있는데 기회가 나한테까지 오지 않네. 10년 넘게 한 직장에서 밤낮없이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결국은 찾아주는 회사 하나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어. 내가 이렇게 무능력한지 몰랐어.”

나는 생각했다. 어쩌면 우리 가족 모두 변화라는 파도에서 멀미를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사춘기 동생과 갱년기 엄마는 호르몬 변화의 파도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고, 아빠는 새 직장을, 나는 진로를 찾아야 한다는 부담감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그렇다. 살아간다는 것은 파도 위에서 있는 것처럼, 멀미를 느끼는 것의 연속인 것이다. 나는 이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위안을 받는다. 그리고 변화의 멀미를 극복하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문득 아까 학교에서 받은 진로 희망 작성지가 떠올랐다. 나는 펜을 들고 책상 앞에 앉았다. 이것은 내가 내 인생에서 휘몰아치는 파도 속에서 어지럽고 울렁거리는 멀미를 극복하는 첫 번째 과정이다.



징검돌 작전

박준우

할아버지 눈에 가는 길
우리는 징검돌을 건넜다
폴짝폴짝 뛰어서 건넜다
그러다 동생이 빠졌다
침병
우리는 다 웃었다
동생은 빠진 김에 물에서 놀았다
그러더니 나에게 물을 끼얹었다
그 바람에 나도 물에 빠졌다
엄마는 소리를 질렀지만
나랑 동생은 신났다

나는 엄마 몰래 동생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동생이 말했다

형아 나도 일부러 빠졌다



제5부

문학기행 및 회원동정

- 영월문학기행 참여기 _ 송경형
- 영월문학기행 삼행시 짓기
- 석촌호수 시화전 참여기 _ 이명림
- 동구릉 문학탐방 참여기 _ 한창옥
- 제25회 한성백제문화제 참여기 _ 최돈애
- 2025년 송파문인협회 조직도
- 송파문인협회 연혁
- 2025년 송파문인협회 회원동정
- 새로나온 작품집
- 편집 후기
- 송파문학의 빛 악보

2025년 송파문인협회 가을 문학 기행


손경형(시인, 소설가)

★일시: 2025년 9월 12일(금) 오전 7시 30분

★기행: 영월 단종역사관 김삿갓문학관



9월 12일 금요일 오전 7시 30분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송파문인협회 회원들(41명)의 단종역사관과 김삿갓문학관 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송파문인협회 전세중 회장님이 감사 인사를 하고 사무국장 이상진님, 재무차장 양순복님이 오늘 일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회원들에게 삼행시 '김삿갓', 사행시 '단종애사' 주제로 오후 3~4시까지 제출하라는 숙제를 주었습니다. 한참 중앙고속도로를 달려 10시 30분에 영월 김삿갓문학관(관풍헌)에 도착했을 때, 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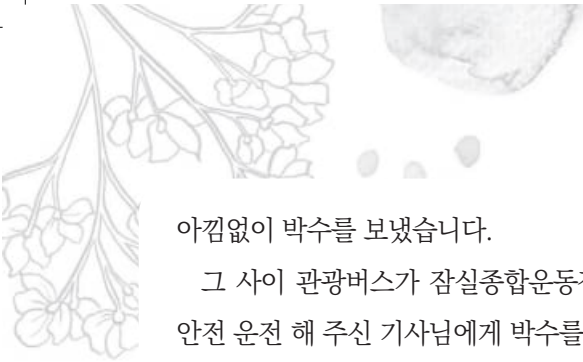


파문인협회 서철수 이사님과 영월군청 해설사 강대길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김삿갓(본명 김병연, 가명 김삿갓)은 조선 후기 1807년 4월 22일 김안근(부친)과 이유수(모친) 사이에서 양반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사에 의하면 김병연은 임금이 주재하는 대과가 아닌,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관이 주재하는 “향시”에 16세 나이 때 응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 시제가 ‘김익순을 논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김병연은 향시에서 급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자신이 논박한 김익순이 조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외 또 다른 가설도 있습니다. 과거에 급제할 정도로 영민한 김병연이 조부의 반란을 몰랐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뒤 김병연은 자신의 고향(집)을 떠나 김삿갓(김립)이라는 이름으로 방랑 생활을 시작, 1863년 3월 29일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회원들은 김삿갓문학관 관람을 마치고 주변 장릉보리밥집에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단종역사관으로 움직였습니다.

단종은 1441년 7월 23일(세종 23년) 문종(부친)과 현덕왕후 권씨(모친)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1450년 2월(세종 32년)에 세종이 승하하고 문종이 즉위하면서, 흥위(단종)은 10세에 왕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리고 1452년 5월 18일 문종이 승하 후 단종은 12살 어린 나이로 제6대 왕에 즉위했습니다. 그 뒤 15세에 상왕이 되었다가, 1457년(세조 3년) 노산군으로 강봉된 후 영월 청령포(국가지정 명승 제50호)로 유배, 복위 등등 많은 정치적 갈등을 겪으며 1457년 10월 24일 17세 어린 나이에 관풍헌에서 승하했다고 합니다.

단종역사관에서 장릉을 거쳐 청령포를 관람하면서, 어려운 역사 공부를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신 강대길 해설사님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송파문인협회 회원들은 3~4시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동안 차안에서는 삼행시와 사행시에 참여한 회원들의 글을 심사한 후 입상한 회원들에게 양순복 재수가 마련한 간단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입상한 회원들은 자신이 쓴 삼행시, 사행시를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원들은 그들을 향해



아낌없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사이 관광버스가 잠실종합운동장에 도착했습니다. 회원들은 오늘 하루 안전 운전 해 주신 기사님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가을 문학 기행을 준비해 주신 임원단 여러분과 사비로 간식과 선물, 사진 등등을 제공해 주신 분들, 또 뒤에서 말없이 후원해 주신 회원님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번 가을 문학 기행을 기억하면서, 내년 또 다른 문학 기행을 기대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삼행시 짓기] 시제 : 김삿갓, 단종애사

▶정문수

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동아리

삿: 삿갓을 쓴 선인같은 송파 문인들

갓: 갓김치처럼 톡 쏘는 어휘와 언변들이 최곱니다.

▶전세중

김: 김삿갓은 시 한 줄에 인생을 논하고

산: 산천과 마을을 떠돌며 시를 읊던 방랑 시인

갓: 갓 쓰고 울부짖으니 사람들이 기억하네

단: 단심으로 섬긴 입을 위해

종: 종말을 택한 충신들의 피

애: 애끓는 마음 어이하리

사: 사라진 이름 위에 역사는 흐른다

▶서주문

김: 김치국 잘못마신 윤정권

삿: 삿갓쓰고 평생살면 될까요

갓: 갓태어난 어린아기 뵈알아

단: 단명하신 단종대왕 일찍 죽을 줄알았나

종: 종인의 삼촌에게 목숨줄줄 알았나

애: 애처로운 임금자리 달라고 안했는데

사: 사명 속에 임금되어 충신들 죽였다네



▶조기엽

김: 김 김 김 김

삿: 삿 삿 삿

갓: 갓 갓 갓 과연 김삿갓 이로다



▶이영숙

김: 김이 새네 맛이 가네

삿: 삿 된 이내 생각 일라

갓: 갓길 나마 달릴지언정 세 시 출발 웬 말인가



▶이명림

단: 단아한 운명 속에 간혀

종: 종지부 짝은 짧은 생애

애: 애달픈 충정은 역사에 남고

사: 사무친 그리움은 세대를 이어 흐른다



김: 김이 서린 정든 고을을 지나며

삿: 삿갓 아래 눈빛에 풍자와 해학을 담고

갓: 갓 벗어 두면 시인으로 남는다



▶서영순

단: 단풍잎 지듯 짧게 스러진 젊은 날

종: 종달새 울음 속에 묻힌 임의 한숨

애: 애련한 눈빛은 별빛 되어 흐르고

사: 사무친 그리움은 강물처럼 이어지네



▶안정선

김: 김 빠지는 하루하루 보내다가
삿: 삿바 잡고 오늘 하루 힘썼네
갓: 갓쓰고 폼넨 하루 또 오고 싶네

▶이효성

단: 단장의 장릉앞 보덕사에서
종: 종소리 울리는 듯
애: 애 녹이는
사: 사약 끓이는 소리

▶하갑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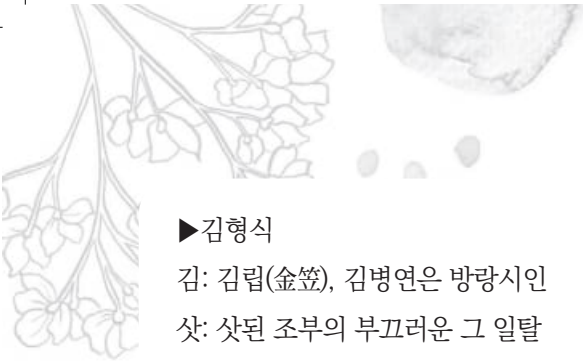
김: 김 무럭무럭 나는 영월 옥수수 입에 물고
삿: 삿갓 시인 흔적보고 만지며 묘소에 잔 부어 참배도 하였건만
갓: 갓자로 시작되는 단어 하나 끝내 맞추지 못해 미완으로 시 끝내네

▶이상진

단: 단종의 눈물이 역사의 강물 되어
종: 중국에는 충절의 피로 물들었네.
애: 애끓는 백성의 마음은 하늘에 닿고
사: 사라진 임금의 꿈은 오늘에도 숨 쉬도다.

▶이신경

김: 김병연, 영혼이 자유로운 방랑시인
삿: 삿갓에 묻은 세월이 당신이야 말로 선비구나
갓: 갓 끈에 달린 시한수에 천지 인의도가 무르익도다



▶김형식

김: 김립(金笠), 김병연은 방랑시인

삿: 삿된 조부의 부끄러운 그 일탈

갓: 갓 속에 묻어둔 선비정신 시절인연 없어 사마천이 사기에 남기지 못했음을 탄(嘆)하도다



단: 단종의 영월장릉 둘러보고

종: 종묘사직 뿌리 쫓아가니

애: 달프도다 이홍위(李弘暉) 시어

사: 사마천의 사기 본기(제왕)편에 넣고 싶아라



▶조병옥

단: 단디 마음 먹으라

종: 종아리 올리고

애: 애를 써 울먹이며

사: 사탕을 준다



▶정옥희

단: 단숨에 달려와 그대 뵈오니

종: 종소리. 들리는듯 가랑비 목소리

애: 애달픈 가슴 솔잎에

사: 사연 담아 가을비 속 물들어 집니다



▶백제현

김: 김 빠진 단종

삿: 삿갓 쓰고 청령포로

갓: 갓 끈 떨어지면 탄핵



▶박호은

김: 금(金)의 성을 타고났으나, 꺾인 화살 품고 서러운 걸음 시작했네,
삿: 삿갓 속으로 얼굴을 가리며, 세상의 명예와 권력의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고 직시한다.
갓: 갓돌처럼 무겁고 고단한 삶 위에 시(詩)를 세우며, 풍자와 해학으로 진실을 노래한 방랑의 길, 나쁘지만은 았았다네.

▶손경형

금: (김)수저로 태어나 관모를 쓸줄 알았는데
삿: 삿갓을 쓰고 길 떠나는 김삿갓
갓: 갓 내린 발걸음에 비가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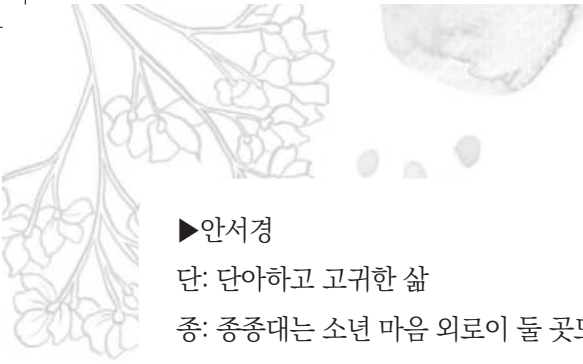
▶서주린

김: 김병연, 조부 역적시로 평생을 죄인으로 살며
삿: 삿갓 쓰고 팔도강산 방랑하며 결식 하셨네
갓: 갓 쓴 시에 풍자시,

▶강영희

단: 단호하게 단단하게 휘감아왔을 운명의 쇠사슬
종: 종이쪽지처럼 싹둑 자를 수 없어
애: 애처워라 단종이여
사: 사실 그의 꿈속 소원은 제왕도 종묘도 아닌 홍위라는 이름의 소년이었지

김: 김구 선생 외치시던 문화강국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는 듯
삿: 삿포로, 빠리, 뉴욕, 울려퍼지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갓: 갓쓰고 춤추는 조선의 훈남 모습에 세계가 숨죽이고 있다



▶안서경

단: 단아하고 고귀한 삶

종: 종종대는 소년 마음 외로이 둘 곳도 없어

애: 애련한 심사 소나무에 기대어 오르면

사: 사방 솔숲 나무들이 눈물 동무해 주었구나



▶최병룡

단: 단단히 버르다가

종: 종종

애: 애달픈

사: 연을 말하거든



김: 김빠지게

삿: 삿대질 해

갓: 갓 졸업한 놈이

▶김사라

김: 김삿갓(김병연) 이 "더 이상 하늘을 볼 날이 없어 삿갓 쓰고" 방방곡곡을
헤매니

삿: 삿갓 쓴 방랑 시인의 정체를 범인(凡人)들이 어찌 알랴

갓: 갓쓰고 나는 김삿갓(김립:金笠) 세상을 가슴에 품고, 바람에 사람 내음을
풍기며, 모든 이들과 함께 살고 싶소이다

청: 청령포는 단종이 유배되어 머물다 사약을 받고 죽은 곳이고

령: 영(령)월에는 단종의 비극을 기억하게 하는 청령포와 함께 장릉(단종의 무
덤)이 있는데

포: 포용과 사랑의 나라였다면, 이러한 슬픔의 역사는 조선에 없었으리라



▶ 강태국

김: 김칫국 마시듯 허세 부리는 벼슬아치

삿: 삿갓 시인은 비웃으며 지나가고

갓: 갓끈 풀린 권력은 결국 바람에 날아가네

▶ 민금애

김: 김병연 오라버니께 청합니다

삿: 삿갓으로 부끄러운 과거 없어지지 않소이다

갓: 갓속에 숨어있는 시심 날 주면 내 지워주리다

단: 단명인생 애처롭고 장수인생 처량하고

종: 종로3가 역사에서 배회하는 슬픈 군상

애: 애로사항 말하라니 고개만 설레설레

사: 사필귀정 진리인데 눈먼 욕망에 허송세월



2025 석촌호수 시화전을 개최하면서


海華 이명림(시인. 서양화가)

2025 석촌호수 시화전은 석촌호수 서호에서 3월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송파문인협회 57명의 작가들이 참여했다. 석촌호수의 자연 풍광 속에서 시화전을 전시함으로써 시민들이 편안히 호수를 산책하며 문학을 접할 수 있었다. 시와 벚꽃의 풍경이 어우러지는 감성적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어서 자연과 문학이 조화를 이루었다.

송파 지역 작가들의 창작물을 시민들에게 직접 소개함으로써 지역 문학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높였으며 지역 문화 활성화에 의미를 부여했다. 문학이 생활 문화로 확장되는 모습은 소통의 장으로서의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화전의 열린 공간 구성 덕분에 가족 단위 관람객이나 외국인 방문객도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문학에 흥미를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시민 참여의 긍정적 반응이라고 본다. 지역 언론과 SNS에 사전 홍보를 강화해 관람객 참여도를 늘리기도 했다.

개선할 사항은 야외행사 특성인 비, 바람 등의 변수에 대비해 기상과 안전 대책 보안을 염두에 두고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참가자들 모두가 서로의 작품을 사전에 공유하며 토론할 기회를 갖고 단체 행사로서의 융합성을 높여야 한다. 작품 설명 및 접근성 강화에 있어서 QR코드를 활용해 작품 해설, 시인의 음성 낭송, 번역본(영문·중문)을 제공하면 관람 이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시화전 전시 구성의 다양화로 단순한 전시에서 벗어나, 시낭송 공연, 음악 협업, 야간 조명 전시 등 복합문화형 행사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점들을 반영한다면 송파문인협회의 시화전은 지역의 대표적 문학축제로 성장하며, 시민과 문학예술이 함께하는 열린 문화행사로 더욱 완



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시화전은 짧은 준비기간이었음에도 송파문인협회 회장님과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각 분과 위원장님들과 집행부의 일사불란한 진행으로 무사히 시화전을 마친 점에 대하여 감사드린다. 더불어 송파문인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동구릉 문학탐방 참여기

문화유산의 의미를 찾아보는 넓은 공간속에서 과거와 현재의 만남

한창옥(시인. 포엠포엠 대표발행인)


60여 년이 지나서야 동구릉을 다시 오게 되었으니 송파문인협회 역사기행 봄 나들이로 소녀의 한순간을 왕릉에서 찾은 것이다.

필자가 태어나 성장한 송파에서 개교 100주년을 넘긴 중대초등학교 시절에 김 밥과 삶은 계란에 물병이 담긴 가방을 메고 반별로 담임 선생님을 따라 줄지어서 소풍을 다녀온 곳이 동구릉이었다. 언제나 소풍가는 장소는 남한산성, 봉은사, 현 인릉 아니면 같은 장소였다. 비가 오면 어찌나하는 걱정에 소풍 전 날은 하늘만 바라보다가 밤을 새우기도 했지만 작은 가슴을 들뜨게 하는 최고의 날이었다.

어린 학생들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릉을 돌아보고 잔디밭에 등굴게 앉아 수건 돌리는 놀이를 했다. 뒤에 놓고 간 수건을 눈치 채지 못하면 일어나 노래를 불러야했는데,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보물찾기다. 선생님들이 미리 나무 밑이나 구석에 선물명이 적힌 종이쪽지를 숨겨두면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 찾는 놀이다. 쪽지를 발견한 친구들은 깡충깡충 뛰며 좋아했다. 보물은 연필이나 공책과 크레용이지만 허탕 치는 빈손들도 서로 안고 기뻐했다.

동구릉에서 보물찾기로 뛰어다니던 어린 날의 소풍을 회상하며 혼자서 미소 짓는 표정을 그날 송파문협 회원님들은 눈치 채지 못했을 것이다.

2024년 전철 8호선 개통으로 동구릉과 근접한 서울 근교의 자연환경에서 역사와 문화를 답사할 수 있는 동구릉은 사적 제193호로서 약 450여 년간 7명의 왕과 10명의 왕비가 잠들어 있는 조선 최대 규모의 왕릉군이다. 1408년 태종 8년에 조선을 건국한 태조의 건원릉을 시작으로 현릉, 목릉, 승릉, 휘릉, 혜릉, 원릉, 경릉이 차례로 조성되었다고 알고 있다. 능이 조성될 때마다 동오릉, 동칠릉



이라 불렀다가 1855년 철종6년에 수릉이 마지막으로 조성되면서 지금의 동구릉이 되었다는 안내표지판은 설명하고 있다.

여성 해설사는 성실하게 흥미를 갖게 해준다. 평일인데 많은 탐방객이 자리를 옮길 때마다 둘러서서 해설을 듣는 모습이 진지했다. Hongsalmun Gate 홍살문은 왕릉으로 들어가는 첫머리를 알려주는 건축물 설치로 이곳을 지날 때는 몸과 마음가짐을 엄숙히 하고 여기에 모셔진 분들에게 예를 갖추라는 뜻이다.

우리 문화유적의 미학은 검소하면서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사소한 것들로 가득 차있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시대이지만, 역사는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지속되고 있다.

경기 구리에 동구릉을 포함한 조선 왕릉은 2009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서울 송파의 유일한 문화유산인 국가무형문화재 제49호 <송파산대놀이>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도 등재되어 있다. 경기무형문화재 제3호인 송파 <답교놀이> 또한 오랜 세월 복원하여 보존되기까지는 척박한 시대에도 앞장서서 80여 년간의 생을 바쳐 이뤄낸 인간문화재 제49호인 한유성(1908~1994)선생의 예술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예술혼을 기리자는 뜻의 석촌호수 서호에 ‘한유성길’이 있으며 기념비와 ‘홍상’이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번갈아 찾아오는 한국적 운치가 있는 나무들을 벗 삼아서 정오가 될 때까지 동구릉을 돌아보고 무덤마다 따로 재실 없이 9개 무덤을 하나의 경계 지역으로 구릉 남쪽에 있는 재실도 살펴보았다.

기술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많은 부분이 가상의 세계로 통합되어가는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삶의 크기는 거대해야 한다. 시대변화에 따라 왕릉의 변화되어 온 과정을 새기며 역사가 흐르듯이 인류의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가위 전날 2025년 『송파문학』의 동구릉 주제 원고 청탁에 촉박한 시간으로 고사하다가 어린 날을 회상하며 두서없이 글을 쓰는 순간이 행복한 건 왜일까.



제25회 한성백제문화제에 참여하면서


최돈애(시인, 수필가)

2025년 9월 26일(금)부터 28일(일)까지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제25회 한성백제문화제가 치러졌다. 9월 26일 오후 7시 개막식 공연, 오케스트라 & 클래식 협연, K-POP 피프티피프티/기리보이/편치 문화의 북소리등 하나가 되는 문화의힘이었다. 대한민국 최고를 사랑하는 사회자 아나운서와 출연자들이 줄을 이었고, 21세기 화려한 미디어가 환상적으로 펼쳐졌다. 낮에는 송파구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가 난타 등 행사 기간내 상설운영 축하공연이 있었다.

밤에는 하늘에 아름답게 수놓아 펼쳐놓은 드론 라이트쇼, 한강의 바람과 함께 도도히 흘러온 문화의 힘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데 모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송파구민들의 힘차게 나아갈 희망을 열어주었다. 폐막식 공연은 풀김/PH-1김주리, 화려함과 함께 2000년 전 찬란했던 한성 백제 문화가 살아 쉬 쉬는 듯했고. 넓은 공연장은 대한민국 이곳에만 있는 송파구의 랜드마크이며 송파구의 축제가 아닌 세계적인 문화 축제가 되기에 충분했다.

많은 외국인과 송파구민들의 가족나들이가 있었고, 실내 콘서트는 일상에서 자주 접하지만, 88올림픽잔디공원 야외 콘서트는 외부 인사 초청 등으로 명품 축제의 원동력이 되었다. 한국 최고의 명인 결집, 미디어 시스템은 송파구의 대표 문화예술 축제로 자리매김하면서 송파구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했고 감탄사를 불러 모았다.

송파구의 모든 문화 예술 분야를 한데 모아 놓은 수십개의 부스, 각 동별 주민센터에서 마련된 먹거리 장터는, 하루 종일 가족과 함께 또는 연인들과 즐기고 쉬 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봉사자들은 준비에서 피로도 잊은 채 모두가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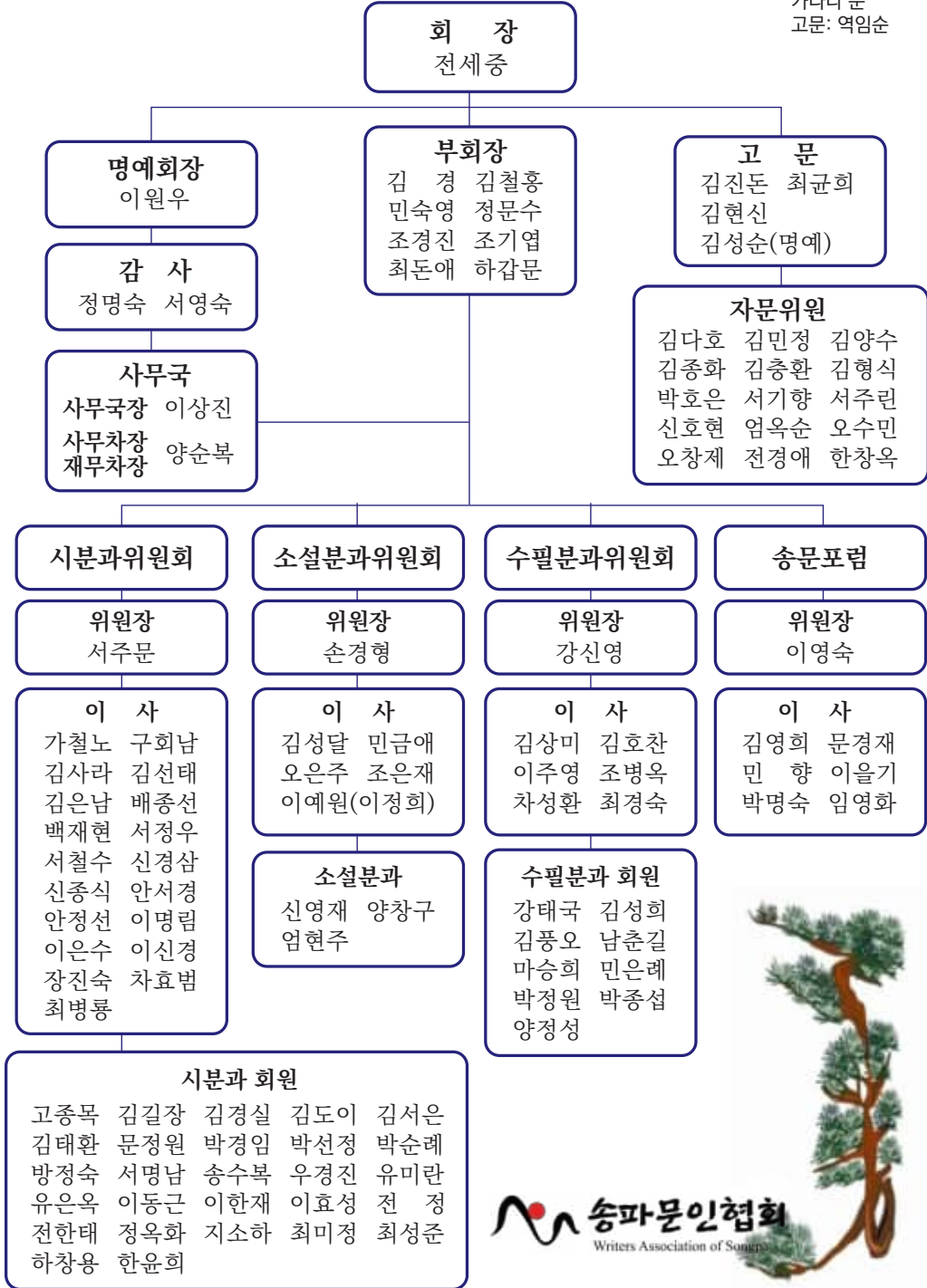
몸으로 어울림의 한마당'이었다. 내년을 기대하게 하는 미래 지향적이고 송파구 행정을 리드하는 서강석 송파구청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한국문인협회 송파지부(송파문인협회) 전세중 회장님은 첫날 아침 일찍 부스에 나와 임원들과 함께 세팅하고 회원 시화전 10개를 게첨하여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고문님들은 봉사자와 참석자들에게 식사 대접이 있었다. 임회원님께서는 간식으로 빵과 차를 준비해 왔고 시골에서 직접 수확한 왕대추 나누기는 함께 따뜻한 송파문협 임회원들의 사랑이었다, 10여 명의 회원들은 자신이 출간한 시집 수필집 소설집을 가져와 저자 사인하여 무료 제공했고. 임원들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창작 지도가 있었다. 이런 문협 활동은 주민들로부터 “책도 그냥 주는구나”라며 좋은 찬사를 받았다. 공동체와 사회는 언제나 함께라는 단어로 멋지고 아름다운 송파문인 협회를 빛 낼 수 있는 한성백제문화 축제였다.

이번 축제가 지난 후 추석 연휴가 되어 송파구 관내 지인께 한성백제문화제 축제, 이야기할 기회가 되었는데 축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참석하지 못함을 아쉬워했다. 내년에는 정보화 시대에 맞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기존 홍보 외의 다른 채널 송파 케이블 TV 등에도 축제를 알리면 더욱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았다.

2025년 송파문인협회 조직도

가나다 순
고문: 역임순





송파문인협회 연혁

- 1992년 10월 13일 '송파문학회' 창립
- 1993년 5월 15일 『송파문학』 창간호 발행
- 2004년 4월 4일 '송파문인협회'로 개칭
- 2015년 5월 7일 (사)한국문인협회 송파지부 승인

◆ 역대 회장

- 1~2대 회장: 김해성(1992년 10월~1996년 9월)
- 3~4대 회장: 유재용(1996년 10월~1999년 3월)
- 5~7대 회장: 유금호(1999년 4월~2005년 3월)
- 8~9대 회장: 박영우(2005년 4월~2009년 3월)
- 10~11대 회장: 김진돈(2009년 4월~2013년 3월)
- 12~13대 회장: 최균희(2013년 4월~2017년 3월)
- 14~15대 회장: 김현신(2017년 4월~2021년 3월)
- 16~17대 회장: 이원우(2021년 4월~2025년 2월)
- 18대 회장: 전세중 (2025년 3월~현재)

- 2024.11.07 제1회 송파문학상(수상자 시부문: 안서경, 소설부문: 민금애)
- 2025.02.27 송파문인협회 정기총회 및 제18대 회장 전세중 선출, 72명 참석(전세중 · 최돈애 경선, 송파문화원)
- 2025.03.26~4.14. 석촌호수 서호 벚꽃축제 송파문인협회 시화전 58점, 3주간 전시, 시화전 도록 발간(70쪽)
- 2025.04.22 송파문인협회 제17대 이원우, 제18대 전세중 회장이·취임식, 68명 참석(송파문화원)
- 2025.05.19 서울 구민신문에서 송파문인협회 회원 작품 월요일마다 주1회 게재(1461호)
- 2025.06.14 송파문인협회 회장 전세중 외 14명 구리시 동구릉 문학 탐방
- 2025.07.25 2025 제31호 『송파문학』 원고 취합, 참여 회원 76명(시 59명, 수필 7명, 소설 10명)
- 2025.08.23 제17회 한성백일장 응모작품 180편(운문 113편, 산문 67편) 일반부 · 학생부 수상자 10명 선정
- 2025.09.12 송파문인협회 영월 문학기행(김삿갓문학관 · 관풍현 · 단종역사관 · 청령포) 41명
- 2025.09.19 제2회 송파문학상 발표(수상작 시부문: 이원우, 소설부문: 최균희)
- 2025.09.26~28 제25회 한성백제문화제 올림픽공원 부스 2개동 참여(저자 사인회·시창작 지도)
- 2025.10.14 송파문학 ISSN 3092-0264 등록, 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 ISSN 부여받음(발행처 : 송파문인협회)

회원 동정

신입회원: 박경임(1월 7일), 이상진(1월 25일), 한윤희(2월 18일),
김태환(2월 18일), 길기장(2월 18일), 남춘길(3월 28일),
최성준(9월 4일)

김다호 자문위원: 국무총리 표창장 (2025년 9월)

김사라 이사: 송파구청장 표창장(2025년 4월)

박호은 자문위원: 시예술아카데미상(2025년), 한국시인협회 총무간사(2025년)

서기향 자문위원: 제2회 성주문학상 공모 500만원 상금수상(성주재단 작품집
발간지원)

서영순 감사: 한국예총 송파지회 사무국장(2025년 9월), 송파구의회 의장상
(2025년 9월), 송파문화재단 이사(2025년 5월)

양순복 재무차장: 송파구청장 표창장(2025년 9월)

이명림 이사: 제32회 순수문학상 작가 대상(2024년 11월),
송파구청장 표창장(2025년 4월)

이상진 사무국장: 송파구청장 표창장(2025년 4월)

이원우 명예회장: 한국예총 송파지회 회장(2025년 9월), 송파구청장상(봉사상
2024년 8월) 송파구청장상(봉사상 대상 2024년 12월)

전세중 회장: 제18대 송파문인협회 회장 당선(2025년 2월),
(사)한국통일문인협회 부이사장(2025년 4월),
(사)한국예총 송파지회 부지회장(2025년 9월),
(재)송파문화재단 이사(2025년 10월)

최근희 고문: (사)한국여성문학인회 이사장 취임(2025년 2월),
(사)국제PEN한국본부 부이사장 취임(재임)(2025년 4월)

최돈애 부회장: 미당 서정주 문학상(2024년 11월)



새로 나온 작품집

김민정 자문위원 : 시조집 『들었다』 (2025.10)

김형식 자문위원 : 제8시집 『無我의 강』 (2025.8)

남춘길 회원 : 수필집 『숨겨진 행복』 (2025.5)

방정숙 회원 : 시집 『마음이 머무는 자리』 (2025.9)

배종선 시분과 이사 : 동시집 『제발 말 좀 해라』 (2024.11)

엄현주 회원 : 청소년 장편소설 『온화한 슬픔』 (2025.2)

이영숙 포럼 위원장 : 평론집 『야만의 시대기』 (2025.09)

이원우 명예회장 : 시집 『내 안에 피는 꽃』 (2025.2)

정명숙 감사 : 시집 『몽돌밭에서』 (2025.3)

최균희 고문 : 청소년 장편소설 『꿈이 영그는 교정 3권』 (2025.5)

최돈애 부회장 : 시집 『긍정의 삶』 (2024.11)



편집 후기

25년 올해,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회원들의 문학적 성과를 선보입니다.
그동안의 열정과 노력에서 풍기는 문학의 향기, 모두 한마음으로 함께 나누며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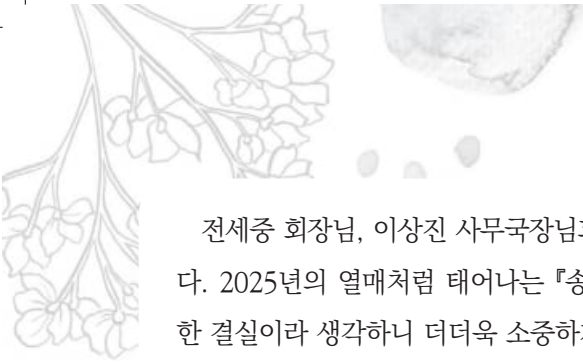
아름다운 계절에 아름다운 시를 응모 하여주신 작가님들 고마움을 느낍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발전된 작품을 보면서 마음이 흐뭇합니다. <서주문>

연초 약속했던 수필 7편을 약속대로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2024 박종화문학상을 수상하신 김호찬 선배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송파수필작가회에 큰 힘이 되고 있어 감사드리고 싶다. <강신영>


송파문인협회 회원들은 각 분야(시, 수필, 소설, 평론 등)에서 자신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읽는 송파’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 역시 ‘한성백제백일장’ 등의 글 쓰는 여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전문가 못지않게 달인으로 성장하고 계십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송파문인협회와 함께 손잡고 행복한 삶을 향해 씩씩하게, 때론 우아하게 걷기를 계속 부탁드립니다. <손경형>

처음 송문에 들어서서 이름도 얼굴도 못익혔는데 석촌호수 시화전을 준비할 때의 아득함, 그 아득함으로 시작한 ‘송파문학31호’도 어느덧 성년의 얼굴로 자라났습니다. 함께 해준 모든 송문 가족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상진>



전세중 회장님, 이상진 사무국장님과 더불어 올 한해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2025년의 열매처럼 태어나는 『송파문학』 제31호, 모든 회원님들과 함께 한 결실이라 생각하니 더더욱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양순복>



‘물 반 고기 반’이란 말이 있다. 고기가 『송파문학』에 글이 실린 이들을 은유한다고 가정하면, 좋은 글이야말로 물의 지분을 갖게 되지 않을까. 물의 생도 물고기의 생도 철철 넘치기를 꿈꾸는 또 한 해가 흘렀다. <이영숙>

석촌호수 시화전은 2025년 3월 6일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 시일이 촉박한 가운데서도 사무국과 회원님들의 도움으로 3월 25일부터 석촌호수에 58편을 전시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월 문학기행은 41명의 회원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부스 활동은 사무국의 먹거리 제공과 많은 회원님들의 저자 사인회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송파문학』 제31호 발간에 즈음하여 좋은 품질의 책을 만들고자 출판사 선정부터 회장으로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편집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제 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회원 76명(시 59명, 수필 7명, 소설 10명)이 옥고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송파문학』 제31호가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연속간행물 ISSN을 부여 받은 것은 잡지로서의 존재감을 찾았다는 데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역대 회장님과 회원님들이 이루어 온 송파문인협회를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송파 언덕에 문학의 꽃을 피워야 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중>

송파문학의 빛

♩ = 100

전세중 작사
전세중 작곡



5

1. 함 음 감 을 흠 러 흠 러는 반 다 - 못 가 - 들 - 임
2. 마 음 의 불 함 - 히 는 한 줄 - 기 속 - 착 - 임

9

송 파 문 학 의 빛 세 계 으 로 날 아 간 다
춤 - 의 문 학 은 의 빛 썩 어 세상 으 로 날 아 간 다

13

자 유 와 인 상 으 로 존 재 는 공 감 으 로
역 사 와 민 속 으 로 존 재 는 공 감 으 로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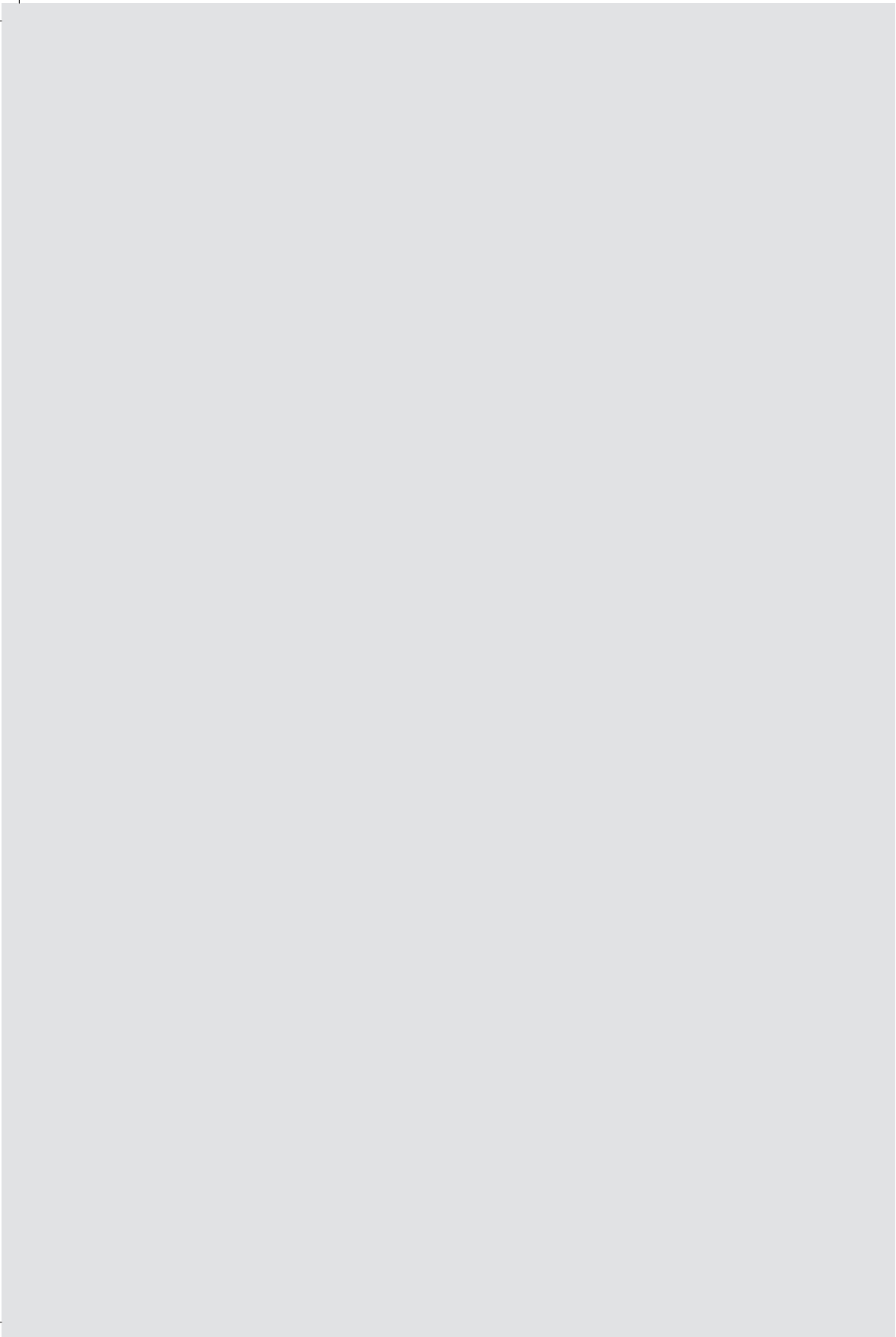
송 파 의 언 덕 에 예 술 의 꽃 이 피 우 네
한 파 성 의 언 덕 에 예 술 의 꽃 이 피 우 네

21

빛 나 라 꽃 피 어 라 예 술 의 창 조 정 - 신

25

나 가 자 송 파 문 학 세 계 속 에 빛 나 리 - 라



송파문학

2025년 제31호

발행일 2025년 10월 24일
인쇄일 2025년 10월 30일

발행인 전세중
편집인

편집위원 김 경, 서주문, 손경형, 이영숙, 강신영, 이상진, 양순복

발행처  송파문인협회

(05584)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42 (송파구민회관 2층 201호)
전화 02-414-3512, 팩스 02-414-1062
<https://cafe.daum.net/songpaper/>
E-mail songpa1992@daum.net

제작처  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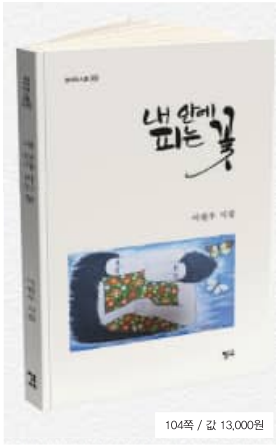
(05827)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1길 19(가락동)
전화 02-443-0211, 팩스 02-443-0212
E-mail mun2009@naver.com

© 송파문인협회

ISSN 3092-0264

비매품





이원우 시집 | 청어 펴냄

내 안에 피는 꽃

시인 이원우는 키가 커서 인성이 더 여유로워 보인다. 그는 여느 시인들처럼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하여 그걸 인정받으려 애를 태우거나, 시재詩才를 뽐내는 시집을 다루어 출판하려 하지 않는다. 이순을 지나 시집을 내는 것이 그렇다. 그의 고향 기질을 닮았다. 그러나 그의 시는 세월을 발발발발 밟아온 연치가 삶의 이치를 꿰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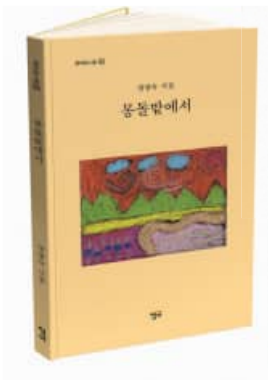
이원우의 시에는 연어와 같은 귀향 본능이 독자의 가독력을 자극하려 든다. 왜 그럴까.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엄숙하고 아름답다. 모든 생명은 자식이 받은 부모의 은공을 자식에게 갚는 것이 불변의 이치이기 때문일 것이다.

— 오양호(吳養鎬) 문학평론가



이원우

- 1960년 충남 태안 출생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졸업, 서일대학교 초빙교수(전)
- 송파문인협회 회장(16~17대),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송파구지회 회장
- 송파문화재단 비상임 이사, 송파문화원 이사
- 송파구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글마루도서관 운영위원, 『한글문학』 주간·편집인
- 시집 『봉숭아』 『내 안에 피는 꽃』, 저서 『선거전술전략』, 논문 〈한국선거에서 인터넷이 미친 영향〉



정명숙 시집 | 청어 펴냄

몽돌밭에서

어제, 오늘도
나의 언어는 몽돌에
부서지는 파도가 된다.
몽돌 속으로 푸른 바다가 출렁이어
언제부터인가 바닷바람으로 휘둘러가
개가 되고 달이 된다.

어제, 오늘도
나의 언어는 몽돌에
부서지는 파도가 된다.
몽돌 속으로 푸른 바다가 출렁이어
언제부터인가 바닷바람으로 휘둘러가
해가 되고 달이 된다.

— 「몽돌밭에서」 전문



정명숙

- 문화정보학 박사, 사단법인 한글문인협회 이사장, 한글문학 발행인
- 저서: 시집 『바람의 말씨』, 『몽돌밭에서』, 1998. 『바람을 세워놓고』, 2011. 『별과 꽃과 그리움』 4인 시선집
- 수상: 국회의장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 수상



상공에서 바라본 석촌호수 전경입니다. 사진 속 호수는 호수의 서쪽에 위치한 서호로, 호수 둘레를 벚꽃이 아름답게 감싸고 있습니다. 동호와 서호로 나누어진 석촌호수와 롯데타워는 송파구의 자랑거리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촌호수 사진 김승래 작가)



서울 석촌동 고분군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43호로, 백제 초기 적석총(돌무지무덤)으로 초기 백제의 문화와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사진 속 3호분은 가로 50.8m, 세로 48.4m의 규모로, 크기와 시기로 보아 4세기 후반 백제 근초고왕의 무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석촌고분 사진 전세중 회장)